

NO. 90 한국어판

ISSN 1346-0382

제63회 SGRA 포럼

제4회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탄생: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제 63 회 SGRA 포럼

제4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 포럼의 취지와 경위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7월, 제49회 SGRA (세키구지 글로벌 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의 공유공간'혹은 '知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년 9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제1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대화가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 (동경대학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 (복단대학 교수),조광 교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세 나라의 여러 '국사'연구에서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2회 대화에서는 자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고침략과 13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년 8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명의 국사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행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행해졌다. 이 회의에서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개개의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주었다.

제3회 대화에서는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년 8월, 한국·일본·중국에서 9명의 국사연구자가 서울에서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조선침공과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의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3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와세다대학이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제4회 대화에서는 근현대로 무대를 옮겨,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을 테마로 선정했다. 19세기 이전의 동아시아는 지역 내 각 나라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지 않아,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 국가들이 글로벌화의 움직임을 북태평양까지 가지고 오자, 한·중·일은 정치·경제·통신, 모든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상상력이 만들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국내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대화를 시도했다.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준비했다.

본 원탁회의는 2016년부터 매년 1회,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다. 남은 2회는 근현대사를 테마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3개 국어로 만들어진 레포트 발간 및 배포, 연속에세이 매거진 발간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 메일 매거진 백넘버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okushinewsletter.tumblr.com/

SGRA는

SGRA(세그라)는 세계 각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오랜 유학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 외국인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개인이나 조직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나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연구 또는 문제해결의 제안을 하고 그 성과를 포럼, 레포트, 홈페이지 등의 방식으로 널리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연구 테마별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가 연구팀을 편성하고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시켜 다면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연구를 수행합니다. SGRA는 어떤 일정한 전문가가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aisf. or.jp/sgra/)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에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일시 | 2020 년1 월 8 일 (수)~12 일 (일)

필리핀대학 로스바뇨스캠퍼스

장 소

공동 주최

SGRA 29 REPORT

제4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과학연구비신영역연구 '화해학의 창성', 와세다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연구소,

필리핀 알라방시 벨레뷰 호텔, 필리핀 대학 로스 바뇨스 캠퍼스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제1세션	개호 [사회: 류 지에(劉傑, 와세다대학)]	
【개회 인사】	제 4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인사말	5
	조 광(趙珖, 국사편찬위원회)	
[환영 인사]	19 세기의 필리핀 —마닐라 갤리언 무역을 중심으로—	7
	마끼또·F(필리핀대학 로스바뇨스교)	
【기조 강연】	'아시아'의 발명 —19 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11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코멘트】	기조 강연을 듣고 나서1	19
	쏭 쯔용(宋志勇, 남개대학)	
【코멘트】	기조 강연을 듣고 나서2	20
	박 한민(朴 漢珉, 동국대학교)	
'		
제2세션	서양 인식 [사회: 류 지에(劉傑, 와세다대학)]	
【발표 논문1】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법'의 수용 —일본의 경우—	22
	오쿠보 다케하루(大久保健晴, 게이오의숙대학)	
【발표 논문2】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과 한계 —1880년대 초반 조선의 문호개방정책을 중심으로—	35
	한 승훈(韓承勳, 고려대학교)	

【발표 논문3】	마등경영(魔灯鏡影) 18~20세기 중국의 매직랜턴 상영과 제작, 그리고 전파	44
	· 선 칭(孫 靑, 복단대학)	
【질의 응답】	제2세션 발표 논문에 대한 코멘트 및 토론	59
제3세션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사회: 무라 가즈아키(村和明, 도쿄대학)]	
【발표 논문4】	18·19세기 女性天皇·女系天皇論	72
	오카와 마코토(大川真, 주오대학)	
【발표 논문5】	일본민법의 형성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적용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중심으로—	84
	남 기현(南基玄, 성균관대학교)	
【발표 논문6】	전통과 제도 개혁 —19세기 후반기 중국의 양무운동—	94
	꾸어 웨이똥(郭衛東, 북경대학)	
【질의 응답】	제3세션 발표 논문에 대한 코멘트 및 토론	105
ı		
제4세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사회: 평 하오(彭浩, 오사카시립대학)]	
【발표 논문7】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영어신문·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	113
	시오데 히로유키(塩出浩之, 교토대학)	
【발표 논문8】	金玉均의 일본 亡命에 대한 日本社會의 인식과 대응	124
	한 성민(韓成敏, 대전대학교)	
【발표 논문9】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 프레임에 관한 재고	133
	친 팡(秦方, 수도사범대학)	
【질의 응답】	제4세션 발표 논문에 대한 코멘트 및 토론	142
제5세션	전체 토론 [사회: 리 언민(李恩民, 오비린대학)] 초대 토론자: 아오야마 하루토시(青山 治世, 아세아대학), 히라야마 노보루(平山昇, 규슈산업대학), 박 한민(朴漢珉, 동국대학교), 쑨 웨이궈(孫衛国, 남개대학)	149
제6세션	자유 토론 [사회: 남 기정 (南基正, 서울대학교)] 총괄: 미타니 히로시(三谷 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166
I	맺으며 1-6 아카시 야스시(明石 康) 192, 김 경태(金 岡泰) 194, 오카와 마코토(大川 真) 200,	

아카시 야스시(明石 康) 192, 김 경태(金 圀泰) 194, 오카와 마코토(大川 真) 200, 남 기정(南 基正) 202, 꾸어 웨이똥(郭 衛東) 205, 박 한민(朴 漢珉) 208

저자 약력 212 참가자 리스트 215

제4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인사말

조 광 (趙珖, 국사편찬위원회)

※대독: 김 경태

먼저 '동아시아의 탄생 ;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제4회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의 개최를 축하한다. 더욱이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이곳 필리핀은 19세기 국제질서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지역의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한테 모여 동아시아의 근현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당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원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 지역의 공통된 사조였던 내셔널리즘에 관한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아시아 지역은 19세기 내셔널리즘의 영향 아래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국사'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19세기 유럽의 내셔널리즘은 인종주의적 특성 및 금융자본주의와 결합하여 강력한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이 시기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내셔널리즘은 침략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서 그 성격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게 마련이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은 그 네셔널리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세 나라는 국사(national history)라는 단어의 개념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국사라는 용어 안에는 자국 역사에 자부심이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자국과 타국 간에 전개되는 침략이나 저항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어났다. 국사가 형성되어 나가던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이 시기는 사회진화론이나 지리결정론과 같이 자연과학의 영향이 역사학의 해석과 서술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국사를 서술하려는 사람들은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성

에 주목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들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그리고 육교적 위치 등과 같이 그 지리적 특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19세기의 산물인 결정론의 영향 아래 각국의 지리라는 요소를 역사를 결정하는 동력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정학이란 단어는 1899년에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겔렌(R. Kjellén, 1864~1922)이 새롭게 창안한 단어였다. 그는 당시 발흥하던 지리결정론의 영향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이 단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래서 지정학이란 단어 자체는 제국주의적 침략 세력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동아시아에 전래된 시기는 20세기 초로서, 각국에서 '국사'들이 발흥하던 때였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사용되던 지정학이란 용어도 제국주의적 세력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던 단어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의 학계에서는 19세기적 용어를 차용하여 역사를 서술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서술에서는 더 이상 국수주의적 해석이나, 인종주의적 해석 또는 지리결정론이나 경제결정론과 같은 이론들은 발붙일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를 감안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도 새로운 각도에서 자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바는 역사의 민주화현상이다.

원래, 유럽의 내셔널리즘은 민주주의와 동시에 일어나 전개되어 나가며, 동일한 역사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국사들도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적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과거의 사건들을 성찰할때, '국사의 민주화'도 가능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국사의 민주화'를 통해서 동아시아는 지나간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 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국사와 국사들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진전되어, 자신들의 자부심인 국사를 자신만의 전유물이 아닌 동아시아의 공유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사들과의 역사적 대화는 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발전에 기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다행히 제4회까지 계속된 이 원탁회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 나라에서 여러 젊은 연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해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국사와 국사들과의 대화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다리는 단절된 두 지역을 하나로 엮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은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교문화의 전통 안에서도 중요한 공덕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국사들과의 대화도 단절된 두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이어주어서 동아시아인의 상호 이해와 공동발전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국사들의 대화는 새로운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회의 성공을 거듭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환영인사



19세기의 필리핀 —마닐라 갤리언 무역을 중심으로—

마까 또 · F(필리핀대학 로스바뇨스교)

[번역: 조 수일]

오늘은 '일본·중국·한국의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이라는 도전적인 원탁회의를 필리핀에서 개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서투르지만 일본어로 여러분들께 환영의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는 필리핀대학 로스바뇨스교의 마끼 또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도쿄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쓰고 있을 때, 아쓰미 재단의 신세를 졌습니다. 그 인연으로 제5회 아시아미래회의를 필리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분야는 역사가 아닌 경제학입니다만, 모처럼의 기회이니 19세기까지의 필리핀 갤리언무역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의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스터디 투어 중에 '마닐라 투어 1'을 신청하신 분은 갤리언 박물관에 들르실 겁니다. 이 박물관은 중화계 재벌인 타이판(大班), 헨리 시 (Henry Sy) 씨의 재벌이 개발한 '몰 오브 아시아' 내부에 위치하며 2017년에 소프트오픈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실물 크기의 갤리언선(船)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는 마닐라 갤리언 무역에 대하여 각양각색의 역사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닐라 갤리언 무역은 마닐라항을 출항한 갤리언선이 일이 년에 걸쳐 태평양을 건너, 현재의 멕시코 아카풀코까지 이동하였고, 다시 마닐라에 돌아왔습니다. 항로를 발견한 1565년부터 멕시코 독립 직전의 1815년까지의 250년간총110척의 선박이 왕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래를 시작한 초기에는 마닐라와 아카풀코에서 매년 각기 3척 이상의 선박이 출항을 하였는데, 포르투갈의 항의로 제정된 1593년의 법률에 의해 양 항구에서 연간 2척만 출항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큰 선박을 건조해야 했습니다. 갤리언선은 평균 1,700톤에서 2,000톤으로 필리핀의 목재로 건조되었고, 1,000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필리핀에서 건조되었고, 멕시코에서 건조된 것은 8척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당시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시대에 있어서 세계의 경계를 확대하는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스페인이 파견한 마젤란과 엘카노에 의해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구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젤란의 원정은 5척의 선박과 270명의 승조원으로 구성된 선단으로, 1519년 9월 20일에 스페인을 출항하여, 남하하면서 대서양을 횡단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을 발견하였을 때, 선단장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저와 같은이름의 포르투갈인)을 칭송하기 위하여 그 중요한 항로를 마젤란 해협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거기서 태평양을 횡단하였고, 필리핀의 역사가인 레나트 콘스티탄티노 씨에 의하면 1521년 3월 16일에 "필리핀의 재발견(re-discovery)"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필리핀의 재발견"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슬람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이슬람교는 확대 방침을 취하여 9세기 초에는 당시의 스페인 대부분을 침략하였습니다. 11세기가 되면 그리스도교 나라들이 십자군을 결성하여 영토를 되찾으려 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3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세력을 되찾고 있었으나, 이슬람의 교리는 동쪽으로 확대되어 인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15세기가 되면 그리스도교는 스페인을 되찾지만, 이슬람교는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달하였을 때 필리핀 내에서도 인도네시아에 가까운 민다나오 섬은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의 역사 선생님께서는 1521년에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세부 섬에 온 스페인 탐험선단이 "십자가를 세워 남쪽에서 온 이슬람의 파도를 멈췄다"고 묘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필리핀인 대다수가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민다나오 섬에서는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대 이슬람교의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푸라푸가 관장하는 막탄 섬 종족과의 싸움에서 마젤란이 전사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스페인으로 돌아간 마지막 한 척은 엘카노 선장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스페인을 출항한 지 약 2년 후인 1522년 9월 6일에 출발했을 때 겨우6%의 승조원을 태웠고, 5척 중 유일하게 남은 빅토리아호가 스페인의 항구로돌아왔습니다.

첫 스페인의 본거지는 세부 섬에 있었는데, 아시아 각지로부터의 선박이 별로 기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부 섬에 무역을 위해 찾아오는 것은 주로 마닐라에서 오는 선박이었습니다. 마닐라항에는 아시아 근방으로부터 선박이 기항하였고, 거기에서 내린 물건들 중 일부가 필리핀의 많은 섬들로운반되었습니다. 스페인에게 재발견되기 전부터 마닐라는 이미 중계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본거지가 세부 섬에서 마닐라로 옮겨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닐라 시내에는 스페인 시대에 세워진 인트라무로스 (벽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스페인 식민지의 다음 문제는 마닐라에서 모은 물건들을 어떤 방법으로 스페인까지 운반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젤란이 태평양 해로를 역방 향인 동쪽 방향으로 항해하여도 동풍이 세기 때문에 당시의 선박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실패 후 일본 방향으로 흐르는 쿠로시오를 타고 북상하여, 일본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까스로 찾아냈고, 1565년에 마닐라 아카풀코의 갤리언 무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필리핀은 당시 글로벌 경제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중상주의 (머컨틸리즘)의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중상주의대로 갤리언 무역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크게 개입하는 보호주의 하에 실시되었습니다.

마닐라항을 출발한 갤리언선은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도자기, 상아, 칠기, 견제품을 멕시코로 운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산 견직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카풀코행 선박은 '견선(絹船)'이라 불렸습니다. 아카풀코에 도착한 짐들은 육로로 멕시코를 횡단하여 카리브해에 면한 항구 베라크루스까지 옮겨졌고, 거기서 스페인 국왕의 인디어스함대에 선적되어 스페인으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아카풀코를 경유하여 온 갤리언선의 화물은 동아시아에서 통화로도 쓰이고 있던 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은이 귀중하였기 때문에 '차익을 노린 상거래 (arbitrage)'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마닐라의 은의 가격차로 인해 갤리언 무역은 100%에서 300%까지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필리핀 국내의 경제개발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설령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갤리언 무역을 넘어설 수 없는 낮은 이익밖에 약속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그 덕분이라 할까요, 국내 자원이 무역의 대상이 되는 일이 그다지 없었고, 남아메리카에서 실시되었던 아시엔다 (대토지소유) 제도가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갤리언 무역은 181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영향력이 침체되자 다른 열강들도 태평양무역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갤리언 무역은 과격한 경쟁 때문에 쇠퇴하여 갔습니다.

1819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된 싱가폴은 마닐라와 같은 중계무역형 발전모델로 개발되어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허브로서 마닐라 갤리언 무역을 이어받았습니다. 1860년에는 홍콩 또한 중계무역형 발전모델로 진입하였습니다.

어째서 마닐라 갤리언 무역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싱가폴과 홍콩 수준의 세계무역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를 지적할 수 있는데, 경제역사학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설이 있습니다. MIT의 아세모글루 교수 그룹이 제창하는 '운명의 역전'설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식민지화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역출(易出)의 식민지화' (colonization of extraction)와 '취락의 식민지화' (colonization of settlement)입니다.

전자는 식민지화 당초의 인구밀도가 높고, 배타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지만, 후자는 인구밀도가 낮고, 포괄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닐라 갤리언 무역은 어느 쪽이냐 하면 전자에 해당하고, 마닐라 갤리언

무역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사회의 권력자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보호에 의한 독점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이러한 보호주의의 구조는 영국이 취한 자유주의 구조와 정반대였습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은 글로벌 경제를 앞장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취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재산권이 굳게 지켜지고, 기업가가 우대를 받으며, 엘리트의 과한 힘이 제한되도록 포괄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운명의 역전'설에 의하면, '역출의 식민지화'는 비교적으로 유복한 곳(=인구밀도가 높음)으로, 그 사회의 부를 추출하기 위해 배타적인 구조가 구축되기 때문에 수 세기 후에 그 사회의 발전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한편 '취락의 식민지화'는 비교적 가난한 곳(=인구밀도가 낮음)으로, 포괄적인 구조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미진한 설명에 그치지만, 마닐라 갤리언 무역의 쇠퇴와 현 필리핀 경제의 현 상이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19세기까지의 필리핀 역사를 소개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



'아시아'의 발명 —19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번역: 민 동엽]

발표 요지

19세기는 오늘날 '동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유럽이 주도하는 글로벌화의 파도에 휩쓸려 이를 계기로 상호간의 관계를 재조직한 시대였다. '아시아'라는 말은 원래 유럽인이 그들의 거주지역 동쪽에 펼쳐진 넓고아득한 공간을 가르켜서 썼던 말이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실속있는 지역개념으로 변했는가를 스케치하려고 한다. 외부와의 차별을 강조하고 더불어 어떤 공통성이나 내부관련, 나아가 연대성을 가르키는 말로써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해서 이번 회의의 테마들, 즉 서양 지(知)의 영향, 내셔널리즘 그리고 국경을 넘는 이동을 생각하기 위한 소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아시아' 는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되었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범위는 굉장히 애매하다. 오늘날 일본인에게 있어서 아마도 '아시아' 는 일본으로부터 시작해 중국을 지나 어딘가까지 확대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일 것이다. 거기에는 아마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서양에서 말하는 '중동' 이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인에게 있어서 시베리아가 '아시아'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다. 역으로 시점을지구 반대편, 즉 서유럽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흔히 보스포루스 해협이 언급되지만, 터키 중간에 선을 긋는 것이 타당할까. 또, 러시아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하나의 대륙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분할하는 것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한편, 중국에서는 종종 자신을 '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가 표명되기도 한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두면 그 외부는 모두 등가(等価) 존재가 되고 그러면 지구를 리전 (region)으로 분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에서 '아시아' 라는 이름을 붙이는 조직도 자주 보인다. 북미 연구자

들이 조직하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라든지, 아시아에 산다고 자인(自認)하는 운동선수들이 조직하는 '아시아 대회'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어디가 '아시아'에 속하고, 어디가 속하지 않는가는 항상 애매하고 그 외부와의 경계는 화자의 관심, 청중의 여하,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라는 입각지점에 따라 자주변화한다.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아시아'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리전'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를 개관(概觀)한다. 요지를 먼저 제시해 두자면, 그것은 1880년 무렵 일본에서 발명되었다. '아시아'는 원래 유럽인이 그들의 거주지역 동쪽에 펼쳐지는 넓고 아득한 공간을 지시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였다. 이하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실속있는 지역개념, 즉 외부와의 차별을 강조하고 또어떠한 공통성 혹은 내부연관, 나아가서 연대성을 지시하는 단어로써 쓰이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스케치 해나갈 것이다!.

1. 동아시아 세계의 '아시아' 개념의 도입

유럽의 영향이 세계를 석권한 '근대' 이전에는 지구상에는 적어도 네 개의 '세계'가 있었다. 중국적인 세계, 인도 세계, 이슬람 세계, 기독교 세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절은 후대의 관찰자에 의한 것인데, 각각 내부에서 전근대를 살아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보고, 그 외부 세계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시아'라는 말도 이러한 세계관의 일종이다. 중세후기 유럽의 기독교 교도들은 지구세계를 유럽·아시아·아프리카의 세 지역으로 분활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아시아'는 유럽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그 외' 토지 중에 동쪽에 있는 부분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그것이 지시하는 지역에는 유럽과는 다른, 공유된 종교나특징이 없고 내부의 연관도 빈약했다. 여기에는 대소 여러 국가들이 있얼을 뿐 아니라, 적어도 다섯 가지의 세계 종교가 있었다.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였다. 이렇듯 '아시아'라는 말은 원래 거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었다.

이 말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도입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利瑪竇)가 1602년에 북경에서 세계지도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를 간행했을 때였다. 그는 '아시아(亜細亜)' 라는 문자를 북시베리아에서 말레이반도에 걸쳐서 사용했지만, 그 설명은 지리적 범위의 주역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일본인은 이 세계지도를 들여왔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아시아'라는 지리명칭을 자신들의 저작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세계지리서를 저술할때, '아시아'라는 이름의 장을 두었지만 거기에서는 각 나라의 지지(地誌)를 열거하는 데에 그쳤다². 중국에서도 같은 사정이지 않았을까 한다.

당시 유럽인은 동방 지역에 대해서 다른 명칭도 병용하고 있었다. '오리엔트',

¹ 본고의 논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三谷博「「アジア」リージョンの発明――地理学から地政学へ」,同『日本史のなかの「普遍」: 比較から考える「明治維新」』東京大学出版会、2020년. 이하 주에서는 이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헌을 인용.

² 新井白石『釆覧異言』18세기 초.

'인도' 그리고 '타타르'이다. 그 중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땅'이라는 의미로서고대 로마인이 '옥시덴트', 즉 '해가 지는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와 같이 내용이 빈곤한 이름이었다. 이에 반해 다른 두 개는 좀더 내용이 깊은 것이었다. '인도'는 대부분 주민들이 성서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 '인도'는 동서로 나뉘었다.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서 스페인과 포루투갈은 지구를 이분(二分)하여 '동인도'와 '서인도'라고 부르며 둘 다 기독교인이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했다. 그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구미의 여러 나라들은 '동인도 회사'나 '동인도 함대' 등, '동인도' 라는 명칭을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사용했다.

한편, 타타르(韃靼)는 유럽인에게 있어서 예전의 몽골의 정복을 상기시키는 무서운 이름이었다. 유럽인은 만주족의 청나라에 '타타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야만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다³.

중국인과 일본인은 '동인도'라는 서양의 지리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전부터 '인도' (天竺)를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고 불교가 태어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를 그 일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타르'에 대해서는다른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청나라는 이것을 종족이라고 파악해 스스로를 '타타르'의 일원으로 생각했는데, 인구의 다수인 한족은 스스로를 북방의 만족(蛮族)과는 차별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스스로를 '타타르'의 일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리명으로서는 중국 본부북쪽에 위치하고 몽골족이나 만주족, 그리고 그 외의 종족이 사는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과 일본인은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명으로서 '동인도(東印度)'나 '타타르(韃靼)'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내용이 희박한 '아시아(亜細亜)'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현재 '동양' 이라고 번역되고 '아시아' 와 거의 동일시되는 '오리엔트'에 대해서는 복잡한 역사가 있다.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에는 '동양' 이라는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오리엔트'가 아니라 전통적인 중국에서의 용법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 근처 바다에 '소동양(小東洋)', 멕시코 근처 바다에 '대동양 (大東洋)'이 있다. 같은 식으로 페르시아 남쪽에 '소서양(小西洋)', 포루트갈 근처 바다에 '대서양(大西洋)'의 문자가 보인다. 그의 세계지도에서 '동양'은 글자 그대로 '동쪽에 있는 대양(大洋)'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양' 이 '옥시덴트' 의 번역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리치의 선교사 후배인 줄리오 알레니(艾儒略)는 리치의 지도에 대한 지지(地誌)의 주역서『직방외기(職方外記)』(1623년 간행)에서 '서양'을 해양으로서가 아니라 '서방' 혹은 '옥시덴트'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 책에는 그 짝인 '동양'은 없다.

일본인도 이 용법을 받아들였다. 18세기 초기 유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쇼군(将軍)으로부터 일본에 잠입한 선교사의 심문을 명령받아 그 양상을 쓴 책에 『서양기문(西洋紀聞)』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 책에도 역시 '오

³ 馮明珠編『経緯天下』国立故宮博物院,民国94년(2005년).

리엔트'의 번역으로서 '동양'은 없다. 이러한 용법은 1802년에 야무무라 사이스 케(山村才助)가 아라이의 저서에 대해 풍부한 난학(蘭学)지식에 기초해서 증보 (增補)한 『정정증역 채람이언(訂正增訳 采覧異言)』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의 등장 이래, 100년 가까이 이러한 불균등한 용법이 계속 사용되었던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중국에서도 같았을까.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주민은 유럽인이 만들어 낸 각종의 지역명칭 중에 17세기 이후 내용이 부족한 '아시아'와 '서양'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리엔트'에 대응하는 말은 중국에서 '서양'이 등장한 후에도 200년 가까이 출현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19세기 중엽까지 '아시아'라는 지역명칭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2. '아시아' 개념의 실질화: 지정학적 용법으로의 전환

원래 공허했던 '아시아' 는 1880년, 류큐(琉球)를 둘러싼 중일간의 위기 속에서 일본인에 의해 서양에 대한 공통이해를 갖는 지역이라는 말로 재발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메이지유신 직후에 일어났다. 1870년대 초기 일본에서는 신문이간행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무역정보와 함께 국제관계에 관한 기사도 게제되기시작했다. 이를 통해 일본인은 서양의 세계제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웃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서양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국이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긴 국경선 전역에서 터키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영토 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의 원천은 상해나 요코하마 등 개항지에서 간행되었던 영국신문이었다. 영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그레이트 게임'을 전개하고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신문을 통해, 아시아 주민이 공통적으로 서양의 압박으로 인해 괴로 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초에는 자신들의 고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극복수단을 자신들의 서양화(化)에 구했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에는 서양의 침략을 막고 그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 연대를 주장하는 입장도 나타났다. 이 것은 일본이 류큐를 병합한 직후인 1880년에 나타났다. 류큐병합은 일본과 중국사이에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낳았고, 그로인해 쌍방에게 전쟁회피의 노력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양국은 류큐에서 조선으로 관심을 옮기게 되었고, 러시아를 공통의 잠재적인 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던 것이다.

류큐에서는 14세기에 통일왕조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당초부터 명나라와 조 공·책봉관계를 맺고 있었다⁴. 그리고 17세기 초기에는 일본의 다이묘(大名)인 사쓰마(薩摩) 시마즈가(島津家)의 침공을 받아 그 지배하에 놓였다. 그 결과, 수

⁴ 高良倉吉『琉球王国』岩波書店, 1993 년, 赤嶺守『琉球王国:東アジアのコーナーストーン』講談社, 2004년, 村井章介・三谷博編『琉球からみた世界史』山川出版社, 2011 년.

리(首里)의 류큐정부는 중국의 명·청왕조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하(那覇)에 체류하는 사쓰마 관리의 철주(掣肘)도 받는 이른바 '이중조공체제' 안에서 살게된 것이다⁵. 그러나 유신으로 세워진 일본정부는 다이묘국가를 폐지하여 중앙집권국가를 만든 후, 류큐도 역시 서양 국제법의 '주권' 원칙에 준거해서 배타적인 영토로 바꾸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청나라는 '오랑캐(夷狄)'에 의한 '번속(藩属)' 국의 병합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이이를 무시하고 1879년 류큐를 병합해서 '오키나와현'으로 바꿨다. 청나라는 강하게 항의를 반복했고 중국신문에는 전쟁을 주장하는 입장도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양국은 전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일본은 서남내란(西南内乱)이 수습된지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었고 정부재정도 부채와 세금수입 저하로고생을 겪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신장(新疆)에서 발생한 야쿱벡의 독립운동은 진압되었지만 이리(伊犁)에서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청나라 내부에는 보다중요한 조공국이었던 조선을 잃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은 류큐를 둘러싸고 발생한 적의를 완화하고 어떻게든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 방법은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민간레벨에서는 양국의 신문 이 러시아를 공통의 가상적(仮想敵)으로 보고 '백인'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동 문동종(同文同種)' 을 기초로 해서 양국국민이 단결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동경 에서는 1880년에 소네 토시토라(曽根俊虎)가 '흥아회(興亜会)' 를 설립하고 한중 일 삼국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과 교역을 추진할 것을 제창하면서 한문으로 된 잡 지를 발행했으며 상해에 학교를 설립했다. 이른바 '아시아주의', 서양에 대한 대항 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연대 주장과 운동이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⁶. 한편 정부레벨에서는 류큐문제를 보류하고 조선으로 초점을 옮겨서 거기에서 협력체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러시아를 공통의 가상적으로 보고 러시 아의 조선진출을 막기 위해. 조선에 '자강' 을 권하고 이를 청나라가 지도하고 일 본이 지지하겠다는 아이디어였다. 1880년, 재동경청국공사관의 황쭌씨엔(黄遵 憲)은 허루장(何如璋) 공사의 지지를 받아 『조선책략』을 저술했는데 때마침 일 본에 와 있던 수신사 김홍집에게 그것을 주었다?. 그 내용은 조선에게 '친중국(親 中国)' ' '결일본(結日本)' ' '연미국(聯美国)', 즉 '종주(宗主)' 인 중국과 종래 이 상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일본과 제휴하며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과의 외교관계를 맺자고 권하는 것이었다. 김홍집은 이것을 국왕에게 봉정했고, 고종은 이를 채용 해서 실행에 옮겼다. 1882년, 조선은 리홍장(李鴻章)의 중개로 미국과 조약을 맺 음으로써 세계정치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게 되었다. 일본 측은 이 움직임을 알지 못했지만 실은 이 아이디어는 원래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가 허루

장에게 제안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묵인했다.

⁵ 豊見山和行『琉球王国の外交と王権』吉川弘文館, 2004 년

⁶ 並木頼寿「明治初期の興亜論と曽根俊虎について」,同著『近現代の日中関係を問う』研文出版, 2012 년.

⁷ 平野健一郎「黄遵憲『朝鮮策略』異本校合-近代初頭東アジア国際政治における三つの文化の交錯について-」日本国際政治学会『国際政治』129호、2002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가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조미조약이 체결된해에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정부는 재한성주재관인 마젠중(馬建忠)의 조언을 받아들여 청나라에게 개입을 요청해서 이를 전복시켰다. 또 2년 뒤에는 조선의 급진개혁파가 일본공사의지원을 기대하면서 청나라에게 기대는 정부에 반대하여 구테타를 시도했지만 청나라군에 의해 진압됐다. 이때 일본 측은 공사가 습격당했으며 민간인 44명이 살해당했다. 그러나 삼국 정부는 분쟁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힘써서 조선은 일본에게 배상하고 청나라와 일본은 조약을 체결해 서로의 군대를 조선반도로부터 철수할 것을 정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에 의한 조선지배가 강화되었다. 특히 한성에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주재하게 되면서 조선정부는 이전에 '속국'이면서 '자주' 였던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⁹.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정책을 펼쳤다. 당시 일본은 군사력도 없었고 경제도 불황이었기때문에 단독으로 개입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외무성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러시아를 제외한 열강, 즉 영국, 미국, 청나라와 제휴하여 조선반도를 중립화함으로써 청나라와 러시아의 세력신장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조선불개입정책(朝鮮不介入政策)은 1894년 청일전쟁 때포기하게 된다. 일본은 군사력을 써서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세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힐 것을 선택한 것이다. 1890년 육군 창시자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県有朋) 수상은 내각 내에서 조선반도 중립화정책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그 후에 대외정책의 틀이 바뀌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전에 1880년 대에는 프랑스의 베트남 침공과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같은 서양 진출로 인한 소동이 있기는 했지만, 동북아시아 삼국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일본정부는 강병(強兵)정책이성공하기 전에는 온화한 정책을 취했고, 청나라도 이웃나라와의 대립을 피하면서실질적으로 조선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안정이기는하나 1880년 대의 동아시아 삼국은 서양의 동향을 의식하면서 국제관계 조정에힘써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3. 20세기에 대한 전망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등책을 포기했는데, 그 결과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할취(割取)하고 식민지제국으로 변화했다. 1873년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와 오오쿠보 도시미쓰(大久保利通)가 정한(征韓)론을 물리쳤던 것은 일본이 조선반도에 손을 댈 경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간섭을 막을

⁸ 岡本隆司『馬建忠の中国近代』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년.

⁹ Owen Nickerson Denny, China and Korea (Seoul, 1888). Denny was an American Adviser of Korea, 1886-1890. 岡本隆司校訂・訳注『ON.デニー「清韓論」』東北アジア文献研究会(横浜:成文社), 2010년. 일반적으로, 岡本隆司『属国と自主のあいだ 近代清韓関係と東アジアの命運』名古屋大学出版会, 2004년.

¹⁰ 三谷博・並木頼寿・月脚達彦編『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19世紀編』東京大学出版会, 2009 년.

만한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후로 약 20년이 지난 일본은 경제가 급성 장하면서 해외파병을 위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다져져 있었다. 경제환경의 변화가 외교정책을 수세(守勢)로부터 공세(攻勢)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한편 중일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제창되었던 아시아주의는 그 후에도 이류의지위에 멈춰 있었다. 청일전쟁 후에 중국 동북지방과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중국, 일본의 대립이 깊어지게 되자 일본과 중국에서는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하는 청일동맹론이 제창되었고 정치적으로 추구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후 일본은 서양열강과 호각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정책의 주류로 하여, 아시아 연대는 서양을 싫어하는 소수자의 주장에 머물렀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아시아' 단위의 정치적 사고는 넓게 퍼지지 않았다. 쑨원(孫文)은 예외적 존재였다. 그는 1924년에 고베에서 '대아시아 주의'를 주장했는데, 그 의도는 일본인의 제국주의 지향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인이 좋아하는 아시아 연대관(観)을 이용하는 것에 있었다.

그 후, 일본인이 상상하는 아시아는 서방으로까지 확대되어, 원래 서양인이 상정했던 아시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후, 중동의 무슬림이 일본의 이용・협력을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는데, 이들과 접촉한 산스크리트 연구자 오카와 슈메 (大川周明)는 그의 관심을 이슬람교에까지 확대시켜 『부흥기 아시아의제 문제』 (1922년) 등, 무슬림을 포함한 아시아 부흥을 주장하는 저서를 지었다. 다만, 그는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한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조선이나 중국 등 일본제국주의의 대상이었던 지역은 무시했다. 이러한 '아시아'의 서방확대에 따라 일본인이 원래 상상했던 '아시아'는 종종 '동아'라고 불리게되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다시 팽창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자신에게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이를 정당화했다. 만주국에서 '협화회'를 만들어 '오족협화'의 정점에 일본민족을 두었던 것이 그 처음인데, 구미제국을 상대로 세계전쟁을 시작한 후에 1943년에 동경에서 '대동아회의'를 연 것이 그 정점이었다. 여기에는 서양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가들이 모였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수바스 찬드라 보스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방문한 것은 소련과 나치스 독일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후였다. 서양 대신에 일본의 세력하에 들어가는 것은 보류하지만 영국의 적대세력은 무엇이든지 이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일본인은 아시아 대륙의 식민지로부터 철수했고, 국내에서는 미군 점령하에 다시 서양화에 의한 개혁이 정책의 주류가 되었다. 냉전으로 인해 동아시아가 분단되었던 것도 이러한 경향을 조장하게 되었다. 아시아주의는 후경으로 물러갔지만 미군 점령하의 강제적인 서양화로 인한 굴욕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다¹².

¹¹ 長崎暢子『インド独立 逆光の中のチャンドラ・ボース』朝日新聞社, 1989 년.

¹² 최근에 아시아 각지의 아시아주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서가 출판되었다. 금후의 연구는 이를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松浦正孝編『アジア主義は何を語るのか』ミネルヴァ書房, 2013년.

맺음말

오늘날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미 마찰도 이러한 미래 예상에 기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동아시아'는 20세기의 '일본의 세기'를 지나 다시금 19세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재현을 바라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 물론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유럽과 달리 국가들의 사이즈에는 큰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등한 질서가 만들어 질수 있을까. 20세기의 일본과 같이 중국은 맹주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인가.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 유럽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번 강연에서는 19세기의 변화, 즉 동아시아에서 리저널한 상상력이 탄생하고 일본이 전통적인 중화세계상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한 것을 개관하고, 나아가 20세기 전반에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한 경위에도 언급했다. 이번 참가자들이 다루는 테마는,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등인데, 직접적으로 이러한 파워밸런스나 질서의 전환에 대해 다루는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연결되는 국제질서의 전환과 같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식해 줬으면한다. 좋은 발표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타자의 발표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문제의식과의 관련에서 생각하고 또 논의에 참가해 줬으면한다. 이는 자기자신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국경 저편에 매우 소중한 학우를 발견하는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코멘트

기조 강연을 듣고 나서1

쏭 쯔융

(宋 志勇, 남개대학)



[번역: 홍 용일]

미타니 히로시 교수님의 「'아시아' 의 발명: 19세기 리전(region)의 생성」을 배독하고 많은 계발을 받았습니다. 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평론이라고 할 정도는아니지만, 이 논문을 읽은 후의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 아시아, 아시아인, 아시아주의, 아시아 사상 문화 등 개념은 더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의 근원을 탐구 하기란 결코 쉽지 않지요. 미타니 교수님이 언 급하셨다시피, 초기의 아시아란 용어는 유럽인 들이 제출한 하나의 지리학 개념에 불과했습니 다. 하지만 19세기에 이르러 무력과 무역을 앞 세운 서방의 힘이 아시아를 침식하며, 식민주의 자들은 아시아라는 지리학 개념에 또 다른 의 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서방과는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 고 서서히 아시아라는 개념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나날이 발전하여 가는 과정에 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아시아적인 특색을 갖춘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가게 되죠. 아시아의 연 대감, 아시아주의, 아시아 특색을 지닌 사상과 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근대적인 세계관이 과거 천 년 동안 아시아를 지배했던 화이사상(華夷 思想)을 대체하게 됩니다.

미타니 교수님은 이 논문에서 19세기의 아시

아 생성에 대해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여 년 동안의 복잡한 변천사도 동시에 언급하셨습 니다. 사실 우리의 근대적인 아시아 관념의 핵 심은 동아시아입니다. 다만, 동아시아의 근대 화 과정에서 중국, 일본, 조선은 상이한 노선을 취했으므로 그 결과는 물론 각자의 아시아관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시아주의 또한 국가 마다 제각각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으며, 이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근대 일본의 대외 침략과 확장은 줄곧 아시아 공동체라는 구호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아시아 미래를 전망하며 미타 니 교수님은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19세기 에 아시아가 구상화(具象化)된 이래. 이미 100 년이라는 역사가 흘렀습니다. 시대는 아시아에 새로운 함의를 부여했고, 아시아의 활력은 서방 의 흠모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아시 아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러한 아시아의 시대가 지역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공동발전하는 시대가 되길 기 대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국가들이 제로섬 사 고(零和思惟) 를 버리고 아시아의 공동발전과 진보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 럼 또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와 아시아 의 아름다운 미래 창조에 공헌할 수 있기를 진 심으로 축원합니다.

코멘트

기조 강연을 듣고 나서 2

박 한민

(朴 漢珉, 동국대학교)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의 아시아 발명과 관련 된 주제를 잘 들었습니다. 개념 출발에서 19세 기 20세기 동아시아 내에서 어떻게 아시아 개 념이 유통되었고 확장되어 갔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3국의 관계 속에서 잘 개관을 해 주셔 서 많은 시사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앞에서 기조 강연을 듣고 나서 쏭쯔융(宋志勇) 선생님께서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시아의 발명이라는 것 이 언뜻 생각했을 때는 동양이란 개념의 발명 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 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스테판 다나카(Stefan Tanaka) 같은 선생님이 연구를 하신 것이 있는 데, 미타니 선생님께서는 주로 아시아라는 것 이 19세기에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 고 있는가에 대해서 천착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사를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논 의를 해봤으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사 례를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시아, 혹은 아세아(亞細亞)의 한자 개 념과 같은 경우, 앞에 토론하신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국에서 유교나 불 교에서 언급하는 것들도 있고, 19세기에 들어 서 조선에서의 지리서(地理書)와 관련해서도

아세아라는 개념이 문헌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 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의 실 학자(實學者)로 잘 알려진 성호(星湖) 이익(李瀷) 이란 사람도 있고, 19세기 1830년대에서 40년 대에 들어서면 이규경(李圭景)이 있는데요. 이 러한 사람들의 세계지리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 면, 아세아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아세아가 지리 적으로 가운데에는 대청국이 있고 동쪽 끝에는 일본섬이 있고 서쪽으로는 홍해(紅海), 흑해(黑 海)까지 있고 남쪽으로는 여송(呂宋), 저희가 학술회의를 하고 있는 필리핀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북해 (北海)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 리적인 관념으로는 아시아가 이 정도까지는 지 리구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선 같은 경우에는 이 때 서술한 것들이 아까 미 타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중국에서의 마 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 輿萬國全圖)』에서 참고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조선에서도 소화해서 정리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 같은 경우 에는 1880년대 이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론 앞 시기이기는 합니 다만, 중국에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

圖志)』 같은 책이 조선에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만, 유길준 같은 사람들이 일본 게이오기쥬쿠 (慶應義塾)에서 유학을 하면서 일본에서 새롭 게 근대적으로 번역된 지리서, 예를 들어 우치 다 마사오(內田正雄)의 『여지지략(輿地誌略)』 같은 것들을 번역한 것을 보면, 아시아가 어디 에서 어디까지인지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가 근대 이후에 생각하는 아시아 개념과는 크 게 다르지 않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할 부 분들은 1870년대에서 80년대, 미타니 선생님께 서도 다루셨습니다만, 류큐(琉球)나 대만, 북쪽 으로는 러시아, 여러 군데에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본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체감하 는 것들이 조선과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까 다루셨던 흥아 회(興亞會)입니다. 거기에 친중국(親中國), 결 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이라는 것이 나 오는데, 결론은 러시아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요 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선 측 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1860년에 베이징조약(北京條約)을 체결하고 나서 러시아와 조선이 국경을 맞대게 되는데요. 그 때 조선은 러시아에 대해서 긴장하는, 즉 갈 등관계를 보이지는 않거든요. 흥아회를 통해서 아시아연대주의, 아시아연대론이 유입이 되었

다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에 공동으로 대항해야 한다라는 의식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사학계에서는 의문을 표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시기, 특히 러일전쟁 시기가 되면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구상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안중근(安重根)의 『동양평화론(東 洋平和論)』도 있습니다만, 일본에 망명했던 안경수(安駉壽)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의 일청한삼국동맹론(日淸韓三國同盟論), 거기 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동일한 불럭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 런 것들은 아시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에 대한 논의인데, 여기서 보면 일본 측이 주도 하느냐, 아니면 한국 측 혹은 중국 측이 주도하 느냐를 놓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읽을 수 있 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놓고 아시아의 발명, 이런 개념이 어떻게 유통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좀더 논의를 심 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논문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 법'의 수용 ―일본의 경우―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健晴, 게이오의숙대학)

[번역: 민동엽]

발표 요지

본 발표는 근대 여명기 동아시아에서 서양국제법이 어떻게 수용되었고. 또 새로운 국제질서창출을 위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 네덜 란드를 기점으로 일본에 전해진 학식(学識)과 중국을 경유해서 보급된 한역문 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적 원천에 초점을 맞춰 비교정치사상사의 시점으로 부터 해명하려고 한다.

19 세기 동아시아는 서양열강과 대치하고 조약교섭을 진행하면서 구래의 근 린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 관계성이 격동하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새로운 학술 지식으로서 널리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서양국제법 '만국공법' 이었다.

동아시아 세계에 체계적인 서양국제법 지식을 전한 최초의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恵頓著・丁韙良訳万国公法』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시기 에 같은 이름의 책이 존재했다. 도쿠가와정권 최초의 유럽유학생으로서 1863 년부터 2 년간에 걸쳐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니시 아마네(西周)와 쓰다 마미치 (津田真道)에 의한 유학의 성과, 『畢洒林氏説・西周助訳述万国公法』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 두 개의 『만국공법』의 비교검토를 통해 메이지초기 일본의 학자와 관료가 어떠한 논쟁을 전개했는 지, 또 그것이 메이지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근 대 일의의 서양 국제법과의 사상적 격투와 그로인한 아시아 세계로의 시선의 변용을 검토함으로써,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과 '동아시아'의 탄생을 둘러싼 전체 토의에 공헌하고자 한다.

[문제 제기]

1. 오오쿠보의 발표에서, 당시 시대상황에 비추어 (1) 니시 아마네 · 쓰다 마미치, (2)나카무라 마사나오. (3)후쿠자와 유키치 셋 중에서 과연 누구의 주장(정치 적 입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가.

- 2. 19세기부터 20세기의 아시아 제국(諸国)의 유럽 국제법의 수용은 각자의 나라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유럽 국제법은 아시아 근대에 무엇을 가 져왔는가.
- 3. 상기 1,2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아시에서 우리는 국제법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나카무라 마사나오가 지향한 것과 같은) 유학 등, 아시아의 사상적 전통을 기초로 한 국제법사상의 형성은 가능할까. 또는 애초 아시아 세계에 서 국제법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시작하며

본 보고에서는 근대여명기 동아시아에서 서양국제법이 어떻게 수용되었고, 또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위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었는가를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¹. 근세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중국왕조인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조공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명청(明清) 교대로 인해 동요했으나 19세기 중엽까지그 틀은 유지되었다. 한편, 일본은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17세기 중엽이후, 도쿠가와정권은 해금정책을 펼치고 나가사키 (長崎), 쓰시마번(対馬藩), 가고시마(사쓰마)번(鹿児島藩), 마쓰마에번(松前藩)을 통해 중국과 네덜란드, 조선, 류큐, 아이누와 교역하였다. 중국 왕조와의 종속관계는 성립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중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무역하는 통상관계만이존재했다. 조선과는 교린(交隣)관계에 있었지만, 이것도 양국간 개별적인 교류에 그쳤었다. 근세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었다².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세계와의 본격적인 접촉을 통해 종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세계인식은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1853년 페리가 이끄는 미국함대가 내항한 이후, 서양 제국(諸国)과 여러 조약을 체결하면서 사태는 일변했다. 이를 계기로 2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도쿠가와정권은 불과 14년 만에 와해되었고,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듯 서양열강과 대치하여 조약 교섭을 진행시키며 종래의 이웃 아시아 각국의 상호관계성이

¹ 이 논문은 大久保健晴『近代日本の政治構想とオランダ』(東京大学出版会、2011年)、同「近代日本の黎明とヨーロッパ国際法受容」(酒井哲哉編著『日本の外交 第3巻 外交思想』岩波書店, 2013년), OKUBO Takeharu, *The Quest for Civilization*, translated by David Noble, Brill, Boston & Leiden, 2013, Chapter 4, 의 연구성과에 기반함.

^{2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및 일본의 대외정책 변용에 대해서는, 浜下武志『朝貢システムと近代 アジア』(岩波書店, 1997년), 荒野泰典『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 1988년), 三谷博『明 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幕末外交と政治変動』(山川出版社, 2009년), 岡本隆司『属国と自主のあいだ―近代清韓関係と東アジアの命運』(名古屋大学出版会, 2004년), 佐藤誠三郎『「死の跳躍」を越えて―西洋の衝撃と日本』(都市出版株式会社, 1992년), 藤田覚『近世後期政治史と対外関係』(東京大学出版会, 2005년), 眞壁仁『徳川後期の学問と政治―昌平坂学問所儒者と幕末外交変容』(名古屋大学出版会, 2007년) 등을 참조.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술지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서양국제법 '만국공법' 이었다³.

동아시아 세계에 체계적인 서양국제법 지식을 가져온 선구적 서적으로 유명한 것은 재중국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Alexander Martin,丁韙良)이 미국의 법률가·외교관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한 역한『惠頓著, 丁韙良訳, 万国公法』(이하, 한역 휘튼『만국공법』)이다⁴. 이 서 적은 청나라 총리아문의 지원을 받아 북경에서 출판되었는데. 간행 직후인 1865 년에 일본에서도 에도개성소(江戸開成所)에서 번각(翻刻)이 나왔다.

종래의 많은 선행연구는 이 한역 휘튼 『만국공법』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 특히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와 오사타케 타케키(尾佐竹猛) 등의 고전적인 연 구는, 이 책의 자연법론을 둘러싼 한역에 "성법, 천법, 천리, 자연법 등의 글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의 만국공법이 유학의 '도(道)' 개념과 겹쳐져서 해석되었고, 보편적인 규범 "천지자연의 이법(理法)" 에 기초하 는 "천지의 공도(公道)" 로서 널리 이해되었다고 지적했다⁵.

그러나 도쿠가와정권 말기 일본에서는 한역 휘튼 『만국공법』 외에, 『만국공법』 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향을 주었던 또 하나의 서적이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학 교수 피세링(Simon Vissering)이 구술하고, 니시 아마네(西周)가 역술한 『畢洒 林(피세링)氏説, 西周助訳述, 万国公法』(이하, 『피세링씨 만국공법』)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에서는 17세기 초부터 네덜란드와 교역이 이루어졌고, 18세 기가 되어서는 네덜란드어를 통해 서양의 학술을 공부하는 난학(蘭学)이 발흥했 다. 니시 아마네가 번역한 『피세링씨 만국공법』도 이러한 난학의 두터운 학문적 전통 위에 성립한 것이다.

본 보고에서는 이와 같이 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의 두 개의 『만국공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막말 메이지(幕末明治) 초기 일본에서 어떠한 논쟁이 전개되 었는지, 또 그것이 메이지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밝 히고자 한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논의를 보충해 두고 싶다. 도쿠가와 정권이 서 양 제국과 체결한 여러 조약이 영사재판권의 규정이나 관세자유권의 상실 등의 비대칭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자주 지적된다. 그러나 무엇을 '불평등한

^{3 &#}x27;개국(開国)'을 둘러싼 중요한 정치사상사연구로서, 丸山眞男[開国](『丸山眞男集』제8권, 岩波書店, 1996년),宮村治雄『開国経験の思想史―兆民と時代精神』東京大学出版会,1996년,渡辺浩「思想問 題としての『開国』―日本の場合」(朴忠錫, 渡辺浩編『国家理念と対外認識 17-19世紀』慶應義塾 大学出版会, 2001 년), 同『日本政治思想史—17-19世紀』(東京大学出版会, 2010 년), WATANABE Hiroshi, A History of Japanese Political Thought: 1600-1901(translated by David Noble,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Tokyo, 2012), AKASHI Kinji (明石欽司), "Japanese 'Acceptance' of the European Law of nations. A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n Japan c. 1853-1900", in East Asian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Nomos, Baden-Baden, 2014) 등이 있다.

⁴ 본 보고에서는 恵頓著, 丁韙良訳『万国公法』同治3年, 慶應元年開成所繙刻, 京都崇実観存版, 그리고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855, 을 이용한다.

⁵ 吉野作造「我国近代史に於ける政治意識の発生」『吉野作造著作集』 제11 刊, 岩波書店, 1995 刊, 尾佐竹猛「維新前後に於ける立憲思想―帝国議会史前記」、「近世日本の国際観念の発達」「万国公法 と明治維新」『尾佐竹猛著作集』 제 9 권・제 13 권, ゆまに書房, 2006 년 등. 그리고 1990 년 이후의 한역 휘튼 『만국공법』연구에 대해서는 주28를 참조 바람.

조약'으로 할 것인지는 정치적 함의를 지난다. 그러므로 그것이 정말 불평등이 었는지의 문제를 포함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1860년 대 초까지는 여러 외국과의 조약이 불평등한 것이라는 인식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다. 19세기 후기 일본에서 이것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파악하는 담론이확대되는 배경에는 경제 상황의 변화와 메이지 신정부의 성립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본고의 주제와는 떨어지므로 이 이상의 논의는 피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부터 검토하듯이 도쿠가와 및 메이지 일본의 학자나 관료, 정치가들 사이에 만국공법의 지식이 퍼지고, 점차 서양 국제법 체계의 <게임 룰>에 숙달되면서 그 틀 속에서 사고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1. 『피세링씨 만국공법』과 네덜란드 법학

『피세링씨 만국공법』은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의 네덜란드 유학의 성과물이다. 도쿠가와정권은 페리내항 직후인 1856년, 양학(洋学)교육과 서양사정 조사를 목적으로 학문소 '번서조소(蕃書調所)'를 창립하였는데 1862년 에는 두 명의 젊은 학자를 네덜란드로 유학파견하였다.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였다. 그들은 도쿠가와 일본의 최초 유럽 유학생이었다.

니시와 쓰다는 네덜란드에서 2년간에 걸쳐 라이덴대학 법학부 교수 피세링에게 개별적으로 자연법, 국제법, 국법, 경제학, 통계학으로 구성된 오과강의(五科講義)에 대한 개인교습을 받았다. 1865년에 귀국한 후 그들은 도쿠가와정권의 명을 받아 유학의 성과인 강의노트를 분석하여 역술하였다. 그 중 국제법강의를 번역한 작품이 바로 니시 아마네 역『피세링씨 만국공법』이었고 이것은 1868년에 간행되었다7. 니시와 쓰다가 일본을 떠난 것은 한역 휘튼『만국공법』이 출판되기이전의 일이었다. 그들의 시도는 유럽에서 국제법을 직접 체계적으로 배워 일본으로 그것을 도입한 가장 선구적인 것이었다.

니시와 쓰다가 가르침을 받은 피세링은 당시 라이덴대학 법학부에서 경제학, 외교사, 통계학을 담당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피세링이 19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법학자이자 정치가인 토르베케(Johan Rudolf Thorbecke)의 제자이며 후계자였다는 것이다. 토르베케는 전제군주제를 비판하여 입헌주의에 기초한 헌법개정을 1848년에 실현하였다. 네덜란드 자유주의 개혁의 주도자였다. 니시와쓰다가 배운 피세링 오과강의에는 19세기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니시와 쓰다는 국법학 강의를 통해 피세링에게서 권력분립하의국민 제권리(諸権利)를 중시하는 입헌사상을 배웠다. 또 경제학 강의에서는 스

⁶ 이 점에 대해서는 三谷博『ペリー来航』(吉川弘文館、2003 년),同「19 世紀における東アジア秩序の転換—条約体制を『不平等』と括るのは適切か—」(『東アジア近代史』 제13호, 2010년),渡辺浩「『明治維新』論と福沢論吉」(『近代日本研究』 제24 권, 2008년) 등을 참조.

^{7 『}畢洒林氏万国公法』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田岡良一「西周助『万国公法』」『国際法外交雑誌』(제71권 제1호, 1972년) 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포함한 종래의 선행연구에서는 동시대 네덜란드의 학문상황이나 피세링의 저작, 또는 니시 등이 남긴 난문(蘭文)강의노트까지 살펴보고 법학・국제관 계사상과 국제인식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미스(Adam Smith)와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 등의 계보를 잇는 자유경제론을 접했다⁸.

이하에서는 그들이 네덜란드로부터 가지고 돌아온 손으로 쓴 난문강의필기(蘭文講義筆記) "Volkenregt" 와 니시 아마네의 번역『피세링씨 만국공법』을 단서로 해서 그들이 피세링에게 배운 국제법의 특징을 세 가지의 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⁹.

첫 번째 특징은, 이 강의가 '태서공법(泰西公法)' 인 유럽 국제법을 주제로 한다는 것이다. 피세링에 의하면, '태서공법' 은 유럽의 "문명" 화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제의 조규(交際の條規)" 이다. 거기에서 '성리공법(性理公法)', 즉 자연법론은 하나의 법적 원천이기는 하나, 모든 법체계를 연역하는 원리는 아니다. 오히려 국가 제권리를 정하는 '태서공법' 은 각국이 교제를 쌓으며 이해관계를 심화시키면서 만들어 온 여러 조약과 관례를 법적 원천으로 한다¹⁰. 오히려 그 범위는 오늘날 "유럽내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856년 "파리평화조약"을 계기로 "터키도 허가를 받아 태서공법 동맹에 참가하게 되었다" ¹¹. 다만 여기서도 '동맹' 참가를 승인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유럽 제국(諸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세링은 "자주" 와 "평행의 권(平行の権)" 등, 주권국가의 세권리에 관해서도 그것은 분명 '성리공법'을 기원으로 하지만, "이것이 실로 이행되는 것은 태서공법으로 채용되고 확정한 조규로 이를 지도할 때 비로서 가능해진다"고 설명하였다¹². 이렇듯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자신들의 영토로서 점거・영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무주지(無主地)를 둘러싼 "취유(取有)" 선점(先占)의 법 등이 "태서공법"의 이름으로 제정되었다¹³.

두 번째 특징으로서, 피세링은 유럽 국제체계를 열강 '오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에 의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¹⁴. 니시는 여기에 보주(補注)를 달아 유럽

⁸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가 배운 피세링 강의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책, 大久保健晴『近代日本の政治構想とオランダ』및 OKUBO Takeharu, *The Quest For Civilization* 을 참조 바람. 국제법 강의에 대해서는 S. Vissering, *Dictaat over de Diplomatische Geschiedenis*, Universiteitsbibliotheek Leiden, 1859-1860, 과의 비교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대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사에 대해서는, W. J. M. van Eysinga, "Geschiedenis van de Nederlandsche wetenschap van het volkenrecht", in *Geschiedenis der Nederlandsche rechtswetenschap*, dl 3, afd. 1, Noord-Hollandsche Uitgevers Mij, Amsterdam, 1950, 등을 참조 바람.

⁹ 이하, 피세링 구수(口授), 니시 아마네 역『畢洒林氏万国公法』의 텍스트는 大久保利謙編著, 앞의책,『西周全集』제2권에 소장된 작품을 이용한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에는 쓰다 마미치가 필기해서 가지고 돌아온, 손으로 쓴 피세링 국제법강의 네덜란드어 강의 필기 "Volkenregt" 가 소장되어 있다. 이 네덜란드어 강의노트 "Volkenregt" 는, 日蘭學會編, 大久保利謙編著『幕末和蘭留學關係史料集成』(雄松堂書店, 1982년) 안에 활자화되어 있다. 저자는 구립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원문(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였는데, 인용할 때에는 활자판페이지를 기록하였다 (이하, 같은 네덜란드어 자료의 인용은, BA라고 약기한다.). 다만, 이 노트는 제 2권 서두에서 제2권 제2장의 중간까지, 그리고 제4장이 빠져였다.

^{10 「}故に文明の諸国合して一大局をなせる(中略)欧羅巴に在ては此公法漸次に詳備し、時を歴るに従て其條規愈一定せり」(西周訳『畢洒林氏万国公法』, 앞의 책『西周全集』 제2권, 19-20 쪽, BA, pp. 42-43).

¹¹ 위와 같음, 20쪽. BA, p. 43.

¹² 위와 같음, 22쪽.

¹³ 위와 같음, 29-38쪽. BA, pp. 52-65.

¹⁴ 위와 같음, 44-45쪽. BA, p. 74.

의 국제관계를 고대중국의 "춘추열국" 과의 유추를 통해 파악하였다¹⁵. 다만 피세 링은 계속해서 "힘은 논리" 로만 그것이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간의 대등한 균형관계와 제(諸) 조약은 상호의 "신의 성실의 원칙" (goede trouw) 위에 성립한다. "만국(万国)은 날이 지날수록 교제(交際)가 깊어 지고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이 권의(権義)도 점점 정밀해지며 이를 지키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geode trouw)이다" ¹⁶.

그렇지만 물론 그것은 단순한 도덕심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국이 서로 교류하는" 도중에 제 국가가 타국을 침략하는 등 "부정불의(不正不義)"를 행하게 되면, 관계 각국으로부터 보복당한다기보다는 "정(正)과 신(信)을 근본으로"한 쪽이 결과적으로 "지혜롭고 또 이익이 있다"는 공리계산을 한다¹⁷. 근대 유럽에서는 각국이 세력유지와 확대를 위해 싸우면서 교제·교역이 깊어지고 세력균형의 원리가 만들어졌으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문명사회에서의 국제정치 고유의 모럴이 생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세링은 국가평등권과 내사(內事)자주권과 함께 "교제의 권(交際の権)"을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로 규정했다. "성리의 공법"에서는 교제의 규정은 없고, 타국과 교제할지 말지는 그 나라의 자주권에 달렸다. 그러나 그는 '태서공법'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한다. "태서공법의 조규에서는 교제의 권은 빠질 수 없다" ¹⁸. 다른 제국(諸国)과의 교제·교역을 거절하면 "인도(人道)에 크게 어긋나는 자"이다. 더구나 "문명 제국(諸国) 이 태서공법을 지키는 동맹"에 있어서는 이해손실이 연관되어 "그 교의(交義)가 나직(羅織)하고 또 더없이 밀접하게"된다. "예의화흡(礼儀化洽)의 나라"는 "나라를 닫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자연법보다도 '태서공법'에서의 교제의 논리가 우선된다¹⁹.

세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정전론(正戦論) 비판이다. 피세링에 의하면, 자연법론에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태서공법'의 전쟁관(観)은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²⁰. 주권국가간 전쟁에서 전쟁의 실질적 원인이정(正)·부정(不正)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쪽 교전국은 대등한 지위·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는 중세 이후의 자연법론에 흐르고 있는 정전론의 전통을 물리친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규범없는 힘의 범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의를 앞세워 상대를 악으로 보는 정전론이야말로 섬멸전쟁을 불러 올 위험이 있다. "지금의 문명제국(諸国)"은 교전국 서로가 대등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전

^{15 「}欧羅巴諸国其政治互に相関干渉し猶春秋列国の如し是を泰西大局又齊盟大局と訳す」(同上書,4445쪽). 또한, 한역 휘튼『만국공법』권두의 장사계(張斯桂)에 의한「만국공법 서」에서도, 유럽을 비롯한 동시대의 "천하대국(大局)"을 "春秋時大列国也"과 유추하여 그리고 있다(앞의 책, 惠頓著、丁韙良訳『万国公法』제1권, 1丁表). 다만 장사계는 거기서 오늘날 "천하대국"인 가운데, "中華首善の区と為す"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한 '중화'에 관한 논의는 니시 아마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¹⁶ 西周訳『畢洒林氏万国公法』, 19-20 \ BA, pp. 42-43.

¹⁷ 위와 같은, 19쪽. BA, p. 42.

¹⁸ 위와 같음, 27쪽. BA, p. 49.

¹⁹ 위와 같음, 27-29쪽. BA, pp. 49-52.

^{20 「}然れとも泰西公法にては自主の国相戦ふは彼此とも其理直なりとす(中略)是を以て兩国共に 其権亦匹敵なる也」(위와 같음, 57 쪽, BA, p. 90.).

이러한 전쟁관은 슈미트(Carl Schmitt)의 국제법 연구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법학·정치학 세계에서는 널리 '무차별 전쟁관'으로 이해되고 있다.

쟁의 규칙화, 인도(人道)화를 진행시켜 왔다²¹. 여기에서 교전법규가 성립한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살인이나 강탈, 독의 혼입 등, 비열한 수단은 금지되었다. "적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염치충신인애(廉恥忠信仁愛)의 도(goede trouw en menschelijkheid)를 잃으면" 안 된다²². 여기에서도 또 'goede trouw' 이라고 하는 문명 공법의 모릴이 제시된다. 게다가 '태서공법'에서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전승국이라고 하더라도 적국의 "인신자주의 권리(人身自主の権)" 와 "소유안도의 권리(所有安堵の権)"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²³. '태서공법'은 제국민의 "인신자주의 권리", "소유권"을 보호한다. 바꿔 말하면, 국민 제권리를 중요시하는 입헌국가가 아니라면 "태서공법을 신봉하는 동맹"에 들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피세링은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에게 유럽근대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유럽 국제법인 '태서공법'에 대해 가르쳤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세력균형을 배경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모럴과 자유무역, 입헌주의 등 경제적·정치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유럽 문명의 공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니시와 쓰다에게는 일본을 포함한 비서양 제국(諸国)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문제가 되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가면, 피세링은 우선 '태서공법' 하의 현실에서는 문명화와 국력에 따라서 1등국가부터 3등국가까지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유럽 공법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한다. "태서공법의 동맹을 맺지 않은 제국(諸国)즉 일본, 당(唐: 중국), 섬라(暹羅:태국), 파사(波斯:페르시아) 등에 있어서 유럽각국(諸国)의 신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주재하고 있는 사신(使臣) 등에게 부여되는 특례의 권(権)을 가진다" ²⁴. 일본과 중국 등 제(諸)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헌법과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서양권에서 서양인과 현지 국민 사이에 트러블이생겼을 경우에는 "유럽 제국의 신민을 보호" 하기 위해, 서양인은 자신들의 나라의 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영사재판권의 요구가 정당화되었다. "왜냐면 이 나라들과의 교제는 여전히 태서공법을 기초해서 율(律)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²⁵. 그러나 이는 역으로 비서양제국 측에서 본다면 서양인이 어떠한 무법행위를한다고 해도 자신들(비서양제국)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에 비서양 제국이 자연법인 '성리공법'에 기초한 '자주권리'를 방패로 삼고 불평등한 조약을 요구하는 나라와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피세링의 응답이 바로 위에서 본 "교제의 권리"론이다. 분명 자연법론에는 타국과 교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태서공법'에서는 나라를 닫는 행위는 국익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도(人道)에도 어긋난다". 반대로 교제 교역을 통해서 '태서공법의 기초'를 공유하고 주권국가로서 인정받는다면, 영사 재판제도도 철폐된다. 유럽 공법 안에서 살고 있는 피세링에게 있어서 '성리공법'

이는 불평등하지 않은가.

²¹ 西周訳『畢洒林氏万国公法』, 58 \ BA, p. 102.

²² 위와 같음, 58쪽. BA, p. 91.

²³ 위와 같음, 69쪽. BA, pp. 108-109.

²⁴ 위와 같음, 26쪽. BA, p. 47.

²⁵ 위와 같음, 94-95쪽.

과 '태서공법' 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에서 본다면, 양자는 모순·대립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국에게 무력으로 통상조약을 강제하는 경우는 어떨까. 피세링에 의하면, "태서공법의 조규 통습"에서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왜 냐면 "태서공법 본규(本規)"에는 한번 체결한 조약은 양국이 좋아서 체결했다고 판단한다. "기사요협(欺詐要脅)을 구실"로 그것의 파기를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그 자신이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결여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준수해야 하는 신의 성실(信実)의 도(道)"에 "배치(背馳)"되는 것이다²⁶.

그러면 무력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요구하는 강국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여 강화조약을 맺은 후에 다시금 자국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가. 이에 관해서도 피세링은 부정적이다. 교전국은 대등한 권리를 가지며 강화조약도 자유의지 (vrijwillig)에 의해 맺어졌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패전국은 본의가 아닌 조약까지도 감수하고 "준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국제법상의 모럴이다²⁷.

이렇게 본다면 유럽 공법의 주변 및 외부에 위치하고 아직 균형의 힘을 가지지 않은 비서양권 국가들에게 있어서 '만국공법'은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태서' '열강'에 의한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세링 강의는 두 가지 점에서 단순히 강자의 힘의 논리라고 해서 버릴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래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첫째로 그것은 교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잔학(残虐)한 전쟁행위를 금지하고 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일종의 보편성을 가진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로, 그것은 경제학 강의의 자유무역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경제학설을 학문적 진리로서 인정한다면 '태서공법'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어진다. 여기에 니시와 쓰다가 귀국 후에 몰두하게 되는 과제가 나타난다.

2. 두 가지 '만국공법' -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

그렇다면『피세링씨 만국공법』과의 비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만국공법, 한역 휘튼『만국공법』의 수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²⁸.

휘튼의 원저를 보면, 실은 휘튼도 실정적 국제법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주권국·반주권국·종속국의 구분을 도입해서 정전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등, 피세링 강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중국 미국인 선교사 마틴에 의한 한역을 보면, 거기에는 '번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결코 오역은 아니지만 '성법(性法)' '천법(天法)' '천리(天理)' '자연지법(自然之法)' 등, 유학을 강하게 의식한 역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예를 들면 서양 제국과 중국과의 외교에 대

²⁶ 위와 같음, 45-46쪽. BA, pp. 75-76.

²⁷ 위와 같음, 72쪽. BA, p. 113.

²⁸ 근래 일본에서의 한역 휘튼『만국공법』수용에 관한 연구로서는, 井上勝生「万国公法(文献解題)」『日本近代思想大系1 開国』岩波書店, 1991 년, 張嘉寧「解説 『万国公法』成立事情と翻訳問題―その中国語訳と和訳をめぐって」「万国公法(文献解題)」(『日本近代思想大系15 翻訳の思想』岩波書店, 1991 년), 周圓「丁韙良『万国公法』の翻訳手法―漢訳『万国公法』1巻を素材として」(『一橋法学』제10 권 제2호, 2011 년) 등을 참조.

해서도 원문과 한역에는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²⁹. 원문과 비교해 보면(자세하게는 주29를 참조), 한역에서는 중국 종래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its inveterate anti-commercial and anti-social principles)가 약해졌으며, 조약체결에 따른 서양 '문 명' 제국과 비서양권의 힘의 비대칭성(the former has been compelled to abandon …)도 자취를 감췄다. 결과적으로 만국공법의 공평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마틴이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려고 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³⁰.

그리고 이 서적이 바다를 건너 동시대의 일본에 수용되면서 한역 해석이 더욱더 다양해진다. 당시 일본의 한역 휘튼 『만국공법』에는, 일본어 번역이나 주해(注解)라는 형태로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다. 예를 들면, 1876년에 한학자 다카타니류슈(高谷龍洲)가 훈점(訓点)·주해를 달고,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비열(批閱)한 『만국공법 여관(万国公法蠡管)』이 출판되었다. 나카무라는 그 서문에서 "확실히 만국공법은 공(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私)의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 도구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강(強)은 약(弱)을 괴롭히지 못 한다"라고 적는다. 그런 다음에 "아, 공법의 학문을 더욱더 정밀하게 하여 완선구비(完善具備)하면,이를 가지고 세계는 미락(美楽), 천국(天国)과 같이 된다"고 주장했다³¹.

이렇듯 휘튼의 『만국공법』은 마틴의 한역을 통해 도쿠가와 말기·메이지 초기의 일본인들 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난해한 텍스트의 성격이 더해져, 특히 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 중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종종 증폭되어, 원본 텍스트와 다른 해석으로 읽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유학자들이 추상적인 논의를 좋아해서 현실정 치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일면적(一面的)이다. 실제로 위에서 서문을 쓴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1866년에 도쿠가와 정부가 영국에 유학생으로 파견하였는데, 런던에서 약 2년간 체류하며 빅토리아 중기의 정치문화를 견문했다. 그는 유학을 통해 유럽사회 윤리의 근원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학과 기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윤리를 모색했다. 귀국 후에는 밀(John Stuart Mill)의 On Liberty를 번역출판(나카무라 마사나오 역『自由之理』) 했다.

흥미로운 것은, 도쿠가와 정치체제의 학문소(学問所)인 성당·쇼헤이코우(昌平黌) 의 유학자로서 중국 고전세계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유학 도중에 상하이와 홍콩에서 중국 관리들과 필담을 나누고, 홍콩의 영화서원(英華書院)을 방문하여 교장이었던 선교사 레그(James Legge, 理雅各)의 중국고전연구와

²⁹ Henry Wheaton, op.cit., p. 22. 恵頓著, 丁韙良訳, 앞의 책 『万国公法』 제 1 권, 12 丁裏) .

^{&#}x27;The same remark may be applied to the recent diplomatic transactions between the Chinese Empire and the Christian nations of Europe and America, in which the former has been compelled to abandon its inveterate anti-commercial and anti-social principles, and to acknowledge the independence and equality of other nations in the mutual intercourse of war and peace.'

[「]歐羅巴亞美利加諸國奉耶蘇之教者。與中國邇来亦共議和約。中國既弛其舊禁。與各國交際往来。無 論平時戦時。要皆認之。為平行自主之國也。」

³⁰ 장가영(張嘉寧)은 마틴의 번역 동기의 하나로 중국인에게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서간 등의 자료로부터 밝혔다 (張嘉寧, 앞의 논문, 386쪽).

³¹ 恵頓著, 重野安繹訳述『和訳万国公法』巻1(鹿兒嶋藩蔵梓, 1870년 경, 筑波大学中央図書館所蔵), 3丁裏

위와 같음, 「序」, 2丁裏 - 3丁表.

31

영역주해(英訳注解)를 접했다³². 나카무라는 영국에서도 홍콩총독을 경험한 중국연구의 대가・데이비스(John F. Davis)와 교류했고, 또 그 후에는 마틴이 중국에서 집 필한 기독교 교리서 『천도소원(天道遡源)』의 훈점본(訓点本)도 간행하였다. 이러한 서양・중국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카무라에게 있어서, '개국(開国)'으로 인한문화접촉을 통해 만국에 공통되는 '법리'를 탐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감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기에 니시와 쓰다와는 다른 또 하나의 유학경험이 있다.

이에 비해 니시와 쓰다가 배운 피세링의 만국공법 강의에는 적어도 나카무라와 같은 해석이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는 메이지 초기의 정치상황 속에서 유학 성과를 어떻게 실천하고 또 어떤 논쟁을 펼쳤던 것일까.

3. 『메이로쿠 잡지(明六雜誌)』와 문명화 구상의 상극

—니시 아마네·쓰다 마미치와 나카무라 마사나오, 후쿠자와 유키치—

1868년, 도쿠가와 정권이 와해되고 메이지 정치체제가 성립한다. 개국화친을 주장하며 서양 제국(諸国)과 체결한 조약의 개정을 정치문제로 삼는 신정부에게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국제법 학식은 귀중한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즉시 쓰다 마미치를 조약개정 교섭을 준비담당하는 취조과(取調掛:조사계)로 초청하였다. 그후 쓰다는 '국제법의 권위'로서 외무권 대승(權大丞)에 임명되어 청일수호조약 체결교섭에 관여하였다. 또한 니시 아마네는 육군성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밑에서 외교전략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본사회는 수출입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메이지 정부 내부에서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은 보호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양 각국의 공사(公使)들은 자유무역을 방패로 삼아 무역확대를 더욱더 주장했으며 거류지 밖에서의 외국인 내지여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와중에,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는 1874년부터 『메이로쿠 잡지』에 논설을 연달아 발표한다. 거기에서 니시와 쓰다는 보호세 도입을 비판하고, 자유무역과 내지 여행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쓰다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점차수출입의 불균형을 정정하고 사회 전체를 개화로 유도할 것이다. 이는 "자연의천율(天律)"이고³³, 오늘날의 수입초과는 오히려 문명화로 전진하는 국민들의 "진취적인 기상(氣象)" 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³⁴.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한 다음 쓰다는, "영사재판권의 철폐와 관세자주권의 회복등의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없는 한 내지여행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쓰다는 설명한다. "외국과의 교제는 자연의 운보(運歩)" 이며, 우선은 내지여행을 승인하고 서양인과의 교제를 깊이하여 신뢰를 만

³²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영국유학에 따른 '중국' 경험에 대해서는, 松沢弘陽『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岩波書店, 1993년) 제2장이 자세하다.

³³ 津田真道「保護税を非とする説」(山室信一,中野目徹校注,『明六雑誌』上巻,岩波文庫,1999년),175 等.

³⁴ 津田真道「貿易権衡論」(위와 같음『明六雑誌』中巻, 岩波文庫, 2008년), 340쪽.

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십년 뒤"에는 반드시 "일반 인민 중 지식개화충도 증가"한다. 이 때 처음으로 일본은 조약개정을 실현할 수 있다.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내가 원래 갈망하던 우리 정부가 재판·정세(征稅)의 두 권리를 받아들이고 오대주(五大州) 중 독립불기(不羈)의 자주제국(帝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단연코 내지여행을 허(許)해야 할 것이다" ³⁵.

이상과 같이 니시와 쓰다는 피세링의 만국공법 강의와 자유주의적인 경제론을 배경으로 '태서공법'에 입각하여 '교제'와 '통상교역'을 확충하고 자국의 문명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신실(信実)'을 획득함으로써 미래에 독립 자주국으로서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재판·정세(征稅)의 양권(両権)을 거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들의 주장은 아직 일본은 개화 도중에 있다는 인식을 매개로 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관세자주권의 회복을 뒤로 미루고 영사재판권을 감수하자는 태토와 표리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쓰다와 니시의 대외정책론을 둘러싸고, 『메이로쿠 잡지』를 중심으로 논쟁이 일어났다. 쓰다나 니시처럼 자유무역론을 전개한 것은 나카무라 마사나오였다. 그는 바스티아의 Sophismes Economiques 을 하야시 마사아키(林正明)가역술한 『経済辨妄』의 서문에서, "경제의 길은 유수(猶水)와 같아, 그 자연의 힘에 따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보호세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³⁶. 그러나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자유무역론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관(觀)은, '천리(天理)'에 기초한 국제질서규범으로서의 만국공법관에 의한 것으로, 쓰나나 니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논설 「내지여행 니시 선생의 설(說)을 반박한다」등을 집필하고, 쓰다와 니시에게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論吉)였다. 후쿠자와에 의하면, 서양 학문과 정신 등의 '무형의 기풍(氣風)'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역 등의 '유형'의 외국 교제는 현재 일본에게 있어서 "손(損)만 있고 득(得)이 없다". 게다가 영사재판제도에 의해 외국인과의 소송은 너무나도 곤란해져 있고, "무기무력(無氣無力)"한 인민은 더욱더 비굴해졌다. 내지여행은 시기상조이며, 우선은 "오로지 安(內)을 가다듬고 일반 인민들의 기력을 길러야"한다³⁷. 이렇게 주장한 후에 후쿠자와는 니시 아마네에게 외국과의 교제라는 것은 결국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 권력은 정리의 근원"이 아닌가라고 논박한다³⁸. 이렇게후쿠자와는 니시와 쓰다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자유무역·만국공법론을 '태서'의 '권력'에 의해서 창출된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에 불과하다고 갈파(喝破)하였으며, '외국 교제'와 '독립'사이의 날카로운 긴장과 딜레마를 직시했다.

게다가 후쿠자와는 『문명론지개략(文明論之概略)』에서 서양 제국(諸国)에 의한 식민지지배의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유럽인이 지나는 곳은 토지가 생력(生力)을 잃고, 풀이며 나무며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하게는 그곳의 인종을 섬(殲) 멸케 한다." 이제는 "지나제국(支那帝国)도 확실히 유럽인의

³⁵ 津田真道「内地旅行論」(위와 같음『明六雑誌』中巻), 288-289 쪽.

³⁶ 中村正直「経済弁妄序」(『敬宇文集』第3冊巻7,吉川弘文館,1904년),2丁裏.

³⁷ 福澤諭吉「外国人の内地雑居許す可らざるの論」(慶應義塾編『福澤諭吉全集』再版,第19巻,岩波書店,1971年),518-524 즉.

³⁸ 福澤諭吉「内地旅行西先生の説を駁す」(앞의 책『明六雑誌』中巻),336-337 쪽.

전원(田園)"이 되려 하고 있다³⁹. 그리고 후쿠자와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천지의 공도(公道)"를 내걸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롭게 왕래" 해야 한다고 자유무역・만국공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후쿠자와에게는 그들의 논의가 "마음씨 착한 사람의 논의" 이며, "너무나도 물정에 어둡다" ⁴⁰. 만약서양 제국(諸国)이 "천지의 공도"에 기반한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따르자. 하지만 지금 서양제국의 행동은 "사정(私情)"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은 우선 목적을 "독립"에 두고, 일부러라도 "봉건시대"의 "도덕적 유대 (Moral tie)"였던 "군신의 의(義), 선조의 유서(由緒), 상하의 명분, 본말(本末)의 차별"을 "문명의 방편"으로 동원하여 "보국심(報国心)"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⁴¹.

그럼 이상의 논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 나카무라 마사나오, 후쿠자와 유키치, 각각의 만국공법관(観)을 둘 러싼 삼극(三極)의 대립도식으로부터 해석해 보자.

우선 나카무라와 니시·쓰다의 상이(相違)에 대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천리의 공도", "자유무역"을 주장한 학자들을 비판했을 때, 그는 나카무라 마사나오도, 그리고 니시·쓰다의 주장을 같은 틀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역 휘튼 『만국공법』을 매개로 한 나카무라의 규범적인 '만국공법'이해와 니시·쓰다가 배운 '태서공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나카무라 마사나오도 국제사회에서의 권련정치의 횡포를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국공법' 안에 유학으로 통하는 '천리(天理)'에 기반하며 '만국'이 따라야 하는 질서규범을 찾았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자연'의 '리(理)'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유무역의 적극적인 의의를 주장했다.여기서는 개국을 통한 동아시아와 서양의 사상적 전통을 가교(架橋)하는 보편적 규범을 석출(析出)하려고 하는 도덕철학자로서의 나카무라의 모습이 보인다.

이에 반해, 니시와 쓰다에게 있어서 나카무라와 같은 이상주의적인 '만국공법' 해석은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배운 동시대 유럽에서 구체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제법 이해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나카무라와 달리, 니시·쓰다, 그리고 후쿠자와는 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소재를 직시하고 그 권력 구조를 안에서부터 해명하면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도를 모색했다. 이러한 점에서 니시·쓰다와 후쿠자와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럽 국제법에 대한 태도는 대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자와의 니시와 쓰다에 대한 비판은 흥미롭다. 후쿠자와는 니시아마네에 대해서 국제정치란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니시와 쓰다는 피세링 강의를 통해 바로 그 '태서공법'이야말로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의 역사적 소산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니시와 쓰다는 유럽 국제법을 받아들여 외국과의 교제를 통해 자유무역과 입헌주의에 입각한 문명사회의 제도적틀을 확립하는 것 외에는 일본이 독립국가로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³⁹ 福澤諭吉著『文明論之概略』(松沢弘陽校注, 岩波文庫, 1995년), 291 쪽.

⁴⁰ 위와 같음, 292쪽.

⁴¹ 위와 같음, 304쪽.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힘(Power)' 의 원천에는 각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 주의와 자유경제론이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거기에 문명적 가치를 구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명'과 '독립'의 긴장관계를 내다 본 후쿠자와는 일본이 서양제국(諸国)의 '힘(Power)'에 휩쓸리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안을 가다듬고", "보국심"을 함양하며 독립국가로서의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후쿠자와는 1878년에 "백권(百巻)의 만국공법이 수발(数門)의 대포만 못하다"고도 주장했다⁴².

이러한 그들의 논의의 응수는 대외정책논쟁을 넘어 각각의 문명화 구상과 구분하기 어렵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또한 유럽 국제체계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만국공법'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지극히 곤란한 정치사상적 과제를 체현한 것이기도 했다.

마치며

본 보고에서 논의해 온 것처럼, 19세기 후기 일본에서의 국제법 수용은 서양제국(諸国)과 조약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긴급하고도 실천적인정치과제였다. 그리고 또 그 근저에는 서양세계의 기초를 만들어온 법·도덕 관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상과제가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존속을 위해 취해야 할 정치적 선택지를 둘러싸고 다양하면서도 고도의 논쟁이 펼쳐진 것이다.

쓰다와 니시가 '국제법의 권위'라고 여겨져, 외무성과 육군성에 관료로 등용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서양 국가들과의 불평 등조약의 개정을 정치문제로 내걸고, 서양의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메이지정부는 서양 기원의 강자의 논리와 보편적 규범을 둘 다 갖추고 있는 당시의 국제법의 특징과 한계를 숙지하고, 국제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써 그것을 활용했다. 그리고 그러한 학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국제법을 방패로 삼아 조약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동아시아 질서의 개변(改変)을 시도했다. 상징적인 것이 청일전쟁이다.

1894년, 일본은 영국과 영일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불평등조약의 하나라 여겨졌던 영사재판권의 철폐를 실현했다. 그 직후에 일본정부는 "만일 국제법으로돌아가지 않는 한, 각각 권능(権能)에 응하여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반드시 유루(遺漏)가 없도록 하라"며 국제법 준수를 내건 선전포고를 하고 청일전쟁에 돌입했다⁴³. 하지만 일본이 '태서공법의 동맹'에 참가하는 과정은 또한 동아시아 세계에 새로운 대립과 주변을 창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렇듯 근대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말기부터 1945년의 패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법과 어떻게 대면하는가가 항상 중요하고도 심각한 양의성(両義性)을 가지는 정치사상적 과제이다.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만국공법 수용은 그 출발점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⁴² 福澤諭吉「通俗国権論」(앞의 책『福澤諭吉全集』제4권,岩波書店,1970년),637쪽.

⁴³ 村上重良編「清国に対する宣戦の詔」『正文訓読 近代詔勅集』(新人物往来社, 1983 년), 159 쪽.

발표 논문 2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 3 국의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과 한계

-- 1880년대 초반 조선의 문호개방정 책을 중심으로--

한 승훈 (韓承勳, 고려대학교)

※대독: 박 한민

발표 요지

19 세기의 조선, 일본, 청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사적 용어는 불평등조약이 다. 세계의 주요 사전도 불평등조약을 19 세기 조선, 일본, 청국이 타국과 체결 한 불평등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19 세기 동아시아 3 국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 자국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세계사에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1880 년대 초반 일본, 조선, 청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구축 한 불평등조약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은 조약 개정의 예비회담을 통해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했다. 조선은 일본과의 조약 개정과 서구열강과의 불평등한 내용이 배제된 조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었다. 청국은 조선과 서구열강의 조약체결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조선에게 불평등한 내용의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조선이 체 결한 조약을 근거로 자신과 서구열강의 체결한 조약의 개정을 기획했다. 이상 과 같이. 1880 년대 초반 동아시아에 서구열강이 관철시킨 조약의 불평등한 내 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정의 움 직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본 발표문은 1880 년대 초반 동아시아 삼국의 불평등 조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가능성이 가지는 현재적 의의 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 제기]

발표자가 본 발표문에서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동아시아 3국의 경쟁과 갈등의 근현대사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모습, 특히 상생의 공존과 공영의 공간으로 동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 내지는 단 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 2.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를 통해

서 상호 공감과 소통의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역사적 갈등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3.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3국의 서양인식을 밝히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 불평등조약과 관련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라는 관점이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3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의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한다면, '불평등조약'이 갖는 서양의 '침략적구도' 속에 감춰진 화해와 평화를 지향한 사례가 있을까? 아니 사례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근대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어 중 하나는 불평등 조약(Unequal Treaties)이다. 세계사에서 불평등조약이 없었던 바는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에서는 19세기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이 청국과 일본, 혹은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을 특징짓는 용어로 불평등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불평등조약을 관철시킨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청국, 일본, 조선에 불평등한 조약을 관철시켰다.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상실, 최혜국 대우, 개항장 설정 등은 조약의 불평등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조항이었다. 그 중에서 영국은 최혜국 대우를 통해서 다른 서구 열강이 청국,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균점하였다. 이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은 조약의 상호 참조 및 균점의 과정을 통해서 청국과 일본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불평등조약을 관철시켰으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를 자유무역이 관철되는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후대연구자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 불평등조약체제가 성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동아시아 3국이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된 사실에 동의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자국사 중심으로 불평등조약을 이해하였다.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출발점으로 불평등조약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도 열강의 반식민지(半植民地)로 전락한 결정적 기원으로 불평등조약을 강조해 왔다. 반면에 일본은 1894년 영국과 조약 개정을 달성함으로써, 서구 열강과 불평등 관계를 점차 극복하고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한 측면을 부각시켰다. 2000년대 이후로는 조약의 불평등성 및 외부의 침략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조선,

¹ John K. Fairbank, "The Creation of the Treaty System,"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0. Late Ch'ing, 1800-1911. Part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李炳天、〈開港과 不平等條約體制의 확립〉、《경제사학》8 (경제사학회, 1984). Peter Duus, Ramon H. Me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Informal Empire in China, 1895-193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金基赫、〈開港을 둘러싼 國際政治〉、《韓國史市民講座》7 (一潮閣, 1990); 稲生田太郎、《東アジアにおける不平等條約體制と近代日本》(岩田書院, 1995).

일본, 청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불평등조약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기도 했다.²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관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동아시아'를 하나의 조약 공간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부족하였다. 조선, 일본, 청국이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공유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에 주목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들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주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즉 동아시아 3국이 '불평등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체제'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다룬 연구는 미흡하였던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3국이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한 사례는 동아시아 3국의 교섭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과 청국은 1871년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条規)」를 체결하면서, 서구 열강이 자신들에게 관철시킨 불평등한조약 내용을 일부 배제하고자 했다. 조선은 일본과 1876년에 체결한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개정하기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1880년 수신사로 일본 도쿄에 도착한 김홍집(金弘集)은 주일 청국공사 허루장(何如璋)으로부터 동아시아에 관철되었던 조약의 불평등성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이를 답습하지 말 것을 충고 받았다.

그렇다면 조선, 일본, 청국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공유하는 사례가 갖는 의미를 무엇일까?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3국이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 정에서 불평등조약과 그 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모색되지는 않았을까?

본 발표문은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조약 극복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이 갖는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80년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전개하고자 한다.³

2. 1880년 수신사 김홍집과 주일청국외교관 만남: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 모색

1880년 5월 조선 정부는 김홍집을 수신사로 임명하였다. 「강화도조약」의 개정을 통해서 대일무역의 무관세규정과 미곡수출이 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함이

² Dong Wang, China's Unequal Treaties: Narrating National History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8). Michael R. Auslin, Negotiating with Imperialism: The Unequal Treaties and the Culture of Japanese Diplom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五百旗頭薫、《条約改正史—法権回復への展望とナショナリズム—》(有斐閣, 2010). 酒井裕美、《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1882~1884》(大阪大學出版會, 2016). 李穂枝、『朝鮮の対日外交戦略 - 日清戦争前夜 1876-1893 -』(法政大学出版局, 2016). 박한민、「圣皇통상장정 운영과 조일의 대응 - 제16 관, 제18 관을 중심으로」、『동국사학』 63 (동국사학회, 2016). 박한민、「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역사와경계』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한편 미타니 히로시(三谷博)는 조약 체제가 불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였다. 영사재 판권의 사례를 들면서 그는 조약의 '불평등'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발표자역시 미타니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 바이나, 한국과 중국에서 이데올로기적 발현은 일본과는 차이가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비교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三谷博,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條約體制―近世から近代へ」,『東アジア近代史』13, 2010.

³ 본 발표자는 한국근대사 전공자로서, 조선과 영국의 외교관계를 주요 연구테마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일본 및 중국 측 사료에 대한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아울러 국사들의 대화의 취지에 맞게, 일본사와 중국사 전공자들이 관련 연구 시각 및 이를 보완하는 사료를 제시해 준다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1880년 초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 조약 인식에 새로운 상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바이다.

었다. 하지만 김홍집은 강화도조약의 개정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일본 외무성이 김 홍집이 조약 교섭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 부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협상이 지체되었던 7월 중순부터 김홍집이 수차례 방문한 곳이 있었다. ⁴ 주일 청국공사관이었다. 그 곳에서 그는 청국 공사 허루장에게 근대적인 관세 제도를 배웠다. 허루장은 관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었다. 먼저, 국가재정과 민생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것, 둘째, 품목별로 수입 관세율을 차등 적용시킬 것, 셋째, 저율 내지는 무관세에 근거한 수출 관세율을 통해서 수출증대를 꾀함으로써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 ⁵ 즉 그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⁶

김홍집은 관세자주권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폐단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폐단을 설명한 이는 청국 공사관의 참찬관 황쭌셴(黃遵憲)이었다. 그는 협정관세에 따른 저율의 수입관세율이 무역 적자의 심화와 금은의 유출에 따른 백성들의 곤궁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민란과 같은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허루장과 황쭌셴은 김홍집에게 조선이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관세정책과 세칙 재정을 강조하였다. 그래야만 조선이 무역적자에 따른 폐단을 막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허루장은 김홍집의 귀국을 앞두고 만난 자리에서 "오직 절실히 기억하고 기억할 것"으로 타국과 체결한 조약에 관세자주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8 아직은 관세제도에 정통하지 않았던 김홍집에게 관세자주권만큼은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허루장은 김홍집에게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만을 알려주지 않았다. 조선의 향후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안도 알려주었다. 첫 번째 방안은 일본의 대서구 조약 개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1880년 7월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에 조약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0

38

^{4 『}修信使日記』卷2,「大淸欽使筆談」, 1880년 7월 16일[『金弘集遺稿』(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송병기 편역,『개방과 예속』(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26쪽, 이하「大淸欽使筆談」으로 표기, 각주의 쪽수는『개방과 예속』을 따름]; 한편 김홍집과 허루장, 황쭌셴의 만남 및 필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헌주,「제2차 修信使의 활동과『朝鮮策略』의 도입」,『한국사학보』25(2006), 293-297쪽.

^{5 「}大淸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26쪽.

^{6 「}大淸欽使筆談」, 1880년 8월 2일, 35쪽.

^{7 「}大淸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27쪽.

⁸ 같은 사료.

^{9 「}大淸欽使筆談」, 1880년 7월 18일, 27쪽.

¹⁰ 日本學術振興會 編,『條約改正關係日本外交文書別冊 約改正經緯概要』(日本學術振興會, 1950), 183 즉.

39

	조약의 주요내용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서구열강에 제출한 일본측 조약개정안 (1880)					
	세	수입 관세율	5%	약품 , 광물 , 곡물 외 : 5% 금속품 , 의복류 외 : 10% 천연기름 , 종이 외 : 15% 가축류 , 유류 , : 20% 사치품 의류 외 : 25% 담배 , 주류 외 : 30%					
	칙	수출 관세율 면세품	5%	5%					
		세칙 변경	협정관세	관세자주권 회복					
	내지 통상		금지	허가					
ĺ	개항장 무역		허가	허가					

표 1.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내용과 1880 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조약 개정안

일본정부가 제출한 조약개정안의 핵심은 수입관세율을 평균 12.5%로 인상하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자주권의 회복에 있었다. 품목별 관세율을 차등으로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금은의 유출을 막고자 하였다. 즉 일본은 관세자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김홍집은 일본 측 교섭 대상자인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質)를 만난 자리에서 "귀국의 조약 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우리도 또한 마땅히 이에 준할 것"이라고 통지하기도 했다.11

허루장이 알려준 두 번째 비책은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는 "근래에 일본인들이 의론하여 고치려는 조약을 미국은 이미허락"하였다는 점을 김홍집에게 부각시켰다. 이어서 그는 조선이 일본의 조약개정안을 바탕으로 미국과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면, 미국이 조선 측조약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아가 그는 「조미조약」이 체결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그 조약에 의거해서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¹² 즉 허루장은 조선이 일본의 조약 개정을 승인해 준 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게 되어서, 조선이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본의 조약 개정을 승인해 준 요체는 무엇인가? 1878년 7월 25일 일본과 미국은 조약 개정에 관한 약서, 즉「일미관세개정약서(日米關稅改定約書; 吉田・エヴァーツ条約)」를 체결하였다. ¹³ 그 약서의 1조에서 일미양국은 일본의 개항장에서 5%의 수입관세율을 관철시켰던 개세약서와 일본이자주적으로 관세 및 통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정한 1858년「일미수호통상조약」의 효력을 중지시키는데 합의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에 관

^{11 「}大淸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27-28쪽; 「大淸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31쪽.

^{12 「}大淸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30쪽.

¹³ 협약의 원 제목은 "Convention Revising Certain Portion of Existing Commercial Treaties and Future Extending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이다. 협약의 조 문은 미국 의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vans/b-jp-ust000009-0377.pdf)

© 2020 SGRA

세자주권을 비롯해서 무역에 관한 각종 규정을 일본이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였다.14

그런데 10조에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들이 제1조에 입각한 협약 내지는 조약 개정에 동의할 때만 「일미관세개정약서」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 정하였다. 즉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를 구축하였던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등이 조약 개정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의 협정은 사실상 사문서나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 서구 열강이 일본의 관세자주권 획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미관세개정약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8년 [일미관세개정약서 |는 일본의 입장에서 조약 개정 의 한 단계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으며, 허루장의 인식처럼 동아시 아 조약체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준 것이기도 했다. 그 렇기에 「일미관세개정약서」는 조선이 대서구 문호개방을 단행할 때, 첫 번째 국 가로 미국을 선택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3. 1882년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상호 공유를 통한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기회 마련

사실 1880년 김홍집의 수신사행 이전에도 관세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가 있었 다. 1874, 5년 베이징의 영국영사 메이어스(W. F. Mayers) 에게 영국의 대조선 포함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를 건의하였던 오경석(吳慶錫)이었다. 그는 청국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조선이 '균형 무역' 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그는 무역 수지 적자로 금은이 유출될 경우 국내 재정이 고갈되는 경우 를 경계하였다. 나아가 그는 통상을 통해서 조선의 부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견 하였다.

조선은 1880년 김홍집의 수신사행을 기점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통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그는 조선이 장차 일본과 조약 개정을 할 때, 상호 불평등이 제거된 「청일통상장정(淸日通商章程)」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5 1881년 일본에 도착한 조사시찰

40

^{14 &}quot;1. It is agre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at the Tariff Convention, signed at Yedo on the 25th day of June, 1866 or the 13th of the 5th month of the second year of Keio, by the respectiv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France and Holland on the one hand, and Japan on the other, together with the schedules of tariff on imports and exports and the bonded warehouse regulations, both of which are attached to the said convention, shall hereby be annulled and become inoperative a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der the condition expressed in Article X of this present convention; and all such provisions of the treaty of 1858, or the fifth year of Ansei signed at Yedo, as appertain to the regulations of harbors, customs and taxes, as well as the whole of the trade-regulations, which are attached to the said treaty of 1858, or the fifth year of Ansei, shall also cease to operate.

It is further understood and agreed that from the time when this present convention shall take effect, the United States will recognize the exclusive power and righ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adjust the customs tariff and taxes and to establish regulations appertaining to foreign commerce in the open ports of Japan."

¹⁵ 김홍집, 1880,「修信使金弘集聞見事件(別單)」(송병기 역, 2000, 『개방과 예속』, 단국대학교 출판부, 75쪽).

단의 민종묵(閔種默)과 이헌영(李鑢永)은 근대적인 관세제도를 비롯해서 관세자주권을 상실한 청국과 일본이 5%의 수입관세율에 따른 경제적 폐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¹⁶

조익	후의 주요내용	제 3 차 수신사 조병호가 작성한 조약 초안 (新修通商章程草案, 1881. 9)	서구열강에 제출한 일본측 조약개정안 (1880)	청 , 일본이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
세	수입 관세율	선박용 : 5% 일반상품 : 10% 사치성상품 : 25% 유 류 : 35%	약품 , 광물 , 곡물 외 : 5% 금속품 , 의복류 외 : 10% 천연기름 , 종이 외 : 15% 가축류 , 유류 , : 20% 사치품 의류 외 : 25% 담배 , 주류 외 : 30%	5%
=,	수출관세율	5%	5%	5%
칙	세칙의 변경	조선정부가 정해서 해당국에 통보한다 .	관세자주권 회복	협정관세

표 2. 「신수통상장정초안 」,1880년 일본의 조약개정안, 그리고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비교

그 결과 조선은 1881년 제2차 수신사 조병호(趙秉鎬)가 일본 정부에 조선 측 개정안(「신수통상장정초안(新修通商章程草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미국과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임하기 위해서 텐진을 방문한 김윤식(金允植)은 이동인(李東仁)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조약 초안을 리훙장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7

「신수통상장정초안」은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로 정하였다. 그리고 고 밖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5~35%로 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동인이 작성한 초안에서도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를 부과하고 있다. 즉 조선은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5%의 수입관세율을 조선의 세칙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청국과 일본이 입었던 무역상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시작으로 영국(1882년 6월 6일), 독일 (1882년 6월 30일)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이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은 사실상 「조미수호통상조약(이하 조미조약)」과 동일하였다. 수입관세율 규정 18도 같았으며, 미국, 영국, 독일은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인정하였다. 1880년 허루장이 김홍집에게 낙관하였던 내용, 즉 다른 국가들도 「조미조

¹⁶ 한승훈, 「朝英條約(1883, 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한국사연구』135(2006), 225~226쪽. 17 현재 이동인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초안의 전문은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1880년 11월에 이동인이 제시했던 초안을 보고 이를 요약한 주일 영국 대리 공사 케네디(Kennedy)의 보고서와 1882년 2월 (음력 1881년 12월)에 이동인 초안을 보고 리훙장(李鴻章)이 평가한 기록을 김윤식(金允植)이 남긴 『陰晴史』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Kennedy to Granville, Tôkiô, November 21, 1880(Received January 3, 1881), Very Confidential. No.179, FO 46/258; 宋炳基, 「金允植 李鴻章의 保定 天津會談(上): 조미조약 체결(1882)을 위한 조청교섭」, 『東方學志』 44(1984), 184~185쪽.

¹⁸ 일상용품의 수입관세율을 10% 이하, 사치품(담배, 술 등)의 수입관세율을 30% 이하로 규정.

약」에 의거해서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었다. 즉 조선은 「조미조약」을 통해서 청국과 일본이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으로부터 강요당한 조약의 불평등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조미조약」을 중재하였던 청국에게도 기회였다. 리훙장(李鴻章)은 톈진에서 미국 전권대사 슈펠트(R. W. Shufeldt)와「조미조약」체결을 위한 중재를 진행하였다. 그 때 리훙장은 조선의 관세자주권과 10, 30%의 수입관세율 등을 조약 초안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에 불평등한 내용을 조약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그 의도와 관련해서는 1880년 말 허루장이 리훙장에게 보낸「再上李伯相論朝鮮通商書」가 주목을 요한다. 19 그 서신에서 허루장은 청국이 조선과 서구 열강의 조약체결을 중재하였을 때, 5가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썼다. 그 중 4번째는 영사재판권을 멸살(滅殺)하는 것이었으며, 5번째는 청국이 서구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청국은 자국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조미조약」체결을 중재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에 불평등한 내용을 배제했던 것이다.

4. 맺음말을 대신해서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에서는 불평등조약체제의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조미조약」은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배제 혹은 개정하려는 조선, 청국, 일본의 희망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시행중인 조약의 내용을 집약해서 반영한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1883)(이하제2차 조영조약)」을 조선에 관철시킴으로써,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자리해 있었다. 임오군란으로 촉발된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갈등의 고조,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 강화에 따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관철,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정한 「조일통상장정(1883)」체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뿐만 아니었다. 미국은 조약 비준 이전부터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조미조약」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제2차 조영조약」의 균점으로 뜻한 바를 이루었다.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는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정하고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10%에서 7.5%로 낮춘 영국 전권대사 파크스(H. S, Parkes)의 조약안을 승인하였다. 그 이유는 청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즉 각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극복 가능성은 점차 사라져 갔던 것이다.

그렇기에 1880년대 초반 잠깐 등장하였다가 기억에서 사라진 일들을 '불평등 조약체제 극복 가능성' 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다

42

¹⁹ 송병기, 「(駐日淸國公使 何如璋 의 「主持朝鮮外交議」에 대하여), 『동양학』 11, 1981, 228쪽.

음과 같다. 이하의 내용들은 부족하지만 다른 발표자 및 참가지들이 함께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3국의 경쟁과 갈등의 근현대사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모습, 특히 상생의 공존과 공영의 공간으로 동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 내지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를 통해서 상호 공감과 소통의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역사적 갈등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3국의 서양인식을 밝히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 불평등조약과 관련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라는 관점이 강할 것으로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3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의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한다면, '불평등조약'이 갖는 서양의 '침략적 구도' 속에 감춰진 화해와 평화를 지향한 사례가 있을까? 아니 사례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발표 논문



마등경영(魔灯鏡影) -18~20 세기 중국의 매직랜턴 상영과 제작, 그리고 전파-

ゲ 청 (孫 靑,복단대학)

[번역: 차이 리엔춘]

발표 요지

매직랜턴은 17 세기 중반 유럽인이 발명하여 예수회원의 포교활동과 해외무 역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었다. 19 세기에 들어서서, 이 '서기(西器)' 는 프로테 스탄트가 '과학적으로 포교하는' 중요한 도구로 중국에 보급되었다. 이것을 이 용한 프레젠테이션도 근대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7 세 기부터 19 세기까지, 중국 재래의 것과 서로 경쟁하였다. 그럼으로써, 영국의 근대교육 기술과 양식은 포교를 위한 강연이나 개항지에서의 공연강좌, 혹은 학교에서의 강의 등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식인의 모 임이나 발표방법 등도 이전의 폐문결사(비밀결사)로부터 대중을 향해 발신하 는 '영등강연'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유행은 '사(士)' 가 '지식인' 으로 변신하는 것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문제 제기]

- 1. 근대 동아시아의 서양인식에 있어서의 기술과 전파의 조건, 그리고 그 전환 과 영향
- 2. 공업화, 기물(器物)의 전래와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서양지식 구축과의 관계
- 3. 서양화(西洋化)라는 배경하에서 근대 동아시아가 어떻게 지식을 규율 (discipline) 했는가 라는 것과, 대중에게 발신할 때에 엘리트들의 역할과 위치 의 전환

17세기 중엽, 유럽인들은 볼록렌즈를 이용한 투영장치를 발명했다. 처음에는 "환상(幻像)" 과 "신의 기적 (神跡, Miracles)" 재현에 이용되고,인간으로 하여금 육안으로 볼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했다. 초창기에 사람들은 이 것을 "무서운 랜턴" 이라고 불렀다. 이런 장비는 학자와 유랑극단, 장인들 그리고 예수회 선교사와 광학자들을 따라 유럽전역으로 신속히 유행했으며, 바로크시기의 선교사와 마술사들이 열중하는 도구였다. "신의 기적"과 밀접한 관련이었다 보니 "매직 랜턴(Magic Lantern)" 이라는 고정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매직 랜턴은 예수회 사람들과 해외 무역을 통해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황궁과 일부 교회에 소개되면서 새로운 광학 장난감으로 등장하였다.

17세기말 매직랜턴은 이렇게 중국에 소개되었고, 종교적인 뜻을 담은 광학 장난감에서 점차적으로 서구의 과학과 실증주의 정신을 전달하는 매체로 전파되었다. 중국과 서양의 교류라는 시점에서 매직랜턴이 다른 계층과 지역, 사회문화에서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현대성"의 시작 논의에 새로운 접근법이 될수 있다. 4

이러한 외부세계의 중요한 광학도구가 중국에 전파될 때, 불가피하게 현지화가 발생하였다. 현지인들이 정한 명칭이나 사용내용의 중점을 보면, "신의 기적"에서 인간의 오락, 정보, 지식과 혹은 경험주의에 따른 이성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중국 현대교육이라는 배경하에서 매직랜턴 역시 교육과정의 도구와 지식 표현방식이 되었으며, "매직랜턴을 통한 영등강연"(影灯講演)등 새로운 교육과 선전방식이 나타났고, 지식인의 역할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범위도 공동체 내부로부터 외부의 민중으로 변경되었다. 근대 중국으로 볼 때, 교육의 공업화는 "문화하이(文化下移)"의 속도와 넓이를 전에 없이 확대하였을 뿐아니라, 글로벌한 배경에서 민족의 새로운 지식구조를 구축하였다.

^{1 1664}년, 프랑스 루이14세의 궁정수학가Pierre Petit가 파리에서 매직랜턴을 보고, 이 설비를 "cette lanterne de peur" (무서운 랜턴) 이라고 불렀다. 프랑스어의 "la lantern magique" (매직 랜턴) ,영어의 "magic lantern" 은 같은 뜻으로 유행되었고, 점차 고정단어로 되었다.

² 서구의 프로젝트 재현기술사는 Laurent Mannoni, R. Crangle (eds. and tr.,)The Great Art of Light and Shadow: Archeology of the Cinema, (Exeter: 2000) ,pp46-73.Magic Lantern society: New Magic Lantern Journal.을 참조. 서구의 프로젝트의 문화사는 Koen Vermeir, The magic of the magic lantern (1660-1700): on analogical demonstration and the visualization of the invisible,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Vol. 38, No.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127-159 참조.

³ 石云里(Shi YunLi)《장난감에서 과학까지:유럽광학도구의 청나라 전파와 영향》(从玩器到科学: 欧洲 光学玩具在清朝的流传与影响), 《과학문화평론 科学文化评论》2013. 2.

⁴ 현존하는 연구는 주요하게 과학사, 기술사, 교육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이며, 기물의 현지화 응용데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石云里(Shi YunLi) 《장난감에서 과학까지:유럽광학도구의 청나라전파와 영향》; 姜振寰(Jiang zhenhuan) 《〈중서문견록〉(中西闻见录)과 근대기술의 청나라말기의 전파》, 《기술전파와 트랜스포메이션》, 중국과학기술출판사2012, P197-199; 孙承晟 (Sun Chengmao) 《명청시기 서방 광학지식의 중국에서의 전파와 영향—孙云珠Sunyun qiu의 〈경사 镜史〉연구》, 《자연과학사연구》2007.3:余子侠 (Yuzixia), 乔金霞 (Qiaojin xia), 余文都 (Yu wendu)의 《선교사들과근대중국의 전기화교육》(传教士余近代中国电化教育的兴起), 《화중사범대학 학보》2015.1:沈书生(Shen shushing) 《청나라말 민국초기 전기화교육 분석 (清末民初的 电化教育成因探析)》, 《전기화교육연구》2010.11:孙慧(Sun hui) 《환등에서 영화까지: 신보의 조기 영상 광고연구》(从幻灯到电影:〈申报〉早期影像广告研究(1872-1913)》, 박사논문, 난징예술 학원, 2016年: Laurent Mannoni, The Great Art of Light and Shadow; Koen Vermeir, The magic of the magic lantern (1660-1700). Roberta Wue: China in the World: On Photography, Montages, and the Magic Lantern, History of Photography, 41:2, pp. 171-187.; David Wright: John Fryer and the Shanghai Polytechnic: making space for science in nineteenth-century China,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Vol. 29, No.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pp. 1-16.

1. Magic Lantern의 조기 중문명칭

(1) "환등" (幻灯)이라는 중국어 명칭이 사용되기 전

오구통상(五口通商) 전에는 -magic lantern의 중국명칭은 "경 鏡", "영 影", "조 照", "유리 玻璃", "자 字", "화 画" 등과 관련되었으며, 오히려 "마 魔", "환幻" 과 관련된 명칭은 없었다. 많은 문서는 1841년 오구통상 후부터 나타났으며, 주 요 항구도시인 상하이 등 지역의 기록이나 신문, 광학전문지에 실렸다. 이 중에는 "방자경 放字鏡". "경영등 鏡影灯". "영등 影灯". "취영등희 取影灯戱". "사영등 射影灯" , "영희등 影戱灯" , "영희 影戱" , "외국영희 外国影戱" 등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경 鏡" 과 "영 影" 외, "등 灯" 도 주요한 명칭이었다. 동시에 "극 (희)戱" 도 중요한 표식이 되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중, 매직랜턴의 주요용도가 연출과 오락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가 생각한다.

일반 중국어문기록 외, 19세기이래 중국에 나타난 많은 외국어사전에도 편집 자가 각 지역에서 관찰한 언어현상을 개괄 전파하였다. 최초 이러한 사전은 주로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편집하여, "중국어를 서구 언어로 번역" 하였는데, 이는 서 양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였다. 1870년대 이후, 각 지방 의 교회학교, 신학당에서는 외국어 과정을 신설하였고, 서양 목사들 외, 중국인 들, 예로 쾅치쪼우(邝其照)도 "서구언어를 중국어로 번역" 하여 사전을 편집하였 으며, 그 목적은 중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들은 매직랜턴의 중국어세계에서의 명칭변화 연구에 도움이 되는 중 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우선 "중영사전" 의 상황을 보겠다. 1807년 스코트랜드 선교사 마리슨 (Robert Morrison, 1789-1834) 이 런던교회에서 중국으로 파견되었으며, 1815년부터 1823년사이 마카오에서 3부 6권의 "영중, 중영사전"을 출판하였는 바 이는 중국 최고의 "영중대조사전" 이었다.5《마리슨사전》에서는 제2부의 "경 鏡" 과 "조 照" 항목에 "천리경 千里鏡"과 "현미경 顯微鏡" 이라는 단어를 수록하였을 뿐이었다. 6

그 후 중국에서 유행한 중영사전, 예를 들면 매드후스트 (Medhurst, Walter Henry, 1796-1857) 의 《화영사전》(華英字典, 1842-1843), 새뮤얼 윌리엄 (Samuel Wells Williams, 1812-1884) 의 《영화분음촬요》(英華分韵撮要, 1856) 도 "경 鏡", "화 火", "등 灯", "조 照", "환 幻" 항목에 매직랜턴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반대로 "경 鏡" 항목에 "천리경 千里鏡" 과 "현미경 显微鏡" 이라는 단어 를 수록하고 해당한 영어설명을 하였다.

반대로 "영중사전"의 상황은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1847년에서 1848년까지 영국선교사인 매드후스트 (Medhurst) 는 중국 강희자전(康熙字典) 을 기초로, 마리슨사전을 참고하여 2권의 《영화자전》(英華字典)을 출판하였다. 매드후스트 는 이 사전의 "Magic" 항목에 영어로 "Magic Lantern"을 수록하였으며, 그 중

⁵ 沈国威(Shen guowei):《近代英华华英辞典解题》, 오사까(大阪), 关西大学출판사 2011 년판.

⁶ Robert Morrison,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Vol. I. (Macau: The Honorable East India Company' s Press ,1819), p. 467, p. 548.

국어 단어로 "유리영화경" (玻璃影画鏡)을 선택하였다. 7 1872년 미국선교사인 저스터스(Doolittle, Justus, 1824–1880)의 2권의 《영화췌림음부》(英華萃林韵府)가 푸저우(福州)에서 출판되었으며, 그는 "Magic" 항목 아래에 "Magic Lantern"을 수록하고, 대응한 중국어 단어 역시 "유리영화경" (玻璃影画鏡)이라 하였다. 8

1866년부터 1869년까지 독일선교사인 롭샤이트(Lobscheid, Wilhelm, 1822-1893)는 홍콩에서 4권의 <영화사전> (英華字典,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with the Punti and Mandarin Pronunciation)을 출판하였다. 그는 "Magic Lantern" 항목에 "영화경" (影画鏡)이라는 중국어를 사용하였고, 광동어발음(ying wa keng)과 관방언어(ying hwa king)을 적었다. 10 1884년 이노우에 테츠지로 (井上哲次郎, Inoue Tetsujiro)가 롭샤이트사전을 증본 시, 11 그 항목에는 중국어 단어 "사영경" (射影鏡)이 추가되어, 원래의 "영화경" (影画鏡)과 병렬되어 있었다. "사영경" (射影鏡)은 1937년까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

1908년 이앤후이칭(颜惠庆)의《영화대사전》(英華大辞典)에서는, "Magic, Magical" 항목에서 "Magic Lantern" 이라는 단어 및 그에 해당한 중국어단어 "영희등, 사영등, 환희등"(影戱灯, 射影灯, 幻戯灯)을 수록하였다. 12 1913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영화신자전》(英華新字典) 역시 "Magic, Magical" 항목에 "Magic Lantern" 이 있고, 중국어번역으로는 "사영등, 영희등"(射影鏡,影戱灯)을 사용하였다. 13

이러한 <영중사전>은 직접 "magic lantern"에 중국어 발음의 단어를 수록하였다. 당시 중국어방언(dialect) 사전도 유행했다. 1876년 미국선교사인 윌리엄 모리슨 (William T. Morrison)은 《닝보방언글자해석》(宁波方言字语汇解,An Anglo-Chinese Vocabulary of the Ningpo Dialect)을 하였고, 상하이美華서점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에서 출판하였다. 14 1883년 영국 런던회의 선교사 맥코반(John Macgowan, 1835~1922)은 《Amoy 방언 영화사전》(厦门方言英華词典,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of the Amoy Dialect)을 편집출판하였다. 15

이러한 역사자료에서 보다시피, 영어로 상대적으로 고정된 단어인 매직랜턴이, 중국어 한자의 "환幻", "마魔"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鏡", "등灯", "영影", "희 戱"등 현지 물건들과 연결되었다. 모든 사전에서 "magic"이라는

⁷ Walter Henry Medhurst,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Shanghae: Printed at the Mission Press, 1847-1848), p. 814.

⁸ Justus Doolittle, *Vocabulary and Hand-book of the Chinese Language* (英华萃林韵府) (Foochow: Rozario, Marcal and Company, 1872.), p. 295.

⁹ 沈国威(Shenguowei)《近代英华华英辞典解题》 참조.

¹⁰ Wilhelm Lobscheid,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with the Punti and Mandarin Pronunciation (Hong Kong: The Daily press office, 1866-1869).

¹¹ 井上哲次郎(Inoue Tetsujiro):《订增英华字典》, 도쿄 1884 년관, 藤本次右卫门藏, p. 696.

¹² 颜惠庆(Yan huiqing):《英华大辞典》(An English and Chinese Standard Dictionary), 商务印书馆1908년관.

¹³ 商务印书馆 编译所:《英华新字典》(English and Chinese Pronouncing Condensed Dictionary), 商务印书馆 1913 년관, p. 311.

¹⁴ William T.Morrison, An Anglo-Chinese Vocabulary of the Ningpo Dialect (《宁波方言字语汇解》)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6), p. 284.

¹⁵ John Macgowan,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of the Amoy Dialect (Amoy: A. A. Marcal, London: TRUBNER & Co.,1883), p. 288.

영어단어가 전부 한자의 "幻" 자와 대응관계를 가지지만, 이러한 관계가 "magic lantern"이라는 조합단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은 생각할 만한 부분이다.

(2) "환등 幻灯" 이란 단어의 발생과 유행

1891년《신보》는《링주어지성》(蛉洲记勝)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관한 보 도를 하였으며, 그중 아이치(爱知). 기후(歧阜). 후쿠이(福井)현 지역의 지진 후 나가사키(長崎)의 '紳商' 이 환등회(幻灯会)를 열고 도네이션을 진행하였으며. 행사에서는 중국, 일본, 서양음악과 동시에 환등(幻灯)을 방영하여 "지진상황과 기타 기이한 사건"들을 전시하였다고 했다. 보도에서는 "환등" (幻灯)이 중국의 "영희" (影戱)과 비슷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16

1899년 《신보》는 또 한번 일본에 관한 보도를 하였으며, 그중 "최근에 일부 사당들에서 환등회의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위생관련 설명을 하였다"고 하였 으며, 문장 중 "환등" 이 중국의 "영희" (影戱)과 비슷한것이라고 해석하였다. 17

위의 보도에서 보다시피, 1890년대 중국어세계에서는 magic lantern을 "영희" (影戱) 라고 불렀으며, 일본뉴스를 전달할 때만 일본에서 사용하는 '환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862년 일본에서 출판된 《英和对譯袖珍辞典》(A Pocket Dictionary Of The English And Japanese Language) 에서는 이미 "환등 幻灯"을 영어 "Magic Lantern"의 유일한 번역으로 정착하였다. 18 따라서 한자인 "幻灯"이 일본어에 서 magic lantern으로 사용된것은 1860년대 이전으로 판단된다.

1902년 일본 영학신지사(英学新志社)의 《英和双解熟语大字汇》(A Dictionary of English Phrases with illustrative sentences) 가 도쿄에서 출판되었다. 19 이 사전은 영어 "Magic Lantern"에 상응한 단어로 "환등 幻灯"을 사용하였다.

1916년, 독일인 허멜링 (Hemeling, Karl Ernst Georg, 1878-1925) 의 책 《官話》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the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 에서 도 "Lantern" 아래에 "Magic Lantern" 과 "Magic Lantern slide" 를 넣어 앞 단 어의 대응단어로 "사영등 射影灯", "환등 幻灯"을 사용하였다.20

이는 20세기초,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한자 "환등 幻灯" 이 점차적으로 중국인 들의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그후 상당히 긴 기간, 중국어세계에서는 "幻灯" 과 "影戱" 등 본토 고유명사들이 병존하였다. 1927년 전후, "幻灯" 은 점차적으로 기타 단어들을 대체하고 "magic lantern" 의 중국어 단어로 사용되었다.

48

^{16 《}링주어지성 蛉洲记胜》, 《신보 申报》, 1891. 12. 14, 제 3 판.

^{17 《}츠칸사건 赤嵌近事》, 《신보 申报》, 1899. 12. 31, 제2판.

^{18 《}英和对译袖珍辞典》 (A Pocket Dictionary Of The English And Jpanese Language), 1862, 江户 开板本, 日本와세다대학, p. 475.

¹⁹ 영학신지사(英学新志社), 《英和双解熟语大字汇》, 도쿄, 1902년판, p. 274.

²⁰ Karl Ernst Georg Hemeling,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the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 (官話) and Handbook for Translators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1916), p. 766. 沈国威(Shen guowei)《近代英华华英辞典解题》 참조.

2. '매직랜턴'의 중국에서의 초기상황

(1) 17세기 광학 장난감

17세기 중반, 유럽에서 발명된 매직랜턴은 곧 중국에 들어왔다. 1671 ~ 1672 년사이 도밍고(Domingo Fernandez Navarrete), 남회인 (南怀仁 Ferdinand Verbiest S.J.)등 예수회원들은 새로운 광학 장난감으로 "매직랜턴"을 황제에게 바쳤다. ²¹ 프랑스 선교사 뒤알드 (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 는 <중화제국전지 > (中華帝国全志, General History of China)에서 선교사들이 중국황제에게 광학지식을 가르키고 방영하는 상황을 기록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소저우(蘇州), 양저우(楊州), 난징(南京)등 지역의 민간행사에는 매직랜턴이 등장하였다. 1846년, 쩡푸광(鄭復光)은 본인이 10여년 전 한쌍(邗上, 현재 중국 강소성 양주시 한강구)에서 취영등희를 보고 관심을 가져 광학연구를 하였다고 한다. ²² 왕토우(王韬), 거위앤쉬(葛元煦)등은 상하이에서 취영등희를 본 상황 즉 항구 도시의 주요 오락활동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외국의 사람과 동물과 산수화 외에도 화재, 태풍 등 재해현장까지도 관중들의 관심사항이었으며, 거위앤쉬는 취영등희를 통해 서방국가의 전쟁상황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기록은,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황궁에서 민간까지 매직랜턴이 주요한 오락시설로 등장하였으며, 그러나 유럽과 달리 "환상" 이나 "신의 기적" 으로 사람들의 공포와 경외감을 일으키는 작용은 없었다.²³

(2) 19세기중반이후 항구도시에서의 서양인의 사회활동

1842년 난징조약으로 중국 광저우의 식민지 시대를 끝마치고, 항구 개방이 되었다. 당시 서양인들과 같이 들어온 일용품중에 매직랜턴이 있었다. ²⁴ 1850년대이후, 서양인들이 항구도시에 집중하게 되었고, 사(司)의 협조관리 외, 여러가지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사회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중 매직랜턴을 통한 강연과연출은 중요한 오락활동중의 하나였다.

1860년대 닝보우 도서클럽 (NingPo Book Club) 은 외국주민들 집거지역에서 저녁강의도 하였다.²⁵ 1868년 5월의 강의는 당지의 구체상황을 소개하였으며, 내

²¹ 남화인(南怀仁, Ferdinand Verbiest)著, Noel Golvers 영문번역, 위산러(余三乐) 중국어번역, 린줜시융 교정:《남화인의 유럽천문학》(The Astronomia Europaea of Ferdinand Verbiest S.J.), 대 상출판사, 2016.

²² 정푸광(郑复光): 《찡찡링츠 镜镜詅痴》, "서序", p. 1

²³ Laurent Mannoni, The Great Art of Light and Shadow, pp. 46-73.

²⁴ Edward Belcher, NOTES OF A VISIT OF H.M. SHIP SAMARANG, UNDER CAPT. SIR E. BELCHER, C.B., TO THE BATANES AND THE MADJICOSIMA GROUPS, in 1843-44. The Chinese Repository (1832-1851), 1844. 3. 1.선장의 이런 노트는 추후 단행본으로 1848년 런던에서 출판. Edward Belcher,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London: Benham, and Reeve, 1848)

²⁵ 廖乐柏(RobertNield)저, 리쇼우(李筱) 역: <중국통상구안- 무역과 최초의 조약항구>, 동방출판 중심 2010년, p. 214

용은 중국의 인구, 공공위생위원회, 희극(오페라)등을 포함하며, 매직랜턴의 형식도 활용 하였다.²⁶

1884년 4월, 존 프라이어 (John Fryer,1839-1928) 는 영국 로얄 아시아협회 (Asiatic Society) 상하이분회에서 "중국인의 연옥관념" (Chinese popular notions of Purgatory)라는 매직랜턴 강연을 하였다. 1885년 12월 2일 영국조계지의 템프런스 홀 (Temperance Hall) ²⁷에서 또 한번 매직랜턴 강연을 하였다.

1887년 4월 13일, 상하이문학변론협회 (Shanghai Literary and debating society) 역시 템프런스 홀에서, 부회장인 존 프라이어 (John Fryer) 는 매직랜턴으로 "중국인의 역사상 도덕관" (Chinese Morality)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강연중, 존 프라이어는 랜턴으로 중국화가가 그린 그림들을 방영하며 중국 역사상의 개인도덕관련 이야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그림들의 예술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29 1887년 4월 27일, 존 프라이어는 같은 장소에서 상하이 기독교청년회 (YMCA)에 "스코트랜드 하이랜드 여행기" (Trip to the Scottish Highlands)를 강연하였다. 매직랜턴으로 스코트랜드의 아름다운 풍경과 여행노선,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30

매직랜턴은 또한 조계지내 서양인들의 사교활동중 중요한 오락형식이었다. 1893년 6월 상하이경마회 (Race Club)는 조계지에서 스모킹 콘서트 (Smoking Concert)를 열었다. 바이올린 등 퍼포먼스 외, 매직랜턴으로 상하이의 경마행사에 참석한 말과 선수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절목이 있었다.³¹

베이징의 서양인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1858년 텐진조약《天津条约》후 외국공사의 베이징거주가 가능했고, 1870-80년대까지는 각국 주중 공사와 가족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여러가지 자선행사와 오락행사, 강의로 사교계를 이루어 갔다. MEM (Methodist Episcopal Mission) 은 매년 겨울 베이징에서 2주간의 강의를 진행했다.

(3) 중국 내륙지역의 포교활동

매직랜턴이 오락에서 포교활동에 쓰이게 된 것은 아마 19세기에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중국 내륙지역에서의 활동과 연관된다. 1893년 안후이성 쉬앤청(安徽宣城)에서 포교활동을 한 조지 밀러 (George Miller) 목사가 중국 농촌에서의 포교관련 다음 글을 적었다.

매직랜턴은 농촌마을 포교활동에 상당히 유익하다. 가끔 오해도 있지만, 잘 설

50

²⁶ NINGPO BOOK CLUB, The North China Herald and Market Report (1867-1869), May 9, 1868, p. 213.

^{27 1883}년<상하이행명록(上海行名录)>: 상하이 난징으로 18번지. The North China Desk Hong List, 1883. 1, p. 29참조.

²⁸ NEWS OF SUMMARY,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Dec 9, 1885, p. 646.

²⁹ Shanghai Literary And Debating Society,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1870-1941), Apr 22. 1887, p. 440.

³⁰ Shanghai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1870-1941), Apr 29. 1887, p. 472.

³¹ The Race Club Smoking Concert,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Jun 30, 1893, p. 951.

명하면, 화면을 통한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되며,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 32 1870년 12월 22일, MEM의 연차보고에 보면, 푸저우(福州)에서 중국 현지 선교사들에게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시험을 보고, 분기별 테스트를 한다. 33

1882년 베이징에서 교회는 주일행사에서 매직랜턴으로 대량의 일반 민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교회는 중국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유효한 정보"를 전파하였다.³⁴ 1886년, Rev.W.P. Sprague는 료우닝성 뉴좡(辽宁牛庄)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그는 친구의 건의대로 천진, 베이징 등지역 선교사들의 경험을 참조하여, 매직랜턴을 사용하였다.³⁵ 1886년 11월 26일, 애드우드박사(Dr. Edwards)는 싼시타이위앤 (山西太原)에서 야간강의에 매직랜턴을 사용하여당지 영향력이 있는 엘리트들의 관심을 모았다.³⁶

1891년, 영국 선교사 애드우드 이반스 (Edward Evans) 는 중국에서의 포교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싼둥칭저우(山東青州府, 현재 山東青州市益都镇益都城) 에서 야간 매직랜턴으로 당지의 점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효과가 좋았다. 37 1893년 싼시타이구 (山西太谷)의 엘리트들 즉 지식인과 교사를 포함하여만든 단체는 대표를 파견하여 REV.D.H.Clapp 목사에게 3일간 야간 매직랜턴 강의를 요청하였다. 마지막 밤, 목사가 방영한 내용은 순수한 종교내용이었다. 3차의 매직랜턴 강의는 약 300여명의 청중을 끌었다. 지식인들은 목사에게 감사의뜻으로 타이구현의 교회학교에 도네이션을 하였다. 38

1902년, 쟝시쥬우쟝(江西九江)의 루산구링(庐山牯岭)에서도 교회의 참여하 오락형식의 매직랜턴강의가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중에게 개방되었다. 이 시기 매 직랜턴 강의는 이미 중국 내륙지역의 포교활동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39

1897년초, 경사대학당(京师大学堂)의 총감독인 마틴 (W.A.P.MARTIN) 은 서구과학을 활용한 포교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과학적인 포교실천중 4 가지가 중요하다. 그중 한가지가 가격이 싼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이다. 매직랜턴, 그래퍼폰 축음기 (graphophone), 광학, 전기, 스팀설비 등이 포함된다. 40 마틴은 여기서 매직랜턴이 중국내 포교활동 중에 광범히 사용된 중요원인중의 하나로 싼 가격과 쉬운 사용방법이라고 지적했다.

³² Miller, George, "Localized Work,"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Aug 1, 1893, p. 362.

³³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Jan 4, 1871.

^{34 &}quot;Outports: Pekin,"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Feb 7, 1882, p. 155.

³⁵ W.P. Sprague, "Editorial And Notes And Missionary News,"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Feb 1, 1886, p. 80.

^{36 &}quot;Extracts From Letters,"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Mar 1, 1887; p. 121.

³⁷ Edward Evans, "Missionary News,"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Apr 1, 1891, p. 189.

^{38 &}quot;Shansi Notes: The Late Frost An Entertainment Widespread Suffering The Yearly Balance, Our Own Correspondent,"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Mar 10, 1893, p. 338.

³⁹ George A Clayton, "Correspondence: Magic Lantern Exhibitions At Kuling,"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Jun 1, 1903, p. 304.

⁴⁰ Martin, W.A.P , "Western Science As Auxiliary To The Spread Of The Gospel,"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Mar 1, 1897, p. 111.

(4) 선교사들의 의학교육에서 인체구조 전시

19세기 중국에 온 선교사들은 의학을 활용한 포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일상 업무중, 매직랜턴을 통하여 인체골격구조, 내장기관, 혈액순환 등을 보여주었다. 그중, 영국런던의 선교사인 존 더전 (John Dudgeon, 1837-1901) 은 매직랜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구한 선교사이다. 41

(5) 항구도시의 신식 학당교육

1840년대 오구통상 후, 항구도시에는 교회학교들이 나타났으며, 60년대 이후 에는 중국인들이 만든 신식 학원과 학당들이 나타났다. 이런 학교에서는 서구 언 어문자, 과학과 문화를 가르쳤으며, 매직랜턴은 이 과정중 중요한 도구였다. 1848 년, 마리슨 교육 학회 (Morrision Education Society) 는 제10차 연차보고서에 서 스폰서들에게 서적 외에 교학도구들을 요청하였으며, 거기에는 매직랜턴도 포 함되었다. 42 1877년 2월 23일, 상하이 폴리테크닉학원(Polytechnic Institution)의 전문위원회는 스폰서들로부터 어떤 교학용 도구를 받을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 고, 영국 런던에서 구입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중에는 기계엔진 모델, 매직랜턴등 이 포함되었다. 43

17세기 초의 광학장난감에서, 오구통상후 항구도시 서양인들의 사회활동의 중 요한 내용 중 하나로, 초기 매직랜턴의 중국내 역할은 주요한 부분이 오락이었다. 또한 싼 가격과 편리함으로, 선교사들을 따라 중국 각지의 농촌에까지 전파되었 다. 중국 국민들도 "눈으로 보이는 실체"를 믿기 시작했으며, 서구 종교와 함께 들어 온 "과학"은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한, "환각"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3. 서양의 '器' 와 중국: 제작, 방영과 전파

(1) 제작

19세기 중반이래, 서구 선교사들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포교활동이 자유로왔으 며, 매직랜턴은 일상적인 보조도구였다. 따라서 프로젝터와 슬라이드의 제작과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다.

1873년, 영국런던 의학선교사 존 더전은 중서견문록(中西闻见录, News from China and the West) 9~12기에 <경영등설>(鏡影灯說, On the Magic Lantern) 이란 제목의 연재를 통하여 <경영등>(鏡影灯)의 제작방법을 도면을 통하여 싸 이즈와 재료까지 상세히 기술하였다.

^{42 &}quot;The Tenth Annual Report Of The Morrison Education Society For The Year Ending Sept. 30, 1848," The Chinese Repository (1832-1851), Jan 1, 1849, p. 3.

⁴³ John Fryer, "Public Meeting: The Polytechnic,"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Mar 15, 1877, p. 26.

53

1880년 만국공보 (万国公報, A Review of the Times)가 <경영등설략>(鏡影 灯說略) 라는 제목으로 설비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실어, 프로젝션의 방법과 다양하게 보이는 기교에 대해 설명하였다. 4 존 더전의 <경영등설>과 비교시, 만 국공보에 실린 글은 좀 더 간단하였고, 프로젝트의 운영원리만 논의함으로, 관중들의 서양경(西洋鏡)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존 더전의 서술은 기술도면처럼 완벽히 도면으로 완성되었다.

선교사들이 프로젝트설비 제작에 관심을 보인 외에도, 중국에 있는 서양인들은 일찍이 사진기로 중국견문을 기록하여 그 사진과 현상기술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촬영협회를 만들어 Slide 제작에 대한 강의와 콩쿠르도 하였다.

1905년 11월 2일, J.Hervey Longhurst는 중국주재 서양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촬영협회에서 슬라이드 제작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그는 50여장의 고품질의슬라이드를 방영하였고, 제작과 현상 및 처리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상하이 아마추어촬영협회는 1913년 ~1914년간 지속적으로 슬라이드 제작과 사용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⁴⁵

1937년 전후, 중화서국(中華書局)은 상하이에 <중화 교육도구 제조공장>을 설립하였다. 제품판매목차로 보면 당시 이미 환등기(幻灯機:영사기)를 제작할 능력을 구비하였다.⁴⁶

(2) 방영

앞에서 설명한 포교행사에서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천문학, 동물학을 설명하고 시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신앙심을 키우게 한 것 외에도, 19세기 후반기 상하이 등 항구도시의 중국인들은 매직랜턴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하 기도 하였다.

1885년, 중국 광동/광서성, 산동성 등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었다. 이앤융징 (颜永京) 목사는 세계 각지를 유람하면서 모은 슬라이드를 Polytechnic Institution (格致書院) 에 빌려 주어 매직랜턴을 활용한 재해지역 구제금 모임을 하였다. 11월 21, 23일 매직랜턴으로 80여장의 슬라이드를 방영하였고, 그 내용은 서구 지역의 도시와 풍경 이었다. 입장권가격은 50센트였고 전부 재해구제금으로 전달되었다. 47이 행사는 큰 환영을 받았고, 11월 25일 또 한번 진행하였다. 48 방영은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11월 28일과 12월 3일에 상하이에서 두번 추가하였으며, 내용중 몇십장의 슬라이드를 추가하였다. 49 11월 28일 입장권은 여전히 50센트였으며, 12월 3일은 슬라이드를 바꿔서 입장권도 20센트로 변경하였고, 전부 재해구제금으로 하였다.

Polytechnic Institution (格致書院)은 자체적으로 의학과 서구 정치제도에 대

^{44 《}매직랜턴소개 镜影灯说略》, 《만국공보 万国公报》589기, 1880. 5. 15, p. 18.

^{45 &}quot;Shanghai Amateur Photographic Society",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Nov 3, 1905.

^{46 《}자작환등기 自制两用幻灯》,《신보申报》,1937.12.15,제2장.

^{47 《}매직랜턴으로 재해지원 影戏移赈》, 《신보 申报》, 1885. 11. 19, 제4판; 1885. 11. 23, 제1판.

^{48 《}매직랜턴관람후기 观影戏后记》,《신보 申报》,1885.11.25 , 제 1 판.

^{49 《}매직랜턴의 재연 重演影戏》, 《신보 申报》, 1885. 11. 28, 제3판. 《매직랜턴 신버전 影戏翻新》, 《신보 申报》, 1885. 12. 3, 제2판.

한 내용을 무료로 방영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1897년 11월 6일 <영등희>(影 灯戱)을 활용하여 각종 도면을 설명하였다. ⁵⁰ 1897년 11월 30일은 요셉(Joseph Edkins)을 초청하여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 60년 정책" 과 "동물과 새" 들의 도면을 방영하였다. ⁵¹ 1898년 3월 29일 존서원(约翰書院)의 리쓰(李思)를 초청하여 "천문지리"를 강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였다. ⁵²

Polytechnic Institution (格致書院)외, 훙커우서원(虹口中西書院)도, 매직랜턴으로 서구 과학을 설명하였다.⁵³ 이러한 신 서원들은 매직랜턴으로 강의를 하였고, 내용은 전문적인 과학지식이나 서구 정치제도이지만, 형식은 사회대중들에게 오픈하였다. 이는 조기 환등강연(幻灯講演)의 통상적인 모델이었다. 이러한 모델은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소수 엘리트계층 뿐아니라 전 사회의 민중들에게 오픈하였다.

1919년에는, 1917년에 설립된 Yangzepoo Social Center"가 저녁 시간대에 상하이의 유명한 강의자들을 초청하여 매직랜턴으로 강의를 하였고, 참석자들도 적극적이었다. ⁵⁴ 이렇게 매직랜턴 방영은 이미 신형 학당, 교회, 사회조직의 중요한 선전, 강의, 집회, 교화형식으로 되었다.

(3) 전파

19세기중반부터 20세기초까지, 매직랜턴(影戱等講演)은 이미 상하이, 베이징, 창싸 등 도시지역의 유명한 대중오락과 포교활동의 방식으로 되었다. 따라서 슬라이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슬라이드는 주로 영국에서 생산되었다. George Richardon &Co., 그리고 Magic Lantern Journal Company limited., "GEM" dry Plate Company limited., 등 생산업자가 있었다. 죠지 리차던은 중간 딜러로, 1868년에는 북화첩보(北華捷报)에 매직랜턴과 슬라이드 판매광고도 실었다. 그 업무범위는 망원경, 현미경, 증기기계 모형 등 과학기술 보조설비들을 포함한다. 55 후자가 생산한 슬라이드는 현재 여전히 실물을 볼수가 있다. 당시 매직랜턴기기와 슬라이드 한 세트의 판매가격은 7실링 6페니에서 22 파운드까지 다양하였다. 이앤융징 목사가 해외에서 입수하여 1885년 구제방영시 사용한 해외여행 슬라이드는 영국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판단되며, 현재도 비슷한 내용의 슬라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 기기와 슬라이드는 상하이 Polytechnic Institution (格致書室), 중서대약방 (中西大藥房) 등 점포에서 많이 판매되었다. 슬라이드 역시 주로 영국산이었고, 판매가격은 대략 세트당 2달러에서 2.5달러사이였다. 56

슬라이드 구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따라서 사람들이 슬라이드 렌트협회

54

^{50 《}폴리테크 인스티튜션 서자기 강의론 格致书院讲论西字启》, 《신보 申报》, 1897. 11. 16, 제6판.

^{51 《}요셉 서학강의론 艾约瑟先生讲论西学启》, 《신보 申报》, 1897. 11. 30, 제6판.

^{52 《}폴리테크 인스티튜션 서자기 강의론 格致书院讲论西字启》,《신보 申报》,1898. 3. 29, 제 6 판.

^{53 《}매직랜턴 대관 影戏大观》,《신보 申报》, 1902. 1. 29, 제 3 판.

^{54 &}quot;The Yangtzepoo Social Center, Djen, S.C," Millard's Review of the Far East (1919-1921), Dec 27, 1919.

⁵⁵ The North China Herald and Market Report (1867-1869), Jul 11, 1868.

^{56 《}매직랜턴 판매기 影戏灯出售》,《신보 申报》, 1887. 1. 18, 제5판; 1889. 4. 16, 제5판; 《중서 대약방의 슬라이드 신규리스트 新到各货中西大药房·影戏灯片》,《신보 申报》, 1889. 9. 22, 제6판.

설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1886년 8월 Brown. Frederick는 <교무잡지>에 편지를 보내, 슬라이드 렌트협회를 제안하였다. 슬라이드 주제가 대부분 과학과 건축에 관련된 것이고, 방영회도 매번 같은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없기에, 슬라이드를 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슬라이드 내용 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여 방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⁷

영국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상하이 등 항구도시의 약국, 서점등에서 판매하고, 서로 렌트가 가능한 방식으로 유통된 것이 바로 조기 슬라이드 전파의 주요모델 이다.

4. 극장에서의 지식

1871년 감리교 (The Methodist Church)가 푸저우에서 포교시, 매직랜턴으로 천문학과 일식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는 본토신앙보다 "경험주의 인정"이 쉬운 즉 "과학" 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이는 기독교의 중국 본토화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876년 9월 25일, 미국인들이 베이징 떵쓰커우(灯市口)회당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매직랜턴 방영을 하였다. 당시 동문관(同文館)의 헤드인 마틴(William A.P. Martin)은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방영을 보았으며, 관중들은 서방 지식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⁵⁸

위대한 인물부터, 국가, 그리고 박물관에서 곤충, 다시 성경이야기까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구체적인 지식으로부터 신앙에까지, 슬라이드 방영순서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서학(西学)과 순서에 대해 전체적인 인상과 이해를 하게 되었다. 본질을 따지고 솔직하게, 경험적인 인식에서 초월적인 인지까지, 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인간행위의 윤리제도에 대한 이해까지, "과학"은 신앙의 고도에까지 달하였다.

1888년 춘절, 원저우(温州) 기독교 여자학당과 남자학당은 방학하였다. 교장선생님인 Brazier는 집에 돌아갈수 없게 된 학생들에게 매직랜턴으로 슬라이드를 방영하여 주었다. 예상 외로 학당에서 "환술"을 사용하였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교장선생님은 부득이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초청하여 재방영을 하였다. 관람 후에도 부모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교장은 다시 한번 원저우 지방관리들을 위하여 방영하였고, 지방 엘리트들은 방영에 만족하였다. 따라서 매직랜턴은 원저우에서 유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후에는 입장료를 받아서 재해지역 구제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⁵⁹ 여기서 보다시피, 시각경험을 기초로 한 실증성 체험은 매직랜턴으로 하여금 "환술"이라는 인상을 없애게 되었고, 기독교의와 선교사들이전파하는 "과학"이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실증할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1883년 겨울, 마틴(William A.P. Martin)은 베이징의 감리교회에서 야간 중문

⁵⁷ Frederick Brown,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Aug 1, 1896. 58 소산거사(小山居士): 《매직랜턴 관영기 观镜影灯记》, 《만국공보 万国公报》제419기, 1876. 9, p. 26

⁵⁹ CHINESE NEW YEAR HOLIDAYS AT WENCHOW,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Mar 2, 1888.

강의를 하였으며, 이때 매직랜턴을 활용하여 관중들에게 외국의 도시, 도로, 건축, 조명, 용수 시스템 등을 중국의 도시와 비교하였다. 설명한 도시는 런던, 파리, 베르사이유, 베니스,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 등이 있었다.⁶⁰

슬라이드는 관중들로 하여금 육안으로 직접 볼수 없는 세계를 접하게 하였다. 천문 현상, 인체구조, 혈액순환, 혹은 해외 타지역 풍경, 자연재해 등은 관중들이 기존에는 직접 체험할수 없었고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만 하는 인식들이었다.

슬라이드는 이 부분의 인지대상을 극장과 같은 전시공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자가 만든 이미지를 자신의 시각으로 직접 접하게 할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지식을 얻는 과정 중, 직접경험에 의한 구체적인 인지는 곧 추상적인 논리추론을 대체하게 되었다. 일단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감각경험에 의한 "합리적" 인 판 단에 의거하게 된다. 지식을 얻는 과정 중에서도 감각경험을 더 믿게 되며, 감각 경험이 닿을수 없는 분야만이 추상적인 추론의 힘을 빌게 된다.

결론:

중국 근대 지식의 교훈과 엘리트 역할의 변화

17세기 유럽인들이 매직랜턴을 발명후, 이러한 볼록렌즈장치는 선교사들과 해외 무역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으며, 궁중에서부터 민간에까지, 사람들은 초기에는 오락적인 체험을 위주로 하였다. 19세기초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신교 선교사들의 중국내 활동에 따라 매직랜턴은 점차적으로 오락과 환술에서 "과학적인 포교"의 도구로 변경되었으며, 서구 과학과 경험주의 원칙으로 "초월성을 띤 교의"를 검증하고 전파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초반, 매직랜턴의 발견은 교화와 전파의 구체형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근대 지식의 생산, 유통과 소비의 배경하에 상황이 훨씬 다이나믹하게 되었다.

지식전파가 엘리트층에서 대부분의 민중들로 전이된 외에, 영미(英美) 근대 교육 기술과 학당교육방식의 동아시아로의 전파는 지식의 표현방식의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였다. 이 규범의 주요특징은, 분과별 프레임내에서 경험주의 원칙과 구체적인 각본 (script)으로 진행되었다.

19세기 중반, 항구도시에는 신형 학교가 밀집했고, 서구 학과 지식과 언어과정을 개설했다.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한 외, 영등강연도 중요한 수업방식이었다. 수업중 사용한 슬라이드는 영국산이 대부분이었으며, 대본과 참고자료가 동시에 출판 되었다.⁶¹

중국근대지식의 생산과 유통으로 볼때, 구체적인 주석, 개념, 문건, 내용, 분류체계 등 대부분이 외부에서 인수되었을 뿐 아니라, 그 표현방식과 전달방식도 서구에서 많이 들어왔다. 예로 1835년 스코트랜드의 체임버스형제(Robert

56

^{60 &}quot;Our Own Correspondent,"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Mar 5, 1884, p. 253.

⁶¹ T.C.Hepworth, F.C.S., The Book of Lantern being A Practical Guide to the working of the optical (of Magic) Lantern (London: Wyman & Sons, 1888).

57

Chambers & William Chambers) 가 편집 출판한 총서 체임버스 애듀케이션 코스 (Chambers' Educational Course) 는 강남제조국에서 선택 및 중국으로 수입하여 학당교재로 사용되었고, 청나라말기 지식인들이 서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나아가서 과거시험과 합법성논술에 필요한 "지식자원"이 되었다. '동시에 영등강연은 신형 학당의 교학과 과학기술 보급강의의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이러한 도식화된 표현수단은 근대유형의 일종의 "지식규범"으로, 중국의 "현대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물(器物)측면에서 보면, 매직랜턴, 경영(鏡影)은 서양에서 온 수입품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다가 그의 단순 "확대"기능 외에도 새로운 현지화를 시도하였다. 존 더전, 존 프레이어, 마틴, 쩡푸광 등은 중국현지에서의 "환등기"의 제작과 현지 안료(颜料)를 활용한 슬라이드 제작 그리고 조명(照明)문제 해결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소개와 논술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등 현지자원들로 하여금 서구 기물의 방영내용이 되기도 하였다. 매직랜턴에서 경영등(鏡影灯)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서기(西器)의 현지화는 글로벌 지식체계의 유통과정 중 "현지생산"이라는 중요한 내용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동시에, 19세기 영등강연의 유행은 엘리트들의 모임방식과 발표역할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중국 내에서 일부 "환등기"를 생산할수 있었지만, 슬라이드는 여전히 영국에서 수입되었다. 우선 상하이 등 지역에서 판매, 임대와 유통되었으며, 다음 신형 서점, 학교, 문화센터, 지식인들 단체내부에서 서구 과학과 정치제도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 그후, 단체내부강의를 벗어나 사회대중들에게 개방되었고,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대중을 교화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유행되었다.

19세기말, 선교사와 신형서점의 서양적 방식 외, 중국 현지 지식인들도 "영등 강연"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시를 쓰거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의 밀폐된 단체활동 위주였지만, "영등강연"은 이러한 활동을 사회에 개방하였다. 지식인들만의 모임은 "사회교육"의 단체모임으로 변해갔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사회적인 선전과 강의모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식인들은 원래의 서면으로 표현하는 "합법적 표현"자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화자", "강연자"가 되었다. 발표형식의 변화는 습작의 내용이나 방식으로의 변화까지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향후 지식인들이 원래의 "士"에서 "항구지식인"의 "제도성 언론인"이 되는데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19세기 후반, 영등강연은 상하이, 베이징, 창싸 등 대도시 주민들의 오락 방식으로, 해외풍경을 보거나, 인간재해, 전쟁등을 알게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갑오전쟁(청일전쟁), 러일전쟁기간 일본은 대량의 전쟁내용의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전쟁진행상황과 전쟁역사 등을 설명하였으며, 의학교육 등 루트를 통하여 중일 양국민들 앞에 나타났다. 63 이 시기 일본한자인 "幻灯 (げんとう genntou)"가 그 시기 사용중이던 "경영등 鏡影灯", "影戲" 등 단어를 대체하고, 매직랜턴의

⁶³ 服部喜太郎 편집:《갑오전쟁 환등회, 日清戦争大幻灯会》, 求光閣, 1894.

새로운 통용어로 등장하였다. 그후 "환등과 환등편" (幻灯, 슬라이드)라는 단어가 과학교육과 기초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그 제작기술과 방영원칙은 일본과 구소련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었다. 이 과정의 여러가지 변화는 역사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글자수의 제한으로 여기서 마치며, 상세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다.[끝]

【질의 응답】

제 2 세션 발표 논문에 대한 코멘트 및 토론

사회: 류 지에 (劉傑, 와세다대학)



발표 논문 1에 대한 코멘트 꾸어 웨이똥 (郭衛東, 북경대학)

오쿠보 선생님의 코멘트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제였고, 훌 륭한 강연이었습니다. 오쿠보 선생님의 문장은 주로 두 가지 만국공법에 대한 비 교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일본이 어떻게 수용했는 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하나는 헨리 휘튼이 한역(漢訳)한『만국공법』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으 로 전해 진 것이지요. 미국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번역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윌리엄 마틴은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베이징대학의 전신, 경사대학당의 총교 습(総教習,청 말기 관직명으로 교학 업무를 총괄하는 교사-역자 주) 신분으로 중 국에 많은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몬 피세링의 『만국공법』입 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쿠보 선 생님의 논문과 강연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제 질문은 헨리 휘튼이 한역(漢訳) 한『만국공법』과 피세링의『만국공법』에 대한 일본의 수용 정도에 관한 것입 니다. 즉 전자와 후자에 대해 일본에서는 어느 쪽을 더욱 폭넓게 수용했는지, 그 리고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라이 오쿠보 다게하루 (大久保健晴)

대단히 중요한 코멘트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경유의 『한역 만국공법 (휘튼) 』과 니시 아마네(西周)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가 도입한 네덜란드

경유의『만국공법(피세링)』, 각각의 영향력에 대해서,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한역 만국공법(휘튼)』이 가쓰 가이슈(勝海舟)나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등의 막말(幕末), 메이지 시기 사람들에게 널리 읽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근대 일본의 국제법 수용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자와 관료, 정치가들이 실제로 접한 만국공법에 관한 지식은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세링의『만국공법』을 수용한 니시와 쓰다는 메이지유신 이후 '국제법의 권위'라고 여겨져 정부의 학자관료로서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쓰다는 외무권대승(外務権大丞)으로서 청조 중국과의 사이에서 청일수호조규 체결을 위한 교섭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또한 니시 아마네는 육군성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브레인 역할을 했고,「인방병비약표(隣邦兵備略表)」의 초안 집필 등에도 관여했습니다. 동시대 중국과 조선에서의 만국공법 수용과의 비교를 통해 메이지 정부의 아시아 외교를 밝혀나가는 데 있어서 니시와 쓰다의 국제법 수용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논문 2에 대한 코멘트 쑨 웨이 귀(孫衛国, 남개대학)

이 발표 논문에 대해 코멘트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하, 몇가지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논문의 논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9세기에 들어서 동아시아는 서양의 충격을 받아 (한, 중, 일) 3국이 수많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아시아가 '천하질서'에서 '만국조약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이었죠. 3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두 이 점에 주목해왔고 연구 성과 또한 풍부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과정들을 하나의 전체적인 틀에서 고찰한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 논문은 마침 그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조약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또 기존의 연구들도 동아시아를 하나의 '조약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논문도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고 있는데 논지가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의 중심 내용이었던 제2부분과 제3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주로 1870-1880년 조선의 수신사 김홍집, 조병호 등이 일본, 청조, 영국과 진행했던 교섭 상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에 토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청조의 허루장, 황쭌셴이 김홍집한테 어떻게 관세 자주성 및 미국과의 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조선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죠. 발표자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특별히 발표자께서 데이터 베이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중,일,한 3국의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영국,미국 등 서양 국가들의 사료도 이용 가능하지요. 사료들의 비교를 통해 보다 전방위적인 역사 면모가 들어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언급한 세가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61

1880년대 동아시아 3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에 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방금전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의 보고에서도 1880년의 중, 일, 한 3국 관계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 특별히 언급되었죠. 이 시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확실히 강대해지기 시작하였고, 중국 또한 태평천국 평정 이후 짧지만 "동치중흥(同治中兴)"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조선은 민비의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과 조선의 안정은 모두 잠시적인 것이었죠. 그러므로 조선을 중심으로 불평등조약체계에 대한 극복을 논의하는 것은, 논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별로 큰 의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언급하신 불평등조약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사 재판권, 관세 자주권 상실, 통상항구 개방 등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었지만, 금방 오쿠보 타케하루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불평등조약에 대해 여러모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제기하셨지만, 논의 의 대상은 주로 관세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 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이 수신사를 통해 불평등조약을 극복하려 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조의 허루장과 황쭌셴은 단지 참모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죠. 그 당시 일본은 이미 청조와 조선과 같은 피해 국가가 아니라, 서 양과 더불어 청조와 조선에 대해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의미 에서 당시 3국은 불평등조약체계에서 처해 있던 위계가 완전히 달랐고 결코 운명 공동체로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국 관계와 지위에 대해 재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라이를 대신하여 류 지에

자세한 총괄과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승훈 선생님은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발표는 박한민 선생님이 대독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한 선생님께 전해서 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 한승훈 선생님이 회답을 보내주셨습니다 (p.191 참조).

발표 논문 3에 대한 코멘트 1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교토대학)

쑨 청 선생님, 대단히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뒤에 있는 제 4세 션에서 자세하게 발표를 합니다만, 신문이 했었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쑨 선생님의 연구도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서양인이 개항지에 매직 랜턴을 들여왔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점점 현지화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선교사가 그것을 주도했다는 것도 신문의 경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쑨 선생님이 사용하신 자료의 대부분은 당시 상해 등에서 발행된 신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단지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매직 랜턴은 일종의 계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만, 한편으로 19세기까지의 중국에서도 독자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특히 중국 지식인들에게 매직랜턴이라는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었는지 혹은 정말로 새로운 것이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처음에 매직 랜턴의 번역어로 '영희등(影戲灯)'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영희(影戲)', 그림자 놀이라고 부를 때는 원래 '그림자놀이(影絵)'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떤 점이 새로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매직 랜턴의 요소를 분해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렌즈였을까, 사진이었을까, 아니면 그것들을 조합한 것이 새로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플라이 쑨 청(孫 青)

시오데 선생님의 문제제기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환등기는 중국에서 처음부터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와 지식층 엘리트들은 단지 하나의 장난감으로 인식하고 있었지요. 광학렌즈 환등기는 마치 축제가 열린 것처럼 민간인들의 모임에서 게임의 표현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지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도구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외부 세계와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식인들에게는 어떠한 점이 새로웠을까요? 일단 환등기는 그림자를 크게 방영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서양의 바다, 화재와 같은 재해, 신체 내부의 골격 등은 처음에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환등기가 매직으로 불렸던 것도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전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의 머리, 하느님의 형상 등,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두려움을 주는 등롱(燈籠)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논의하고자 했던 것은, 환등기를 통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형상들이 어떻게 과학 지식으로 전시되었는지, 다시 말하면 육안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도구적인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학과 미신의 최대 구별점은, 과학의 경우 경험적 인식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지만 미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오데 선생님께서 항구 도시에 나타난 신형 매체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저의 연구에서는 주로 상해에서 출판된 영자 신문과 서양인 사회를 다뤘고 이는 중국인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19세기 국민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 단지 국민국가 프레임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연해지역의항구 도시와 도구 및 기물(器物)의 연관성을 통해 바라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상해의 일부 지역은 태평양과 맞닿은 항구 도시인데, 도시의 일부 현상은 국민국가 프레임을 벗어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다시 토론하고 싶습니다.

발표 논문3에 대한 코멘트2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환등(幻灯)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50년대에는 일본 시골에서도 환등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후 1960년대 중 반의 일입니다만 미국 원자력 발전 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온 회사원이 그때의 슬라이드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의 경험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쑨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리워졌습니다.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매직 랜턴은 처음에는 놀이 도구였던 것이 후에 기독교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때 선교사들은 이것을 전통적인 유교의 교화(教化)와 같은 범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유교적인 교화 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문자에서 비주얼 미디어로 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교화를 위해서라면 연극을 이용했을 텐데, 이후에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도 이용됩니다만 연극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같았고 또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리플라이 쑨칭

미타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마침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방향과도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적인 경험이 비교적 진실된 것이고, 문자는 후차적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의 연구에서 취급한 시대는 달랐습니다. 전쟁 사진을 포함한일부 사진은 가짜였는데, 전쟁이 끝난 후 문자 묘사에 입각하여 현장을 세팅하고다시 찍은 것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명확한 프로파간다였지요. 문자를 읽을 수 없었던일반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상해에서 환등기를 방영할 때 가장 큰 기술적 난제는 바로 어떻게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로 촛불과 가스등을 사용했는데 젖은 천으로 스크린에 수분을 입힘으로써 불이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당시 환등기를 방영하면 수백명이 동시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연을 해도 쉽게 모을 수 없는 규모이지요. 초기 선교사들은 설교를 할 때, 제가 고증한 자료에 의하면 상하이 레이스 클럽 근처 대강당을 이용했는데 300명에서 6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겨울날 저녁시간대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 저녁은 오락 활동도 적고 또 아주 따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강당에 모여 함께 사진을 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농촌지역으로 갈 때도 환등기를 갖고 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일반 농민들은 글자를 몰랐기때문에 환등기를 통해 하느님과 마귀의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논의했던 부분은 바로 이러한 도구적 기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룬 내용은 영국식 교육인데, 공업 자본주의화의 진전과 더불어 각 본과 사진이 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을 통해 상해에 유입된 판유 리는 영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는데,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영국에서 환등기용 유

리 슬라이드로 제작하였고, 나중에 요코하마를 경유하여 다시 상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쓴 각본을 통해 상해에서 중국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 게 되죠. 천단(天坛) 사진과 같은 경우, 중국인이 찍은 사진을 영국에서 유리 원 판으로 만들었고, 영국인이 영문 해석을 덧붙여 다시 상해에서 지식으로 보급합 니다. 지식의 생산까지 대개 이러한 순환이 발생합니다. 태평양 연안의 항구 도시 의 교류의 작용을 언급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고. 이는 제 논문의 후반부에 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플로어 개방 토론

류 지에

그럼 지금부터 플로어로부터 질문과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부터 세 번째 발표까지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 질문이나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세 분의 발표자로부터 각각 세 개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카와

주오대학의 오카와 마코토(大川 真)입니다. 세 번째 발표 매직 랜턴턴과 관련 된 것입니다만, 시오데 선생님, 미타니 선생님의 코멘트에 이어서 발언하고 싶습 니다.

일본에서 매직 랜턴은 에도시대 말기 무렵에 들어왔습니다. '우쓰시에(写し絵)' 라고 불리면서 아이들의 놀이라고 할까, 지식인들은 거의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 다. 니시키에(錦絵)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 다루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인데, 그 것이 움직이는 듯한 형태로 매직 랜턴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이 그것을 사용해서 교화한다든지, 아니면 종교단체가 그것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매직 랜턴이 중국에서는 교화에 사용되었던 것인데, 일본 의 경우는 아까 미타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연극에서 비주얼적 으로 호소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결사, 어 소시에이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직 랜턴은 잠깐 비추고 나서 없앨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매직 랜턴이 사용된 것은 서적으로 남기는 것보다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민중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만, 종교 활동에서는 편리하다고 할까, 탄압받지 않는다고 할까, 그런 점도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어떤가요. 이 부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쑨 칭 선생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에 는 두 가지 전파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회 선교사가 활동했던 시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토론했던 17, 18세기, 즉 환등기가 장난감으로 인식되던 시대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나중에 개신교 선교사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환등기가 선교사들의 전도 도구로 이용됩니다.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들이 바로 의학 선교사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환등기는 과학기술을 전시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환등기를 통해 사람의 골격, 근육, 혈액 등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위를 해설했죠. 유명했던 죤 더전(John Dudgeon), 죤 피라이어(John Fryer)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의학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환등기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의학 선교사였고, 다음으로 일반적인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었죠. 그들은 특히 환등기의 장점을 잘 파고 들었는데, 저는 이러한 점이 매우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쿠보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의 《만국공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사 논문에서 정치 과학을 연구했고 중국에서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오쿠보 선생님의 연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주목하고 있었지요. 현재 중국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마틴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이 저술한 《만국공법》의 중국내 전파에 관한 것들인데, 일본과의 비교적 시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전무합니다. 오쿠보선생님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9세기 말, 중국에서도 구어체 《만국공법》 번역본이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2차적으로 번역한 버전이죠. 첫 버전은 마틴의 문어체 번역 버전이었고, 그 다음 구어체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단 구어체 버전의 경우, 유가경전 요소는 배제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일본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이먼 피세링의 《만국공법》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휘튼의 《만국공법》에 대한 중국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두 《만국공법》이 강조한 부분은 좀 다른데 피세링은 강자의 사유에 대해 토론하고, 반면 휘튼은 보편적인 질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죠. 오쿠보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양자의 구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세링의 《만국공법》이 유입될 당시, 일본인이 상상했던 대상과 타자는 강자로서의 서방이었고, 그들은 주로 강자의 논리를 논의했죠. 하지만 1860년대에 이르러 중국이 《만국공법》을 논할 때는 사실 불평등조약 폐지시도, 그리고 1840년 이후 중국이 영국과의 조약 개정을 추진할 때 영문 버전을 기준으로 삼도록 압박을 받는 등,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보편적인 질서에 대해이해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마침이 시기 휘튼의 《만국공법》은 일본에서 보편적인 질서란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이 공법에 대해 논의할 때 상상했던 대상은 중국이었을까요?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쿠보

중요한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19세기 말에 만국공법이 중국에는 구어체로 전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국제법 수용은 1860년대 중엽에 출판된 마틴 한역 만국공법(휘튼)이 처음인데, 그 중요 성이 널리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 이후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어체로 보급된 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청조 중국의 근대국가화 에 대해 생각할 때에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마틴이 번역한 『한역만국공법(휘튼)』이 중국에서 번역된 직후에에도 가이세이쇼(開成所, 도쿠가와 정권의 양학기관)에서 같은 책이 번각본으로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등에 의해서 1870년 전후에 이미 일본어 구어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일본에

서의 국제법 학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만국공법(피세링)』이 출판될 때 쓰인 니시 아마네의 서문 '범례(凡例)' 입니다. 니시 아마네는 거기에서 2년간에 걸쳐 유럽의 라이덴 대학 법학부 교수 시몬 피세링에게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직 접 국제법을 배웠고 그 성과를 책으로 출판하는 의의에 대해서 『한역 만국공법 (휘튼) 』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휘튼 저, 마틴 한역 『만국공법』은 뛰어난 책이지만 그 원문이 난해한 전문 서적이다. 게다가 그것은 한역, 즉 번역되어 전해졌다. 번역과 원문과의 사이에는 반드시 의미와 뉘앙스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에 비해 나(니시 아마네)는 네덤 란드 라이덴에서 피세링 교수로부터 직접 국제법을 배웠고, 거기서 듣고 적은 낱 말과 문구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初学者)는 우선 이 피세링의 만국공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여기서 니시와 쓰다가 국제법 지식의 전달 방식이나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굉 장히 자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휘튼과 피세링의 국제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 니다. 왜냐면 휘튼의 저작 자체가 판본에 따라 내용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 판에서는 '보편적 질서' 가 강하게 의식되었지만, 마틴이 번역한 『한역 만국공법 (휘튼) 』의 원서인 제5판에서는 유럽 역사와 세력 균등을 배경으로 한 실정법론 의 색채가 짙어집니다. 이 제5판과 피세링의 강의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보입 니다.

박 한민

동국대학교의 박 한민(朴 漢珉)입니다. 저는 19세기 한일관계 전공이다 보니 까 만국공법에 대한 오쿠보 선생님의 발표에 관심이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첫 번째로, 19세기 만국공법 이 동아시아에 도입되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휘 튼의 만국공법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 18세기, 19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이 국 제법(나중에 일본에서는 국제공법으로 번역이 됩니다만) 의 위상이 어떻게 되었 는가, 물론 중국에서 번역이 된 것이 이것이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습 니다만,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에는 여러 국제법 학자들이 있었거 든요. 그래서 휘튼의 만국공법이 당시 유럽 학계에서 위상이 어땠는지. 정말 실효 성이 있을 정도로 주류 학설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선과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대독을 했습니다만, 한승훈 선생 님께서는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는 1883년까지만 다루셨습니다만,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들어온 번역된 만국공법을 통해서 1880년대부터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조약운영에서 구체적으로 만국공법의 조문을 활 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중국에서는 번역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조선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번역 자체보 다는 그것을 국내로 들여와서 일본이나 서구열강과의 조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용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까 미타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은 1885년부터 청일전쟁 사이에 일본이 조선 문제에 대해서 불간섭 정책을 취했다고 이야기됩니다만, 그 사이에

보면 조선 측에서도 만국공법의 구체적인 조관을 바탕으로 해서 통상문제, 즉 상업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관을 가지고 논박을 하고 그래서 일본 측이 밀리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선 측에서는 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은 조선이 자주국인지 속국인지, 이것은 유길준을 중심으로 이야기됩니다만, 그 외의 부분, 즉 조선에서의 외교기구, 외아문(外衙門)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만국공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섭을 하면서 논박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쿠보 중요한 논점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 휘튼의 국제법론을 중심으로 한 저작들은 당시 서양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가졌던 중요한문헌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피세링은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외교사'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같은대학 도서관에 남겨진 강의 필기를 보면 참고문헌 중 하나가 휘튼의 저작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휘튼의 국제법론을 수용할 때 '번역'이 개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편적 규범에 비중을 두고 읽을 것인지, 아니면 보다 실천적인 법정비(法整備)의 관점에서 읽을 것인지, 원서를 직접 정독하는 것 이상으로 읽는 방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과도 관련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만, 일본에서도 서양 국제법의 수용은 결코 이념이나 관념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양 열강과 어떻게 조약 교섭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과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1868년부터 보신전쟁(戊辰戰争)이 일어나 이른바 구(旧)막부군과 신(新)정부군과의 내전 상태로 돌입합니다. 이때 서양 제국(諸国)은 국제법에 기초해서 양군 모두를 교전 단체로 보고 내전이 종결할 때까지 무기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국외중립(局外中立)의 입장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다음해 12월, 마지막 전투으로 불리는 하코다테전쟁(箱館戰争) 전에 외국들은 국외중립을 철폐합니다. 그래서 신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갑함(甲艦) 스톤월호를 들여 구막부군을 파멸시키기 위한 군비강화를 계획합니다. 이렇게 막말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는 유럽 국제법의 습득과 활용은 외교 뿐만 아니라 내정을 좌우하게 하는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긴급과제였습니다.

중국, 조선, 일본의 국제법 수용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규범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 쌍방을 시야에 두고 포괄적인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개대학의 쏭 쯔융(宋 志勇)입니다. 오쿠보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만국공법》이 중국과 일본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 불평등조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있겠네요. 막말시기 도쿠가와 막부는 서방과 안세이 5개국 조약을 체결합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선 후, 메이지 정부는 또 서방과 같은 성질의 조약을 체결하

© 2020 SGRA

쏭 쯔융

죠. 그렇다면 당시 메이지 신정부는 어떻게 조약의 평등 혹은 불평등성을 인식하 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중일수호조규 체결 시《만국공법》의 역자도 참여 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 조규 (条规) 의 평등성 및 불평등성을 인식했는지요? 그 후 일본은 이 조규에 대해 개정 요구를 제출합니다만, 당시 이훙장의 인식은 "진정한 신의는 언약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大信不约)" 이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조규를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은 불평등조약 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쿠보 중요한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른바 '불평등조약'은 과연 정말 '불평등' 이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과 와타나베 히로시(渡辺 浩) 선생님의 선행연구가 있습니다((三谷博『ペリー来航』吉川弘文館、2003, 同「19 世紀における東アジア秩序の転換―条約体制を『不平等』と括るのは適切か―」『東 アジア近代史』第13号, 2010, 渡辺浩「『明治維新』論と福沢諭吉」『近代日本研究』 第24巻, 2008 등을 참조).

선생님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영사재판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이 일본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본국의 영사에게 재판을 받고, 역으로 일본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체류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 이 것은 분명히 불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 었을 당시, 애당초 일본에서 서양 제국으로의 해외 도항은 관리 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류지라는 특별한 법역에 있어서, 외국인이 지은 죄는 본국의 영사가 재판을 하고, 현지인이 지은 죄는 현지 법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불평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쿠가와 말기 일본에서는 여러 권 리를 제정한 헌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무사들이 칼을 지니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 었기 때문에 피세링 만국공법 강의에 보여지는 것 같은 서양 제국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들 서양의 문명적인 법의 재판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결코 비합리적인 호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후에 일본인이 서양 제국에 유학 등을 이유로 도항하게 되면서 역으 로 불평등도 생기게 됩니다. 즉, 서양에서 일본에 온 사람들의 활동은 요코하마 나 고베의 거류지에 제한됩니다만, 일본에서 간 유학생들은 자유롭게 유럽 각지 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기에 들어서 서양 제국 측에서 거류지 제도는 '자유무역'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불평등한 것이었고 그래서 내지잡거 및 내지여행 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은 아까 발표에서도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세자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안세 이(安政) 5개국조약 당초에 대일무역에 관한 관세율은 약20% 였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결코 불평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를 높게 설정하는 편 이 자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중상주의적(重商 主義的) 발상이고 모든 장면에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발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자유무역론에 입각해서 보면 무 역은 순환하는 것이고 지금은 적자여도 앞으로 흑자로 전환될 것이므로 걱정할

69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막말 시기 컨텍스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1860년대 초기에는 일본 측에 '불평등' 하다는 확실한 인식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었고 영사재판권으로 인한 폐해나 관세자주권이 없는 것으로 인한 외교, 행정, 사법 및 경제상의 불평등성은 서서히 자각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조약'이라는 인식이 펴지게 된 것은 실제로 불이익이나 불편한 점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도 크지만, 오늘발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 사이에 서양 국제법의 지식과 이해가 깊어지게 된 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일본에 편입된 국제질서를 관통하는 서양 국제법이라는 게임의 룰을 알게 되면서 자국이 지금 실제로 열위(労位)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쿠가와 정치체제하에 체결된 서양 열강과의 <불평등조약 >을 개정하는 것이 독립국으로서의 비원(悲願)이다"라는 메이지 정부의 언설에 는 그때까지의 도쿠가와 정권의 정치외교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신정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기 일본에서 '불평등조약' 이라고 보는 담론이 널리 퍼지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역사학 자로서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한 보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오야마

아세아대학의 아오야마 하루토시(青山 治世)입니다. 흥미로운 발표와 논의 잘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코멘트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있었던 논의와 관련해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평등・불평등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청일수호조규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야나기와 라 사키미쓰(柳原前光)가 제시한 일본측 초안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서구와 체결한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조의 이홍장(本鴻章)에게 거절당하고 마는데 결국은 청조의 제안한 초안을 기초로 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체결 되는 과정에서의 일본측 논리는 아까 오쿠보 선생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체결 한 직후에 일본측이 개정하고 싶다고 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청 일전쟁까지 개정은 실현되지 않습니다만. 몇 번 있었던 개정에 관한 논의 중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 체결 직후 1870년대에 바로 개정하고 싶다고 한 논의입니 다. 청일수호조규에는 없는 내지 통상이라든가, 최혜국대우(最惠国待遇)를 일본 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1880년대 중엽에도 개정 교섭이 이루어집니다만, 개 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로써 중국측이 중요시한 것이 형식적 평등입니다. 청일수 호조규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합니다. 서로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기로 되어 있습 니다만, 당시에는 일본에 있는 중국인이 많았고 중국에 있는 일본인은 적은 상황 에서 일본측은 일본만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보유하고 일본에서의 중국 영사재 판권은 배제하고 싶다는 교섭을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보면 형식상 불평등이 되 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측에서 보면 일본에 있는 중국인 이 많으므로 분쟁 해결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입니다. '형식 의 평등' 과 '결과의 평등' 을 둘러싸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일수호조규는 청일전쟁 전에 폐기되고 결과적으로는 청일전쟁 후에 일본만 영사재판권을 중국

에서 가지게 되는 조약으로 바뀝니다만, 하지만 그때도 청조측은 전쟁에서 졌기때문에 할 수 없이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청일수호조규와 같은 쌍무적(双務的)인 조약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도 일본측은 저항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 제시한 논리라는 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의 평등'이라는 주장입니다.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형식적인 평등과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이 당시 이미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도 자세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라야마

규슈산업대학의 히라야마 노보루(平山 昇)입니다. 첫 번째 발표의 만국공법과 두 번째 발표의 불평등조약, 두 발표에 대한 코멘트와 세 번째 발표 환등에 대한 코멘트가 나눠져 있는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철도회사가 19세기에 만든 오락 이벤트 '하쓰모데(初詣, 정월에 신사에 가는 이벤트)'가 최종적으로 천황을 공경하는 이벤트로 바뀌게 되는, 즉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제국주의나 내셔널리즘과 연결되는 것,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번 세션의 공통 키워드는 '서양의 인식' 입니다. 세 발표에는 공통적으로 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혹은 애착이라는 것이 어떤식으로 생기는지, 또는 생기는 것이 가능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서양 인식'이라는 테마로 세 발표를 기계적으로 하나의 세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 접하는 상대국이라든지, 처음 접하는 국제사회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열 수 있었는지, 이런 점에서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이 세션 후에 다른 기회에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만국공법이나 국제법과 같은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건인가. 이것이 근원에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본, 중국, 한국이 모여 있습니다만, 가장 있었으면 하는 것은 극단적인 농담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독재적 지도자입니다. 즉, 파워만이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는 식의 고립감을 가진, 고립된 파워가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나라나 독재자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신뢰합시다, 라는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가 문제입니다. 유럽의 가치관을 강요하면 역시반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9세기 동아시아의 경험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마찰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접하는 상대, 국제사회에 대해 신뢰감이나 애착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구축하려고 했던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한 식의 제시 방법이 가능하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닫고 있는 북한에게도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쑨 선생님의 환등에 관한 발표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만, 저는 문화적으로 애착을 가진다는 것이 정치외교적인 대립을 얼마나 억제할수 있을지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20년 전에 한류 붐이 일었습니다. 저도 <대장금>을 좋아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류 붐이 일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k-pop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문화교류는 점점 활발해졌는데도 그런 것을 정

치외교가 한순간에 부셔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쑨 선생님께서는 환등에 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선교사의 환등으로 서양문화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 중국인들이 그후에 정치외교적으로 배외주의적으로 되는 국면도 역시 있었나요? 이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보면, 일본은 1930년대 문화적으로는 미국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미국의 재즈가 일본 도쿄 긴자라는 번화가에 흘렀고 모두 미국문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나라와 결정적으로 대립해서 전쟁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2 세션의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외국,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감과 애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파괴되는지가 중요한 테마로드러난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지에 감사합니다. '애착과 신뢰'라는 키워드로 제2세션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가 마지막에 문제제기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사회자의 입장에서 제2세션 이후의 논의 속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서양 지식과 국제법 수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중일 3개국의 수용 형태는 서로 다릅니다. 그 중 하나는 지식인의 수용과 외교 실무담당자의 수용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외교 실무자의 수용이 중심이고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합니다. 가능하다면 종래의 전통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의 수용은 지적 레벨에서 어느 정도 침투했었는지, 꼭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지식인의 수용과 외교실무자의 수용과의 거리감에 대해서 3개국이 어떻게 달랐는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오쿠보 선생님께서 제기하셨던 각국에서의 국제법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형성되는 것과 지역내 나라들이 국가를 의식하는 것과 동시에 전개됩니다.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어떤 의미를 가 지고 있었는지. 지역을 우선할 것인지. 국가를 우선할 것인지. 지역을 국가형성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려했는지. 오쿠보 선생님의 문제제기 속에 나왔던 니시 아마네, 쓰다 마마치, 나카무라 마사나오, 후쿠자와 유키치 이 삼자의 대응의 차 이는 이 문제의 복잡함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제2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발표 논문 4



18・19세기 女性天皇・女系天皇論

오카와 마귀토(大川真,주오대학)

[번역: 홍 성민]

2019년 5 월에는 새로운 천황의 즉위가 있으며 황위계승에 국민들은 대단 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기초적인 지견(知見)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들 대다수의 의식은 구(旧)·현(現) 황실전범(典範)의 규정이, 전대까지의 역 사적·문화적인 축적을 직선적으로 반영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본 연구는 황위계승을 둘러싼 논의가 비학문적인 개인의견의 피력에 그치고 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여성천황·여계천황론이 구·황실전범(1889년 제 정)의 성립 전후로 해서 어떻게 연속 혹은 변화하는지를 상세하게 해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 은 구 ・ 황실전범 제 1 조에 있는 남계남자계승주의(男系男子継承主義)의 성 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의 구신(具申), 그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민권파 결사 · 앵명사(嚶鳴社) 내의 논쟁이다. 그리고 이노 우에에게 영향을 미친 그룹에는 앵명사와 같은 도시민권파 뿐만 아니라, 국학 자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남계남자주의를 주장한 고 나카무라 기요노리(小中村清矩)의 영향은 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국학 자 그룹 중에는 여제(女帝)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직계, 방계(傍系)에서 남자 황족이 없을 때는 여계 천황의 즉위를 제안한 요코하마 요시아키(横山由清)도 있었다. 민권파 결사 · 앵명사처럼, 국학자 그룹도 결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는 않았다. 보다 미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 제기]

- 1. 일본에서는 8명 10대의 여성천황이 즉위했지만, 중국에서는 무측천(武則天), 조선반도에서는 신라에서 선덕왕, 진덕왕, 진성왕이 각각 즉위하였다. 중국이 나 한국에서 그녀들의 즉위와 치정(治政)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가.
- 2. 일본에서는 새로운 천황이 즉위해서 원호도 레이와로 바뀌었는데. 현재 중 국, 한국의 역사학회에서는 천황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3. 한중일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성의 사 회·정치진출의 비율은 아직도 낮다. 여러한 affirmative action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도 발본적인 시정(是正)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정치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시작하며

2004년12월에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대신이 설치한 자문 기관 '황실전범에 관한 유식자회의' 는 다음 해 11월에 '황위의 안정적인 계승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성천황(女性天皇), 여계(女系)1 계승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불가결하다.' 는 결론을 내었다. 그 뒤 여성천황, 여계천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끌벅적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2019년 5월에는 천황 즉위가 이루어졌고. 현 재도 차기 황위계승에 국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황위계승에 관 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국민 과반수의 의식은 舊‧現 황실전범의 규정이 전대까지의 역사적, 문화적 축적을 직선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었다고 생 각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황위계승이 남계(男系) 황족남자로 한정되어, 여 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전근대로부터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논설 이 상당히 보인다. 이 남계 남자주의(the Agnatic Primogeniture System)야말로 일본 황위계승의 전통이라는 의견은 가십거리를 싣는 주간지나 극우적인 잡지 등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학자 중에서도 일찍부터 표명되어 왔다. 아라 키 도시오(荒木敏夫)는 여계 여성천황 부정론자에게는 남계 남자주의가 일본의 '전통' 이고 '상식' 이라는 사고방식이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아라키 가 말하였듯이 이 '상식'에 함정은 없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보 연구는 황위계승을 둘러싼 논의가 비학문적인 자기의견의 피력에 빠져버린 상황을 타파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천황, 여계천황이 옛 황실전범(1889년 제정)의 성립 전후 로 어떻게 연속하거나 변화되어 왔는지 그 실상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1. 남존여비라는 '전통'

그런데 상기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옛 황실 전범(1889년, 메이지 22년 성립) 제1조에서 남계 남자계승주의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의 具申(「謹具意見」), 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오메이샤(嚶鳴社) 내부의 논쟁이다. 3오메이샤란 원로원 대서기관인 누마 모리카즈(沼間守一)가 1878년 (메이지 11년)에 설립하고 신문기자, 변호사, 개명파 관리 등을 멤버로 한 대표적인 민권결사이다. 토론회, 연설회의 개최, 『도쿄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東京橫浜毎日新聞)』・『오메이 잡지(嚶鳴雜誌)』의 발행, 지방유세 등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하였고, 자유민권운동에 크게 영향을 준 사의헌법(私擬憲法)의 초안을 작성하여 1882년(메이지 15년)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 결성에 진력하였다. 「女帝를 세우는 可否」라는 제목의 오메이샤 내부의 논

¹ 여계천황(女系天皇)은 황녀(皇女)가 낳은 황손(皇孫)이 즉위하여 천황이 된 경우를 가리키는데 그 성별은 남성, 여성 모두가 가능하다. 여계(女系)와 여성(女性)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하였으면 한다.

² 荒木敏夫,『可能性としての女帝―女帝と王權·國家』(青木書店, 1999年), p. 17.

³ 또한 이 논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여기서는 고지마 가즈시(小嶋和司), 고바야시 히로시(小林宏), 도코로 이사오(所功) 등의 연구를 그 대표로서 들고자 한다. 小嶋和司,「「女帝」論議」(『小嶋和司憲法論集2』所收, 木鐸社, 1988年). 小林宏,「井上毅の女帝廢止論―皇室典範第一條の成立に關して―」(梧陰文庫研究會 編,『明治國家形成と井上毅』所收, 木鐸社, 1992年). 所功,『近現代の「女性天皇」論』(展転社, 2001年).

쟁은 1882년 1월 14일에 이루어져, 3월 14일에서 4월 4일까지 도쿄 요코하마 마이니치신문에 총 9차례 게재되었다. 왜 이 시기에 여성 천황의 是非가 문제가 되었나며는 이 논쟁이 일어나기 전 해인1881년(메이지14년) 10월 12일에 국회개설의 詔書가 나온 사실이 크다. 이 칙유에서 헌법개정도 이루어진다고 표명되었고, 황위계승을 어떻게 규정해 갈지가 일부 지식인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또 「女帝를 세우는 可否」 논쟁에서 발의자인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 가 자신이 남계 남자계승주의를 주장하고 여성천황을 인정하는 이하의 두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앞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여기서 이하의 시마다 등의 의견은 오카와(大川)가 현대 일본어로 고친 것이다.

첫 번째 용인론자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성천황이 즉위해 온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남계 남자로 한정함은 이 습관을 깨트린다고 주장하는 자로, 여기에는 '일본 서적[國書]에 통달한 사람'이 많다. 또 두 번째는현재는 사회가 진보하였고, 남녀의 권리가 점차 동등해져 왔다. 일찍이 왕위와 황위를 남계, 남자로 한정한 다른 나라도 헌법 제정에 따라 남녀가 똑같이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남계 남자로 한정함은 10세기 세계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으로 하물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성천황이 즉위해 온 '국풍'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양 서적[洋書]을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양적인 인권을 이해한 '서양 서적을 이해하는 사람', 즉 양학자(洋學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양적인 남녀동권(男女同權) 론과는 인연이 없는 '일본 서적에 통달한 사람' 즉 국학자들도 여성천황을 용인한점이다. 또 하나는 여성천황 용인론에서는 서양학문과 국학을 넘어서 과거에 여성

⁴ 생몰년은 1852 ~ 1923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주필이다. 후에 官界에 들어갔지만 하야하고 1882년(메이지 15년) 입헌개진당 창립에 참가하였다. 이후 중의원 의원이 된다. 1886년에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공창(公娼) 폐지운동과 아시오 광산(足尾銅山) 피해자 구제운동에 전념하였다. 웅변가로서 알려졌으며, 시멘스 사건(シーメンス事件) 탄핵연설이 유명하다.

^{5 「}第一의 反對는 我國은 古來 女帝를 세운 慣習이 있고, 지금에 이르러 男統에 限함은 이 慣習을 破壞한다고 한다. 이 論者는 古來의 慣習을 尊重하는 자로 國書를 通하는 者에 많다. 또 第二의 反對者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現時는 社會의 風氣가 크게 열렸고, 또 昔時는 오직 武만을 숭상하는 氣運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體力이 뛰어난 男子의 專權을 싫어하는 論은 그 勢力을 왕성하게 하여 男女의權利가 점차 바야흐로 평등해 지려고 한다. 예전에 男統에 限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수은 男女 똑같이 皇位를 繼襲하기에 이르렀다. 各國의 憲法을 通觀하니 大抵 그렇지 않음이 없다. 이는 幽谷을 나와서喬木으로 옮겨간 者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허나 我國 홀로 이에 反하여 憲法上 皇女即位의 例를세우지 않으려 함은 十九世紀의 氣運에 反하는 者이다. 하물며 古來 女帝立位의 國風이 있음에 있어서야! 수에 이르러 이를 끊으려 함은 이를 文明의 퇴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是類의 論은 반드시 洋書를 이해하는 자에게서 많다고 하겠다.」(「女帝を立るの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 1882年(明治15)3月14日、『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岩波書店、1988年、pp. 276-277。)

천황이 즉위한 6 사례를 '관습', '국풍'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이 황실전범에서 규정된 남계 남자 계승주의만이 일본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였으면 한다. 메이지 초기의 논단에서 여성천황 용인론이 일정 정도 지지를 받은 이유는 당시의 황실사정을 고려하면 잘 알 수 있다. 메이지 천황은 5명의 측실 사이에서 5명의 황자와 10명의 황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서 무사히 성인이 된 자는 황자 1명, 황녀 4명이다. 1879년(메이지12년)에 태어난 하루노미야 요시히코(明宮嘉仁) 천왕(親王)은 이후 다이쇼 천황이 되지만, 친왕이 태어났을 때에는 다른 황자, 황녀는 사산되거나 요절하여서 형제자매가 없었고, 또 친왕도 병약하여 황통이 지속될 수 있을지 몹시 염려스러웠다. 이러한 상황도 있어서 여성, 여계천황의 용인론은 일정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메이샤 내부의 논쟁「女帝를 세우는 可否」에서는 시마다의 위와 같은 발의 아래에서 총 16명(이 중에서 의견이 기록된 자는 8명) 사이에서 찬반의 토론이 전개되었는데, 논점의 중심은 황서(皇婿; 여제의 남편)의 문제, 또 하나는 남존여비 습관과의 정합성이었다. 황서에 관련된 논쟁에서는 살리카 법⁷을채용한 영국에서 조차도 황서를 들여서 왕가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고한 고이즈카 류(肥塚龍)⁸의 의견, 한편 황서에 의한 정치지배를 염려하여 불가하다고 한 구사마 도키요시(草間時福)⁹ 등의 의견, 또 즉위한 역대 여성천황이 황서를 맞이한 예가 없고, 역대 여성천황은 모두 섭위(攝位)였다고 한 시마다 사부로의 의견 등이 격렬하게 맞부딪쳤다. 본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후자의 논점, 즉 남존여비 습관과의 정합성이다. 남계 남자 계승주의자인 시마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⁶ 일본에서는 8명 10대의 여성천황이 즉위하였다.

①제33대 스이코(推古)천황 (재위: 592-628년)

②제35대 고교쿠(皇極)천황 (재위:642-645년)

③제37대 사이메이(齊明)천황 (재위: 655-661년) ※고교쿠(皇極)천황이 재즉위

④제41대 지토(持統)천황 (재위: 690-697년)

⑤제43대 겐메이(元明)천황 (재위:707-715년)

⑥제44대 겐쇼(元正)천황 (재위:715-724년)

⑦제46대 고켄(孝謙)천황 (재위: 749-758년)

⑧제48대 쇼토쿠(稱德)천황 (재위: 764-770년) ※고켄(孝謙)천황이 재즉위

⑨제109대 메이쇼(明正)천황 (재위: 1629-1643년)

⑩제117대 고사쿠라마치(後櫻町)천황(재위: 1762-1770년)

한편, 중국에서는 則天武后 (690-705년), 한반도에서는 신라에서 善德王 (재위: 632~647년), 眞德王(재위: 647-654년), 眞聖王(재위: 887-897년)의 여성황제, 여왕이 즉위하였다.

⁷ Lex Salica. 본래는 프랑크 왕국의 법전을 가리키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특히 여왕 및 여계 왕의 즉위를 금한 프랑크 왕국의 왕위계승법을 가리킨다.

⁸ 생물년은 1848년-1920년.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고이시카와(小石川) 도진샤(同人社)에 들어가서 자유사상을 배웠다. 오메이샤 사원을 거쳐서 1915년에 입헌개진당 성립과 함께 입당한 이후는 같은 당계의 정치가로서 활약하였다. 1894년에 중의원 의원이 되고 마쓰카타(松方)·오쿠마(大隈) 내각기에 농상무성(農商務省) 광산국장, 오쿠마·이타가키(板垣) 내각기에는 도쿄부 지사를 역임하였다. 실업계에서는 슈에이샤(秀英社) 감사역, 애국생명보험회사 중역, 일본 키네토폰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⁹ 생몰년은 1853년~1932년. 야스이 솟켄(安井息軒)・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敬宇)에게서 수학하였다. 1875년에 에히메(愛媛) 현 마쓰야마 에이(松山英) 학교(마쓰야마 중학교의 전신) 교장이 되어서양식 교육법을 실천하고, 또『에히메(愛媛) 신문』에서 민권사상을 퍼트렸으며, 에히메 현에서 자유주의 교육의 보급・향상과 민권운동의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 오메이샤의 활동을 마치고나서는 관리가 되어 오사카(大阪) 우편전신국 국장, 항로표식관리소 소장, 체신성(遞信省) 항로표식관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혹은 이러한 의견이 있겠다. "도리적으로 생각하면 남녀에는 원래 존비(尊卑)가 없다. 황비는 신하 중에서 뽑혀서 천황의 배우자가 되니까, 황서도 신하중에서 뽑히는 게 어떠한 불합리함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렇겠는가? 정치는 '시세인정(時勢人情; 시대의 추세와 민중의 실정)'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현상에는 남자를 높여서 여자 위에 둔다. 지금 설령 황서를 세우고 헌법상 여제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둘 경우, 나라 전체의 실정은 제도에 의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성천황의 상위에 다시 존위(尊位)를 차지하는 자(오카와[大川]주: 황서를 가리킴)가 있다는 생각을 품는 것은 일본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천황의 존엄을 손상시키게 된다.10

시마다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인에게 친숙한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남녀 동권의 '도리' (인권)나 법률제도보다 근본적인 요소로서 우선시한 점이다. 「女帝를 세우는 可否」 논쟁을 정치하게 읽어내면 여성천황, 여계천황의 즉위를 둘러싼 제도상의 논의라기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습관, 인권, 법률의 관계를 논자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가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시마다에게 정면에서 격렬한 비판을 가한 사람이 고이즈카 류였다.

또 논자는 "남자를 높임은 일본에서는 조상 대대로 해온 습관으로, 습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보존해야 할 습관과 폐지해야 할 습관을 구별하지 않은 논의다. 생각해보라. 습관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이다. 그러나 이 영국에서 조차도 선악과 이해(利害)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이니까 모두 남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의 말에 "습관은 되도록이면 남기는 편이 좋다. 다만 좋지 않는 습관은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습관을 존중할지 아닐지의 기준은 이게 새로운지 오래되었는지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가져다주는가이다. 그저 옛 것을 존중하는 자는 골동품 수집가이다. 논자여! 골동품 수집가가 되지 말지어다."

^{10 「}或은 말하길, 理로서 헤아리면 男女는 원래 尊卑의 別이 없으니, 皇妃는 人臣으로서 至尊에 配하고, 皇婿는 人臣에서 나오니 원래부터 不可함이 없다고 한다. 나는 이 說에 동의할 수 없다. 어째서 인가? 政治는 時勢人情을 가지고 이를 基本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我國의 現狀은 男을 尊으로 삼고 이를 女子의 위에 둔다. 지금 皇婿를 세우고 憲法上 女帝를 第一尊位에 두어도, 通國의 人情은 制度를 가지고 이를 一朝에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女帝의 위에 하나의 尊位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됨은 日本國人이라면 피할 수 없는 바이다. 어찌 皇帝의 尊嚴을 손상시킴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女帝を立るの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14日.『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年, p. 279.)

^{11 「}또 論者는 男子를 높임은 日本 先祖 以來의 舊慣이다. 舊慣이라면 廢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역시 남겨야 할 舊慣과 없애야 할 舊慣을 구별하지 못하는 論者이다. 論者여! 舊慣의 힘이 강함은 英國을 최고로 한다. 그러나 英國은 善惡利害의 선별없이 舊慣이라면 모두 이를 保存해야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學士의 말에 가로되, 舊慣은 가급적 保存해야한다. 허나 不正한 舊慣은 이를 廢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그 까닭이 舊慣을 존중하는 기준은 新古에 의해 세움에 있지 않고, 利害에 의해세워야 한다. 옛 것을 숭상함은 骨董家가 자주 이를 말한다. 論者는 부디 骨董論者가 되지 말지어다.」(「女帝を立るの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23日.『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年, p. 287.)

남존여비는 일본의 관습이기 때문에 중시해야 한다는 시마다의 논의에 대해, 고이즈카는 관습은 소중히 해야 하지만 이를 남겨야 할지 말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남존여비 묵수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관습을 존중하면서 의식적인 취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보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를 방불케 하는 발언을 고이즈카가 보여주었다. 여제 용인론자인 고이즈카와 부정론자인 시마다의 차이점은 바로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다. 그렇지만 상기의 문장에서도 보이듯이 고이즈카는 관습 자체를 폐지하고 인권과 법률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는 지식인은 아니었다.

법률은 언제나 평평한 토지에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시험삼아 살펴보자. 아메리카 합중국은 법률제도를 세울 때, 습관이 장애가 됨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서도 법률을 세울 때에 습관이 장애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 일본이나 영국은 가장 습관으로 괴로워하는 나라이다. 입법자는 법률을 만들 때 습관의 실태를 관찰하고 그 나라의 풍토와 실정에 따라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이 "일본에 여제를 세우는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남녀동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일본은 남성을 높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승 순위에서 남녀 중에 어디를 우선으로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남성을 우선하고 여성을 뒤로 하겠다. 그러나 여성이 세 명이 있던 다섯 명이 있던 결코 황위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일본에서는 남존이라는 습관이 있는 동시에여제를 세운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12

democracy 의 번역어로 '민주주의'를 최초로 적용하였고,¹³ 강골한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고이즈카지만 입법이 국민의 습관과 관계가 있고 계승순위에서는 남존여비의 영향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 여제 용인론도 남녀동권의 인권감각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천황이 즉위한 습관을 근거로 삼는다고 말하였다. 여제의 가부를 둘러 싼 시마다, 고이즈카 두 사람의 논쟁은 전근대 – 근대적, 수구 – 혁신이라는 대립이 전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남녀 동권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음을 이해하면서도 남존여비가 일본의 습관이었음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도리보다 습관을 우선시한 점에서도 일치한다. 양자의 차이는

^{12 「}法律이 어찌 항상 地平 위에서 세울 수 있겠는가? 시험삼아 보자. 米合衆國은 法律制度를 세움에 舊慣舊習 때문에 방해받음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그러나 여전히 米國 祖先이 법률을 세울 때, 多少 舊慣舊習의 불평등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我日本과 같이 英國과 같이 가장 舊慣의 불평등에 괴로워하는 나라이다. 세상의 立法者라는 者는 法律을 세울 때, 잘 習慣의 如何를 고려하고, 其國의 風土 人情에 應하여 法律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日本에 女帝를 세운 制를 廢해서는 안된다고 말함은 男女 間에 同等한 權을 세우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곧 日本은 男子를 높이는 風習이 있기 때문에 繼統의 順序는 男女 중에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나는 男을 앞으로 하고 女를 뒤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女子가 三人있거나 五人있어도 決코 九五의 位를 물려주어선 안된다고 말함에 이르러서는 단연코 이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름아니라 日本에는 男子를 높이는 風習이 있음과 同時에 女帝를 세우는 風習도 있기 때문이다.」(「女帝を立るの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29日、『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岩波書店, 1988年), p. 294. 13 민주주의라는 번역어의 정착, 또는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번역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노구치다다히코(野口忠彦)의 일련의 연구가 유익하다. 同、「「民主主義」は適譯か―「デモクラシー」譯語考序說」(1) - (4) (拓殖大學政治經濟研究所編、『政治・經濟・法律研究』12 (1) (2) , 13 (1) (2) , 2009-2011年). 同、「譯語「民主主義」使用の一般化」(『政治・經濟・法律研究』16 (1) , 2013年).

진무(神武) 천황에서 메이지(明治) 천황까지 122대의 천황 중에서 10대의 여성천 황이 즉위한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한다. 10/122는 어디까지나 예외로 다음 남성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섭위' 즉 중간의 연결로 생각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면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한반도 왕조와 비교해도 많은 10/122는 '습관' 으 로 간주하여야 할까? 달리 말하자면 남존여비라는 '전통' 속에서 여제즉위도 '전통' 으로서 간주해야 하는지 아는지가 논쟁의 중핵으로서 존재하였다.

2. 국학자의 의견

1장에서 서술하였듯이 1889년에 제정한 구 황실전범 제1조에서 남계 남자 계 승주의에는 이노우에 고와시의 具申, 또 이 구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오메이 샤 시마다 등의 주장이 그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구 황실전범 성립까 지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구 황실전범은 우선 1876년(메이지 9년)의 제1차 안, 1878년(메이지 11년)의 제 2차 안, 그리고 1885~6년(메이지 18~19년) 의 제3차 안이 존재하였다. 이 제 3차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황위계승이 정해져 있었다(관련 조문만 제시).

第一條 今上天皇의 자손을 제위계승의 정통으로 삼는다.

第二條 제위를 계승하는 자는 嫡長을 正으로 삼는다. 만일 太子가 있지 않 을 때는 太子 男統의 후예가 잇는다. 太子 男統의 후예가 없을 때는 太子의 동생 혹은 그 男統의 후예가 잇는다. 嫡出 男統의 후예가 모두 없을 때는 庶 出의 아들 및 그 男統의 후예, 親疎의 순서에 따라 들어와서 잇는다.

第三條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직 帝位를 계승할 자를 얻지 못할 때는 황 족이 親疎 순서에 따라 들어와서 大位를 잇는다. 만약 부득이할 때는 女統이 들어와서 이을 수 있다.

남계 남자 계승주의에 근거한 규정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지만, 주목할 부분은 남계 계승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계 황위계승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주도로 1884년(메이지 17년)에 설치된 제도취조국(制度取調局)이 제출한 초안 「황실제규(皇室制規)」에서는 역시 남 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제1조에서 여계 천황을 인정 하였고 또 제6조에서는 여성 천황의 즉위도 포함시켰다(관련 조문만 제시).

第一 皇位는 男系로서 계승하기로 한다. 만약 皇族 중에서 男系가 끊어질 때는 황족 중의 女系로서 계승한다. 男女系 각각 嫡을 우선시하고 庶를 뒤로 하며. 嫡庶는 각각 長幼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第三 皇位를 계승할 皇子가 만약 薨去했을 때는 皇孫에게 전한다.

第四 皇位를 계승할 皇子孫이 없을 때는 皇子의 형제(皇兄弟) 및 그 자손에 게 전한다.

第五 황자의 형제 및 그 자손이 없을 때는 皇伯叔父 및 그 자손에게 전하고. 皇伯叔父 및 그 자손이 없을 때는 皇太伯叔父 이상 및 그 자손에게 전한다.

第六 皇族 중의 男系가 모두 끊어졌을 때는 皇女에게 전하고, 皇女가 없을 때는 다른 황족 중에게 전함을 第三, 第四, 第五條의 예를 따른다.

第七 皇女 혹은 皇統의 女系로서 황위계승을 할 때는 그 皇子에게 전하고, 만약 皇子가 없을 때는 그 皇女에게 전한다. 황녀가 없을 때는 皇族 중에서 다른 女系에게 전하고 第三, 第四, 第五條의 예를 따른다.

第十三 女帝의 夫는 皇胤으로서 臣籍에 들어간 자 안에서 皇統에 가까운 자를 맞이한다.

이상과 같이 구 황실전범 성립으로 연결되는 정부측의 초고에서는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계천황이나 여성천황의 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시기 초안작성에서 중요한 소임을 맡은 것이 국헌편찬 담당[國憲編纂掛]이다. 그 중에서도 국학 그룹의 공헌은 지대하였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자가 요코야마 요시키요(橫山由清, 생몰은1826~79년)였다. 요코야마 요시키요에 대해서는 후지타 히로마사(藤田大誠)의 노작¹⁴이 있으니, 이하의 서술도 후지타의 연구에 많이 의거하였다. 후지타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약간의 사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요코야마 요시키요는 일본 학문[和學]을 혼마 유세이(本間游清)・이노 히데노 리(伊能穎則)에게서 와카(和歌: 일본 고유의 노래)를 여류시인이자 양모(養母) 인 요코야마 게이코(橫山桂子) 및 이노우에 후미오(井上文雄)에게서 배웠다. 화 학강의소(和學講義所) 교수가 되었지만, 유신 후에는 메이지 신정부의 부름을 받 아 쇼헤이 학교(昌平學校) 사료편수(史料編修), 대학중 조교(大學中助教)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제도국 어용 담당[制度局御用掛] 어전 편집(語箋編輯)으로서 법률제 도의 정비에 힘썼다. 그 중에서 법률 편찬에 관한 경력을 후지타의 연구에 의거하 여 자세하게 서술하면, 요코야마는 원로원이 설치된 다음 달인 1875년(메이지 8 년) 5월 24일은 동원(同院)의 '편집 담당[編集掛]', 6월 17일에는 '구전류찬 담 당 겸무[舊典類纂掛兼務]', 또 7월 24일에는 '편수과 과장'이 되었다. 그런데 '조 사과(調査課)'에는 '내국부(內國部)'에서 시작하여 국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 의 고전고증을 담당한 '편집담당[編集掛]' 과 '외국부(外國部)' 에서 시작하여 도 시민권파를 중심으로 구미 각국헌법의 번역을 담당한 '조사담당[調査掛]'・'번역 담당[翻譯掛]"의 두 계통이 있었다. 게다가 후자에는 오메이샤와 관련된 인물이 많았는데 시마다 사부로도 번역담당[翻譯掛]의 대서기생(大書記生)이었다. 한 쪽은 전근대까지 일본의 전통적 학문인 국학, 또 한 쪽은 근대적인 서양학문에 근 간을 두었음을 알아 두었으면 한다.

여기서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성천황도 용인하는 초고가 존재하였음은 앞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초고작성에는 살리카 법전을 상속관습 으로 삼으면서도 여왕이 즉위한 영국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알고 있었던 '외국부' 계통의 서양학 그룹의 관여가 상정된다. 그러나 시마다 사부로가 말하였듯이 여 제 용인론자에는 '일본 서적에 통달한 사람' 즉 국학자들도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대표 인물이 '내국부' 계통의 요코야마 요시키요였다고 추측된다.

¹⁴ 藤田大誠、『近代國學の研究』(弘文堂, 2007年).

요코야마에게는 아마도 국헌편찬 담당[國憲編纂掛] 시기에 썼다고 생각되는 「繼 嗣考」 15라는 문서가 후지타의 연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 전문의 번각(翻刻) 은 후지타의 저작에 게재되어 있는데 ¹⁶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繼嗣는 男統으로써 하고 女統을 後로 한다.", "만약 男統의 繼嗣할만한 者가 끊 어져서 없을 時는 女子로써 大統을 繼嗣하게 할 수 없다. 그러할 時는 그 女帝의 配偶者를 맞이하여서 그 血統을 保續하도록 한다."고 하여 여계천황, 여성천황 의 즉위를 용인하였음이 주목된다. 시마다가 비판대상으로 삼은 여계 여성 용인 론의 국학자란 구체적으로는 요코야마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과 감하게 추론을 한다면, 시마다 사부로에게 요코야마 요시키요는 같은 조사과 안 의 다른 그룹의 리더에 해당하였고, 남계 남자 계승주의만을 주장하는 자신에게 는 고전고증의 성과에 입각한 여성 여계 용인론자였던 요코야마가 성가신 존재 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3. 근세와의 불연속

구 황실전범의 성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황위계승의 남계 남자주의를 규정한 이노우에 고와시였지만, 그는 자설의 논거로서 오메이샤 의 시마다 사부로, 누마 모리카즈들 뿐만 아니라 국학자 고나카무라 기요노리(小 中村清矩)」7의 의견도 참고하였다. 여계 여성천황의 가부에 대해서는 서양학 계열 의 그룹 뿐만 아니라 국학 그룹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1885년(메이 지18년)에 고나카무라가 쓴 「女帝考」를 이노우에가 숙독하였고, 이노우에 소장 (고인 문고[梧陰文庫] 소장)의 「女帝考」에는 다음과 같은 이노우에의 필적이 있 다는 사실이 고바야시 히로시(小林宏)의 논문18에서 지적하였다.

第三章 皇統

第九條 皇位를 계승함은 男系의 男子로 제한한다.

이 條의 疎證에는 또 기요노리(清矩)가 저술한 女帝考가 가장 적합하다.

이를 본다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는 남계 남자주의를 주장한 문서라고 생 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女帝考」는 직접적으로 남계 남자주의를 강조한 게 아니라, 스이코(推古) 천황에서 고사쿠라마치(後櫻町) 천황까지 8명 10대의 여 성천황, 더 나아가 즉위는 하지 않았지만 '여제' 로 간주되어 온 '진구 황후(神功 皇后; 신공황후)', '이토요(飯豊) 천황(이토요 아오노 히메미코; 飯豊青皇女)' 등

80

¹⁵ 萩野由之,『和葊雜編』1(東京大學附屬總合圖書館所藏)의 앞부분에 있다. 요코야마의 자필 稿本 은 아니지만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가 요코야마의 본 문서를 베껴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요코야마의 관계자료는 대부분 관동 대지진으로 소실되었고, 본 문서의 원본도 소재불명이 되었다. 16 藤田, 앞의 책, pp. 330-331.

¹⁷ 생몰년은 1821년~95년. 모토오리 우치토(本居內遠) 등에게서 국학을 배웠고 와카야마 현에서 고학관 교수(古學館教授)를 지냈다. 유신 후는 다조칸(太政官)으로 출사하였고, 大學中助敎. 내무성 사사국(社寺局) 어용담당[御用掛], 도쿄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古事類苑』의 편집에도 관여 하였다. 1893년에는 귀족원 의원이 된다.

¹⁸ 앞의 논문.

스이코 천황 이전의 여제 2명, 총 10명에 대한 사적과 고나카무라의 평이 적혀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여제' 들의 즉위는 정치 정세 등에 의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이고 또 차기 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중간 연결이었다고 한 고나카무라의 분석은 역대 여성천황의 즉위는 습관이 아니라 '섭위'로 간주해야 한다고한 이노우에의 지론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고바야시의 논문에서는 이노우에가 일본 전통법과 유럽법 사이에서 공통항을 찾아서 이를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본 전통법의 계승이라는 명분으로 입법화하 였다고 하였다.¹⁹ 물론 이노우에가 어떠한 예측도 없이 귀납법의 방법으로 공통 성을 찾아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황실법의 성문화(成文化)에서 남계 남자 주의는 당초부터 이노우에에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원리였으므로 실제로는 남 계 남자주의를 전제로 일본의 황실 및 해외 왕조의 역사와 법률 속에서 그 근거 를 찾아내 갔을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남계 남자에 의한 황위계승을 '전통' 이라 고 할 때, 그때까지의 다양한 옛 '전통' 은 재편되고 가공되어 갔다. 그러나 이는 법무관료였던 이노우에에게만 국한되었을까? 나는 그 뿐만 아니라 이노우에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 국학자 고나카무라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에는 미토학자 아사카 단파쿠(安積澹泊) 의『大日本史贊藪』가 인용되었는데, 고나카무라는『贊藪』고유의 문장을 꽤나 취사선택을 하면서 인용하였으니 아사카 단파쿠가 말하려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 가 생겨났다. 이는 종래 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하 구체적으로 논 증하겠지만, 아사카 단파쿠의 『大日本史贊藪』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고²⁰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女帝考」의 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 하고자 한다.

미토학에서 편찬한 『大日本史』에서 진구 황후를 本紀(天皇의 전기)가 아니라 后妃傳에 편입한 사실은 유명하지만, 종래에는 그 이유를 여성천황의 경시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강하였다. 그러나 이는 큰 잘못이다. 그렇다면 왜 진구 황후는 본기에서 제외되었는가? 아사카 단파쿠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츄아이(仲哀) 천황 붕어 후 오진(應神) 천황이 황태자가 된 4세에서 즉위 전인 70세까지의 기간은 설령 진구 황후에 의한 치세가 천황으로서 체재를 실제로 갖추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본래는 오진 천황이 곧바로 즉위해야 했으니, 진구 황후의 稱制를 '섭정'으로 간주한 도네리 친왕(舎人親王)의 기술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21고. 즉 진구

¹⁹ 앞의 논문, p. 391.

²⁰ 拙稿,「安積澹泊『大日本史贊藪』について」(『季刊日本思想史』81号, ペりかん社, 2014年). 21 「仲哀는 不庭을 征伐하고 中道에 崩殂하였다. 皇后는 그 威武를 빼앗고 크게 六師에게 맹세하여, 신문할 괴수를 붙잡고 추종하는 무리들을 붙잡아 妖氣를 掃蕩하니 마침내 잘 병사를 옮겨서 三韓을 平定하여 不世의 勲을 세웠다. 剛明함과 雄毅함은 古今에 傑出하였다. 시호를 神功이라고 하여도 과찬이 아니었다. 仲哀가 붕어할 때 皇后는 태기가 있었다. 凱旋한 날에 皇子를 쓰쿠시(筑紫)에서 낳았다. 네 해를 넘기자 책립하여 皇太子로 삼았으니 마침내 황위[大寶]를 차지함이 七十年이었다. 도네리(舎人) 親王이 日本書紀를 편수하여 皇后의 稱制를 적어서 攝政이라고 하였다. 이는 特筆한 것이다. 後人은 史書를 읽고도 그 義를 풀지 못하였다. 다만 그 사적만을 보고 실제로 즉위하였다고 하여서 皇統의 世次에 열거함은 또한 매우 잘못이다. 그렇지만 應神의 降誕은 仲哀의 붕어 뒤에 있다. 이는 마땅히 세워서 天子로 삼아야 할 者이지만 皇太子로 삼게 함은 도데체 어떠한 명분인가! 그를 관[柩] 앞에서 冊立하게 한다면, 곧 처음부터 仲哀의 후계[儲弐]가 된다. 붕어하여 네 해를 넘겨서 책립함은 이것이 누구의 후계가 되겠는가! 天下는 하루도 主가 없어서는 안된다. 天子를 세우지 않고 太子를 세웠다 함은 명분을 바로잡고 실상을 조사한다면 곧 이를 실제로 즉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仲哀의 氣長足姫皇后傳贊(後世神功皇后라고 諡함), 巻七四。『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岩波書店、1974年), p. 74

황후의 청제문제는 황위계승에서 정식 황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구 황후가 계속 권력을 고집한 사실에 대한 비판으로, 여성멸시로 인해 진구 황후의 치세를 '섭정'으로 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皇統에서 '정통' 이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아사카 단파쿠는 『춘추공양전』은원(隱元) 원년의 '立適以長不以賢, 立子以貴 不以長'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嫡子는 適夫人(正妻)의 아들 중에서 현명함과 불 초함[賢不肖]을 따지지 않고 연장자를 뽑고. 그 밖에 측실의 아들이나 姪娣의 아 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명함과 불초함으로 정하며, 정처 에게 아들이 있다면 서자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함지라도 계승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22 아사카 단파쿠의 정통론도 세계의 상속, 계승에서 일반적인 이른바 적장자계승제를 기조로 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舊, 現 황 실전범과 같이 남계 남자의 계승만을 인정한다는 관점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아 사카 단파쿠는 여성천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실적이 뛰어나다면 그 즉위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관점일 갖고 있었다. "무릇 겐메이, 겐쇼 二帝는 안으로는 단 결(端潔)을 행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인자한 마음을 가졌으며, 온화함은 만물에 미치고 공손함과 검소함, 어진 마음과 인자함[恭儉仁恕]은 천성에서 나왔다. 이 미 물자는 풍부하고 인구는 많았으며 사해는 평안하였으니 用은 잘도 질륭(郅隆) 한 다스림을 이루었다. 이를 여자 중의 堯, 舜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이다. 후대 의 人主가 二帝의 憂勤한 마음을 잘 체득한다면 오히르메노미치(大日孁貴; 아마 테라스 오카미[天照大神]를 가리킴 — 오카와[大川]의 주석)가 우주에 비추는 德은 만세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²³라고하여 겐메이, 겐쇼 두 여성천황 에 대한 최대한의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고나카무라도『贊藪』에서 겐메이(元明) 천황의 贊(논평)을 全文에 가까운 형태로 인용하면서 "이 論으로 義를 다한다면 더 첨언하지 않겠다."고 하여 동의를 나타내었다.『贊藪』의 겐메이 천황의 찬²⁴이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곧 겐메이 천황이 즉위한 이유는 황태자였던 수친왕(首親王; 후의 聖武天皇)이 어렸으니, 군주는 민중을 기르고 다스리는 자인데 나이 어린 군주로는 그 책무를 완수하지

82

^{22 「}適을 세움에 長으로서 하고 賢으로서 하지 않는다. 子를 세움에 貴로서 하고 長으로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옛 道이다. 혹은 諸母가 모두 같다면 곧 母는 子로서 귀해진다. 嫡母가 낳은 바 곧 子는 母로서 귀해진다. 義는 並行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故로 正嫡에 子가 있다면 곧 庶子가 長이라 할지라도 세우지 못함은 또한 매우 명백하다.」(文德의 皇子惟喬親王傳贊, 巻九十一.『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 岩波書店, 1974年, pp. 95-96.)

^{&#}x27;立子以貴不以長'의 '子'의 해석에 대해서는 何休, 『春秋公羊經傳解詁』에서 의거하였다. 또한 『春秋公羊經傳解詁』의 현대어역은 岩本賢司, 『春秋公羊傳何休解詁』, 汲古書院, 1993年을 참고.

^{23 『}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岩波書店, 1974年), pp. 33-34.

^{24 「}贊에서 가로되, 文武가 붕어함에 臨하여, 聖武는 아직 어렸다. 天下는 一日도 君이 없어서는 안된다. 故로 元明에게 萬機를 攝行하도록 請하였다. 和銅 연간(708~715) 末에 이르러 聖武가 皇太子가되었다.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 마땅히 天位를 傳해야 하였다. 그러나 詔旨에서 말하길 "나이가 어려서 몽매하니 아직 大業을 짊어지기는 힘들다." 고 하였다. 곧 元正에게 禪位하니, 皇太子가 일반 정무[庶政]를 스스로 하기에 이른 然後에 元正이 그에게 傳하였다. 모두 天理의 公에서 나왔고 털끝만큼의 사사로움도 있지 않았다. 그 意를 생각하면 "君은 民의 司牧이니, 어찌 幼弱한 主에게 그 職을 맡게 할수 있겠는가." 그 天下를 公으로 하는 마음은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다. 故로 잘 雍熙의 化를이름은 推古・持統의 治보다 뛰어났다. 上가 仁으로서 흠뻑 젖고 義로서 연마하는 까닭과, 下가 집집 마다 넉넉하고 풍족한 까닭은 무릇 人主에게 있어서 모두 잘하기 어려운 바이다. 그러므로 母儀의 德과 君臨의 業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겠다.」(元明天皇紀의 贊, 卷一四、『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岩波書店,1974年,pp. 32-33).

못한다고 생각하여 즉위한 것으로 권세를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사심은 전혀 없었고 천리(天理)의 공(公)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도 전대의 여제론(女帝論)을 계승한 부분이 있음은 확실하지만, 어디까지나 통치의 실적(특히 백성에 대한 선정)에 의거하여 "후대의 人主가 그帝의 憂勤한 마음을 잘 체득한다면 오비르메노 무치가 우주에 비추는 德은만세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겐메이 · 겐쇼(元正) 두 천황을 가장높게 평가한 아사카 단파쿠의 견해는 계승되지 않았다. 곧 고나카무라 - 이노우에의 계열에서는 여성천황은 어디까지나 차기 남성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섭위'라는 소임이 강조되어 그 정치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은 전대까지의 사상적 흐름과는 단절되었던 것이다.

맺으며

특히 여성천황 즉위의 是非에 관해서 말하자면 여성멸시에서 이를 논하는 사 람이 많이 보인다. 일찍이 법학자 요코타 고이치(橫田耕一)가 여성천황 즉위를 부정하는 논의를 유형화시키면서 남계 남자주의를 '전통' 으로 보는 논의 뿐만 아 니라 여성의 공무 담당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차별적인 논의도 있다고 지 적하였다. 25 또 우파지식인으로부터는 고켄[孝謙(쇼토쿠: 稱德)] 천황이 승려 도 교(道鏡)를 총애한 사실을 너무 강조하여 여성천황 부정론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하라 다케시(原武史)가 지적하였듯이²⁶ 고켄 천황과 도쿄 뿐만 아니라 중국 에서도 측천무후와 설회의(薛懷義)와 같이 여성 정치수장에 의한 성 스캔들(사 실과는 매우 다른)을 더욱 좋아하고, 또 이를 여성의 사회, 정치진출에 대한 안좋 은 이미지를 계속 부여해 온 역사가 동아시아 세계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방에 미인이 있으니 세상에 견줄 이 없게 홀로 뛰어나, 한번 돌아보면 남의 성 을 망치고 두 번 돌아보면 남의 나라를 망치네. 성 망치고 나라 망치는 걸 왜 모 르라마는 미인은 다시 얻기가 어렵다오(北方有佳人, 絶世而獨立, 一顧傾人城, 再 顧傾人國[『漢書』孝武李夫人傳])." 와 같이, 미인에게 정신이 빠져 직무를 방기 한 자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암탉이 새벽에 울 면 집안이 망한다(牝鶏之晨,惟家之索[『尙書』牧誓》)."는 잘못된 유산은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서는 안된다. 남녀참여, 다양성이 당연한 사회 규범이 된 오늘 날, '남존여비' 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잘못된 '전통' (악습)을 단호하게 끊어 내고 현재 사회규범을 참조하면서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황실계승의 규정을 만 들 필요가 있겠다.

²⁵ 横田耕一,「皇室典範」(『法律時報』48-4, 日本評論社, 1976年). 横田는 清宮四郎, 和田鶴蔵의 견해를 원용하면서 이러한 여성멸시관은 "편견이고 합리적인 이유는 아니다." 라고 단정한다.

²⁶ 原武史、『〈女帝〉の日本史』(NHK出版新書, 2017年).



일본 민법의 형성과 식민지 조선에서 의 적용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중심으로―

남 기혂 (南基玄, 성균관대학교)

발표 요지

이번 발표의 목적은 1896 년(메이지 29 년) 법률 제 89 호에 규정된 일본민 법과 그 이후 시행된 민사법 관련 법률이 식민지조선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고 찰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식민지조선 사이에서 형성된 '법적 구조' 의 형태 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이기도 하다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1888 년(메이 지 21 년)에 민법전을 편찬했다. 하지만 그 시행은 연기되었다. 1896 년에는 총 칙, 물권, 채권 부분이, 1898 년에는 친족, 상속 부분이 공포되었고, 1899 년 7 월16 일부터 전부 시행되었다.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1899 년부터 사실상 시행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민법 관련 법률은 식민지조선에서도 적용되었다. 1912 년 8 월, 제령 제 7 호 <조선민사령>이 발표되었다. 일본 내각과 조선총독부 사이에서 약 2 년간의 조정 후에 만들어진 법령이었다. 이 법령의 각 조항은 내용별로 보면 크게 2 가 지로 나눠진다.

첫째, 일본 민사관련법을 '의용(依用)' 하는 것을 정한 제 1 항이다. 둘째, 식 민지조선에만 적용되는 사항인 '특별조항' 이다.

<조선민사령>은 일본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일본과는 다르게 법률을 적용 해서 통치하려는 조선총독부 및 일본정부의 방침이 담겨져 있던 법령이었다.

[문제 제기]

-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 1.19세기 후반은 일본의 법적체계가 완성된 시기였다.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본의 법령은 1910년 즉, 20세기 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제령' 이라는 형식으로 '의용' 되 었다.
- 2. 조선총독의 입법권한인 '제령권', <조선민사령>의 공포는 일본정부, 제국

의회, 조선총독부 간의 견제와 타협을 통한 결과물이었다.

3.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법령을 식민지 조선사회에 적용하면서도 '특례조항'이라는 것을 통하여 식민통치를 강화해갔다. 이것은 조선총독의 권한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들어가며

이번 발표의 목적은 1896년(明治29) 법률 제89호로 정해진 일본 민법과, 이후 시행된 민사관련 법률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것은 추후 일본과 식민지 조선 사이에서 형성된 '법적구조'의 형태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적인 고찰이기도 하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프랑스 법학자 보아소나드(Gustave Émile Boissonade)를 초빙하여 1888년(明治21) 민법전을 편찬했다. 하지만 이것의 시행은 연기되었고, 우메 겐지로(梅謙次郎) 등의 주도하에 새로운 민법전이 만들어졌다. 1896년 총칙, 물권, 채권 부분이, 1898년에 친족, 상속 부분이 공포되었고, 1899년 7월 16일부터 모두 시행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1899년부터 사실상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민사관련 법률들은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합 된 후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민사관련 법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된다는 것은 조선 총독이 발표한 제령인 <조선민사령>에 규정되었다. <조선민사령>에는 민사관련 일본법은 '의용' 한다는 조항과 함께 일본과는 다른 '특례조항'도 함께 병기되었다. <조선민사령>은 19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법이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게 하는 근거가 되면서도, 일본과는 다른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반영된 법령이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제국의회 내에서 논의되었던 조선총독의 입법권한, <조선민사령>의 제정과정과 구성, <조선민사령>내에서 규정된 일본민법과 '특례조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1. 일본 제국의회에서 논의된 조선총독의 위임입법권한 '제령권'

1910년 5월 30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한국 통감으로 임명되면서 일본의 '한국병합'계획은 구체화되었다. 데라우치는 통감으로 부임하기 전 내각의 동의하에 비밀리에 '병합준비위원회(倂合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병합실행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하순부터 7월 7일까지였으며, 이곳에서 작성한 '병합실행계획안'은 일본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병합준비위원회에서는 부분별로 검토사항을 정하고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병합실행방법세목(倂合實行方法細目)>을 만들었다. 병합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 일본헌법을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일본헌법을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일본헌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이 구상한 '한국병합'의 성격과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었다.¹

일본정부는 대내외에 대한제국과의 병합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에 의한다면 대한제국은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되고 한국 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일본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했다. 병합준비위원회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일본헌법을 시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헌법 내에서 예외법규를 제정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²

1910년 일본정부는 천황이 명령한 긴급칙령 제324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1조 조선에서는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제2조 전조(前條)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거처 칙재(勅裁)를 청해야 한다.
- 3. 제3조 임시긴급(臨時緊急)을 요하는 경우에 조선총독은 즉시 제1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발포 후 즉시 칙재를 청해야 한다. 만일 칙재를 얻지 못한 때는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장래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공포해야 한다.
- 4. 제4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정한다.
- 5. 제5조 제1조의 명령은 제4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된 법률과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될 수 없다.
- 6. 제6조 제1조의 명령은 제령이라고 부른다.
- 부칙 본령(本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일본 내각에서는 조선총독의 제령 발포권을 규정한 칙령을 발표한 이유로 "조선은 인정, 풍속, 습관이 다르고, 조선인들이 갑작스럽게 일본법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대만의 경우를 참조하여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긴급칙령 제324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의 법률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일본헌법 제5조에 따르면 일본에서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다. 그리고 칙령을 발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헌법 제8조에는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

86

¹ 한성민,「乙巳條約이후 일본의'韓國併合 '과정 연구-일본인 실무관료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 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199~201 쪽, 207 쪽

² 일본 내에서 식민지 조선에 헌법을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의 한성민, 동국대박사학위논문과 小川原宏幸,「韓國併合と朝鮮への憲法施行問題-朝鮮における植民地法制度の形成過程」,『日本植民地研究』17,2005가 참조된다.

^{3 「}朝鮮ニ施行スベキ法令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官報』第1號, 1910. 8. 29.

요에 따라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 법률에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라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회기에 열릴 제국의회에 칙령을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제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발표된 칙령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공포해야 했다.

< 긴급칙령 제324호 > 는 발표될 당시 제국의회가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 헌법 제8조에 근거해서 공포될 수 있었다. 이 법령 제1조와 제6조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식민지 조선에서 필요한 법률을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었고, 이 권한을 '제령'이라고 했다. 제1조에서 언급되는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일본헌법 제2장에 있는 신민의 권리의무, 제5장 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에 대한 징계, 특별재판소의 관할, 행정재판소, 제6장 조세·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했다. 일본헌법에는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얻어 천황이법률의 형태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령이라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제국의회의 관여 없이 법률을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조, 제3조, 제5조에는 제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천황의 승인을 받아야했다(2조). 이것은 내각 각 성을 관장하는 대신들의 승인을 받아야함을 의미했다. 제령을 원활하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내각과 조선총독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령을 발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포후에 바로 천황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조선총독은 공포했던 제령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공시해야 했다. 또한 제령은 일본 의회에서 조선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과 천황이 발표한 칙령에 위배할 수 없었다(5조). <긴급칙령 제324호>가 발표된 후 제령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제27회

<간급직령 제324호>가 발표된 후 제령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제27회 제국의회가 열리는 1910년 12월까지, 약 3개월간 차단되었다. 1910년 12월 20일 제27회 제국의회가 소집되었다. 일본헌법 제8조에 따라 긴급칙령은 제국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했다. 1911년 1월부터 의회의 주요 안건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11년 1월 21일,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는 제국의회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였다.

같은 날 내각은 <칙령 제324호>를 비롯한 11건의 승인을 구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칙령 제324호>는 1911년 1월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총독의 '제령권'을 규정한 법률이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긴급칙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입법권을 위임하는 제령발포권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의회 내부의 정치관계, 내각과 당시 의회의 주도정당이었던 정우회 간의 정치적 이익관계를 두고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1911년 1월 26일, '제령권'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무소속 의원이었던 하나이 다쿠조(花井卓藏)는 중의원 본회의에 '제령권'을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는 제령의 효력기간을 191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 부칙(附則)이 붙어있었다. 하나이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서에서 "의회가 긴급칙령에 대한 사후승낙을 하

⁴ 外務省編,『外地法制誌』7권,文生書院,1990,16쪽,21쪽

더라도, 칙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혹은 개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국의회에서 법을 수정하고 개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칙령이 아닌법률로 조선총독의 '제령권'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나이가 제출한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제령의 효력기간은 삭제되었고 <긴급칙령 제324호>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가결되었다. 이후 이 법률안은 귀족원에 회부되어 논의되었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911년 3월 13일에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조선총독의 제령권을 규정한 법은 1911년 3월 25일 법률 제30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법률>로 공포되었으며,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1911년 3월 25일 "1910년 <칙령 제324호>는 장래 그 효력을 잃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칙령 제30호>를 공포하였다. 6

조선총독은 <법률 제30호>에 근거하여 위임입법권인 제령을 통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해 나갔다. 조선총독이 공포한 제령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먼저 일본의 법률을 '의용(依用)' 하는 것이다. 법률의 '의용' 이란 일본의 법령을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되, 조선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례사항을 두는 법률 행위를 지칭한다. 이 경우 일본의 어떤 법에 '의(依)한다'라고 표기되었다. 7두 번째는 조선총독이 법률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제령은 일본법을 '의용'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 통치 필요에 따라 만든 법령이라고할 수 있다. 8 제령은 식민통치의 기반확립이나 통치방침의 변동, 전쟁 같은 정치적인 격변이 있을 때 많이 공포되었다. 9

2. <조선민사령>의 제정과정과 구성

'의용 제령'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1912년 8월에 발표된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었다.¹⁰이 법령은 부칙을 포함한 총 8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령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법령을 '의용'한다고 규정한 제1조이다. 제1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등 민사에 관한 총 23개 일본 법률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일본본국의 주요 법령이 시행되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주요 부동산권의 종류와효력 매매 등에서 일본민법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이

88

⁵ 法律第30號「朝鮮二施行スベキ法令二關スル法律」1911. 3. 25.; 김창록,「制令에 관한 연구」,『韓國 近現代의 法史와 法思想』, 민속원, 2009, 137 쪽.

^{6 『}朝鮮總督府官報』第171號, 1911. 3. 29.

⁷ 淺野豊美는 일본의 법령을 제령을 통해 '의용' 하는 것은 "내지(일본)의 민법과 형법이 법역의 벽을 넘어 그 지역에 연장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상의 편의와 사법상의 정합성을 통합한 규정"이라고 하였다(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 최석환 역, 「日本帝國의 통치원리 '내지연장주의'와 帝國法制의 구조적 전개」, 『법사학연구』제33호, 2006, 195쪽).

⁸ 拓務大臣官房文書課 編,『內外地法令對照表: 昭和16年9月1日現在』, 1941, 207쪽; 김창록, 「制令에 관한 연구」,『韓國 近現代의 法史와 法思想』, 민속원, 2009, 146쪽.

⁹ 한승연,「制令을 통해 본 총독정치의 목표와 조선총독의 행정적 권한」,『정부학연구』15권2호, 2009, 176쪽.

^{10 「}朝鮮民事令」에 대해서는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 역사비평사, 2008 ; 정긍식,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東北亞法研究』 제11 권제1호, 2017이 참조된다.

89

적용되면서 법원 판결에서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다. <조선민사령>은 식민지 조선의 민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일본과는 다른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특례 조항'이었다. '특례조항'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소송분야였다. <조선민사령 > 전체 82개 조항중 약 75%정도가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신속한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식민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례조항'제 10조, 제11조, 제12조는 조선인의 관습상의 권리를 규정한 부분이었다. 제10조에서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관습을 인정했다. 제11조에서는 제1조에서 '의용'한 일본 법령에서 능력,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되었다. 제12조에서는 부동산 물권에 대한 관습을 인정했다. 조선의 관습을 특례로써 인정한 것은 일본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른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발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민사령 > 이 개정되면서 일본민법의 적용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관습은 부정되었으며, 일본민법의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의용 제령'의 특성에 대해서는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했던 기요미야시로(淸宮四郞)의 지적이 참조된다. 기요미야는 일본의 법률이 조선, 대만 등에바로 시행될 경우와 '의용' 될 경우의 차이를 설명했다. 먼저 일본 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이 조선 등에 시행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구역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 일본의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식, 내용 등이 그대로 조선, 대만 등에서 시행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식, 내용의 법령이 일본과 조선 등에서 시행되고, 최종적으로, 적용된 법령에 관해서는 일본과 조선, 대만 등은 동일한 「법역(法域)」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같은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반면 '의용'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법령이 조선, 대만 등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으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 시행된 법령은 조선 등에서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으로서 채용되어 들어가게 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시행된 법이 직접적으로 조선 등지에서 시행되어 효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결국 '의용'된 법령(일본법)과 '의용'한 법령(조선의 제령, 대만의 율령 등)은 서로 내용이 동일하여도, 별개의 법령으로 독립되어 통용되고, 해당 법령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선 등은 자연스럽게 「이법역(異法域)」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선의 경우민법은 제령인 <조선민사령>으로 흡수되어졌고, 따라서 조선에서는 민법으로 행하여지지 않고, 조선에서 통용되는 <조선민사령> 내용 중 일부를 형성하는 데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¹¹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제령인 <조선민사령>으로 '의용'되었다. 따라서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조선민사령>의 하나의 내용으로 채용되어 들어간 것이며, 직접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되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즉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조선민사령>이라는 제령의 형식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¹¹ 清宮四郎、『外地法序說』, 有斐閣, 1944, 97~98 쪽, 101 쪽.

적용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일본과 조선에서 적용되었지 만, 그 형식은 일본 내에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조선에서는 제령인 <조선민사 령>이었다는 점에서 일본과 조선은 서로 다른 '법역' 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법을 '의용' 하여 식민지 조선에 적용한다는 것은 원래 총독부의 의도가 아 니었다. 조선총독부의 당초 구상은 독자적인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여 조선 주재 일본인에게는 일본의 민법과 상법, 형법, 형법시행법을 적용 하되 조선인 간의 민사사건과 조선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에 의해 부정당했 고 가능한 한 일본에서 시행되는 법률을 '의용'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2

그 결과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은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로 발표된 <조 선민사령(朝鮮民事令)> 제1조에 의해 '의용' 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조선민 사령>이 공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912년 1월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조선민사령>을 재가 해달라는 '제령안(制令案)'을 내각총리대신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에게 보냈다. 13 1912년 1월 19일, 척식국(拓殖局)에서는 <조선민사령> 내용이 담긴 '제 령안(制令案)'을 수령했고, 5일 뒤인 24일에 조사를 완료했다. 1912년 3월 11일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하여 내무, 외무, 육군, 대장, 사법, 해군, 농상무, 문부, 체신 성의 각 대신들, 법제국 장관, 서기관장이 <조선민사령>을 재가(裁可)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부서(副署)했다. 4일 뒤인 1912년 3월 15일 내각총리대신 사이온지는 천황에게 '제령안(制令案)' 을 상주했으며, 같은 날 천황의 승인이 이 루어졌다. 천황의 승인이 있은 후 3일 후인 1912년 3월 18일 데라우치는 제령 제 7호 <조선민사령>을 발표했다.

3.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의 <조선민사령> 내부 조항 해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민사령>은 일본 법령을 '의용' 함을 규정한 제1조 와 '특례조항' 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조선민사령>이 적용되면서 법적으 로 크게 두 가지를 해석해야할 경우가 생겼다. 첫 번째 <조선민사령>과 다른 제 령간의 관계이다. <조선민사령>은 식민지 조선에서 민사관련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근간은 <조선민사령> 제1조에 규정된 일본법령들 이었다. 그런데 조선총독은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민사와 관련된 여러 제령들을 공포했다. 이 제령들과 <조선민사령> 제1조에 규정된 일본민법, 민사소송법사 이의 관계를 조정해야할 경우가 존재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조선민사 령> 역시 제령이었으므로 제령과 제령간의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조선민사령> 내부 조항 간의 해석문제이다. <조선민사령> 제1조에 규

90

¹²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487쪽.

^{13 &}lt;朝鮮民事令>이 제정되는 과정은「朝鮮民事令ヲ定ム」(아시아역사자료센터 https://www. jacar.archives.go.jp/) 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정된 일본법령들과 '특례조항' 간의 규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문제인 내부 조항간의 해석문제를 식민지 조선의 최고상급 재판소였던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요미야 시로(淸宮四郎)는 '의용'된 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이 적용되어 질 때 생긴다고 하였다. 1차적으로는 일본법을 '의용'한 조선, 대만 등의 법률에서 발생하며, 일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4' 이것은 일본민법, 민사소송법을 '의용'한 <조선민사령 > 의 경우,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조선에서 해석되고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부각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은 민사관련 소송과 이것으로인해 성립된 민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은 제령과 '의용'된 일본법이 서로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되고 해석되어지는 공간이었었던 것이다.

일본은 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1890년 <재판소구성법>(메이지 23년 법률 제6호)이 제정되었다. 이때 대심원을 정점으로 하여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區)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발하는 제령과 부령을 통해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17년 3월 13일에 있었던 민상 제10호 판결은 <조선민사령> 제1조에 규정된 일본민법과 '특례조항' 사이의 관계를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5 이 재판의 상고인은 조동민이며, 피상고인은 김정규, 오내형이다. 제2심 재판소인 대구복심법원에서는 김정규에게 토지소유권은 넘겨받은 오내형이 일본민법 제177조에 근거하여 등기를 했기 때문에 분쟁 토지의 소유권은 조동민이 아니라 오내형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동민은 반발하고 3심기관인 조선총독부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조동민 측이 대항논리로 제기한 것 중에 하나는 등기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민법 민법 제177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 및 변경은 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쫓아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조동민 측은 오내형이 토지증명을 받은 것은 일본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아닌데, 이것을 적용한 대구복심법원이 잘못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조동민이 받은 것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대구복심법원이 민법 제177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민사령> 제13조에는 "부동산에 관한물권의 취득, 상실 및 변경에 대한 <조선부동산등기령> 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있어서 등기 또는 증명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그의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는 이를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오내형은 이 법령에 근거해서 증명을 받은 것이므로 "제3자인 조동민에게 대항할 수있다"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조선민사령 제13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제177조의 규정은 조선에서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결

¹⁴ 清宮四郎, 『外地法序說』, 有斐閣, 1944, 97~98 쪽, 100 쪽.

¹⁵ 大正六年民上第一0號 同 年 三月十三日 判決、「土地賣買證明取消並所有權移轉證明手續履行請求ノ件」

정했다.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민사령>에 규정된 '특례조항'과 일본법령 조항이 내용이 충돌하거나 겹칠 경우 일본 법령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결국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조선에서 민사 관련 법체제의 운영은 식민지 본국의 법령을 기반 하면서도 식민지 통치의 <u>독자성</u>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나가며

일본에서는 1889년 2월 11일 헌법이 공포된 이래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법률로 발표되었던 일본 법령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총독이 발표한 '제령'으로 '의용'되었다.

일본 국내 정치세력간의 경쟁과 견제에 따른 결과물이었던 <법률 제30호>는 조선총독이 발포하는 '제령권'의 근거법이 되었다. '제령권'을 규정한 근거가 칙령에서 법률로 바뀌었다는 것은 조선총독의 '제령권'에 대해 일본 의회가 간여할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27회 제국의회 귀족원 심사위원회에서 오카노 케이지로(岡野敬次郎)는 법률로써 칙령이나 제령을 개정하거나폐지할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국 장관 야스이로한이치로(安廣伴一郎)는 "대권에 속하는 칙령은 별도로 하고 그 밖의 칙령은 법률로써 개폐(改廢)할수 있으며, 법률로써 제령을 개폐할수 있다"라고 답했다. 칙령의 경우는 '대권에 속하는 칙령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건이 있지만, 법률은 그렇지가 않았다. 일본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조선총독의 '제령권'은 일본 의회의 제약을 받을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일본의 민사관련 법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법령은 1912년 제령 제7호로 발표된 <조선민사령>이었다. <조선민사령> 제1조에는 일본법 령 23개를 '의용'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민사관련 일본 법령은 식민지 조선에서 민사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 조선민사령>은 일본법령을 '의용'한다는 것을 규정한 제1조와 식민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규정한 '특례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때 제1조에 규정된 일본법령과 '특례조항'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할 경우가 생겼다. 식민지 조선에서최고재판소였던 조선총독부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했다.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은 <조선민사령> '특례조항'이 있을 경우 이와 겹치는 일본 법령은 식민지조선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일본의 법령은 제령을 통해 식민지 조선 전반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상 일본 제국의회는 조선총독부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총독은 '제령권'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하면서 식민지 통치를 하였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조선민사령>에 규정된 '특례조항'이 있을 경우 이것과 겹치는 일본법령은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일본법령이 바뀌게 될 때마다 일본 법률을 '의용'한다는 규정을 둔 <조선민사령 >은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은 통치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것은 '특례조항'의 개정을 통해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후반은 일본의 법적체계가 완성된 시기였다.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본의 법령은 1910년 즉, 20세기 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제령'이라는 형식으로 '의용'되었다. 둘째 조선총독의 입법권한인 '제령권', <조선민사령>의 공포는 일본정부, 제국의회, 조선총독부 간의 견제와 타협을 통한 결과물이었다. 셋째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법령을 식민지 조선사회에 적용하면서도 '특례조항'이라는 것을 통하여 식민통치를 강화해갔다. 이것은 조선총독의 권한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전통과 제도 개혁

-19세기 후반기 중국의 양무운동-

꾸어 웨이똥 (郭衛東, 북경대학)

[번역:리코테츠]

발표 요지

아편전쟁의 발발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 세기 중엽, 중화전통의 고전적 인 문명이 공전의 도전을 받았다. 그때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 로 내부에서의 조정이었다. 가령 다른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주로 동양문명으로부터의 영향이었고. 서양문명의 영향은 대부분 간접적이 고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중국문명은 서양문명과 충돌하고, 그 가운 데 전통과 제도의 창조가 이 시대의 2 대 주제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중화전통 문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문명체계, 특히 서양의 문명체계로부터 많은 것을 수용하고 또 흡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명의 일부분이 면면히 계 승되어 중화문명은 계속해서 민족적 색채를 잃지 않았다. 19 세기 후기의 중국 양무운동이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핵심이었다.

우선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편전쟁의 참패로 인해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 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근대기계공업이 나타났고, 군사병기문 화의 발흥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근대적 도시화가 진행되 면서 도시 주민의 소비구조와 습관이 변하고 사회생활, 특히 도시생활이 새로 운 양상을 보였다. 근대 시정(市政) 건설이 시작되었고 전업 소방대나 수도회사, 지하수도, 가로등, 전화(당시 '徳律風 delufeng' 이라고 영어로 음역되었다.)가 출현했다. 다음으로 문화 면에서 보면, 서양 학문이 충격을 주어 중체서용(中 体西用)의 양무관(観)이 나타났고, 박학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이 한순간에 역 전했다. 근대 문교사업이 시작되었고. 문화를 전파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 났으며 학문의 계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문화 면에서는 전통적인 인습이 많 았기 때문에 직면해야 했던 도전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면에서 보면, 입헌정치 도입의 비동시성, 근대적 재정과 사법, 관료제도의 구축 을 들 수 있다. 공화제가 전통적인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었던 것이다.

[문제 제기]

- 1. 양계초의 기물, 제도, 문화 3 단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 근대 동아시아의 탄생에 일본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혹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가.
- 3. 중국의 양무운동이 어떤 점에서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중국과 영국 간의 아편전쟁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중화전통의 고전문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전의 중화문명의 변화는 국내에서의 문화통합과정이었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로 동방문명(예를 들면 인도의 불교, 아랍의 이슬람교, 당조시기의 경교(景教)도 기독교 이단(異端)으로서의 동방교회에 지나지 않음)이며 서양문명의 영향은 간접적이거나 아주미미한 것이었다.

그 이후 중국과 서양의 2대문명이 충돌하면서 전통과 혁신은 그 시대 두 개의 큰 주제였다. 한편으로 중화 전통문명은 서서히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변이와 쇠퇴현상이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화문명 속의 다른 문명, 특히 서양 문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함으로써 세계의 다른 문명체계와의 긴밀한 융합이 진행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 전통문명의 일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계승 되었으며 중화문명은 여전히 그 민족적 특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19세기 후반의 양무운동은 사회형태전환의 관건이 되었다. 일 반적으로 양무운동 시기는 기물(물질)면에서의 변동 시기이고 무술유신(戊戌維 新) 시기(5.4운동전후 시기라는 설도 있음)는 문화변동의 시기이며 신해혁명(辛 亥革命)시기는 제도변화의 시기라고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세 시기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얽혀있으며 셋 모두가 19세기후반의 양무운동 중 에 발생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1. 제기(製器)

1840년6월21일, 영국의 동방원정군은 광저우의 주장커우(珠江口) 밖까지 침입하여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중국은 패전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의 일치된 결론은 [기물(器物:기계 등 제품)이 열세했다] (「器不如人」)였다. 따라서 아편전쟁 후의 당시의 선각자들은 나라를 구하는 첫째 방책은 [서양 오랑캐의 선진기술을 배워서 그 힘으로 서양을 제압하자(師夷長技以制夷)는 것이었다. 소위 "장기(長技:선진 기술)"란 주로 기술과 기물이다. 그 시기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나 전통제도가 뒤떨어졌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 [서양 오랑캐(夷)는 포화(砲火)외에는 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1 (「该夷人除炮火以外, 一无长技」)는 것이 당시 중국당국과 지식인들의 서양문명에 대한 최초의 인식이었다.

제 2차 아편전쟁 (애로호 전쟁)이 일어나 영불연합군이 베이징 (北京)을

공격함에 따라 함풍제(咸豊帝)는 도망치고 원명원(圓明園)은 소실되었다. 굴욕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야(관민)에서는 [기술이 낙후되었다]는 인식만 깊어 갔다. 19세기 60년대에는 중화문명체계 속에 서양의 물질문명 (洋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점차 위정자(為政者)들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정궈판(曾國藩)은 서양의 포함(砲艦)을 구입하는 것이 중국을 파국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일" (第一要務)」라고 보고 있었다. 리훙장(李鴻章)도 [서양인들은 우수한 총이나 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다.]² (「西人專恃其枪炮炮輪船之精利,故能横行于中土」)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화자(開明者)들의 추진으로 중국역사상 제1차 근대화 운동이라 불리는 양무운동이 시작된다.

[자강] (自強)을 취지로 하는 양무운동은 처음에는 군사부터 시작했다. 19세기 60년대 이후, 중국최초의 서양무기를 장착하고 서양교관을 채용한 육군으로 상 군(湘军)과 회군(淮军)이 잇따라 나타났으며 중국최초의 근대 해군으로 북양과 남양의 해군(水師)이 나타나고 중국최초의 근대 무기공장인 안칭군계소(安慶軍 械所), 텐진기기국(天津機器局), 산둥기기국 (山東機器局)등이 출현하며 중국최 초의 근대 함선제조공장인 푸저우선정국 (福州船政局), 지앙난제조국(江南製造局) 이 설립되며 중국최초의 군사용 근대통신 시설인 진후전보선 (津沪電報線), 텐진 전보총국(天津電報総局)등이 나타났다. 서양문명의 도입과 모방은 다른 분야는 없었고 바로 무기제조부터 시작되었다. 중국근대화운동은 주로 군사가 이끄는 형 태로 추진되었으며 근대화 개혁도 대부분은 군사개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거의 중국의 근대화 과정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군사개혁은 언제나 다른 개혁보다 한 박자 빨랐던 것이다. (19세기의 양무운동파 들은 우선적으로 군사공업을 시작했 고 민간공업 창설은 70년대이후로 밀렸다. 다른 방면의 개혁은 매번 군사개혁에 의해 이끌려왔다. 근대적인 군사공업은 대기계 생산체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공업도 뒤따라 창설되었다. 또한 군대를 조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였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개혁과 근대 은행체계의 확립이 불가피했다. 군사들의 훈련 에는 우선 장교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근대적 군사교육기관이 설립 되었다. 신식군대를 만들려면 서양에서 배울 필요가 있으니 제도와 사상 면에서 의 변화를 유발했다 등등). 19세기6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양무운동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근대의 대기계공업은 체계적인 산업이다. 함선이나 총포를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를 제조하려면 철강이 필요하고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 필요하고 석탄 채굴 후에는 수송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 철강업, 광업, 운수업, 동력업(動力業:엔진)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중국의 근대 수송체계도 철도건설부터 시작했으나. 시발점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1873년 영국의 란손 루이비사는 동치(同治)황제의 결혼선물로 혼례철도를 청나라에 만들어 주겠다고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근대문명발전의 추세는 가로 막을 수 없었으며 1878년에는 리홍장이 당산개평(唐山開平) 탄광을 개업했는데 그 석탄수송 때문에 소규모 철도를 건설하였다. 민중들

96

의 분노가 무서워서 처음에는 마차(馬車)로 견인하다가 나중에는 소규모의 기관 차로 바꾸었다. 1886년에 와서야 궤도철도를 확대하였는데 그때의 궤도폭이 4척 8촌반 (四尺八寸半) 이였으며 그것이 나중에 중국철도 궤도의 기준이 되었으며 기관차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갑오전쟁(청일전쟁) 전까지 중국의 천진에서 다구(大沽), 롼저우(滦州)까지의 철도를 부설하고 그것을 관외(関外)로 확대하였으며 전체 길이는 705리였다. 인 쇄업의 기술도입도 빨랐는데 1798년에 체코의 발명가인 알로이스 제네펠더가 발 명한 석판인쇄술(lithograph) 이 아편전쟁 전에 광저우로 전해졌으나. 그 중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은『신보』(『申報』)관주(館主)인 영국상인 E 마죠가 중국에 서 설립한 점석재석인국(点石斋石印局)이며 그는 1884년5월에 상해에 "점석재 화보"를 설립하고 그 후로 20년간동안 석판술이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발전하였 다. 서양의 석인술은 중국식 목각에 비해 우수한 점이 많아 1883년에 황식권(黄 式権)은 『송남몽영록』(『凇南夢影录』)에서 [서양의 석판은 반듯하게 갈아져서 거울 같고 거울 투영방식으로 돌 위에 글을 찍고 그 다음 풀을 붙이고 유목(油墨) 을 바르면 대량의 서적이 하루 만에 완성되며 소 털처럼 부드럽고 코뿔소 뿌리처 럼 밝다] 고 기술하였다. 그 석판인쇄술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한자연인술 (中文鉛印術)은 현대중국의 인쇄술과 직접 연결된다. 석인술(石印術)과 연인술(鉛 印術)의 채용은 서적과 신문의 고속 대량 인쇄를 가능하게 했고 또한 인쇄비용을 많이 절감시켜 문화서적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하여 훌륭한 조건이 갖춰졌다. 상 인이 돈벌이를 위해 실시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급속한 대중적인 전파를 밀어주는 꼴이 되었다.

근대적 도시건설도 시작 되었다. 1867년에는 "상해수룡공소(上海水龍公所)" 가 성립 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된 전문적인 소방대였다. 1881년에 영국인이 상하이에서 수도회사를 설립하여 도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음용수가 더욱 청결하고 편리해졌으며 1886년에는 상하이에서는 하수배관을 부설했으며 시가지의 오수가 그냥 흘러가는 일은 점차로 사라졌다. 1882년 상하이에 중국최초의 가로등이 설치 되었는데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전기 불빛에 사람마음이 울렁거려 불안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루머가 일시 떠돌았으나 ……나중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접근금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³. 이해 여름에는 전화(역음으로 [텔레폰]) 도 상하이탕에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소비구조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항구를 개방했더니 값싸고 질이 좋은 박래품(舶来品)이 막을 수 없는 기세로 국내의 전통물산의 고유시장에 밀려들어왔다. 1850년 상하이의 외국화물의 수입총액은 390.8위안이였으나 1860년에는 3,667.9만위안으로 9배이상 급증했다⁴. 1899년 일본의 근대중국학 연구의 일인자인 나이토 코난(内藤 湖南)은 중국북방을 고찰하면서 베이징에서 장자커우(張家口)로 가는 도중에 난커우샤우전(南口小镇)을 견학하고 [난커우의여관에는 생각 밖으로 양식 욕조도 있고 서투른 필법으로 Bathroom이라고 쓰여있었으며 또한 양변기도 제대로 있고 길에는 외국관광객도 많아, 영국인의 영향

³ 徐珂辑:《清稗类钞》,北京:中华书局,1986年版,第6038 ...

⁴ 张仲礼:《近代上海城市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0年版,第 108-114 쪽.

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⁵ 라고 기록하고 있다. 새 것을 좋아하고 남다른 것을 추구하며 양식을 따르는 것이 패션이 되고 양화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다. 복장은 인류의 생활문명의 변천을 상징하는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특히 외적으로 분별하기 쉬운 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 복장은 품이 너르고 소매가 너른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몸에 딱 맞는 복장으로 변했으며 특히 공장노동에 적합한 복장으로 변했다.

도시 사람들에게 양복과 서양식 액세서리의 영향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천진위(天津衛)에서는 [서양인을 태운 인력차를 끄는 어린 마부는 소매가 짧은 옷에다 짧은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짚삿갓을 쓰고 입에는 잎 담배를 물고 손목시계를 차고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자기가 돌아보아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래도 몸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괜찮게 생각하는] 6모양새이다. 상하이탄의패션은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될 장식으로는 높은 뾰쪽구두, 팔에는 검정담비모피의 손토시 하나, 다이아몬드 또는 보석으로 된 단추2,3개 달리고, 가죽 목도리하나, 금테 안경, 그리고 머리장식,비단 스카프 등이 유행되고 있었다. 한편 남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으로는 양복, 외투, 서양모자, 가죽구두, 지팡이, 코안경, 어느 정도의 서양의 말(외국어)] 등이 유행이었다 7. 그들의 의복과 장식은부근의 도시나 향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대양의 저쪽에 있는 구미에서 온 것이며 그들은 [세계시민] (「世界公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다.소비생활은 점차적으로 봉건적 등급제의 속박을 벗어나 개성화 되고 대중화되고서양화된 특성을 나타냈으며 더욱 서양숭배가 근대 소비생활의 중요한 기조가되었다 8.

공업화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국은 제1차 근대 도시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급속하게 발전되어 도시는 정치통치의 중심으로 각부문이 수직적이게 되었으며, 수평적인 연결이 희박한 전통도시로부터 경제무역을 위주로 하는 망연결형 근대 도시 형태로 변형 되었다. 도시는 전례없이 경제면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얻었으며 도시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농촌은 도시의 지배를 받고 소도시는 대도시의 지배를 받고 대도시는 통상항만도시의 지배를 받으며 통상항만도시는 세계 각 대시장의 상황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와의 일체화물결에 휘말렸다. 그리고 장강삼각주, 주강 삼각주, 화북지구의 3대 도시 밀집구가 점차 형성되고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의 발전이 가장 눈부셨다. 1843년에 항만개방 이전에 상하이 (上海県)의 인구는 50만명밖에 안되며 기껏해야 중등규모의 도시로서 난징(1852년에 90만인구), 항저우(아편전쟁 전에는 60만인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1862년에는 상하이시의 인구만 해도 300만명에 달하여 일약 중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1893

98

⁶ 張焘『津門雑記』卷下,天津古籍出版社1986年版,第137 .

^{7 《}西装叹》,《申报》,1912年4月22日.

⁸ 谯珊:《近代城市消费生活变迁的原因及其特点》,载《中华文化论坛》,2001年第2期.

^{9 《}北华捷报》,1862年2月21日,1863年3月12日.

년 대만과 동북을 제외한 중국의 도시는 1779개였고 도시인구는 23,513,000명으로 증가하며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6%였다¹⁰.

전체적으로 30여년의 [동광신정] (同光新政)울 거쳐 중국의 국력은 크게 올라 갔다.그러나 기물 (器物:물질) 측면의 발전 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물 측면의 변화는 다른 영역의 변화를 끌어내게 된다. 중국은 [기물이 낙후된 것]만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소질이 남보다 못한 것] (「人不如人」) 이다. 봉건적인 전통의 질곡(속박)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사람들의 재질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질은 또한 단기간에 높이기 힘든 것이며 이 것은 기술개혁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근대화 개혁은 서서히 더욱 폭넓은 방향으로 전개 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2. 문화

아편전쟁 이후 서양학은 완전히 동양학을 짓누른다. 그 과정은 완만하지만 지 속적으로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서양학은 우선은 사상적으로 민감한 사람 들 속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이런 사람들의 신분은 각기 다르나 모두 문화인인 것 은 틀림없다. 소위[학자는 서양학을 배워야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11 는 것 처럼 학자들은 당연히 문화영역에 중심을 두고 있었으나 아편전쟁 시기와 전후 의 한 시기에는 그들의 서양에 대한 인식은 혼돈되어 있었으며 표상적이었다. 그 런 것이 드러난 것은 솔선수범해서 세계를 내다보고 있었던 선구자들의 자아인 식의 한계가 있었다. 위원(魏源)의『해국도지』이든 서계척(徐继畬)의 『영환지략』 (『瀛環志略』) 이나 요영(姚莹)의 『강유기행』(『康輶紀行』)이나 모두 중국인 이 최초로 쓴 서양의 개황을 소개하는 선구적인 서적으로서 귀중한 것이지만 그 들이 서양을 소개함에 있어서 너무 천박한 지식과 단편적인 지식에 의한 것으로 서 외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저작은 기본적으로 서양 학의 저작을 인용하여 자기의 지식체계를 만들어낸 것 이었다. 위원은 이런 방 법은 [서양적인 서양학] 12이라고 지적한바 있으며 주로 번역과 편집에 주력했다. 상기에서 보듯이 세계를 내다보았다는 선구자들은 번역과 편집이라는 수법으로 서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다.

서양문화가 중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에 의한 것 이었다. 1850년대 전후에 기독교의 포교활동은 우선 먼저 사회하층의 문인이나 민중 속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폭동인 태평천국운동을 불러일으켰다. 홍수전(洪秀全,1814~64年)은 스스로 [천부](「天父」)신에게서 임명된 [진명천자] (真命天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을 [태평천왕대도군왕전] (「太平天王大道君王全」)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의 리더들은 [배상제교] (「拜上帝教」)를 국교(国教)로 정하고 신을 신봉하는 것은 어떤 곳이든 성전으로 여

^{10 [}美] 施坚雅 (G. William Skinner) 主编:《中华帝国晚期的城市》,叶光庭等译,北京:中华书局,2000 年版,第264 쪽.

¹² 魏源『海国図志』(大西洋)卷三十九(原叙)岳麓書社(長沙)1998年校注本.

겼다. 1851년초 [배상제교]라는 서양의 종교와 중국의 농민들과 결합된 특이한 부대가 [금전봉기](「金田蜂起」)를 일으키고 나라의 이름을 [태평천국](「太平 天国」)이라 하였다. 1853년3월19일에는 50만명의 태평군이 난징을 점령하고 [천 경](「天亰」)으로 개명하여 수도로 정했다. 홍수전이라는 과거(科挙)에도 급제 못한 실패한 서생(書生)이 자기도 완전히 이해못한 서양의 종교를 이용하여 기 세를 타고 청나라정부와 대립하는 새로운 정부를 설립한 것이다. 이 정권은 10여 년 유지 되었으나 기독교가 중국에서 광범한 토대를 갖고 있지 않았기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양무운동파들은 [서방교회](「西教」)나 [서방정치](「西政」)에는 거의 관심 이 없었고 그들의 서양문명에 대한 관심은 [서양기물] (「西器」)이나 서양기술(「西 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기물 (器物) 측면에 머물러 있지 않 았으며 서학 (西学) 과 서양문화를 도입하고 중국근대 문화와 교육사업을 넓 은 면에서 개설하기 시작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중국의 근대적인 신학당(학교)이 서양인에 의해 최초로 설립 되고 1860년까지 기독교신교(新教)는 중국에서 50개이상의 각종학교를 설립하 였다. 카톨릭 학교에 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지만 신교가 설립한 학교보다는 적 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인에 의해 설립된 신식학당은 양무운동파들이 설 립한 것이 많은데 3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동문관(同文館)과 같은 어학 학 교이며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등지에 설립되어 외국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두번 째는 군사 학교이며 1866년에 좌종당(左宗棠)이 마워이(馬尾)에 설립한 구시 당예국(求是堂芸局)이며 이는 중국근대 최초의 해군학당이었다. 또한 리홍장이 텐진에 설립한 최초의 육군학당인 텐진무비학당(天津武備学堂)등은 중국근대의 군사교육의 선구였다. 세번째는 기업에 부속된 전문적인 기능을 훈련하는 간이학 당(簡易学堂)이었다. 양무운동 시기에 중국정부가 설립한 근대적인 학당은 적어 도 30여개 된다.

19세기 70년대에는 양무운동파들이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1872-75년사이에 4차례에 걸쳐 120명의 학동(学 童)을 유학보냈고 육군으로서는 1876년에 독일에 7명을 유학시켰으며 해군으로 서 1877-85년사이에 77명을 프랑스와 영국에 파견했다.

신문분야에서는 중국근대 최초의 신문업은 외국인이 만들었다. 1822년9월12 일에 카톨릭교가 마카오 (澳門) 에서 밀봉화보(『蜜蜂華報』)를 창간했는데 이 것은 중국에서 간행된 최초의 외국어 신문이었다. 1890년대 중반에는 중국에서 12종류의 신문이 간행 되었는데 주로 상하이에 집중 되어 있었다.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매체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상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매체의 탄생에 연관되었으며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

과학분야: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중국의 전통적 지식체계는 능통성과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전통적 4개의 분류법에의한 학문은 경 (経), 사(史), 자(子), 집(集)으로 집약되고 그것이 모든 지식을 망라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지식의 축적에 의하여 각 학과분야는 근대적 노동분 업의 세밀화와 전문화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근대적 과학체계에 따른 분류화 와 전업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분류과정은 서양에서 시작 되었다. 근대이래 중국인의 과학기술에 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학과류를 나누지 않고 굵기를 분별하지 않는](「門類不分,粗細不辨」) 중국의 전통적인 구학 (旧学)을 바탕으로 해서는 새로운 학문의 발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로운 학문에 적응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서양의 학문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학문체계을 재구축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1862년에 설립된 [경사동문관] (「京師同文館」)은 1867년에 학과설정에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어학 외에도 산수, 화학, 만국공법, 의학생리, 천문, 외국역사 지리 등 과목을 설치하였다.

생물학: 1858년에는 『식물학』 (Elements of Botany)이 출판되었는데 그 원본은 영국의 식물학자인 린들리(John Lindley)의 저작이며 중국에 와있던 영국의교사 윌리엄슨과 중국근대의 저명한 과학자인 이선란(李善蘭, 1811-82)이 공동으로 번역출판한 것이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중국인에게 현미경에 의한 식물세포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학설을 제시하고 또한 근대적 실험에 의하여 구축된 식물체 각 기관의 생리적 기능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지구상에서 위도(緯度)의 차이에 따라 식물분포도 다르며 또한 근대식물분류학도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 식물학과 식물학 (botany)과 식물분류 단위로서의 과(「科」family)라는 단어는 이책에서 처음 만들어졌다¹³.

화학: 18세기말부터 19세기초까지 원소론(元素論)과 원자론(原子論)이라는 두 개의 근대화학의 초석으로 되는 이론이 탄생하며 19세기 후반에는 서양에서는 무기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과 물리화학 등 4대 화학분야를 구축하여 근대화학의 기초가 형성된다. 1867년에 경사동문관에서는 화학수업이 최초로 시작되고 1880년에는 상하이격치서원(上海格致書院)에서는 중국의 과학자인 서수(徐寿)와 선교사인 프라이어(부란아:傅蘭雅)가 공동으로 번역출판한 화학감원(『化学鑑原』)등 서적이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화학지식의 강의와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徐寿는 처음으로 요소, 바륨, 망간등 24개의 화학원소명을 번역했다.

의학: 서양의학의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전환되는 시기부터 예수선교사에 의해 중국으로 유입되어 그 후 확대되었다.

지학: 지학(地学)의 연구는 중국에도 오랜 전통이 있으나 서양학과의 교류가 진행된 최초의 학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학이며 또한 주로 지학의 두 개의 분류인 지리학과 지질학분야의 전 단계 연구에 그쳤다. 1872년에 중국근대초기의 과학자인 화형방(華蘅芳)은 책 두권을 번역출판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지학분야에서의 선구적 서적 이었다. 라이알의 지질학강요(『地質学綱要』,『地学浅釋』라는 중국어로 출판)와 미국인인 다나(J.D.Dana)가 쓴 광물수첩이었다. 1896년에 추대균(鄒代鈞) 등은 우창(武昌)에서 중국최초의 지리학 연구기구인 역인서문지도공회(「訳印西文地図公会」)를 설립하였다. 이 공회의 규약에는 [천하의 지학에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입사하여 협력하여 학문을 닦을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양무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각 분

¹³ 汪子春「我国伝播近代植物学知識的第一部訳著」『自然科学史研究』1984年第1期, 第90-96 至.

¹⁴ 張静蘆『中国近代出版史料』(二編)群聯出版社(上海)1954年版,第76至.

야에서의 학과가 대량으로 [이식]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고유의 학과에 대한 개조 와 재구축이 진행되며 중국문화에 대한 자각적 반성과 소위 [도는 역탐구에 있다] (道在反求) 15 는 경지에 도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학] (西洋学問) 이 유기 적이고 계통적으로 [중학] (중국학문) 에 융합되어, 새로운 학문으로써 서양도 중국도 아닌 또 중국이기도 서양이기도 한 근대 [신학](「新學」)이 창출 되었으 며 중국과 서양의 학술이 처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학술체계 속에 통합되었다.

3. 제도

헌정제도 (憲政制度) : 중국인이 서방의 근대 정체(政體)에 관한 초기적 이해 는 주로 3개방면이 있었다. 국회제도, 헌법체계, 책임내각 이였는데 통 털어 말 하면 헌정사상(憲政思想)이다. 한가지 재미나는 현상은 중국근대의 서양헌정사 상에 대한 소개는 팩키지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선후가 있고 시간상에서도 같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초에 중국에서 전파된 것 은 국회에 관한 사상이다. 19세기 40년대에 임칙서(林則徐)가 편찬한 『사주지 (四洲志)』)와 위원(魏源)의『해국도지』(『海国図志』)는 최초로 서방의 의회 제도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 영국국회에 관한 소개에서 [국가의 큰일은 왕과 관 민이 국회(Parliament)에서 의논한다]고 쓰여 있고 또한 미국국회의 관한 소개는 더욱 상세하여 [의원(議院,Congress) 을 설립하여 나라의 법령을 제정하며 의원 은 두 개로 나뉘어져, 하나는 참의원(Senate)이라하고 하나는 중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라 한다. 무릇 경제무역, 과세징수, 법률소송, 군사의 중요한 일 등은 반드시 양원에서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¹⁶.

양무운동 시기에 의회사상은 더욱 폭넓게 전파되었다. 1884년에는 조야의 일 반적인 선전 뿐 만 아니라 관료가 조정에 직접 상소 건의하는 일까지 나타났다. 그 해에 최국인(崔国因)에 의해 편찬된 의원 설립에 관한 건의가 조정에 상소 되 었다¹⁷. 또한 더욱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양광(両広:광동과 광서) 총독인 장수성(張 樹声)에 의한 의원설립에 관한 건의(유서로 됨) 였다. 흥미로운 것은 의회와 헌 법이라는 서양 정치제도에서는 통합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분리되어 인식되었 다는 것이다. 의회사상이 먼저 도입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헌법사상의 도입은 뒤 떨어 졌다. 중국인의 헌정사상에 관한 이해는 의회제도로부터 시작되는 반면 헌 법에 대해서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원인은 의원(議院)이라는 것은 구체 적 실물이기에 알기 쉬운데 헌정(憲政)이란 추상적이고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었 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헌법은 의회에 비해 군주(君主)에 관한 근본적 법적제한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한 [주권재민] (「主権在民」), [법 앞에서 는 모두가 평등하다], [헌법지상](「憲法至上」), [제헌](「制憲」), [위헌](「違憲」) 등을 가지고 법률화 제도화와 신성화(神聖化)를 강조하고 있기에 전제정체(専制

¹⁵ 中国史学会主編『戊戌变法』(中国近代史資料縦刊)(一)上海人民出版社2000年版,第30 至.

¹⁶ 魏源『海国図志』卷六十.

¹⁷ 孔祥吉「清廷関于設立議院的最早争論」『光明日報』1988年8月24日.

政體)가 견고한 시대에는 전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1895년전에는 헌법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초기 계몽사상가인 정관응(鄭観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가 1895년에 만든 책 『여진차량부랑서』(『与陳次亮(陳炽)部郎書』)에서는 [국회를 열고 헌법을 제정하는]것을 구국의 중요한 방책으로 제기한다¹⁸. 같은 시기에 제안된 『치안5책』(『治安五策』)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헌법제정]이라 적혀 있다. 그 중에서 [의원설립도 중요하나 헌법도 제정해야 한다], [헌법이 없으면 전제(專制)가 어려워지고 관리의 권력이 크게 되면 백성들이 무권력이 되며 그렇게 되면 국정을 의논할 수가 없고 상하의 장벽이 생겨 민심이 분산된다] ¹⁹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군사제도: 청나라의 군사발전을 대략적으로 말하면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함풍(咸豊) 이전의 8기(八旗)와 녹영(緑営)단계, 함풍으로 부터 동치(同治)년간의 상군(湘軍)과 회군(淮軍) 단계, 그리고 갑오년 특히 경자(庚子)년 후에 추진된 신군(新軍)의 단계이다. 제2단계와 제3단계는 중국근대의 군사제도의 최초확립기였다.

재정제도: 청나라의 재정체제는 순치(順治)시기에 최초로 확립되고 옹정(雍正)시기에 완성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계률(戒律)이 엄격하고 해협향(解協饗: 정부부문 간에 서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19세기 4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정태적(静態的)인 고정화된 재정체계는 항상 변동하는시국에 대응할 수 없게 되였으며 경직화된 수입체계과 동태적(動態的)인 지출체계 사이에는 갈수록 맞물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 먼저 아편전쟁 등 연속되는대외전쟁의 지출과 전후(戦後)의 조약배상(条約賠償)에 의해 청나라 재정은 전에 없이 예산 외 지출이 늘어나고 더욱 태평천국 혼란이 발생하면서 원래 중요한재원 지역 이였던 곳이 태평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해협향(解協饗)제도는 전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대규모의 전쟁에 의해 국고는 고갈이 나고 옹정(雍正)년간에는 중앙금고에 6,7천만냥(万両)의 은비축(銀備蓄)이 있었으나 함풍3년6월12일 (1853년7월1일)에는 재정부 장부에 지출가능한 은(銀)이 22.7만냥(万両)뿐이었으며 국가재정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궁핍화 상황] 20 에 직면했다.

국가재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 때문에 양무운동 전후에는 새로운 재원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큰 항목으로는 리금 (厘金: 상품의 지방통과세, 역자주)이라는 세금이 첨차적으로 토지세의외의 제2대 세수재원이 되고 관세(関稅)가 제3대 세수원이 되며 그 외에도 외채, 공채 및 관청이 경영하는 양무기업(洋務企業)의 영리수입이 있었다. 그 중에서 리금 이외의 각 수입재원은 근대적 세금재원의 형태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것은 중국 경제사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1.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서 오래동안 지속 되어 왔던 봉건적 재정체제가 서서히 근대적 재정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鄭観応集』上海古籍出版社1988年版,第360 .

²⁰ 中国人民銀行参事室史料組『中国近代貨幣史資料』第1輯上册,中華書局(北京)1964年版,第176至.

행정제도: 청나라의 행정제도의 변동은 먼저 외국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로부터 시작되며 1850년대에는 중국근대의 세관제도가 초보적으로 확립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외국인에 의해 조종 (操縦) 되었으며 소위 [양관](「洋関」: 서양사람의 세관)에 지나지 않았다. 1860년에 청나라는 [총리아문](「総理衙門」)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양무운동의 시작을 나타내고 크나큰 의의가 있었다. 청회전(『清会典』: 청나라의 정치제도에 관한 사서, 역자주)에서는 이 기구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즉 [각국과의 조약을 관할하고 조정의 덕신(徳信)을 명확히 하며 대부분의 수륙입출(水陸入出)에 과세하는 것을 관리하며 배(船)와 차량의 항행을 관리하며 서적의 출판관리, 화폐의 관리, 외국과의 국경관리, 문서의 번역과 전달(매체)의 관리, 국민교육의 관리 등]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의 관료기구의 근대화는 대외 교섭기구의 설립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 흥미진진하다.

결국은 양무운동 등으로 조성된 이런 변화를 거쳐 1911년에 중국에서는 드디어 제도문명이 전환되는 대혁명-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났다. 신해혁명의 발발은 중국을 260여년 통치한 청나라의 종언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2천여년 지속된 봉건군주 전제제도 (封建君主專制制度)를 근본적으로 전복시켰다는 것을 선고하였다. 근대 제도문명의 산물로써 헌법, 국회, 민국 (民国) 등이 중국대지에서 처음 나타나고 그때로부터 공화 (共和)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정통적인 정치체제로 인정되었으며 중국의 정치제도는 근대 문명제도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한걸음을 내디뎠다.

[질의 응답]

제3세션 발표 논문에 대한 코멘트 및 토론

사회: 무라 가즈아키 (村和明, 도쿄대학)



발표 논문 4 에 대한 코멘트 친 팡 (秦方, 수도사범대학)

회의 주최측에서 저에게 짧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사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카와 마코토 선생님의 논문은 주로 18, 19세기 일본의 여성 천황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계 계승 문제에 대해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셔서 배운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하 주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카와 선생님의 이 논문은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을 연상케 합니다. 방금전에 사회자 분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 천황 혹은 여성의 황위 계승 문제를 하나의 만들어진 전통으로 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 각각 다른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런 요구들은 서로 강렬한 경쟁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비록 여성의 황위 계승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19세기 말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이 어떻게 경쟁적으로 각자의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고 있었는지가 주요한 논점으로 되고 있지요.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논문의 서두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왜 이러한 주제들이 21세기에 들어서서 다시 부상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아주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전지구적인 사상과 포퓰리즘이 상호 교차하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주제가 유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어떤 시대적 요구를 제기하려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여성 황위 계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 실은 서로 다른 지식 체계와 권력관계가 얼기설기 엮이면서 충돌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카와 마코토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이러한 논의들은, 일본 지식인들이 일본의 역사, 풍습, 서양에서 유입된 젠더 사상과 법률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일본 지식인들이 대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격변하는 그 시대에 무엇이 일본이고 '일본적인 것(日本性)' 인지, 여성 및 천황 제도가 일본성(日本性)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 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흥미를 느꼈던 점은 이 논문에서 언급된 상식의 계승 문제입니 다. 오카와 마코토 선생님도 서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죠. 즉 우리가 19세기 말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설정했을 때, 이 시기에 형성된 다분히 논쟁적인 여성 황 위 계승 문제에 대한 지식들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 을 거쳐 부계 남성이 황위를 계승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었 는지. 저자는 역사 문화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분의 지식들이 기억 되고 전승되어 오늘날 일본인 및 일본사회의 상식을 형성하였고, 그리고 일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망각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어 떤 부분은 기억되고 또 어떤 부분은 망각되는 것일까요. 기억되는 과정과 망각되 는 과정은 단지 지식 생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히 그러한 부분에 대 해 역사화를 시키고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 각합니다. 금후 오카와 선생님이 하시는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리플라이 오카와 마코토(大川真)

메이지 초기와 지금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저는 정치사상이 전문입니다만, 예를 들면 '마쵸 시대' 입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근육질 남자' 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메이지 천황은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강한 말투라든지 난폭하고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는 태도라든지 그런 정치가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여 성 천황에 대한 차별은 일치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논문5에 대한 코멘트 오쿠보 다케하루(大久保健晴, 케이오의숙대학)

오늘 발표는 근대일본이 제국 확장과 한국병합을 통해 국민국가를 초월한 식 민지 법제를 어떻게 정비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흥미로웠습 니다.

대일본제국에 의한 식민지 법제는 이미 와세다대학의 아사노 도요미 교수의 연 구 등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내지연장주의에 기반한 속인주의(属人主義) 법제 와 특별 통치주의를 배경으로 한 속지주의(属地主義) 법제라고 하는 둘다 모순을 안고 있는, 즉 상극(相剋)되는 성질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내지일본의 '의용(依用)'으로서의 식민지 법제의 확립은 어떤 의미에서는 입헌국가 원리를 관철한 것이고 총독부의 독주, 폭주를 제어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식민지 주민인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같은 법을 적용해 같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이념의 체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조선의 관습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하게되었고 동화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서의 특례조항과 같이 조선을 내지일본과는 다른 '또 하나의 법역'이라고 간주하는 식민지통치는 일견 조선인의 관습이나 이해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총독부의 통치권한을 강하게 하고 마음대로 법령 정비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지 출신의 일본인이 조선 사람들을 구별, 차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선생님 발표에서는 이러한 대일본제국의 식민지 법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이념과 현실의 차이, 모순점에 초점을 맞춘 굉장히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발표에서 식민지조선에서는 조선의 관습법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그것은 일본정부가 조선인들이 내지일본인보다 야만적이고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명국 일본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계층적인 내셔널리즘에 의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일본정부로서는 자신들도 서양의 민법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법체계는 내지일본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즉 자신들의법체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것이 드러난 것일까요?

이 문제는 메이지 일본의 법전 편찬의 특징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메이지시기 일본의 법전 편찬 자체가 서양세계로부터 봤을 때 이른바 식민지 법제의 한 종류였다고도 생각됩니다. 왜냐면 메이지 정부는 일본제국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전 편천 과정에서 근대국가화와 조약 개정을 목표로 하고 서양세계로부터 일본이 문명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승인받을지를 중요시했습니다. 특히 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프로이센에 유학하는 등, 항상 서양 제국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한편, 민법이나 상법에 관해서는 유명한 '민법전논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거기서는 '조상교(祖先教)'의 예를 들어 일본의 '전통적인'(것으로 간주된)가족 제도와 관습에 기초한 법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서양이 봤을 때 이른바 일 본의 관습에 맞춘 오늘 발표에서 나온 특별사항, 자신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법 역'의 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지 일본의 법전편찬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가 서양에 대한 식민지 법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전을 외부에 있는 조선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기묘하게 뒤집은 법의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만, 일본정부가 한국병합에 있어서 조선의 관습법을 중요시한 배경에 있었던, 일본정부의 자신들의 법체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선생님의 연구와 현대의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가 커다란 논점이 되어 있습 니다. 식민지통치시기 일본기업에 소속해서 내지일본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들 에 대한 배상 문제입니다. 보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러한 노동자들 개인의 기업에 대한 배상요구는 1945년 이전의 식민지 법제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남선생님은 자신의 연구와 현대적인 문제와의 연속과 비연속에 대해 서 학문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라이 남 기혅(南基玄)

감사합니다. 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식민지조선의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는 원래는 독자적인 법역 자체를 만들려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 를 일본 정부에서는 거부했고, 대신에 의용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간 편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통치하기에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의용 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길게 얘기 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중에 특히 소유권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에 대해서 말씀 을 해 주셨는데, 일본은 한국에 들어와서 병합하기 직전에 관습을 파악하는데, 물 권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철저히 일본 민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여러 물권 을 소유권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일본 민법이 한국 사회에 적용 되고, 그것이 한국병합 이후에 더 잘 적용될 수 있게 체제를 갖추어 갑니다. 그리 고 징용 문제, 배상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너무나 잘 말 씀해 주셨지만, 한일협정은 국가와 국가간에 맺어진 협정입니다. 하지만 그 협정 자체에는 개인이 손해를 입은 청구권을 제시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일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견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논문6에 대한 코멘트 아오야마 하루토시 (青山治世, 아세아대학)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만, 중국근대사, 특히 양무운동시기의 외교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사들의 대화'에서 다면적 대화를 위해서는 일본인이고 중국사를 연구하는 존재 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셔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의 전체적인 논의에 대해서입니다만, 양무운동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도 세계사 교과서에 등장하므로 단어 자체는 세계사를 공부한 일반 일본인이라 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발표에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양무운동의 전제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

109

자면, 일반적으로 1860년에 종결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제2차 아편전쟁, 일본에서는 아로전쟁(アロ一戦争)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 전쟁이 끝나고 난후부터 청일전쟁까지의 시기에 중국에서 전개된 근대화 운동입니다. 발표에서는이 시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시점에서 양무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 및 검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분이 확실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발표에서는 양무운동이 중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후의 신해혁명이나 현재로 연결되는 공화제를 낳은 과정이라는 그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와 양무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30년 정도 전까지는 양무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도 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것이 80년대 즈음부터 극복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 중국사 학계의 상황입니다. 꾸어 선생님의 발표도 양무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흐름 위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표에서는 예전에는 청일전쟁 후에 일어난 변법(変法), 그리고 위화단사건 후에 일어난 입헌개혁, 중국에서는 '신정(新政)'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 이러한 시기에 일어난 것들이나 담론, 그런 것들도 양무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연구사와 비교했을 때 오늘 꾸어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조금 정리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발표의 논지라든가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양무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변법이 일어났고, 변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해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양무운동이 불러온 중국사회의 변화라는 것이 변법이나 혁명을 일으킨 것이라고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한 후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역시 양무운동과 변법, 혁명의 관계라는 것을 발표자 분이 어떻게 생각하고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실 때 중요한 점은 시계열(時系列)적인 이해입니다. 각각 사례로 언급되었던 부분, 혹은 담론의 시간적인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발표6의 주11 부분에 유대붕(劉大鵬)과 그의 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자는 서양학을 배워야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士子学西学以求勝人"입니다. 이것은 번역의 문제입니다만, 좁은 의미에서의 학자가 아니라 이른바 독서인(読書人), 중국 지식인, 당시의 사회적 엘리트 전반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양학을 배워야지만이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 기술인지가 문제입니다. 이 일기는 유대붕이 1890년부터 50년 이상에 걸쳐서 쓴 일기인데 1890년 즈음에 쓴 것이라면 양무운동 시기입니다만 상당히 뒤에 쓰여진 것이라면 기술의 해석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5 부분입니다. 소비구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복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장도 상당히 서양의 것들이 들어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복장이나머리 모양이라는 것은 문명, 중국에서 말하는 '중체(中体)'를 뜻하는 것이므로이것은 바꾸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무운동의 슬로건이었던 '중체서용

(中体西用)'의 '중체(中体)'입니다. 그 한 예로 1876년 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홍장과 당시 북경에 있던 일본의 주청공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礼)와의 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홍장은 일본 메이지유신 때의 군사 및 기계 방면의 근대화 를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일본인은 복장과 머리 모양이 서양화되어버렸 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무운동 화제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담론입니다만, 이 러한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아까 나온 시계열의 이야기를 하자면, 주7에 복장 과 패션의 예가 나옵니다만. 『신보(申報)』에 게재된 것이 1912년 기사이기 때 문에 일반적인 양무운동 시기는 아닙니다. '서양식의 복장을 한탄한다' 라는 제목 인데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한탄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도시화 등을 포함한 양무운동시기의 중국사회의 커다란 변화 에 대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외국 조계지에서 탄 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 해나 천진, 홍콩 자체는 영국에 할양(割譲)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장소가 중 국의 근대화, 서양화의 창구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계지와 같은 장 소도 포함해서) 화(華)와 양(洋)의 접합에 의해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제목에도 있는 '전통과 제도의 창조' 를 보다 분명하게 그러나가는 것이 학계 전체의 금후 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리플라이 꾸어 웨이똥(郭衛東)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가지만 답해 드리겠습니다. 중 국 근대 개혁의 루트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19세기 60년대 양무운동으로 시작하 여, 서양을 학습하는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오 중일전쟁에서 난관에 부딪혀서 좌절을 겪게 되지요. 이후 점진적 개혁 노선을 통해서 위기의 중국을 구 해내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898년부터 바로 급진적인 개혁에 들어갔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103일 만에 끝났죠. 1898년 9월 21일 자희태후(慈熙太後)가 무술정변을 일으킵 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개혁이 진행되는데, 바로 이 시기 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화단이 생겨나고 경자사변(의화단 사 건. 역자 주)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양불반(无洋不反), 즉 서양의 것은 모두 반대한다. 또 다른 하나는 무신불반(无新不反), 즉 새로운 것은 모두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개국 연합군 전쟁과 경자사변을 겪은 후, 내외 정 세의 압박으로 바로 신정(新政)에 돌입하지요. 이렇게 1901년부터 점진적이고 도 전면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 개방 토론

무라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모처럼의 기회이므로 다른 분들의 질문, 코멘트를 조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타니

아토미학원여자대학의 미타니 히로시(三谷博)입니다. 제3세션에서 발표하신세 분에게 각각 한 가지씩 전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발표4의 오카와 선생님의 발표에 관해서는 코멘트를 해주신 친팡 선생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오카와 선생님이 테마로 정하신 여계천황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상에서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천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계천황론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올해 제가 맡은 졸업논문 세미나에서 졸업논문을 쓴 5명의 학생 가운데 3명이 메이지시기 여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그중에 오카와 선생님과 똑같은 천황문제를 다룬 학생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여성대남성의 격한 분단이 분명하게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즉, 여성천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 전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식이 일반 여성들 사이에생긴 것입니다. 남계남자계승주의라는 것은 메이지시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전통, '만들어진 전통' 입니다만, 이와는 다른 의견들이 현재 일본의 일반 여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선생님 발표입니다만, 남선생님은 종주국인 일본과 식민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일본의 민법을 가져가면 아무래도 조선의 전통과 부닥치게 됩니다. 상당히 강렬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쿠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서양의 법률을 수용할 때도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는 소유권이라는 서양적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도시대 때 토지는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서양적인 소유권을 규정했을 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선에서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어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양무운동을 한 사람들은 의회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헌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선생님께서는 전통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일본의 경우 법의 지배, 법은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상당히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제 이해로는 에도시대에 결정 절차가 상당히 엄격해져서 그 '절차' 가 메이지시기의 '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법이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을 받아들일 소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는 둘 다 권력입니다만, 왜 의회에 관심이 몰렸는지. 이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순조로왔는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부분은 꼭 자유토론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카와

미타니 선생님의 첫 코멘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타니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성천황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분개하는 일반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저는 대학교에서 커리어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젊은여학생들의 주부지향도 늘고 있습니다. 『日本婚活思想史序説』(佐藤信著・東洋

経済新報社) 에 적혀있는 것처럼, 3년 정도 일하고 결혼해서 애기를 낳고 싶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사람이 분명히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괄해서 진화 적으로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보수로 돌아가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라

마지막으로 사회자로써 내일 자유토론에 대한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 히 기초적인 부분입니다만, 꼭 제3세션에서 발표하신 세 분 선생님들, 코멘트를 부탁드린 세 분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션이 다른 세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발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선생님은 미묘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나라 안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는데 각각 다양한 존 재가 여러 입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또 의견도 다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만 그 결과 여러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는 점은 아마 다음 세션에도 연결이 될 문제입니다만 자기 나라의 전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무엇을 수용해서 무 엇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것은 당연히 서양에 대한 동경이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세션 내용을 의식해서, 그리고 미타니 선생님의 처음 기조강연-아시아라는 것의 재발명, 아시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부분과도 관 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발표 논문 7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영어신문· 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교토대학)

[번역: 조수일]

발표 요지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 일본어 신문에 의해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는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생성되었다. 발표자는 이를 동 아시아의 공공권(公共圈)의 탄생으로서 파악하려고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항지 사이의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써 기능하기 시작했다. 개항지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 던 영국은 각지에 영어 신문을 전파했는데, 이러한 영어 신문들이 상호간에 기 사를 참조하거나 옮겨 실으면서 국경을 넘는 언론권을 형성했다.

영어 신문의 활동이 촉매제가 되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중국어 신문과 일본어 신문이 탄생했다. 이러한 신문들과 각지의 영어 신문 간에는 번역과 전 재(転載)를 통해 기사가 유통되었고, 중국 측도 영어 신문을 통해 일본어 신문 의 논조를 알게 되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중국 고전에 대한 교양을 바탕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중국어 신문이 그대로 읽혔다.

이러한 보도와 언론의 유통은 1870 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자주 있었던 국제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메이지유신 후 일본이 대만이나 류큐 (沖縄), 조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 일 본어 신문 사이에서는 서로간의 보도나 언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공통의 관심거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본 발표는 대만출병이나 유구처분을 구체적인 예로 이러한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에 대해 분석한다.

[문제 제기]

- 1. 개항지와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9세기 중국과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2. 19세기 중국·조선에서의 국경관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3.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중국·조선·일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경험은 무엇일까. 또 각각의 경험에는 어떠한 다른점이 있었는가.

들어가며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영어신문, 중국어신문 그리고 일본어신문에 의 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탄생했다. 본 보고에서는 이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공권 탄생으로 보고, 대만출병과 류큐처분을 구체적인 예 로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의 관심은 '공공권(공공성)' 1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근대를 동아시아의 근 대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에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신문이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중을 만들어낸 것은 거듭 지적되어 온 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 공권'은 일본이라는 네이션만을 단위로 하여 분석되어 왔다. 하지만 미디어로서 의 신문이 본래 지니고 있는 글로벌적인 성질 때문에 '공공권' 은 일국 단위로 완 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본 보고에서는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를 그 범위로 하는 언론공간, 혹은 '동아시아 공공권'이 형성된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논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공공권이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이 주권국가원리를 채택하였으며, 동아시아 내부의 관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분쟁이었다. 국제분쟁이 상호의 관심을 자 극하였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언론의 유통을 생성한 것이다.

1. 다언어신문 네트워크 형성

(1) 동아시아 각지의 개항과 영어신문

19세기 중반 동아시아 각지에 설치된 개항지는 단순히 서양중심의 세계시장에 동아시아를 편입시킨 것은 아니었다. 개항지는 한편으로 그 자체가 영국의 잠재 적 영향력 하에서 현지사회와 서양문명이 접촉하는 장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 로는 동아시아 각지를 전에 없는 규모와 형태로 묶어 사람ㆍ사물ㆍ정보의 일상적 인 왕래를 탄생시켰다³. 개항지에서 탄생한 영어신문은 이들 쌍방에게 있어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17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신문은 19세기에 서양인에 의해 동아시아로 전해졌 다. 우선 19세기 초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1820년대에는 마카오와 광저우와 같 은 해협식민지에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홍 콩을 영국에게 할양하고, 상하이 등 5개 항을 개항하자 영국인에 의한 영어신문 발행이 본격화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1870년대에 대해서는 홍콩의 China Mail (1845년 창간)과 Hongkong Daily Press (1857년 창간), 상하이의 North-China

¹ Jürgen Habermas(細谷貞雄、山田正行訳)『公共性の構造転換 第二版』未来社、1994年。

² 鳥海靖『日本近代史講義』東京大学出版会、1988年、牧原憲夫『明治七年の大論争』日本経済評 論社、1990年、稲田雅洋『自由民権の文化史』筑摩書房、2000年、三谷博編『東アジアの公論形成』 東京大学出版会、2004年、奥武則『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朝日新聞出版、2016年。

³ 籠谷直人『アジア国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名古屋大学出版会、2000年、古田和子『上海ネット 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2000年、川島真「国際公共財の形成」(三谷博・並木頼寿・ 月脚達彦編『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19世紀編』東京大学出版会、2009年)。

115

Herald (1850년 창간)와 Celestial Empire (1874년 창간) 등을 유력지로 꼽을 수 있다⁴. 나아가 1858년 안세이 5개국 조약을 통해 서양인이 나가사키와 요코하마 등지에서의 무역을 인정받자, 일본에도 영어신문이 도래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1870년대에서는 Japan Herald (1861년 창간), Japan Gazette (1867년 창간), Japan Mail (1870년 창간)이 유력지로서 모두 요코하마를 거점으로 하는 신문이 었다⁵.

이들 동아시아의 영어신문들은 기사의 참조와 전재(轉載)를 통해 바다를 넘다 드는 영어신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른바 나마무기(生麦) 사건을 예로 들 어 이를 확인해 보자.

1862년 9월 14일(분큐2년 8월 21일), 요코하마 근교에서 승마를 하고 있던 영국인 네 명이 시마즈 히사미쓰(島津久光) 일행과 조우했을 때 사쓰마번사(薩摩藩士)가 무례를 이유로 칼을 들어 한 명이 즉사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Japan Herald (9월 16일)가 호외를 통해 제1보를 전하자, North-China Herald (10월 11일)는 이를 전재한 후에 조약상의 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기사도 시대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길을 막아서고 사쓰마번을 모욕한 것은 부주의였다고 논평했다⁶. 이에 대해 Japan Herald (10월 25일)는, 시마즈 히사미쓰는 다이묘(大名)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본이나 중국의 시점에서 보면 영국인은 현지인에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영국의 법과 관습 하에 살고 있다고 반론했다⁷.

이처럼 기사의 참조·전재는 정보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종종 논평과 비판 등을 덧붙이면서 반복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영국인은 하나의 보도·언론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중국어신문의 탄생

중국에서는 17세기 말 이래 청조(淸朝) 정부의 정보를 전하는 저보(邸報)가일간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었지만, 저보의 내용은 궁정의 동정, 황제의 유지, 대신의 상소문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저보 이외의 정기간행물은 인정되지 않았다.8.

최초의 중국어신문은 런던 전도 협회의 영국인 선교사가 광저우에서 직접 중국 인에게 전도하는 행위를 금했기 때문에 영국 통치하의 말라카에서 1815년에 발행 된 것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어신문은 선교사에 의해 상하이와 홍콩 등지에서 왕성히 발행되었고, 더불어 영어신문을 모체로 하는 중국어신문이 나타났다⁹.

또한 상하이에서 1872년 영국인 Ernest Major가 창간한 『신보(申報)』로 대

⁴ Frank H. H. King (ed.) and Prescott Clarke, *A Research Guide To China-Coast Newspapers*, 1822-191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⁵ 蛯原八郎『日本欧字新聞雑誌史』大誠堂、1934年。J. E. Hoare, *Japan's Treaty Ports and Foreign Settlements* (Folkstone: Japan Library, 1994).

⁶ Extra to The Japan Herald, Sep. 16, 1862, "Assasination of C. L. Richsrdson in Japan," NCH, Oct., 11, 1862. JH의 호외 기사는 영국의 The Times에도 전재되었다. "The Murder of Mr. Richardson in Japan," The Times, Nov. 28, 1862.

⁷ JH, Oct. 25, 1862. 또한 China Mail 과 Japan Herald 간에도 똑같은 응수가 반복되었다.

⁸ 저보의 기원은 송대까지 거슬러 오른다고 한다.。馬光仁『中国近代新聞法制史』上海社会科学院 出版社、2007年、殷晴「清代における邸報の発行と流通」『史学雑誌』第127編第12号、2018年12月。

⁹ 卓南生『中国近代新聞成立史』 ぺりかん社、1990年、小宮山『日本語活字ものがたり』。

표되는 바와 같이 서양인이 경영하면서도 중국인이 중추가 되어 편집하는 신문 이 생겨났다. 이 신문은 논설과 중국인 독자로부터의 활발한 투서에 의해 청조 지 방관료에 대한 비판 등도 담아내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대표적인 중국어신문이 되었다10. 그리고 홍콩에서 1874년에 왕도(王韜)가 창간한 『순환일보(循環日報)』 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어신문으로 첫 성공을 거두었다11.

위에서 언급한 중국어신문은 상하이 등의 개항지와 영국령 홍콩에서 발행됨으로 써 청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특히 개항지에서 서양인이 경영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영사재판권에 의해 신문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영사재 판권을 이용한 신문발행은 초기의 일본어신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

초창기의 중국어신문에 관해서는 야베 준수쿠(八戸順叔) 사건을 중심으로 논 하고자 한다. 청조 정부는 1860년 초 이래 영어신문과 중국어신문에서 국제정세 의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1867년 초 중국어신문에서 '야베 준수쿠' 라는 일 본인이, 일본이 증기선 군함을 손에 넣었고, 조선을 정벌하려 한다고 전하는 기사 가 발견되었다. 이 기사에 위기를 느낀 청조 정부는 조선 정부에 사실을 확인했 고, 경악한 조선 정부는 다시 도쿠가와(德川) 정권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도쿠가 와 정권은 "사실무근" 이라 회답했지만, 조선은 일본에 대해 불신감을 품게 되었 고, 이것이 메이지유신 이후의 조선개국교섭 분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¹². 다시 말해 신문 그 자체가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야베 준수쿠는 요코하마에서 미국인 Eugene Van Reed의 통역을 담당했고, 그와 함께 미국에 건너간 후 1866년부터는 홍콩과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야베는 중국어신문의 독자였으며, 문제의 기사는 야베 자신이 투고한 것으로 추 정된다13. 즉 이른바 야베 사건은 일본인의 글로벌한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본의 지식인이 한학의 소양으로 중국어신문을 읽을 수 있었던 점은 이하에서도 논하겠지만. 동아시아의 다언어적인 보도ㆍ언론의 유 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3) 일본어신문의 탄생

도쿠가와 정권 하의 일본에서는 재해와 사건을 전하는 요미우리 와판(瓦版) 등 은 존재했으나, 그 발행은 단발적이었고, 또한 정치에 관한 출판과 보도는 일절 금지되고 있었다14. 정기간행물을 살펴보아도 중국의 저보와 같은 정부의 홍보물

116

¹⁰ Natascha Vittingoff, "Readers, publishers and officials in the contest for a public voice and the rise of a modern press in late qing China (1860-1880)," T'oung Pao 87, no. 4 (Jan. 2001): 393-455.

¹¹ 卓『中国近代新聞成立史』、方漢奇編『中国新聞事業通史』第1巻、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2年、 322~330頁、467~488頁、倉田明子『中国近代開港場とキリスト教』東京大学出版会、2014年。

¹² 佐々木揚『清末中国における日本観と西洋観』東京大学出版会、2000年、3~20頁、朝鮮総督府 編(田保橋潔著)『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朝鮮総督府中枢院、1940年、『同文彙考』原編・洋舶情形、 同治6年(大韓民国文教部国史編纂委員会編『同文彙考』三、大韓民国文教部国史編纂委員会、1978年)。

¹³ 陳捷「幕末における日中民間交流の一例」『中国哲学研究』第24号、2009年、福永郁雄「ヴァンリー ドは"悪徳商人"なのか」(横浜開港資料館・横浜居留地研究会編『横浜居留地と異文化交流』山川 出版社、1996年)。「選録上海新報 日本国新聞」『中外新報七日録』同治5年12月12日(1867年1月

¹⁴ 今田洋三『江戸の本屋さん』日本放送出版協会、1977年、木下直之・吉見俊哉編『ニュースの誕生』 東京大学総合博物館、1999年。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쿠가와 정권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商館)으로부터 국제정세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지만, 이것 또한 출판되지는 않았다¹⁵.

그러나 개국 직후부터 일본 국내에 중국어신문과 영어신문이 유입되면서 ¹⁶, 도쿠가와 정권의 학자들은 중국어신문의 번각 출판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네덜란드동인도 정청의 기관지를 번역하여 간행하였다¹⁷. 또한 요코하마에서 영어신문 발행이 시작되자 도쿠가와 정권에서는 야나가와 순산(柳河春三) 등이 이를 왕성히 번역하였다¹⁸.

1860년대 후반에는 일본어신문이 탄생하였다. 당초의 주요 담당자는 일본인 표류민으로서 미국 국적자인 Joseph Heco와 영국인 선교사인 Buckworth Bailey 등 요코하마 거류지의 외국인이었고, 주요 기사는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신문들의 번역이었다¹⁹. 또 1868년에는 보신(戊辰) 전쟁이 한창일 때, 신정부가 정부의 홍보물로써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를 창간하는 한편²⁰ 도쿠가와 정권에 출사하고 있던 양학자인 야나가와 순산과 후쿠치 겐이치로(福地源一郎)가 신문을 발행했고, 신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언론활동을 전개했다. 머지 않아 신정부는 신문의 발행을 허가제로 변경했고, 영사재판권에 따라 지켜지고 있던 외국인의 일본어신문 외에는 폐간되었다²¹.

보신전쟁 종결 후 신정부는 허가제 하에서 신문을 육성하였고, 일본어신문이 속속 창간되었다. 단1871년의 신문지조례가 '정법(政法)'에 대한 '방의(謗議)'를 금하고 있어 이들 신문은 정치에 관한 보도·언론활동에는 극히 소극적이었다. Japan Gazette 의 전 편집자 J. R. Black이 1872년에 창간한 『일신진사지(日新真事誌)』는 예외였다. Black은 영사재판권에 의해 지켜지던 자신의 입장을 이용하여 일본어신문의 정론신문화를 주도했다²².

그러나 1874년 말 일본 정부는 구실을 만들어 Black을 『일신진사지』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였고,나아가 외국인에 의한 신문의 경영·편집을 금했다. 그럼에도 Black은 영사재판권을 방패 삼아 1876년에 『만국신문』을 창간했지만, 주일 영국 공사 Harry Parkes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국인의 일본어신문 발행을 금했다. 이로 인해 Black은 상하이로 건너가 영어신문 발행에 종사하게 되었다²³.

Black의 일본어신문이 좌절된 경위는 초기의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 준다. *North-China Herald* 등 상하이의 영어신문은 Parkes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그것은 『신보』 등도 청조 정

¹⁵ 松方冬子『オランダ風説書と近世日本』東京大学出版会、2007年。

¹⁶ 宮地正人『幕末維新期の社会的政治史研究』岩波書店、1999年、147、177頁。

¹⁷ 小野秀雄「我邦初期の新聞と其文献について」(吉野作造編『明治文化全集』第17巻新聞編、日本評論社、1928年)、北根豊編『日本初期新聞全集』ペリかん社、全67巻、1986年~2000年。

¹⁸ 小野「我邦初期の新聞と其文献について」、北根編『日本初期新聞全集』。

¹⁹ 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25~39頁、奥『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23~46頁、77~83頁。

²⁰ 山口順子「『太政官日誌』の発刊」『出版研究』第42号、2011年。

²¹ 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41~68頁、奥『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84~108頁。

²² 鳥海『日本近代史講義』、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奥武則『ジョン・レディ・ブラック』岩波書店、2014年。

²³ 奥『ジョン・レディ・ブラック』 260~294 頁。

부의 요청이 있으면 영국 당국으로부터 발행을 금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 했기 때문이었다24.

이처럼 일본어신문은 중국어신문과 마찬가지로 서양인에 의한 개항지에서의 신문발행에 촉발되어 탄생하였다. 서양어 신문과 선행하는 중국어신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점과 메이지유신이라는 큰 정치 변동은 일본이 중국과 조건을 달리 한 점이지만, 영사재판권 하에서 서양인에 의해 발행된 일본어신문이 중요한 역 할을 다한 점은 중국과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4) 보도·언론의 다언어적 유통

동아시아 각지에서 영어신문ㆍ중국어신문ㆍ일본어신문이 보도ㆍ언론활동을 펼치게 되자 각각의 기사는 같은 언어의 신문끼리 참조ㆍ전재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번역 등을 통해 언어를 초월하여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는 영어신문에 촉발되어 탄생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영어신문의 번역기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영어신문 측에서도 현지 정보 수집의 필요상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의 기사를 관심 영역에 맞게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예를 들어 North-China Herald 는 창간 이래 청조 정부의 저보를 번역 게재하고 있었는데25, 『신보』가 언론의 장 으로써 활성화되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종종 논평과 기사를 번역하여 게재하였 다²⁶. 일본에서는 1871년『신문잡지』의 논설「신봉건론」이 *Japan Mail*에 번역 게재되었고, 이에 대한 Japan Mail의 논평이 다시『신문잡지』에 번역 게재되는 등의 응답도 이뤄졌다²⁷.

이상의 내용과 비교하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에 이뤄진 언론의 유통에 는 주목해야 할 비대칭성이 존재했다. 19세기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한학 은 일반적인 교양이었고²⁸. 중국어신문 기사의 한문 또한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일본어신문은 중국어신문의 기사를 번역 게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²⁹. 때로는 워문 그대로 혹은 훈점을 붙여 전재했다³⁰. 그러나 중국어신문에서 일본어신문을 바로 전재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언어 간의 갭에는 확실히 중화문명 권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중심 · 주변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118

²⁴ 영국의 정책전환에 따라 1881년 이후에는 현지어신문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그때까지 는『신보』의사주인 Major 자신도 Black 과 같은 처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Rudolf G. Wagner, "The Shenbao In Crisi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Guo Songtao and the Shenbao," Late Imperial China Vol. 20, No. 1 (June 1999): 107-138.

^{25 &}quot;Select Extracts from the Peking Reporter: Nos. 52, 53, 54, June 12th, 17th, 1850," NCH, Aug. 3rd. 1850.

^{26 &}quot;The Press and The Mandarins," NCH, Feb. 12, 1874, "The Yang-Yeh-Liu Case (Translated from the Shen-pao of 22nd Jan.)," NCH, Feb. 2, 1872. Vittingoff, ibid.

²⁷ 松尾正人『廃藩置県の研究』吉川弘文館、244~257頁、2001年、池田勇太「明治初年の開化論 と公論空間」(塩出編『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

²⁸ 渡辺浩『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東京大学出版会、1997年、115~141頁、広田照幸「近代知の 成立と制度化」(歴史学研究会・日本史研究会編『日本史講座第8巻 近代の成立』東京大学出版会、 2005年)。

²⁹ 예를 들면「選録上海新報」『横浜新報もしほ草』第6篇、1868年6月15日 (慶応4年閏4月25日)、 「支那刊行教会新報ノ抄訳」『東京日日新聞』1872年11月19日 (明治5年10月19日)、「香港華字日報」 『横浜毎日新聞』1873年5月16日。

^{30 『}東京日日新聞』1872年9月19日(明治5年8月17日)、「隣邦可相接論」『朝野新聞』1879年1月23日。

하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요코하마의 영어신문이 일본어신문의 기사를 번역 게재하자, 중국어신문은 그 기사를 다시 번역 게재하여 소개하게 되었다. 1872년에는 『일신진사지』에 게재되었던 어느 투서가 영어신문을 통해『신보』에 번역 게재되었다. 이 투서란, 조선이 3년 전 신정부로부터 조공(통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의 부활을 요구받은 것에 대해 보내온 답신이라고 칭하는 문서를 들어 일본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답신의 내용은, 조선은 '다이코사마(太閤様)'의 침략 즉 임진왜란을 잊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의 침략도 물리쳤고, 야만적인 서양인을 모방하는 일본과는 교류하지 않겠다 하여 교전을 제안한 것으로 투서자의 창작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Japan Gazette는 이 답신을 번역 게재하였고 31, 『신보』는 이를 다시 번역 게재하여 조선이 국제정세를 낙관시하고 있다는 염려를 나타냈던 것이다 32.

즉 일본어신문과 중국어신문 사이에는 일본 측이 중국어신문을 한문으로 읽고, 중국 측이 일본어신문을 영어신문의 번역을 통해 읽는 형태로 비대칭적이면서도 상호참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후 이와 같은 관계는 동아시아의 국제분쟁에 의해 활성화되어 갔다.

2 동아시아 국제분쟁과 저널리즘 논쟁

(1) 대만출병을 둘러싼 논쟁3

1874년의 대만출병은 영어신문이 주도한 보도·언론활동에 자극을 받아 중국 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이 활성화되고, 보도·언론의 유통이 다방향화된 계기로써 주목할 수 있다.

대만출병의 발단은 1871년, 대만에 표착한 류큐인이 선주민인 파이완족에게 침략자로 간주되어 대부분이 살해된 모란사사건(牡丹社事件)이다. 이와 같은 사 건은 원래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메이지유신을 거친 일본 정부는 류큐를 일본 의 완전한 일부로 삼는 관점에서 죄를 묻기 위해 대만으로의 출병을 검토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전 미국 샤먼(厦門)영사인 C. W. Le Gendre 로부터 대만 동부는 중국의 주권 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조언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1873년에 청조 측이 파이완족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건의 책임을 부정하였기에 1874년에 출병을 결행하였다. 그러나 청조 측이 대만은 중국령이라 주장하며 병력 철수를 요구하여 양국은 개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당초 대만출병에 관한 보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영어신문이었다.

^{31 &}quot;Corea and Japan," *JWM*, July 20, 1872, "Japan and Corea," *NCH*, Aug. 10, 1872에 의함. 당해기의 『일신전사지』와 *Japan Gazette* 는 보고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찾아낼 수 없으나 *Japan Mail*에 의하면 *JG*, July 18, 1872에 번역 게재되었다.

^{32 「}論高麗約日本交戦書」『申報』1872年8月7日(同治11年7月4日)。

³³ 이 항목은 주를 달지 않는 한 塩出浩之「台湾出兵をめぐる東アジア公論空間」(同編著『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東京大学出版会、2016年) 에 의함.

Japan Gazette (1874년 3월 30일)는 일본 정부의 공표에 앞서 출병 결정을 보도 하였고, 주일 영국 공사 Parkes는 이 보도를 보고 일본 정부에 청조 정부의 승인 을 얻었는지 문의했다. 또 Japan Herald (4월 7일, 17일)는 일본이 대만 영유를 노리고 있다 보고, 청조 정부의 항의를 예상하여 출병에 미국의 선박과 사관이 고 용되어 있는 것에 주일 미국 공사 J. A. Bingham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기 에, Bingham은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단 출병중지를 결정했으나, 지휘관이었던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従道)의 독주에 의해 출병을 추 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요코하마의 영어신문이 보도함에 따라 중국어신문는 적극적으로 보도·언론활 동을 전개하였다. 상하이의 『신보』(4월 14일, 16일, 17일)는, 대만은 중국의 판 도로, 일본이 제재나 침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라고 경계했다. 대만에 상륙한 사이고 쓰구미치에 대해 민절(閩浙) 총독인 이학년(李鶴年)은 5월 23일에 청조 정부의 철병요구를 전했지만, 『신보』(6월 8일)는 양자의 왕복문서를 입수하여 그대로 공개했고, 철병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문서는 각지 영어신문 에 번역 게재되었고, 다시 일본어신문에도 전재되었다.

한편 Hongkong Daily Press (5월 6일)는, 중국은 국제법을 이용하면서 주권에 따르는 권리만을 요구했고, 주권은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만약 일본이 대만을 얻는다면 일본의 현상으로 볼 때 대만은 보다 유효한 통치하에 놓인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편전쟁 종결 후 대만에 종종 서양인 조난자가 표착 하였고, 선주민에 의한 습격·살해사건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조 정부가 일 관되게 대응을 거부해온 경위가 있었다.

대만출병에 대한 일본어신문의 반응은 Black의 『일신진사지』(4월 20일)가 "세 계인의 비웃음을 면치 못해"라고 비판한 것을 제외하고 당초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5월 26일)은 "청국구서(淸 國歐西)의 논평" 즉 중국어신문과 영어신문의 출병 비판에 대항하여 일본 정부로 부터 정보제공을 받아 출병 지지의 입장에서 보도를 전개했다. 단 『도쿄일일(東 京日日)』도 제재 목적에 한하여 출병을 지지했기 때문에 청조 정부의 철병 요구 가 각지에 번역 게재되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어신문의 투서란에서는 이 철병 요구에 대하여 출병의 시비가 활발히 논 의되었지만, 그것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언론유통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편보지신문(郵便報知新聞)』(7월 10일, 12일)에 투서한 다치바나 미 쓰오미(立花光臣, 후루사와 시게루(古沢滋)의 필명)은 Japan Gazette의 출병 비 판을 인용하여 외국인이 "횡문자" 로 일본 정부에게 "멋대로 평론"을 하고 있는 데 "우리 종문자 신문" 이 "관리들의 기휘에 저촉되는" 바를 쓸 수 없는 것은 너무 도 불공평하다 하여 "종문자도 횡문자도" "자유인민" 을 위한 "훌륭한 자유의 문 자"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도쿄일일신문』(8월 31일)의 어느 투서자는 『순 환일보』의 기사(『회보(匯報)』로부터의 전재)를 번역하여 "홍콩과 상하이 등 의 신문지"의 일본보도가 대만출병 이후 "매우 정밀하고 상세" 해졌다고 분석했 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귀국한 중국인의 관찰을 소개한 것이며, 일본 정부에 대 한 비판도 담고 있지만, 투서자는 현지에 수천 명 아니 그 이상의 독자가 있다고 하며 "지금 이를 피하는 것은 귀를 막고 번개를 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난항 끝에 합의에 도달하자 영어신문·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은 한결 같이 전쟁 회피를 환영했다. 하지만 본 보고의 관심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 의 과정을 통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5년 후의 류큐처분에 제하여 더욱 현저히 나타나게 된다.

(2) 류큐처분을 둘러싼 논쟁³⁴

1879년에 일본 정부가 강행한 류큐왕국의 병합, 이른바 류큐처분에 대해 그 시비를 둘러싼 논의가 영어신문뿐만 아니라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에서도 활발히 이뤄졌다. 또한 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 간에 상호의 주장이 활발히 참조되었다.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은 류큐의 귀속을 둘러싸고 상호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에 강한 위기감을 품었기 때문에 상호의 의사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만출병 결착 후, 일본 정부는 류큐의 완전한 병합을 위해 1879년 4월, 마침 내 '폐번치현(廢藩置縣)'의 명령을 왕국의 상소에 수락시켰고, 오키나와 현청을 설치했다(류큐처분). 청조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항의했고,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전 미국 대통령 U. Grant의 중재로 양국 간에 미야코(宮古)·야에야마(八重山)에 류큐를 부활시키는 안이 1880년에 일단 타결되었지만, 청조 정부는 러시아와의 분쟁과 류큐사족의 반대에 부딪혀 교섭을 중단하였고, 류큐처분은 점차 기정사실화되었다.

류큐처분이 단행되기 직전부터 류큐와 중국은 일본에게 병합 중지를 요구하였고, 저널리즘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미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의 상호참조도 이뤄지고 있었고, 『신보』(1879년 2월 11일)는 "일본신보의논(日本新報議論)"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군・신・민 모두 류큐를 병합하려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류큐와 중국의 관계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야신문(朝野新聞)』(2월 15일)은, 류큐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귀속이며, "지나 신문지(支那新聞紙)"의 설은 "망탄무계(妄誕無稽)"하다고 주장했다.

류큐처분이 실행되자 『신보』 (4월 22일)는 류큐가 일본·중국 양쪽에 귀속되어 온점을 인정한 후에 류큐를 멸망시킨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지만, 『우편보지신문』 (5월2일, 3일)은 이것을 "지나의 제멋대로론"이라 평했다. 또 『순환일보』 (6월 7일)가 류큐는 예부터 중국의 귀속이라 주장하자 『우편보지신문』 (6월 21일, 23일)은 그렇다면 중국은 어찌하여 류큐를 보호해 오지 않았는가, 일본은 류큐를 실지배하여 보호해 왔다고 반론했다. 『조야신문』 (6월 29일)도 『순환일보』 (일자 불상)에 대해 류큐의 중국에 대한 조공보다도 일본과의 관계가 오래다고 주장했고, 또 대만출병의 결착을 근거로 류큐처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러한 상호참조를 통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양측 다 일본과 중국 쌍방의 논리가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 자체를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보』 (1879년 4월 15일)는 류큐에 관한 일본 신문의 주장은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리"가 있고 "망론" 이기는 하나 "허사(虛辭)"는 아니라 썼다. 한편 『조

³⁴ 이 항목은 주를 달지 않는 한 塩出浩之「1880年前後の日中ジャーナリズム論争」(劉傑・川島真編著『対立と共存の歴史認識』東京大学出版会、2013年) 에 의함.

야신문』(1879년 9월 21일) 또한 양국 쌍방에 "리(理)" 와 "증(証)" 이 있기 때문 에 다툼이 생기며, 어느 한쪽이 입을 다물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더욱이 양국 쌍방이 당초부터 중시했던 것은 전쟁의 회피였다. 『신보』 (1879년 5월 31일)는 류큐를 둘러싸고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리(理)" 를 인 정하면서도 러시아와의 분쟁에 대한 영향을 염려하여 전쟁을 반대했다. 한편 『조 야신문』(6월 22일, 8월 1일, 8월 7일)은 "상하이와 홍콩의 신문지"가 일본 측 에게 개전의 의도가 있다고 논하고 있지만, 그것은 "망단억측(妄斷憶測)" 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은 가령 이기더라도 "동양정략(東洋政略)"과 "동양무역(東洋貿易)" 상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회피와 더불어 모색된 것은 서양열국의 지지확보에 의한 해결이었다. 『신보』(9월 13일, 11월 9일)는 일본이 만국공법의 '공론' 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 주장했고, 중국과 서양열국이 힘을 합세하면 일본과 필적하여 류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논했다. 이러한 논조에 대해 『우편보지신문』 (1880년 1월 17일)은 "홍 콩과 상하이의 지나 신문지"에는 "남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고, 중국에게 개전 의 의사는 없다고 분석했는데, 열국이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는 당연하지만 일 본의 입장에서도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rant전 대통령을 수행한 New York Herald의 기자 J. R. Young은 New York Herald (8월 15일, 16일, 9월 1일) 에 중국, 일본에서의 요인들과의 회담내용에 대해 상세히 전하며 Grant에 의한 중국과 일본 간의 중재를 밝혔다. 이들 기사는 바로 동아시아의 영어신문・중국 어신문 · 일본어신문 각지에 전재되었다³⁵.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에는 독자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순환일보』(1879년 10월 18일)와 『신보』(1880년 3월 18일)가 "아주대국(亜洲大局)"에 주의를 촉구하며, 중국과 일본의 대립으 로 러시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논하자, 『조야신문』 (1879년 11월 5일) 과 『우편보지신문』(1880년 4월 28일)은 이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조야신문』 관계자는 1880년에 흥아회(興亜会)를 조직하였고, 그 모임의 잡지인 『흥아회보 고(興亜会報告)』에 일본・중국・조선이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항하자고 주장한 한문 논설이 게재되자 『순환일보』(1880년 5월 10일, 11일, 12일)는 이에 대해 "식 견탁월"이라 평하며 소개했다. 또한 왕도(王韜) 자신도 흥아회에 입회했다. 이 러한 협조의 움직임은 일본과 중국 저널리즘 간의 상호참조가 심화되는 과정에 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양자는 상호의 득실 차이를 자각하고 있었다. 중국어 신문의 입장에서 중일협조는 러시아와 일본에게 협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득 불 류큐문제에 있어서의 "체면"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류큐처분의 기정사 실화를 노리는 일본 측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었다. 홍콩을 방문한 흥아회 의 일본인에게 왕도(王韜)는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류큐의 "복국(復國)" 을 요

122

³⁵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조하는 *Tokio Times* (10월 11일) 는 일본 정부가 Grant와의 회담에 서 제시한 일본·류큐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청조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Iaban Gazette (11월 29일~1880년 1월 10일) 는 Tokio Times의 주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로 간주한 후에 역사적 경위를 재검토하여 비판했고, 일본 정부에게 공개의 장에서 정정 혹은 취소하도록 요구 했다. Yamaguchi, Eitetsu and Yuko Arakawa eds., The Demise of The Ryukyu Kingdom (Ginowan: Yojushorin, 2002). 山下重一『続琉球・沖縄史研究序説』御茶の水書房、2004年、221頁。

구했지만, 일본인의 반응은 냉담했고, 왕도는 실망감을 표했다(『순환일보』 1880년 5월 14일). 한편 『우편보지신문』(1881년 3월 3일, 4일, 7일)은 일본과 중국에 예로부터 "보거순치의 친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무수한 적국을 발견"하여 그 필요를 느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만출병과 류큐처분으로 중국의 정부와 인민은 일본에게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제는 "홍콩과 상하이의제 신문"이 일본의 "조선을 향한 야심"을 논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머지않아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가며

아편전쟁 이후 홍콩과 상하이에 영국인이 들여온 영어신문은 일본의 개국 이후 요코하마에서도 발행되었고, 기사의 전재와 참조를 통한 보도 · 언론의 네트워크가 동아시아에 형성되었다. 영어신문에 촉발되어 탄생한 중국어신문과 일본어 신문도 번역을 통해 1870년대에는 이 네트워크에 가세했다. 이는 동아시아가 세계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지역으로써 기능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언론유통의 기반을 이룬 것이 동아시아의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이라고 한다면 언론유통의 활성화를 촉진한 것은 대만출병과 류큐처분 등 동아시아에서 빈발한 국제분쟁이었다. 특히 류큐처분 시에는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의 상호참조 도 활발히 이뤄졌다. 그 큰 요인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의 위기에 빠졌고, 쌍방이 그 회피를 지향한 것에 있었다.

이러한 언론의 유통을 통해 영어신문과 중국어신문, 일본어신문 간에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론(異 論)의 가시화' 라고도 일컬어야 할 이 상황을 보고자는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 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발표 논문 🔾



金玉均의 일본 亡命에 대한 日本社 會의 인식과 대응

하 성민 (韓成敏, 대전대학교)

발표 요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화파는 1884 년 12 월 4 일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불과 3 일만에 실패로 끝나고 그들은 일본 에 망명했다. 그들은 근대 일본사회가 받아들인 최초의 정치 망명자였다.

망명 이후의 김옥균의 행동은 항상 조선, 일본, 청나라 정부의 관심사였으며 '김옥균 인도(引渡) 문제'는 중요한 외교적 쟁점이었다. 일본에서의 김옥균에 대한 처우는 일본정부의 내각결정에 의해 행해졌다. 따라서 망명 후의 김옥균 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갑신정변 이후의 한일관계 또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옥균을 비롯한 조선인 망명자들은 본국으로부터의 계속되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갑신정변과의 관련을 부정하고 김옥균 일행을 정 치적으로 지원하기는 커녕, 망명로서도 대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신문 보도 등으로 인해 일본사회의 반(反)조선·반(反)청나라의 감정을 자극하고 개 화파를 '일본당(党)' 으로 칭하는 등, 김옥균 일행은 일본의 민간사회로부터는 깊은 동정과 지원을 받았다. 이후 조선인 망명자는 일본사회에서 큰 관심대상 이 되었다.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했던 시기는 일본이 구미와의 불평등조약의 철폐에 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망명자 김옥균의 존재는 일본의 구미화·문 명화를 재기 위한 척도와 같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근대 일본사회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으로부터의 정치망명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대응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문제 제기]

1. 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망명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의 정치적 지향은 무엇이었는가?

- 2. 1890 년대 일본에서 대외강경론이 크게 확장되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 3.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 3 국 모두에서 3 국 연대론 혹은 3 국의 연대에 기초 한 동양평화론이 등장했다. 3 국의 평등한 연대에 기초한 동양평화 혹은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실현은 불가능 한 꿈인가?

1. 서론

甲申政變(1884)에 실패한 金玉均 등의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은 近代 日本社會가 받아들인 최초의 정치적 망명자였다. 이후 '김옥균 인도 문제'는 朝鮮·日本·淸國 정부의 중요한 외교 쟁점이 되었고, 그의 활동은 항상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김옥균에 대한 처우는 일본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閣議에서 결정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망명 이후 김옥균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갑신정변 이후 한일관계 또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사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망명 이후 김옥균과 관련한 연구는 망명 직후 김옥균의 인도 문제를 둘러싼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의 교섭과 분쟁, 1894년 김옥균 암살사건의 배후 규명 등 주로 國際政治史 또는 外交史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그동안 최초의 근대적 정치 망명자를 수용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고, 상황에 따라 김옥균과 교류하던 인물들과의 에피소 드(episode)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정치 망명자들을 근대 일본사회에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김옥균의 일본 망명

김옥균·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亡命하여 1884년 12월 13일 長崎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망명 사실은 곧바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갑신 정변의 사후 조치로 조선 및 청국과 교섭이 예정되어 있던 일본정부는 개화파의 망명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통제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언론은 15일 처음으로 갑신정변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으나, 상당 기간 김옥균 등의 망명 사실이나, 갑신정변에 대한 일본의 관련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일본사회의 반조선·반청국 감정을 자극하였고, 개화파를 '日本黨'이라 칭하는 등 김옥균 및 개화파에 큰 동정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과 달리 망명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었다. 망명 직후 김옥균 등은 福澤諭吉 등 일본 내 知人들의 도움을받아 생활했으나, 기대했던 일본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1 『}日本外交文書』卷17,351 쪽.

^{2 『}時事新報』1884年 12月 18日:『朝野新聞』1884年 12月 23日, 社說

1885년 5월 朴泳孝·徐載弼·徐光範은 福澤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고, 김옥균 은 일본에 남아 갑신정변 당시 일본정부의 개입을 폭로하는 동시에 갑신정변의 과정을 회고하여「甲申日錄」을 저술하였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갑신정변에 대한 책임문제는 '한성조약'의 체결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김옥균 등 망명자 인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조선과는 '범죄인 인도조약' 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망명자 들은 國事犯이기 때문에 萬國公法의 규정에 의해 인도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4

3. 망명 직후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

조선정부는 김옥균 인도 요구가 일본정부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자, 마지막 수단 으로 자객을 파견하였다. 당시 張溵奎(張甲福), 池運永 등 자객들의 암살시도는 김옥균 등의 책략에 의해 실패했다. 이 직후인 1886년 6월 1일 김옥균은 井上馨 외무대신에게 서한을 보내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일본정부는 국외 퇴거 명령 으로 회답하였다.

예상치 못한 국외 퇴거 명령에 김옥균은 일단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인 橫濱로 숙소를 옮기고, 주일외교단을 통해 자신의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본은 東京에서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列國會議를 개최하 고 있었다. 7 김옥균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던 이 시기를 이용하여 자신 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7일 井上馨은 조 선 주재 高平小五郎 임시 대리공사에게 아래의 훈령을 하달하였다.

김(옥균)은 증거에 따른 모든 힘을 동원하여 재판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일본정부의 보호를 요구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로 결과는 심각해질 것이다. … 정부는 준비되는 대로 김(옥균)을 우리 領土의 밖으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김(옥균)은 여전히 몇몇 外國人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제소 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본에서 池運永의 不在이다. 조선정부에 이 상황을 알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提案으로 조선정 부가 지운영에게 즉시 일본을 떠나라고 電報하도록 충고하라.6

이처럼 일본정부는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열국회의의 중에 '김옥균 암살 미 수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지운영을 조선으로 귀국시키 려 했다. 일본정부의 요청에 의한 조선정부의 귀국 명령을 그가 귀국을 거부하자. 일본정부는 23일 지운영을 조선으로 강제 송환하였다.⁷ 한편 김옥균에게는 11일

126

^{3 『}時事新報』1885年5月28日.

^{4 『}日本外交文書』卷18,122~125 쪽.

⁵ 조약 개정을 위한 열국회의는 1886년 5월부터 1887년 4월까지 총28회까지 개최되었다(日本國際 政治學會 편, 1957 『日本外交史研究』明治時代, 有信堂, 208 쪽).

^{6 『}日本外交文書』卷19,556 쪽.

^{7 『}日本外交文書』卷19,567~569 쪽.

자로 내무대신 山縣有朋로부터 정식 국외퇴거 명령이 내려졌다.8

그러나 일본은 결코 김옥균의 국외 추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무대신 井上馨는 6월 2일 김옥균의 '국외 퇴거'를 명령하면서 그와 동시에 "李鴻章 등의 요청대로 김옥균을 체포하여 청국이나 조선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언명하였다. 9 그렇다고 일본정부는 김옥균을 도쿄에 그대로 존치할 수도 없었다. 그럴 경우 조선의 암살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일본의 불평등조약 개정 문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태도는 栗野가 조선정부의 요구에 회답한 아래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치범의 인도 문제는 國際法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면 인도되지 않는데, 하물며 정치범의 인도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김옥균을 인도할 경우 일본정부는 歐美 各國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¹⁰

불평등조약 철폐를 외교 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던 당시의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열강으로부터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암살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 나 국내 치안과 관련하여 열강에게 구실 잡히는 것을 기피하였다.

국외퇴거 명령은 김옥균의 小笠原島 유배를 위한 구실이었다. 그를 도쿄에 존치시킬 수도, 국외 추방시킬 수도 없었던 일본정부가 이 시기 김옥균에 대한 대응으로 선택한 것은 유배였다. 하지만 명목상 망명자이며,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은 김옥균을 유배 보낼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국외퇴거령에 대한 위반을 구실삼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7월 김옥균에 대한 국외퇴거 방침을 오가사와라도 유배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山縣有朋는 경시총감과 오가사와라도 출장소장에게 김옥균의 처우를 세세히 규정한 훈령을 보냈다. 이에 따라 김옥균의 유배 생활은 월별로 정리되어 내무성 및 외무성에 보고되었다.

오가사와라도에서 김옥균의 생활은 정기선 때마다 취재되어 일본의 신문을 통해 일본 사회에 알려지고 있었는데,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는 주로 禪書를 읽거나, 바둑으로 시간을 보냈다. 12 오가사와라도의 무덥고 습한 기후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 김옥균은 야마가타에게 계속적으로 병고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

그러나 1888년 들어 다시 김옥균과 일본 국내 반정부 세력과의 결탁이 우려되

^{8 『}日本外交文書』卷19,574~575 쪽.

⁹ 요시노부 세가와, 1981「日本近代史에서 본 亡命者問題」,『韓日關係研究所紀要』10·11, 영남대 한 일관계연구소, 169쪽.

¹⁰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마이크로필름 NO. 03059, MT1124「栗野愼一郎復命書」, 00430~00431.

^{11 『}日本外交文書』卷19,582~583 쪽.

¹² 김옥균은 교류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小笠原島의 아이들을 친구삼아 지냈는데, 훗날 上海까지 수행하였던 和田延次郎는 그 소년 중의 한 사람이었다(閔泰瑗, 1947『甲申政變과 金玉均』, 국제문화협회, 82쪽). 그 외에는 유혁노가 3개월에 한번 있는 정기선 때마다 와서 조선과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고, 주문받은 휘호를 받아간 것과 1887년 本因坊 秀榮가 위로차 찾아와서 약 3개월 정도 함께 생활했다는 것 정도이다.

^{13 『}日本外交文書』卷19,584~586 쪽.

고, 암살 기도 움직임이 있자, 신임 외무대신 大隈重信는 김옥균을 도시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같은 해 8월 김옥균을 北海道 의 札幌로 이배하였다.14

4. 일본의 대청정책 변화와 김옥균의 도쿄 귀화

김옥균은 1890년에 도쿄로 돌아왔다. 내무대신 西鄕從道의 제안에 의해 각의 를 거쳐 11월 21일 유배가 해제되었다. 西鄕가 제시한 유배 해제의 이유는 김옥 균과 야당과의 결탁. 조선의 자객 파견 등 그동안의 우려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 고 김옥균의 신병 치료였다. 15 하지만 내지 이주 허가의 실제 이유는 다른 것이라 고 생각된다.

김옥균의 도쿄 이주 요구는 이미 小笠原島 유배 시절부터 계속되었으나, 그때 마다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다만 北海道로 이배되었을 뿐이었다. 또 조선 의 자객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 주재 임시대리공사 近藤眞鋤는 1889년 김옥 균의 1차 도쿄 거주 때부터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다.¹⁶ 그리고 김옥균과 民 黨의 결탁에 관한 우려도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김옥균의 내지 이주 이래 그가 청국으로 가기 전까지의 기간은 일본의 제1의 회에서 제5의회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당시 일본정부와 민당은 '해군력 확장' 과 '民力休養', '조약개정' 등의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 김옥균과 관련한 정 치 및 외교 상의 우려는 여전한 것이었음에도 일본정부는 돌연 내지 이주를 허가 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각 신문들은 김옥균의 내지 이주 허가를 '자유 해방' 이라 고 보도했으나, 김옥균에 대한 일본정부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비밀 문건으로 보 고되었다.17

이것은 일본정부가 김옥균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전의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1890년대에 들어서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청국 또는 조선으로부터 김옥균 암살 시도가 있 으면, 이를 청국과의 분쟁거리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정 부와 대립 중인 민당 세력이 김옥균을 이용하여 정부를 공격하고자 한다면 이를 빌미로 '大井憲太郎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민당 세력을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金玉均 暗殺事件과 일본의 對淸 개전여론의 조성

내지이주와 자유활동이 허가되어 김옥균이 도쿄로 돌아오자, 조선정부의 김옥 균 암살시도는 다시 시작되었다. 金玉均 암살의 기획자인 李逸稙이 일본에 온 것

128

^{15 『}日本外交文書』卷23,335 쪽.

^{16 『}日本外交文書』卷22,428~429 쪽.

¹⁷ 김옥균의 동정은 완전히 내무 당국에게 파악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문서의 외견에는 "秘"라고

은 1892년 4월 9일이었다. 18 그는 權東壽·權在壽·金泰元·川久保常吉 및 上海에서 김옥균 암살의 실행자인 洪鍾字 등을 동조자로 규합하여 망명자들에게 접근하였다. 和田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김옥균은 이일직·홍종우 등이 자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김옥균은 이들을 통해 李鴻章과의 담판을 위한 청국행 여행경비를 마련하려 했다. 이일직 등은 김옥균의 渡淸계획에 맞춰 암살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옥균의 청국행은 그 위험성 때문에 朴泳孝·頭山満를 비롯한 知人들로부터 크게 만류 받았고, 김옥균 자신도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래 동지로 믿고 있었던 福澤를 비롯한 일본의 자유민권자들은 급격히 國權論者로 변화하여 갔고, 대청개전을 상정한 일본정부는 계속적으로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급기야 1890년 제국의회에서 內閣總理 山縣有朋는 '主權線 利益線'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의 이익선 실현을 공언했다. 1894년 당시 일본사회는 대외팽창욕구로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한 김옥균에게 淸國行은 아무리 큰 위험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上海로 출발 전 김옥균이 宮崎滔天과 나눈 대화는 그가 上海행을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 人間萬事 運命이다.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 李鴻章이 나를 꾀어 잡으려고 획책한 것이라 해도 환영한다. 나는 포로가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배에 탄다. 그곳에 가서 바로 죽게 되든 억류되든 상관없다. (단지) 5분이라도 談話의 시간이 있으면 나의 것이다. 어쨌든 문제는 1개월 (안에) 결정난다.¹⁹

1894년 3월 23일 김옥균은 上海로 출발하였다. 이때 김옥균의 동행인은 수행원으로 和田, 통역으로 주일청국공사관원인 吳葆仁 그리고 자객 洪鍾宇의 3인이었다. 김옥균은 27일 오후 上海에 도착했는데,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경 숙소인 東和洋行의 객실 안에서 홍종우의 저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 사건은 上海주재 大越成德 총영사대리로부터 김옥균의 거동을 감시하라는 내명을 받고 있던 동화양행 주인 吉島徳三에 의해 조계지 경찰당국인 工部局 警察部에 신고되었다.

김옥균의 암살사건은 곧 朝鮮·淸·日本의 3국 정부에 알려졌고, 관련국 모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김옥균 암살과 그 처리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은 일본정부였다. 일본정부는 암살사건 한달 남짓 전부터 香港 주재일본영사 中川恒太郎의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암살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보고는 2월 10일 외무성에 접수되었다. 사안의 특성상 그리고 김옥균에 관한 조치들이 이전에 閣議에서 결정되던 관례로 볼 때 일본의 내각에 김옥균 암살음모가 보고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옥균의 사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울 수 없다.

¹⁸ 古筠金玉均正傳編纂委員會, 1984『古筠金玉均正傳』, 앞의 책, 473쪽.

¹⁹ 河村一夫, 1987「李鴻章と金玉均との關係」『日本外交史の諸問題』, 南窓社, 14 쪽 재인용.

^{20 『}時事新報』明治 27年 3月 27日.

^{21 『}日本外交文書』卷27-1,487 쪽.

이러한 일본정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김옥균이 암살되기 하루 전인 3월 27 일 陸奧는 전임 외무대신 靑木 駐英公使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에서 陸奧는 "국민이 깜짝 놀랄 사건을 하지 않으면 人心을 진정시킬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전 쟁을 일으킬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條約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정부 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22

국회개설 이래 정부와 의회간의 대립은 1894년에 절정에 달하였다. 하지만 의 회의 地租輕減 및 군사비 삭감 투쟁은 明治天皇의 「建艦詔勅 | 한마디에 어이없 이 붕괴하고 말았다. 이후 의회가 정부의 대외정책을 연약하다고 비난하고 국권 확장을 주장한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부와 대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회 가 충분히 발언을 하지 못하고. 정회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해산시키는 정부의 압제는 반정부적 기운을 의회로부터 국민에게로까지 확대시키게 되었다. 1894년 3월의 총선거에서도 여전히 민당 우세였다. 일본정 부의 지도자들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전쟁에 서 구하게 되었다.23

甲申政變 이래 대청개전을 목표로 일본은 軍備를 증강시켜 왔고 어느 정도 전 쟁준비는 갖추어져 있었다. '이유 없는 전쟁' 으로서 內外로부터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전의 구실만 찾아내면 되었다. 위의 陸奧 외무대신의 書翰은 정부 당 국자가 내심으로 품은 생각을 표명한 것이었는데.⁴ 다음날 上海에서 '김옥균 암 살소식'이 타전되었다.²⁵

암살소식이 전해진 28일 일본정부는 즉시 조선 주재 大鳥 공사를 통해 '김옥균 암살'을 조선정부 및 袁世凱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정부는 袁世凱와 협의하여 김 옥균의 死體 인도를 협의하였다. 29일의 검시 후 사체는 和田에게 인도되었고. 홍종우는 會審衙門에 기소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上海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和 田에 의한 사체의 일본수송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사관의 방침은 본국의 후령에 의해 곧 변경되었다. 같은 날 陸奧 외무대신은 "그 어떠한 日本人 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영사는 절대 과도하게 보호하지 말 것"의 훈령을 大越에 게 하달하였다.26 다음날인 31일에는 "김옥균의 死體가 일본에 반입되지 못하도 록 최선을 다하라"는 訓令을 하달하였다.27 따라서 김옥균 사체를 일본으로 이송 하려던 和田의 노력은 일본영사관의 방해로 저지되었다.

김옥균의 사체와 홍종우는 청국 군함 威靖號에 탑재되어 조선으로 이송되어, 4 월 14일 조선정부에 인도되었다. 이날 밤 楊花津에서 김옥균의 사체는 陵遲處斬 되었고, 그의 목에는 "謀叛大逆不道罪人인 (金)玉均을 오늘 楊花津에서 때를 기 다리지 않고 능지처참한다"라는 木牌가 내걸렸다.28

김옥균 암살 이후 삼국의 대응과정을 보면, 조선과 청국은 처음부터 협력관계

²² 信夫淸三郎, 1974『日本外交史』1, 每日新聞社, 166 쪽.

²³ 信夫淸三郎, 앞의 책, 150~166쪽.

²⁴ 藤原彰 저・嚴秀鉉 역, 앞의 책, 101쪽.

^{25 『}日本外交文書』卷27-1,484 쪽.

^{26 『}日本外交文書』卷27-1,486 쪽.

^{27 『}日本外交文書』卷27-1,495 ...

^{28 『}日本外交文書』卷27-1,507~509 \(\frac{5}{20}\) 3.506 \(\frac{1}{20}\).

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일본정부는 이미 김옥균에 대한 암살음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과 암살의 전과정에서 조선과 청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은 항상 일본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암살의 정국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용한 것도 일본정부였다.

김옥균 암살의 소식은 3월 30일부터 신문을 통해 일본사회에 일제히 보도되었다. 29 이후 일본의 신문들은 수개월간 대대적인 보도를 계속했는데, 이 암살사건이 일본국민에게 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김옥균 암살에 대한 哀悼의 논조가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여 4월 5일부터는 "金玉均 追悼義捐金" 모집을 위해 15개 신문사가 합동으로 紙上캠페인을 시작하였다. 30일까지 전개된 이 캠페인은 일본사회에서 그때까지 유래가 없는 것으로 김옥균의 추도를 전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캠페인의 와중에 조선으로부터 김옥균 사체의 陵遲處斬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정부의 野蠻性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연일 계속되었다. 31 그러면서 신문들의 논조는 애도에서 점차 조선과 청국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규탄으로 발전하였다. 32 한편 사건 직후 頭山満 등 김옥균의 故友를 자처하는 재야 대외강경파들은 '金氏友人會'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추모사업을 전개하였다. 여론은 점차 文明의 힘으로 野蠻을 응징해야 한다는 즉 對淸開戰의 요구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치는 외견상 철저한 방기였다. 당시 반조선·반청 여론 조성에 대표적인 신문은 福澤의「時事新報」와「東京日日新聞」이었다.「時事新報」는 이미 1885년 후쿠자와의「脫亞論」을 계기로 대외침략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東京日日新聞」은 明治政府의 기관지였다. 30 이것은 일본정부가 언론을 통해 김옥균 암살사건을 대청개전여론의 조성에 이용했음을 말해준다.

5월 15일에는 衆議院에서 김옥균 암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비판과 대청개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이 행해졌다. 31일에는 정부의 軟弱外交를 비판하며 「內閣彈劾上奏案」이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김씨우인회의 주도로 貴族院·衆議院 의원들 및 전국 82개 신문사 대표들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한가운데 '김옥균의 장례식' 이 성대히 치루어졌다.³⁴ 또한 일본의 문화계에서는 김옥균의 암살을 주제로 한 演劇이 대흥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역시 김옥균 암살에 대한 조선 및 청국에 대한 규탄과 이에 대한 응징을 담고 있었다.³⁵

김옥균의 장례식이 치러진 다음날 的野半介는 玄洋社의 대표로 川上操六 참모 차장을 찾아가 청국과의 개전을 주장하였다. 川上은 '伊藤 首相이 非戰論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전쟁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나, 곧 말을 바꾸어 '누군가 한 사람 불을 지르는 자가 없는가. 불꽃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불을 끄는 것은 우

^{29 『}時事新報』・『東京日日新聞』・『國民新聞』明治 27年 3月 30日.

^{30 『}時事新報』明治 27年 4月 5日.

^{31 『}東京日日新聞』明治 27年 4月 18日;『時事新報』明治 27年 4月 18·24日;『國民新聞』明治 27年 4月 29日.

^{32 『}東京日日新聞』明治 27年 4月 17日·20日」;『時事新報』明治 27年 4月 24日.

³³ 松下芳男, 1960『日本軍制と政治』, むろしお出版, 211~218 쪽.

^{34 『}時事新報』明治 27年 5月 22日.

³⁵ 琴秉洞, 앞의 책, 867~868쪽.

리들의 任務'라고 대답했다. 36 이처럼 일본정부는 대청개전여론의 조성에서 공식 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개전여론을 따라가는 자세를 취했는데, 이것은 清日戰爭에서 열강의 간섭을 염려한 일본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37 이즈음 일 본의 여론은 대청개전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실제 여론에서 강경론과 개전요구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일본에서 일반적인 대청강경여론이 구체적인 대청개전요 구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김옥균 암살사건이었다.

일본 국내의 통일된 강경여론를 바탕으로 일본은 신속히 전쟁준비에 착수하였 다. 참모본부는 이미 5월 하순부터 조선파병을 위한 수송준비에 착수했고, 6월 5 일 戰時大本營을 설치, 다음날인 6일 淸兵의 派兵소식을 접하자, 즉각 조선에 파 병하였다. 7월 16일에는 새로운 「日英通商航海條約」이 조인됨으로써 일본정부 가 가장 우려하던 청일개전에 대한 열강의 간섭도 배제되었다.³⁸ 이렇게 개전에 대한 國內外의 이해를 획득한 일본은 23일 한국의 景福宮 점령을 시작으로 淸日 戰爭에 돌입하였다.

6. 맺음말

망명 이래 김옥균의 처우는 일본정부의 대조선 및 대청국정책에 따라 변화되 었다. 일본정부는 망명 직후 갑신정변의 책임회피를 위해 이들의 망명사실 자체 를 부인하였다. 이후 '조러밀약', 巨文島事件으로 朝鮮이 列强의 각축장으로 대 두되자, 갑신정변 후 조선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청견제력을 상실한 일본은 김옥균의 인도문제를 對淸共助를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암 살시도가 이어지고, 일본 내 반정부세력과 김옥균과의 연계가 우려되었다. 이것 은 당시 일본의 최대문제였던 不平等條約 개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지옥균을 국외추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내에 그대로 둘 수도 없었던 일본정 부는 김옥균을 小笠原島·北海道로 유배하였다.

1890년 이후 일본정부의 대외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김옥균의 자유이주가 허가 되었으나, 감시는 계속되었다. 이것은 김옥균의 身邊上의 변화는 조선·청국·일본 3국의 외교분쟁이 될 수 있음으로 이를 피하려 했던 일본이 이 시점에서는 적극 적인 김옥균 활용정책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옥균의 암살사건은 청일전쟁을 위한 일본 국내의 여론통일과 대외적인 명분획 득에 이용되었다.

132

³⁶ 玄洋社社史編纂會, 1917『玄洋社社史』, 435~437쪽; 黑龍會編, 『東亞先覺志士記傳』上, 原書房, 143~144쪽.

³⁷ 陸奧宗光 지음·김승일 옮김, 1993 『건건록』, 범우사, 36쪽.

^{38 『}日本外交文書』卷27-1,113 쪽.

발표 논문 9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 프레임에 관한 재고

진 팡(秦方,수도사범대학)

[번역 : 김 단실]

발표 요지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이동) 경험은 1840 년대 이후 중국사회에서 일어 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교통 도구의 출현이 그 중 하나이 다. 동시에 여성의 모빌리티는 그 사상이 폐쇄에서 해방으로 이행하는 것을 반 영하고 있다. 예로부터 장려되어 왔던 '深居閨閣' (안방에 있다)라고 하는 여성 의 삶과 그것을 지탱하는 도덕관은 역으로 여성의 불개화(不開化)의 근원이라 고 하여 비판되기 시작했다. 이를 대신해 폐쇄상태로부터 해방하는 새로운 여 성상이 칭송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모발리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 어서 낙관시되고 미화되어 여성해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발리티 에 대한 칭송은 역사기술 면에 있어서는, 당시 사람들과 학자가 진보와 해방과 같은 현대성을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해 방'은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자체는 자명 한 개념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식민주의에 의해 지탱되었던 언론패권의 역사 적 틀이 있었다. '해방' 과 '억압' 의 내용은 그러한 언론패권에 의해 결정된 것 이었다. 만약 그것을 충분히 비판하지 않고 그 현대성과 정당성을 그대로 받아 들여 그것을 중국사회와 여성의 개혁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사상과 사회와 의 사이에 엇갈림이 생겨 여성이 희생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 문에 여성'해방'이라는 과제의 역사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해 방' 된 후 여성은 보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어떻게 그것들에 대처할 것인 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여성이 정치적·도덕적·경제적 부 담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 과 '억압'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 제기]

1.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이 공공공간(公共空間)에 진출할 때 어떤 찬스와 도전을 만나게 되는가.

- 2. 중국에서 '해방' 이라는 말은 여성의 전족 습관에 관한 논술에서 처음 보여지는데,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가.
- 3. 혹시 '남자' '여자' 라는 카테고리(성별로서의 '남·여' 뿐만 아니라, 비유로서의 '남·여'도 포함)로부터 탈출하려면, 여성의 경험을 사고하기 위해서 이와다른 어떤 구조 혹은 틀을 생각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20세기 초반 중국 여성들의 모빌리티 (mobility이동) 경험을 조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성 "해방" 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른바 모빌리티는 이 시기 일부 양반(중국에서는 "사신(土紳)" 이라 칭함) 계층 출신 여성들이 여학(女学),자선(慈善) 혹은 정치운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그녀들의 신체 이미지 또는 담론이 다양한 공공(公共)공간에 두루 나타나 회자된 현상을 지칭한다.이러한 모빌리티 경험은 물질적으로 19세기 후반 신식 교통수단 및 근대 대중매체의 발흥과 맞물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유폐" 로부터 "풀어주기"로 전환된 담론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상상속에서 여성의 모빌리티 경험을 낙관시하고 미화했고 모빌리티는 여성 해방의 상징이 되었다.그러나 모빌리티에 대한 이러한 숭앙은 역사나 역사서술면에 있어서, 당시 보통사람들과 지식인들이 사실상 근대성이 지닌 진보적 해방적 특징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해방'은 결코 자명한 개념이 아니다.이 담론에는 실은 식민주의 언론패권의 역사적 프레임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빌리티에 부착된 여성 "해방" 사상에 대해 고도의 경계심을 품어야 할 것이다.

1. "유폐(幽闭)"에서 "유이(游移)"하는 신체, 이미지와 담론으로의 전환

1905년 추근(秋瑾1875-1907) 은 젊은 여성들의 일본유학을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은 낭만 넘치는 글을 남긴바 있다. "우리 나라 자매들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허락된 기간 또한 짧아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모두 가벼운 차림으로 닫힌 규방을 나와 즐겁게 기선 타고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예비수업을 하였다." 1 사실상 20세기초반 추근이 그러했듯 집밖 세상에 대한 낙관적 상상에 설레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양반 계층 출신 여성들은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하여 또는 국가 민족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자주 집을 나섰고 도시, 성(省),심지어 국경까지 넘나들면서 공적 사적 공간을 이동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당시 공공공간에서 가장 활약했던 여교사와 여학생이 그 예라할수 있다.여학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깊숙학 규방에 기거하던 여성들이 가정을나와 교편을 잡거나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 가까운 곳으로는 매일 집을 나서 도보로 학교에 갔고 때로는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서 출발해 도시의 기타 공공공간

¹ 秋瑾:《<實践女学校附属清国女子師範工藝速成科略章>启事》,郭長海編:《秋瑾全集笺注》,長春: 吉林出版社, 2003 년, 제 368 쪽.

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 멀리로는 증기선이나 기차 등 근대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해 낯선 학교로 갔고 심지어 외국에 건너가서 여교사 또는 여학생의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이러한 모빌리티는 신체 이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였다. 여성의 언론 문자 심지어 사진 이미지가 세간에서 전파 유통됨도 이에 포함된다.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청나라 말기 여학의 사진을 예로 들면 19세기말 20세기초엽 촬영술이 도시에 널리 퍼져 인기를 모으면서 여성 교사와 여학생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진을 서로 선물하거나 출판을 통해 그들의 이미지를 퍼뜨렸다. 사진 촬영과 유통은 신체의 이동처럼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유전 범위와 영향이 신체의 이동 못지 않았다. 사진은 비록 문자처럼 자체 해석시스템은 없어도 촬영한 이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극명하게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준다. 인물이 취한 포즈, 의상, 액세서리와 배경 등이 피사체의 신분을 나타낼 뿐더러 그 사진이 세간에 전해지는 경로 역시 자기설명의 유효한 수단이다. 이 점에서 신체의이동이든 이미지의 전파이든 모두 "중요한 능동성의 장"을 형성한다. 2 그 속에서 여성들은 본인의 신체, 행위, 이미지와 사회관계에 대한 성찰과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성별 규범과 도덕의 경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보다 큰 차원에서 모빌리티가 중요한 까닭은 청조 말기 여성들의 외부 체험이 이로 인해 풍부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를 통 해 "유폐(幽闭)" 에서 "풀어주기(释放)" 으로 바뀐 시대적 담론의 변화를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중국사회에서 특히 송(宋)이후 유가사상이 세속화됨에 따 라 중국 여성들은 대가 아늑함 단아함 정숙함과 조용함(幽, 娴, 贞, 静)을 도덕행 위규범 삼아 왔었다. 물론 내외분별을 지킨다고 해서 실생활속에서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건 아니다. 실은 정반대였다. 명청(明清)역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명청 시기만큼은 양반(士紳)계층 여성들이 언제든지 외출하여 친지를 만 나고 교외에 소풍 가고 절당에도 다녔고 때로는 가정교사를 맡아 다른 집에서 식 숙하거나 가족들과 먼 여행길을 떠나기도 하고 가사를 도맡기도 했다³. 단지 그녀 들은 외출시 외계와의 접촉을 가급적 삼가하는 처신으로 개인도덕과 사회지위를 드러내고 실천했었다. 이러한 자아행위규범과 공공공간에 대한 경계심은 근대까 지 이어졌다. 예컨대 증국번(曾国藩)의 딸 증지펀 (曾紀芬1852-1942) 은 본인이 작성한 연보에서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자매들이 하는 대로 총 독아문밖을 한발작도 나간 일이 없었다." 4 증씨가 청년시절에 내외유별이라는 규 범을 실천했을 뿐만아니라 80대 고령에 연보를 수정하면서 본인이 그 시절 규범을 충실히 지켰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은 퍽이나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아늑함(幽)" 을 숭상하는 담론과 실천은 19세기후반부터 비판

²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3, p. x.

³ Timothy Brook, *The Confusions of Pleasure: Commerce and Culture in Ming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 182-185;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115-142, 219-224;

^{4 《}崇德老人自訂年譜》,李又寧編:《己대中華여성自叙詩文選》,제1집,台北:聯経事業出版公司,1980년,제15쪽.

과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 건너온 서양인(주로 선교사)과 중국의 엘리트 계층이 여성해방자를 자처하면서 이에 상응한 규방에 갇히고 노리개로 전락한 중국 여성상을 만들어냈고 여성이 그윽한 집안에 있으면서 행동거지가 단정함을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선택한 "아늑함(幽)" 이라는 덕목이 점차적으로 수동적이며 무력함의 뉴앙스를 내포한 "갇힘(困)" 이란 악습(恶俗) 으로 지목되었다. 예컨대 林楽知(Young J.Allen)의 "유폐"론은 전형적 담론이다. 그는 중국 여성을 둘러싼 3대 악습의 두번째로 "유폐" 를 열거했다. "중국의 지체 높은 여자는 문밖의 악습에 물들까 우려하여 평생 규방을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을 풀어주지 아니함은 교화가 아름답지 못함을 보여주고 영원히 여성을 가두는 것 또한 교화가 마침내 진전되지 아니함을 말해주도다." 5 따라서 林楽知 는 "풀어주기(释放)" 라는 워딩을 권장하면서 "유폐(幽闭)" 를 타파하는 처방으 로 삼았다. "이른바 풀어주기란 무엇인가? 世人을 풀어줌이 첫째로 요긴한 과제 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을 풀어주는 것이 동방 여러나라들을 구워하는 좋은 방 법이리라. 중국은 특이 심각하니 증상에 따른 약을 투여하는 바 이 처방 아니면 효과를 보지 못할터이다" 6. 선교사와 중국 엘리트층이 재서술하고 해석 및 선양 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 여성들이 과거에 절대적 가치를 두었던 "깊숙한 규방" 라이프 스타일과 이와 맞물린 도덕의의가 이 시기에 처절한 전환을 맞이했고 중 국 여성들의 원죄로 되어 변혁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규방에 갇친 여성상과 선명히 대조되는 것이 같은 시기에 형성되어 칭송의 대상이 된 과감히 곤궁을 박차고 나오는 외향적이 고 발랄한 신女性像이였다. 중국 여성 나아가서 광범위한 동방 여성들에게 "결연 히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주체가 되라고 "널리 벗을 사귀라. 속박을 벗어나 번개처럼 성난 파도처럼 나오라. 그대들의 진보의 속도는 무섭다 "라는 식의 기대가 쏠렸다. 오로지 막아선 벽을 깨야 여성들은 자유로운 신세계 로 진입할 수 있다. 여성 기질에 관한 담론의 이같은 변화는 청 말기 중국 여성들 의 신체, 언어, 이미지 심지어 주장까지 현실과 상상공간을 넘나들게 만든 모빌리 티에 합리성과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2. 모빌리티와 현대성의 모순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목해야 할 바는 청조 말기의 모빌리티 담론이 보여준 근대성의 진보적 개방적 문명적 특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낙관적 상상과 미화 와 별개로 이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길은 지극히 곡절적이었다는 점 이다.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 女学을 위해, 독립을 위해 도시공간과 매체 공간을 오갈때 모빌리티가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꾼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內外분별과 양천지별(良賤之别)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

⁵ 林楽知撰,任保羅述:《論증국變法之本務》,《万国公報》,1903년제169기,제7-8쪽.

⁶ 林楽知撰,任保羅述:《論중국變法之本務》,《万国公報》,1903년제169기,제7쪽.

^{7 《}동방女界의 新현상》、《만국공보》、1906년제215기、제63-64쪽、

렸고 이로 인해 양반 출신 여성들의 문명적 여성상이 외려 도전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본디 모빌리티를 숭앙했던 사회분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여성들로 하여금 전통적 성별 규범을 견지 강화하게 만듬으로써 결국은 "자유롭지만 도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혼합적인 여성 기질이 형성되었다.⁸

앞서 신나게 기선 타고 일본 가자고 여성들을 고무했던 秋瑾이지만 자매들한 테 숨긴 사실이 있었는데 그녀는 여행중 내내 왜도(倭刀)를 한자루 지녀야 할 필요가 있었다. 秋瑾의 벗 우지잉(呉芝瑛)이 회상하기를 "여사는 일본에서 귀국길에 상하이를 거치며 힘든 유학상황을 말씀할 때 신규 입수한 왜도(倭刀)를 보여주면서 "힘 약한 여자의 홀몸으로 만리 구도의 길 떠나 3등실 기선 타고 수차례 왕복하면서 쿨리 등 잡부들속에 섞여 먼 길 무더위에 쓰러진 일도 여러번이었다. 자위수단은 일시도 내 몸을 떠난적 없는 이 칼뿐이였다" 9라고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기생과 신여성은 모두 사진 촬영을 많이 했는데 전자는 촬영패션의 선도자이기도 했다. 신여성들은 양천(良賤)구분을 강조하기 위해 촬영시 흔히 포즈, 의상, 배경 등 디테일로 이들과 차별화함으로서 자신의 문명 및 현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 게다가 대부분 신여성의 사진은 근대적 계몽과 계발을취지로 발간되는 진보적 정기간행물 (특히 여성잡지)에 게재되었다. 10이 부류간행물의 창간인들은 여성교육, 젠더평등, 국가와 민족 위기 등 시대적 어젠더에관심이 많았다. 신여성들의 사진이 세속적 오락 취향의 태브로이드 신문에 실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 말하자면 신여성과 유명한 기생은 모두 대중의 응시에 노출되었으나 각기 다른 잡지에 실리거나 사진의 유전 경로가 다른 것이 양천良賤을가르는 분계선이 되었기에 신여성들은 대중의 응시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문명성과 진보성을 보전할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것은 이같은 모빌리티에 대한 숭앙이 실은 농후한 권력적 담론의 침투하에 형성된 일종 상상이고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근대성이 지닌 진보, 개방과 발전이란 특질을 바라보는 낙관적 상상과 지나친 미화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이 경향은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설령 가장 비판적인 페미니즘 학자들조차 아직도 이에 대한 경각성을 환기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Elizabeth A.Pritchard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서양의 젠더역사연구에서 여성사분야 학자들이 무의식간에 모빌리티와 서구의 포스트계몽시대의 발전및 진보에 관한 담론을 연결 시켰고 그 결과 이른바 해방성을 설명하는 프레임이때로는 여성의 권익을 해치는 함정이 되었다.11

다시 추근의 사례를 보자. 이들 신여성은 대중을 상대로 홍보할때 아름다운 면을 강조하지만 사적 교류와 현실생활속에서는 신흥 교통수단과 모빌리티 경험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이 경계심은 여성해방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담론이 집을 나가도록 여성들을 부추겼지만 이 시기는 근대적 담론 자체 (예를 들면 내셔널리

⁸ 純夫:《女子교육》(其一),《중국女報》, 1907년제2기, 張玉法,李永寧編:《근대중국女權운동史料》, 台北:龍文出版社, 1995년, 제642쪽.

⁹ 呉芝瑛:《記秋女侠遺事》,中華書局上海編集所編:《秋瑾集》,上海:中華書局,1960년, 제190쪽.

¹⁰ 煉石:《発刊詞》,《중국新女界雑誌》, 1907년제1기, 제3쪽.

¹¹ Elizabeth A. Pritchard, "The Way Out West: Development and the Rhetoric of Mobility in Postmodern Feminist Theory," *Hypatia* 15:3 (Summer 2000): 57.

즘, 페미니즘 등) 가 지속적으로 개념의 경계와 의의를 형성해가는 중이였고 논 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여성들이 준수하고 실천할 온전한 규범을 제공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 행위규범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규범은 일상생 활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만 비로소 체화되어 자연스레 한 인간의 심리적 정 체성과 행위준칙이 되기 때문이다 12. 추근이 좋은 사례이다. 그녀가 규방을 나와 기선에 앉아 중일간을 넘나들때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와 해방에로의 동경은 그 녀가 기타 사회계층 남성들과 같은 선실을 사용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답을 결코 알려주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그녀가 택한 것은 아주 전통적 인 자위수단이였다.

3. "여성해방" 이라는 분석틀과 사유패턴에 대한 성찰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모빌리티 경험에 환호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버턴을 누르고 여성 "해방" 이라는 관행적 사유패턴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 성찰해 볼 필 요가 있다. 이 성찰에는 두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성 "해방" 은 실제 역사경험이자 실존인 동시에 학술적 차원 및 사회운동 차원의 이론분석 프레임 이며 사고패턴이기도 한 것이다.

근대이래 수많은 사회 사조와 관념들이 구미와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건너 왔 다. 국가, 민주, 과학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관념과 단어들이 중국에 전파되어 수용되는 과정과 비교하면 우리는 여성 "해방"에 내재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 패권에 대해 경각심이 가장 미약하다. 그 결과 여성 "해방" 은 근대중국 여성사 에 있어서 가장 관건적 키워드임과 동시에 많은 학자들이 생각없이 사용하는 자 명한 단어로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나는 다음 두 방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동원되는 과정에서의 여성들의 도구성이다. 근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민족주의자, 페미니스트거나 정당조직 또는 국가정권을 막논하고 흔히 여성 동원 을 중요한 어젠더로 삼았고 여성을 국가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으 로 간주하였기에 여성해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 결과로 20세기 심지어 21 세기에도 여성 해방을 지지하든 반대하든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우리들이 여성 문제를 사고하는 기준선이 되고 일종 일상과 상투적인 사상으로 자리잡았다. 둘 째, 여성해방의 결과로 보면 신체의 개변, 교육의 획득, 직업적 발전, 경제적 독 립, 자주의식 형성 등을 포함해 근대여성들의 생활경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 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느 순간부터 "해방"을 통하여 여성들은 자주성과 주체성 을 지닌 집단으로 탈바꿈했으니 이는 얼마나 고무적인 성과인가!

그러나 Joan W. Scot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성들이 주체성을 획득하 면 곧 해방의 일종 승라라고 착각하지만 주체성이라는 어젠더가 어쩌면 가짜명

¹² Tani E. Barlow, "Theorizing Woman: Funü, Guojia, Jiating," in Body, Subject and Power in China, eds., Angela Zito and Tani E. Barlo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261.

제 일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한번도 성찰한 적 없다. ¹³ 왜 우리는 주체성을 근대여성해방 승리의 하나의 징표라고 보는가? 이 물음은 전통적 여성은 주체성이 결여된 집단이라고 보는 우리의 잠재적 인식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 이와 같은 결핍-획득, 전통-현대라는 이원대립적 프레임은 우리가 기타 연구영역에서는 늘 반성하는 바가 아닌가? 무엇 때문에 유독 여성 "해방" 혹은 여성사에서만은이처럼 "해방"을 낙관하고 미화하면서 승리를 경축하는 것일까? 그러기에 우리는 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여성사를 기술하고 해석할 때 사용되는 기본 프레임과 개념에 대해 역사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며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역시나 너무 안이하게 근대성이란 안전지대 (comfort zone) 안에서 이러한 프레임과 개념을 당연시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필자는 예를 들어, 역사성을 부여받아 마땅한 일부 어젠더와 사유가 어떤식으로 21세기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들에 의해 지극히 자연스레 수용되어 역사와 현실속 여성문제에 대한 상상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부류의 경력들은 흔히 "해방"으로 간주된다. 예: 전족 해제, 학교 교육을 받은 것, 집을 나온 것, 모빌리티, 이익 창출, 혼인자유 등; 반대로 다른 어떤 경력은 해방의 대립면인 "억압" 으로 간주된다. 예:전족, 문맹, 집에만 갇힌 것,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 부모가 배우자를 정하는 포판 혼인(包辦婚姻)등. 그 런데 우리는 전자가 어떤 이유로 선택받아 "해방" 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되었 는지 후자는 어떻게 이와 상반된 "억압" 프레임에 놓이게 되었는지 고민해본적이 별로 없다. 이는 청조 말기부터 여성기질을 정의하는 체계 (defining system) 에 발생한 변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오랫동안 양반(士紳)계층의 여성들은 스스로 를 유가儒家성별규범의 규정자, 실천자이자 수호자로 자처해 왔다. 그러나 청조 말기에 이르러 그들 스스로 결정했던 신분 징표들이 하나씩 부정당하는것을 목 도했다. 전족은 야만의 심볼이고 가정내 생활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나눠 챙기는 병폐이고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삶은 가족만 알고 국가를 무시한다고 비 판 받았고 뛰어난 재원의 역할은 국가 민족이 봉착한 위기와 친화적이 아니기에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렇듯 그들의 엘리트 위상은 직접적 도전에 직면한다. 이 국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엘리트 리소스와 계층적 우위를 살려 전족해제, 학 교교육, 공공도덕, 국가민족 등 새로운 근대의 특징에 맞는 "존비尊卑가치 위계 질서" ¹⁴를 재정립함으로써 종전대로 새로운 신분사회의 최상단에 지위를 확보하 고자 했다. 여성 엘리트들이 이처럼 스스로 권리부여하고 본인들이 마땅히 여성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자처하는 마음가짐은 양반(士紳)계층 출신자의 뿌리깊 은 엘리트의식과 그 리소스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사회의 계층구조 위 에 이같은 근대 표지를 준칙으로 한 새로운 정치권력이 들어서게 된다. 이들 여성 엘리트들은 신흥 여성문화. 성별 메커니즘과 사회위계 시스템에서 우위를 확보하 고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다.

둘째, 여성 지위론, 말하자만 "여성의 수준은 한 국가의 문명정도의 상징이다"

¹³ Joan W. Scott, "The Evidence of Experience," Critical Inquiry, 17:4 (Summer, 1991): 773-797.

¹⁴ 劉人鵬 : 《근대중국女權論述 : 国族, 翻譯과 性別정치》, 台北 : 学生書局, 2000년, 제 166-167쪽.

라는 논리인데 오늘날도 이 관념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이미 의심할 나위 없 는 진리로 굳어진 듯 하다. 그런데 사실상 이 관점은 19세기말 서양 식민주의 이 데올로기의 확장과 동시에 중국에 전래한 것이다. 林楽知 등 선교사가 《만국공 보》에 발표한 문장에서 "한 나라의 교화를 논하려면 마땅히 여인들의 지위를 살 펴 그 나라의 교화 등급을 정할지다. 서방의 문명교화된 나라는 여인을 평등하게 대하지만 동방 반교화 국가에서는 여인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교화가 아 니된 자들은 여인을 노복이나 짐승과 다름없이 대한다. 중화는 동방 교화지대국 인지라 여인을 대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 나라의 교화 등급을 바로 알수 있을지어 다." 15 그들은 지위와 성별, 국가민족을 연관 지어 국가를 단위로 한 하나의 등급 관념을 구성해 냈다. 이 관념은 세계적 식민질서와 고도로 일치했다. 예컨대 여 성의 지위가 낮은 국가를 논할때마다 林楽知 등은 흔히 인도, 조선, 중국과 같은 식민 확장에 있어서 열세에 처한 나라들을 거론했다. 그 후 페미니스트나 내셔널 리스트들은 아무런 의문도 없이 여성의 지위로 일개 국가와 민족을 평하는 기준 을 받아들였고 그 배후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셋째, 남녀젠더평등. 근대 중국역사에서 여성들은 절대 평등과 상대적평등 사 이에서 흔들렸음을 볼수 있는데, 이로하여 수많은 역사문제가 야기되었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이 양극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집 밖에 나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가족을 부 양하는 한편 여성으로서 가사 노동, 출산과 자녀 양육 등 가정내의 책임을 짊어 지도록 요구당한다. 전자와 후자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훌륭하게 해내거나 못 해 내면 가차없이 비판과 부정을 당하게 된다. 오늘날 여성의 이상상은 가정 안팍에 서 모두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 슈퍼우먼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 으면서도 가족 특이 아이를 완벽하게 돌보는 여자여야만 한다.

젠더 평등문제는 근대이래의 여성해방 프레임속에 나타난 일종 성별 본질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중국 유가의 위계질서 체계에 있어서 남 녀, 건곤(乾坤), 음양(阴阳) 등은 모두 관계적 존재로서 상호보완하면서 상생하고 남녀는 동일한 "인간" 이란 평등한 지위라고 하지만 역시 "有别" 하여 상하구분 이 있는 것이다. 16 근대에 와서 유가 윤리규범중의 관계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 작하고 도전에 직면하였고 마침내 뒤엎어져 점차적으로 John Fitzgerald가 제기 한 이른바 "부류별 정체성" (categorical identity)이 형성된다. "여성" 이라는 부 류를 예로 들면 이 부류중에서 모든 여성들은 공통의 성별특질을 향유하여 마땅 하다. 설령 추근과 같은 스스로 남편과 자녀곁을 떠나 일본에 유학한 여성도 "여 계(女界)의 롤모델"이라고 불렀다. 이같이 여성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 젠더 평 등을 일종의 사회이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출현 및 국민을 하나의 새 로운 도덕질서 유형으로 간주하는 사상과 맥이 닿아 있고 근대국가평등과 종족 평등을 이상적 질서로 간주함도 마찬가지 맥락 이다. 17 예컨대 청왕조 말기에 많

140

¹⁵ 林楽知撰, 任保羅述:《論중국變法之本務》,《万国公報》, 1903년제169기, 제7쪽.

¹⁶ 리우렌평 (劉人鵬) : 《근대중국女権논술》, 제1-72쪽.

¹⁷ John Fitzgerald, "Equality, Modernity, and Gender in Chinese Nationalism," inDoris Croissant, Catherine Vance Yeh, and Joshua S. Mostow eds., Performing 'Nation:' Gender Politics in Literature, Theater, and the Visual Arts of China and Japan, 1880-1940, Leiden; Boston: Brill, 2008, p. 24.

은 신여성이 "여계(界)" 를 자칭하면서 "남계"에 상부상조를 호소했다. 또한 "여계"와 "상계" "군계", "학계"와 같이 병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남성계는 유독 여계와 대응관계를 형성할 따름이고 기타 각계와 나란히 열거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상계, 군계, 공계, 학계 등은 당연히 남성들로 구성된 "계"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4. 나가는 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근대성 기준에 따라 해방된 이 후에도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신세계의 쾌락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정반대로 오늘도 여전히 거듭 그리고 빈번히 예전과 다르지않은 고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과거에 우리는 이와같은 가정내 및 가정외로부터의 이 중 부담이 발생한 원인은 여성해방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해석했고 따라 서 중간에 각종 좌절이 발생한다해도 그 성질은 보수적인 것이요 시간상으로는 일시적일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의 발걸음과 빛나는 미래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 방"이 철저한지 아닌지를 가늠한 단 말인가? 혹자는 우리가 접근방식을 바꿔 대 관절 해방이 철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해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애초부터 문제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는 이 프레임 자체에 내재된 권력적 담론과 구조를 의식하지 못했거나 심도있는 성찰없이 다 만 드러난 근대성과 합법성을 그대로 수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국 사회와 여성 을 개조하고자 했다. 결국은 중국사회에서 삽입된 어떤 신사상이 일으킨 거부반 응이 나타났고 여성들은 이러한 거부반응때문에 대가를 지불했다 (사실상 남성 역시 마찬가지였음)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성 "해방" 이라는 사유패 턴의 역사성을 사상적으로 인지하고 여성들이 해방된 후 직면한 일층 복잡해진 국면을 엄중하게 주시하면서 국가, 사회 및 제도적 면에서 이 복잡한 국면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만 여성들이 스스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해방" 을 택하든 "억압" 을 택하든——이로 인해 정치적 압력, 도덕적 곤경과 무거운 생 활부담에 시달리는 일은 없게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질의 응답】

제 4 세션 발표 논문에 대한 코멘트 및 토론

사회: 평 하오(彭浩, 오사카시립대학)



발표자 간 코멘트 1 시오데 히로유키(塩出 浩之, 교토대학)

우선 한성민 선생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에 이르기 까 지의 일본의 정책에 관해서 입니다만, 18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일본은 한반 도가 청국이나 러시아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강박관념이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두려워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조선이 지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도 보장하는 것이라는 논의가 정부와 민 간 레벨에서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독립, 또는 근대화해야 한다 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대외강경론이라는 것이 나왔고 조선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선택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옥균의 망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망명 자체는 불법적으로 행해졌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 발표에서는 일본 정부가 여권을 발행한 것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조선의 국경 관리, 중국의 국경 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여권을 발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와타 슈사쿠(岩田秋作)' 라는 이름의 여권이었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친팡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하겠습니다. 여성을 교육, 혹은 문명화한다는 것이 중국이 문명국으로 보여지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본에 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이 서양 국가들에게 문명국으로 보여지기 위해 여성들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친 선생님 논문에서는 '여성지위론'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비슷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여성의 해방 논의가 나오게 된 것은 늦습니다. 1910년대 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모성을 보호한다든가 현모양처를 기른다는 식으로 문명화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다른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그러한 현모양처와 같은 논의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자면, 여성 해방이라는 것이 꼭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친 선생님께서는 동아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좀더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자 간 코멘트 2 한 성민 (韓成敏, 대전대학교)

시오데 선생님 발표를 통해서 들었던 느낌은 당시의 신문이 서로간에 동일한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당시 신물들을 보면 보통 분량이 네 페이 지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정된 정보를 과연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 신문사의 편집국이라고 하면 편하겠지만, 당시 편집국이라고 할 정도의 신문사의 규모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편집국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정보를 어떤 것은 실고. 어 떤 것은 실지 않는다는 가치 판단이 내려진 것이 신문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것은 어떠한 구조 속에서 결정이 되었을까가 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친 팡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계속 수긍을 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당시 중국의 여성 운동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가지 알고 있는 것은 도쿄에서 유학하고 돌아가서 여성 운동과 여성 교육에 선구적으 로 나섰던 추근(秋瑾)의 활동 정도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여성 운동에 대한 저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족이 여성에 대한 압박으로 대표되고 있지 만 제가 아는 중국은 넓기도 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기도 한데, 그러한 중국의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가지 흐름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지가 제가 들 으면서 느꼈던 의문입니다. 아마 지역별로 다른 양상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전 통에서도 보면 애초에 남녀의 관계가 전족을 할 정도까지 가지 않고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좀더 평등한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에서의 여성 운동이라는 것을 특징적인 지역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광역적으로, 또는 통일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 논평은 이것으 로 마치겠습니다.

오카와

박 한민

플로어 개방 토론

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펑 그럼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 표자에 대한 코멘트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드리 겠습니다.

주오대학의 오카와 마코토(大川 真)입니다. 친 선생님의 발표 논문과 관련해 서 발언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빌리티' 가 부여하는 여성의 이미지에 관해서 는, 섹슈얼한 매력과 세간에서의 압도적인 나쁜 이미지가 에도시대 때부터 상당 히 정착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에도시대 때의 『그림책 삼국요부전(絵本三国妖婦伝)』에 나오는 다마모노마 에(玉藻前)라는 여성은 실은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요괴, 구미호입니다만 원래 중국에 있던 달기(妲己)인데 후에 인도에서 다시 태어났고 또 일본에서 요괴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괴 여자라고 써서 '요부(妖婦)'. 섹슈얼 한 매력을 가지고 이동하는 여성을 요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초 기에 다카하시 오덴(高橋お伝)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실크로드, 일본의 견직물 산업과 함께 이야기됩니다. 남성을 홀려서 돈을 뜯어낸 여성입니 다.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합니다만, 그녀는 '독부(毒婦)' 라고 불렸습니다. 이 런 것들을 부언하겠습니다.

오쿠보 게이오의숙대학의 오쿠보 다케하루(大久保 健晴)입니다. 한성민 선생님 발표 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오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중복 됩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여서 많은 공부 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위화감이 드는 것은 마지막 논의입니다. 거기서는 일본 정부가 상해에서의 김옥균 암살계획을 대충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협력적 입장에 있었고 또 암살 후에 그 상황을 이용하는 형태로 청일전쟁에 돌입 했다는 뉘앙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디까지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 동국대학교의 박 한민(朴 漢珉)입니다. 시오데 선생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 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 1867년 1월 하치노혜(八戸) 사건이 중 외신문(中外新聞)에 기록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청국과 일 본 사이에 논란이 되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청국 예부(禮部), 외교 관할 기관 인데, 거기에서 조선 측에 한달 후에 이 신문 기사를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선이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할 때까지 일본과의 협상에서 문제가 많 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조선을 침공하려 했는가. 내용 자체를 보 면, 1866년에 프랑스가 조선을 한번 침략을 한 적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대외 문제였고, 이것이 청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청에서 조선 측에 건내줘서 이것을 가지고 조선 측에서 반응을 하는 것들이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좀더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 웨이궈

남개대학의 쑨 웨이궈(孫 衛国)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성민 선생님의 글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김옥균 피살사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논문을 읽은 후에 약간의 모순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결론에서 김옥균에 대한 일본의 태도, 즉 한편으로는 그를 국경 밖으로 추방할 수도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 계속 머물게 할 수도 없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피살이 청조에 대한 전쟁을 승인하는 하나의 이유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오해전에서 일본이 청조에 전쟁선포를 한 이유는 이것 하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도화선일 뿐이고, 기타다양한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 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과대평가하지 않으셨는지, 어느 정도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성민선생님의 이러한 관점은 매우 신선하고 덕분에 저도 다양한 시점에서 이 사건을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오데

우선 한성민 선생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신문 편집은 어느 곳에서나 대개 3-4명 정도, 상당히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취사선택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국내 뉴스와 외국에서 온 뉴스가 있었는데 특히 외국에서 온 뉴스 중에 외국 신문에서 전재(転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과는 별도로 취사선택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보다 보면 가끔 중요한 뉴스를 일부러 내놓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블랙박스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해도 불편한 기사를 내놓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한민 선생님 질문은 하치노해 사건(八戸事件)과 프랑스와 조선과의 충돌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 하치노해 자신이 그것을 의식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선이 일본에게 문의했을 때 도쿠가와 막부 측은 이것을 프랑스 문제와 관련지어서 조일관계의 리뉴얼이라고 할까요, 갱신하는 데 이용하려고 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야베 준수쿠(八戸順叔)가 실재인물이었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성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오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답을 하자면, 김옥균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썼던 이름은 이와타 산와(岩田三和)입니다. 이와타 슈사크(岩田秋作)를 주로 사용을 하다가 중국에 가서 이홍장과 담판을 할 때 스스로 나름대로 다짐을 하면서 썼던 것이 이와타 산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여권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1902년입니다.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여권 업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 중일간에는 여권이 이미 발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국사 개설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권

이 없는 자를 상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일본이 여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추측입니다. 당시 김옥균의 여권을 제가 일 본 외무성 외무사료관에서 여러번 찾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짧은 시간 동안 가서 찾는 것이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저에게 주신 질문은 암살 이후 상황을 이 용했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오데 선생님 질 문과 연결해서 보면. 1887년부터 일본의 군대 편제가 사단 편제로 바뀝니다. 그 이전의 육전대가 수비 중심의 군대 편제라고 하면 사단 편제는 대외 전쟁이 가능 한 최소 단위가 사단 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 육군은 그동 아의 프랑스 편제에서 독일 편제로 바꾸게 되지요. 맥켈이라는 고문관을 고용해 서 사단 편제로 바꾸고, 갑신정변 이후로 육군의 확장, 해군의 확장에 크게 노력 을 합니다. 1892년부터 일본 육군과 해군이 합동으로 중국의 산동반도를 상정한 상륙작전 훈련을 해매다 대규모로 펼칩니다. 그리고 암살 이후 상황의 이용에 대 해서는 그 증거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 정부에 미 리 경고를 합니다. 김옥균의 사체를 훼손시킬 경우에 너희들은 그러니까 한국 정 부는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울주재 러시아공사가 열강들의 영사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때 일본이 그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이것도 상황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너무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상해에서 시신을 입수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김옥균의 암살 문제를 너무 크게 파악한 것 아니냐. 청일전쟁의 계기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옥균의 암살 사건이 청일전 쟁의 계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청일전쟁의 계기는 중국이나 한국 모두 김옥균의 암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갑오농민전쟁 을 이야기합니다. 김옥균 암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 이 일본 내에서 개전 여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 가 청일 전쟁의 계기가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시기부터 일본은 한국 을 지배하려고 했는가. 이 시기의 일본은 절대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 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 향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 더 넓히는 데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해하 는 것은 전혀 역사적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발표가 그 렇게 들렸다면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실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저에게 온 질문은 이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친 팡 시오데 선생님의 문제 제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 지위의 높고 낮 음을, 한 나라의 문명의 지표로 삼는다는 생각 자체는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성과 국가를 문명이라는 척도로 연관 짓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천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근 대에 이르러 생성된 관점이기 때문이죠. 일본의 현모양처 관념은 동아시아에서 특히 유행하였는데, 자연스럽게 중국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 중국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비(非)현처양모, 혹은 초(超)현처양모와 같은, 현처양모를 초월하는 의미의 용어들이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문 제점은 '나는 어떤 부류의 인간이 아니다(我不是谁)', 혹은 '나는 누군가를 뛰어 넘는 존재(我超越谁)'라는 명제를 전제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야 (说我是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선생님은 중국의 페미니즘은 복수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점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학 범주에는 잡음이 많았습니다. 가령, 여학생들 사이에 흔히 존재했던 경쟁, 질투와 같은 것들인데,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이 화제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불협화음은 역사 뒤로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듣는 것은 마치 하나의 주류와 일치한 큰 목소리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해체하고 분석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카와 선생님이 요부(妖妇)와 독부(毒妇)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셨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관련된 문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멘코 우크라이나 키예프 모히라 아카데미의 올가 호멘코입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의 이론을 적용해 보면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본주의적인 정보 시장으로의 참여가 네이션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이 책에도 식민지와 신문의 관계나 민족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과도비교하면서 일본과 중국, 한국과 그리고 영국 신문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면 보다 재밌는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하오 그러면 와세다대학의 류 지에(劉傑) 선생님, 내일 자유토론에는 참석 못 하신다고 하시니 마지막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지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내일 논의에도 참석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전체 테마는 19세기의 국제질서의 전환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나라들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용해서 국제관계를 전환시켰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전환점은 과연 언제인지. 다르게 말씀드리면, '19세기'는 언제 끝났는지, 라는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제를 폐지하는 커다란 제도 전환입니다. 이것을 커다란 사회 변혁으로 파악한다면 중국의 19세기는 1905년에 종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4운동은 서양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상, 문화의 변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19세기의 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19세의 끝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전제로 하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변용을 하나의 사상(事象)으로 정리해서 파악하는 방법론은 당연히 한가지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내일 논의하고 싶었습

니다만 참석할 수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오늘 선생님들의 발표에서 '책봉 체제' 나 '조공무역' 이라는 개념이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무 낡은 개념이어서 논의하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19세기 질서 변환 속에서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안 나왔는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책봉, 조공 체제의 종언은 조약 체제의 변용과 같다고 이해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이것은 단순히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약 체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책봉 체제, 조공 체제의 종언은 아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사적 측면으로 넓혀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발표에 각국의 역사 연구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상(像)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불평등조약'은 어디까지 불평등한 것인지, 이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논의는 결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무운동, 개혁의 움직임. 애초에 양무운동이라는 표현이 괜찮은지도 포함해서 양무, 개혁, 혁명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도 근대사 전체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구의 진전에 따라, 혹은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역사상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정된 역사상은 아시아에서 공유 가능한 것인지, 이번 대화를 통해서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오늘 휴식 시간에 아마도 히라야마 선생님이셨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대화를 어떻게 발신하고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제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같은 말도 가끔 듣습니다만, 동아시아의 '지(知)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대화는 동아시아 3개국의 가장 민감한 문제, 가장 대립하기 쉬운 문제를 다뤄 왔습니다. 이 대화는 지(知)의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 플랫폼을 존속시키는 일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계속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졌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5 세션: 전체 토론

사회: 리 언민 (李恩民, 오비린대학)

초대 토론자:

아오야마 하루토시 (青山治世, 아세아대학),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昇, 규슈산업대학), 박 하민 (朴漢珉, 동국대학교), 쓴 웨이귀 (孫衛国, 남개대학)



리 언민

사회를 맡게된 오비린대학의 리 언민입니다. 다섯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세션부터 네 번째 세션까지 아주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일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세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다섯 분의 코멘테이터가 각자 코멘트 혹은 문제를 제기하시면, 어제 발표를 하셨던 분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일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로 미루어진 것도 있는데, 이번 세션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메꾸는 것입니다. 다섯 분의 코멘테이터께서는 10분 내외로 발언해주시고, 길어도 15분을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을 넘기시면 제가 손을 들고 저지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시간은 1시간 반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그 이상 지연되면 안될 것 같네요. 엄격하게 이러한 학술적인 규범에 맞춰서 학술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미타니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미타니 선생님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미타니

아토미학원여자대학의 미타니 히로시(三谷 博)입니다. 논의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다양한 논점이 제시되어 활발한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 더욱더 논의가 진행되어 마지막까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

습니다. 논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참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서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테마를 공유할 수 있는 상대를 발견하고 앞으로 도 연구 협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오후 세션에서 그런 파트너를 찾아주셨 으면 합니다. 이것이 기획 측의 절실한 부탁입니다. 그럼 활발한 논의 잘 부탁드 리겠습니다.

리 언민

미타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사 대화의 주 요한 목적은 일, 중, 한 3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대한 토의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 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디가 다른지 확인이 필요 할 것 같네요. 결코 통일된 견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상이점 을 통해, 그러한 부분을 지식으로써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죠. 우리는 동아시아 평화를 촉진하는 민간 학술 단체이므로 개개인의 학자들은 결코 어느 특정 국가, 단체를 대표할 수 없고 순수하게 학술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스케줄대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 겠습니다. 먼저 아오야마 선생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오야마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오야마

아시아대학의 아오야마 하루토시입니다. 이번 「일・중・한의 국사들의 대화」 라는 포럼은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 들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 중국근대사 연구자인 제 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면적 • 다층적인 '대화' 를 위해서 저 같은 입장에서의 발언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중국사ㆍ 한국사ㆍ일본사라는 '국사' 의 틀을 넘어서 '근대아시아사' 라는 시점에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원탁회의 테마는 ['동아시아' 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인데, 미 타니 선생님께서는 ['아시아' 의 발명: 19 세기 리전(region)의 생성」이라는 기 조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미타니 선생님께서 대화를 촉구하도록 추상도 높은 이 야기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는 개별로 코멘트하고 꾸어 웨이똥 선생님 이외의 보고에 대한 코멘트 • 질문은 오늘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할애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가지, 시오 데 선생님 발표의 '나가며' 에서 언급하신 '이론(異論)의 가시화' 라는 논점에 대 해서는 현재에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시대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현재도 일·중·한에서 각각 '이론' 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나 원인이 서 로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론의 가시화' 라는 것이 지금이야 말로 필 요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 는 만약 이 세션 혹은 다음 세션에서 시간이 나면 코멘트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동아시아' 라는 말이나 개념의 상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타니 선생님 강연에서는 현재 '동아시아' 라고 불리는 범위를 지칭하는 '아시아' 라는 말의 지정학적인 용

법은 1880년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는 전제에 서면, 이번 포럼의 여러 발표들 중에 1880년 이전의 사상(事象)에 있어서 '동아시아' 라고 언급한 논술은 대부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제 자신 현재 운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동아시아근대사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청일전쟁 100년에 해당하는 1994년에 개최된 심포지엄을 계기로 다음 해인 1995년에 일본의 일본사·중국사·조선한국사 연구자들이 설립한학회입니다. 매년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심포지엄도 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극히 심플하게 일본사·중국사·조선사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발표를 나열하는 식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중국·조선을 나열하기만 하면 '동아시아'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매년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만이외에 몽골, 베트남, 태국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에 따라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티베트·몽골의 시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동아시아 질서 변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미니 심포지엄을 기획했습니다. 티베트·몽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동아시아사로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의 학계에서는 특히 전근대를 다룰 때 '동아시아'의 틀이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티베트·몽골·투르키스탄 등 이른바 '내륙 아시아'를 포섭한 '동부 유라시아'라는 틀이 제창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청나라에 대해서도 단지 마지막 중국왕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북방의 유목세계, 티베트불교 세계를 포섭한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동부 유라시아'라는 틀에서 고찰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전체나 유보 없이 '동아시아'라는 말과 개념을 역사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역사파악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점점 공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아시아 근대사'라는 틀 자체가, 그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약간 자기비판적이지만, 이러한 인식·위기감이 저도 연관되어 있는 '동아시아근대사학회'의 설립 초기 멤버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공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미타니 선생님의 기조강연 내용이나 각 발표자의 발표를 연결시켜 보면, '동아시아'라는 틀이 사용되는 경우는 일본이 '중심'이었다던지, '기점'이었다던지, 아니면 '정점'이었다던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아시아'라는 것은 일본이 이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의 특유의 틀인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특히 일본인은 자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수십년이 지나면 '동아시아'라고 이야기하던 시대도 있었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동아시아·동아'는 자주 쓰입니다만, 역사적으로는 메이지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아 수용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삼대 신문 중 하나인 동아일보는 일본통치하 1920년에 창간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중국과의 고구려・발해 논쟁을 계기로 2006년에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동북아'라는 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동아'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인식되어졌고, 또 변화했는지는 한국의 연구자들께서 꼭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동아시아(동아)' 라는 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자국의 위치와 주변과의 관계를 이 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중・한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라는 틀은 중 국에 있어서는 정방위 관계의 일부, 일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동 러시아도 포함 해서 역시 '동북아' 라는 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질서의 형성, 유지, 전환, 붕괴, 그리고 재생이라고 하는 논의와 관 련해서는 어제 류지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코멘트하셨던 것처럼, 이번 각 발표에 서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조공·책봉' 이라고 하는 질서와의 관련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아까 소개한 동아시아근대사 학회에서 '조공・책봉' 의 재검토를 테마로 2016년에 심포지엄을 열어서 『동아 시아근대사』라는 학회지에 특집기사를 게재했으니 최근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와의 관련입니다. 중국과 주변국과의 책봉·조공 관계는 청일전쟁 후 19세기 말 에는 완전히 소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존 속해 왔던 책봉·조공 관계가 국제 환경이 변화했다고 해도 100년 정도의 단절 을 거쳐 형태를 바꿔서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실제로 이 를 경계하는 담론은 일본에서 그리고 서양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에 서는 국력의 증대에 따라 '중화세계질서' 나 '조공체제' 론이 중국을 중심으로한 평화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국제질서였다고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중한 의견, 자제적 의견도 존재합니다만, 중국 자신이 역사적 경험과 어떻게 마 주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국제법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는 현재의 국제법은 서양이 만든 것이고 중 국의 국력이 쇠퇴했을 때에 중국을 포함한 비서양 국가들에게 강요한 룰에 지나 지 않는다, 중국이 위대한 부흥에 의해 다시금 강국이 되면 현재의 국제법도 중국 의 논리를 더해서 변화해야 할 것이다라는 논의가 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해 서 꽤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으 로 보면 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디까지나 따옴표를 붙인 '동아시아' 의 '화해' 라고 할 때 이러한 중국 측의 주장을 일본인과 한국인 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보다 중국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 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대립이 현저해질지, 아니면 중국의 국력에 굴복해서 종속적으로 다루게 될지, 등의 문제는 꽤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일 · 한 양국이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역사적인 시점에 서서 검 토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사들의 대화' 라고 하는 포럼 자체의 테마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 하고 싶습니다만, 애초에 '국사' (내셔널 히스토리)라는 것은 필요한 것인가, 라 는 것도 금기시 하지 않고 검토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꽤 광범위하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만,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서 자국사가 필요하다는 입 장이라면 '국사'는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역사학계에서는 '글로벌 히스토리' 나 '일국사' 의 극복이 주장된지 오래이고 일본 고등학교에서 는 2022년부터 드디어 '일본사' 와 '세계사' 의 틀을 벗어나 역사 필수과목으로서 '역사종합'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국사' 라는 틀이 일 반 사람들의 역사인식을 포함해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만약

'국사'의 존재를 변하지 않는 전제로 하고 '국사들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역시 위화감이 느껴진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공통역사교과서의 시도는 물론 역사인식 공유의 시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 상당히 도전적인 말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국사'의 경계선이 하루에 소멸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것이 점차 엷어지고 '국사들의 대화'라는 시도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야말로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국민국가/민족국가 (Nation State)'의 역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경험해 온 인류가 그것을 잘 이해 · 인식한다면 결코 국가 자체의 해체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상론이 되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언민 아오야마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시적 시각에서 어제의 강연에 대해 정리해주시고 본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제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국사가 반드시필요하냐"는 문제제기는 아주 흥미롭네요. 시간 문제로 다음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히라야마 선생님께 코멘트 혹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15분내로 해주시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하라야마 규슈산업대학의 히라야마 노보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어 사료만을 이용해서 일본 국내만 연구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 한국·중국의 '국사' 연구의 최전선을 알게 되어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의 발표로부터 알게 된 것은 '일본과 한국·중국의 다른점, 즉 일본의 특수성'과 또 하나는 '한국·중국·일본'의 공통점, 즉 비교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전자는 조금이고 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코멘트에서는 알게된 다른점에 대해서 하나, 공통점에 대해서 세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른점과 관련해서,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것은 올해 1월 2일에 도쿄 황거에서 열린 '신년 일반 참하(参賀)'의 모습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6만 8천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광경은 두 가지 점에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에는 천황제, 즉 군주제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션3에서 오카와 마코토선생님이 여성 · 여계 천황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만, 애초에 군주제자체가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둘째, 달력입니다. 이 신년참하는 양력 정월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력 정월은 도시부에서는 이미 전전(戦前)에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세션3에서 꾸어 웨이똥 선생님이 중국의 양무운동에 대해서 발표하시며, 중국의 근대화의 여러 측면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꿔 선생님은 "농촌은 도시를 따르고, 촌락은 대도시를 따랐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일본의 정월도 먼저 도시부에서 양력 정월로 바뀌었고, 그 후에 농촌이나 지방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한국에서는 지금도 음력 정월이 주류입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달력은 사람들의 문화・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



(출처:『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 2020 년 1월 2일 「레이와 첫 신년 참하에 긴 행렬 (令和最初の新年一般参賀に長い列)」)

니다. 꾸어 웨이똥 선생님께는 양무운동에서 달력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션3에서 남기현 선생님이 식민지에서의 '법'과 현지 사 람들의 '관습'과의 마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음력 정월은 어떻게 다루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중국과 일본의 차이, 즉 일본의 특수성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보다 더 알게된 것은 중국·한국·일본의 공통성과 비교 가능한 점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전근대→근대'라는 과도기가 공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으로 사회 전부가 새롭게 확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후 20~30년 정도 시행착오와 모색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현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사례가 풍부했고, 굉장히 재미있는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국·중국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 발표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승훈 선생님은 불평등조약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쑨 칭 선생님은 매직랜턴에 대해서, 시오데 선생님은 거류지 신문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상호 참조에 대해서, 한승민 선생님은 김옥균의 망명을 둘러싸고 일본·조선·중국의 생각이 교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각각 발표에서 한·중·일이 연동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놀랐던 것이 거의 모든 발표에 기독교 선교사가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쿠보 다케하루선생님, 쑨 칭 선생님, 꾸어 웨이똥 선생님,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 친 팡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서양의 충격(Western impact) 에 중국·조선·일본이 대응했을 때, 거기에는 꼭 기독교 선교사들과의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양의 새로운 가치관을 유교와 같은 동아시아의 '전통' 도 이용하면서 동아시에 정착시켰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통감한 것은 저희들 '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게다가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사료'에 기초해서 역사에 새로운 빛을 비춘다고 하는 공통의 discipline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이 '유교와 한문' 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지적 교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근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통신사가 오면 일본 각지의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한문 필담 교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오데 히로유키선생님 보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동아시아 공영 권의 탄생' 이라기보다도 전근대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거류지의 영자신문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더해져서 일어난 일시적인 '화 학반응'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탄생'이라고 하면 그 이 후에 어떠한 형태로서 발전해 갈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실제로는 20세기에 들어 서면 일본의 미디어는 1880년대 말까지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신문을 자세하 게 소개하는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현재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중국은 인터넷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Twitter 등을 통해 자유롭게 연락이 가능합 니다. 즉, 시오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론의 가시화'가 누구에게나 간단히 가능 합니다. 그런데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일본인의 어학 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 입니다만——인터넷상에서 국경을 넘은 언론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한문' 이라는 공통 기반이 사라져, 『구약성서』의 바벨의 탑이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한편 저희들 역사 연구자는 언어 자체는 통역이 필요하지만——동시통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역사학 공통의 discipline이 있어서 서로 리스펙트 (존경)하면서 '어른들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이 포럼이 끝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국사' 연구자들은 자신의 나라의 '국민' 들과 대화가 가능할까요? 류 지에 선생님은 개회 인사에서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사료나 선행연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를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에서 대단히 감명 깊었던 것은 한성민 선생님의 김옥균 망명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일반 여론에서는 '친일' '매국노'라고 불리고 연구할 가치가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한성민 선생님은 『일본외교문서』와 신문 등의 동시대 일본 사료를 활용해서 김옥균의 망명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선과 일본에서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로 들어설 무렵, 지금부터 100년 정도 전의 일본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것은 남북조 정윤(正閏) 문제입니다. 중세 일본의 천황이 남조와 북조로 나눠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도쿄제국대학 출신의 역사 연구자들은 사료에 기초해서 남북조가 양립했었다고 결론 짓고 교과서에서도 이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남조 쪽이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비난이 일어납니다. 당초 정부는 "학자의 논의는 학자 가 자유롭게"라고 방치했습니다만, 정치가와 미디어(신문)가 국민적 캠페인을 벌여 정치 스캔들이 되었고, 결국 학자가 패배해 교과서도 다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일본은 이 상황과는 관계 없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초대 천황이라고 알려진 진무천황은 역 사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화 상의 인물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최근 이 진무천황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진심으로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나 타났습니다. 이 정치가는 아베 신조 수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국민. 그리고 국민이 선택한 정치가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결과가 역사 연구자의 실 증을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이나 중국에서의 난징사건이라는 일 들도 완전히 부정하는 정치가나 인터넷상의 담론이 요근래 20년 동안 급증했습 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 덕분에 저희 역사 연구자들은 공통의 discipline을 토 대로 너무나도 의의있는 '대화' 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회의를 통해 증명되었습 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러한 자국 '국민' 들과는 얼마나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 무거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조금 비관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회의에 서 만난 연구자들과 국경을 넘어서 '동료' 가 되어 서로의 지혜를 합쳐서 '역사의 대중화' 라는 역사학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상의하는 것 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희망' 을 얻은 것이 이번 회의에서의 저의 가 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언민 히라야마 선생님의 날카로운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많은 문제를 제출하셨는데 조금 후에 발표자께서 대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토론자 박 선생님 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하민 동국대학교의 박 한민입니다. 어제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가 다양하게 있었습니 다. 거기에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 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에서 두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 주셨 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논의가 안됐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일단 첫 번째로 어제 미타니 히로시 교수님께서 아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 말 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시기에 지리서가 유입되면서 어떻게 관념이 바뀌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받게 되는 것이, 오쿠보 선생님께서도 다루셨지만 만국공법입니 다. 만국공법이 유입되어 각국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활용되었는가 입니다. 오쿠 보 선생님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사의 입장에서 보면 만국공법이 19세기에 조선이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 는 국제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되

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사례만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토론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경우에도 1883년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일본과의 관계, 아니면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 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유입이 돼서 번역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국공법에 나오는 조약문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오쿠보 선생님께서는 피세링을 중심으로 해서 니시 아마네가 네덜란드에 가서 공법을 배워오고, 그것을 번역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만국공법은 휘튼 것을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1888년 무렵이 되면 일본에서도 유학했고 미국에서도 유학한 적이 있었던 유길준이 동아시아에서 조선의 위치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만국공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활용하기도 하고 블룬츨라(Johann Kaspar Bluntschli)라는 독일의 법학자가 썼던 『공법회통(公法會通)』같은 것들도 활용을 했고, 또 서양인 고문관이었던 데니(O. N. Denny)나 묄렌도르프(Paul G. von Moellendorff)와 같은 법학자의 논의를 받아서 조공과 책봉문제에 있어서 조선을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선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19세기 후반의 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독립자주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지리서와 관련해서 19세기 개항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국을 통해서 지리정보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웨이안(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입니다. 물론 이것은 1880년대를 넘어가면 일본에서 유학을 한 유길준 같은 경우에는 우치다 마사오(內田正雄)를 통해서 『여지지략(輿地誌略)』과 같은 책을 통해서 오대양, 오대주에 대륙별로 어떤 국가가 있고 아시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논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인종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미타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아시아가 어떻게 위치되는지만 논의를했다면, 이후에는 황인종, 흑인종 등 여러 가지 인종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다르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잡해지는 양상이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청나라 중심에서 일본중심으로 지식의 패러다임 자체가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보면 19세기에 개항을 하고 나서는, 시오데 선생님께서도 공공권의 탄생과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기항로, 배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여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가 김옥균이 상해로 건너갈 때 어떤식으로 관리를 받았을까.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항로말고 전보, 전신을 통해서 각국의 정보가 개항장, 거류지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유입돼서 청국, 일본, 조선의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그런 모 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오데 선생님의 경우, 1874년의 대만출병이나 류큐처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뒷 시기로 가면, 물론 시오데 선생님께서도 1883년 이후에 조선에 서 발간된 신문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883년 이후 조선의 개항장을 통해서도 각국의 정보가 신속하게 잘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上海)에서 발행되던 『신보(申報)』나 일본에서 『시사신보(時事新報)』나 『동 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등과 같은 것을 통해 정보가 종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86년이 넘어가면 서양에서 직접 영어를 번역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정표(萬國政表)』라는 책도 이용을 하게 됩 니다. 그리고 뒷 시기로 가면, 대한제국 시기의 문제입니다만 영자신문과 관련해 서는 조선에서 발행됐던 독립신문, 더 뒤로 가면 대한매일신보가 있는데요. 이것 은 영국인 베델(裴說 Ernest Thomas Bethell)에 의해서 발간됩니다만, 영자신문 을 통해서 요코하마와 고베와 같은 일본 개항장에서 발간되었던, 예를 들면 고베 크로니클(The Kobe Chronicle), 그리고 영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더 타임 스(The Times)에서도 조선의 문제를 두고 실시간으로 논박하는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도 조선에서 분명하게 나 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뒤의 것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여기 서는 시기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자르셨겠지만 한, 중, 일 삼국에서 영자신문을 통 해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으니까요. 뒷 시기도 공통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 당연히 들 어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대표적으로 19세기에 개항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 어나가게 되는 질병이 콜레라입니다. 중국의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879년, 1886년, 1887년에 일본과 조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 에 공동으로 검역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 다. 조선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정보를 입수한 콜레라 예방규칙을 가지고 검역에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관(海關) 연구와도 관련됩니 다만 당시의 동아시아 삼국이 어떠한 식으로 공동 대응이 가능했는가를 복합적 으로 잘 보여주는 요소가 아닐까 해서 이런 것들도 향후 논의에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른 선생님 들의 말씀을 듣고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언민 박 한민 선생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아주 잘 맞춰 주셨네요. 그럼 다 음 순서로 난카이대학 순 웨이거 선생님께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쑨 웨이궈 남개대학의 쑨 웨이궈입니다. 사회자 선생님, 그리고 아츠미 재단의 요청에 감 사드립니다. 종합 토론 코멘테이터로서의 제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제 미타 니 히로시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아시아의 발명" 과 송지용 선생님의 코멘트에

대한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송 선생님께서 동아시아 근현대 개념 속에서 전통 동아시아 세계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유산에서 출발하여 혹은 전통적인 천하 질서 속에서 어떻게 근현대 동아시아 세계의 특징이 보이게 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동아시아가 하나의 명사로서 서양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의 실체인 동양으로 체현되었죠. 사실 동아시아의 탄생을 논의하려면, 하나의 상징적인 특징을 거론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징적인 특징은 어떻게 구현되는 걸까요. 동아시아라는 명사의 출현으로 인해 동아시아 세계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보여 왔습니다.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고대 동아시아 세계 네 가지 지표설을 차용해서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설이 일본에서 여러모로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각국의 정치 체제를 봤을 때, 왕조 체제에서 민주 민족 정치체제로 바뀌 면서 정치적으로 주변 국가와 민족주의적 사상의 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정치적 으로 주변 국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화주의 사상과 상반되는 노선을 택 하게 된 것이죠. 정치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사상적 정체성에서 각자 민 족국가를 부각하는 사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각자 노선의 배후 원 인으로 사실상 서양 세력의 침투를 들 수 있습니다. 고대의책봉 체제를 중심으로 왕래가 이루어지던 동아시아 세계의 구조가 점차 조약 체계로 바뀌어 갑니다. 기 존의 동심원 구조(差序格局)가 해체되고 평등 교류의 모식(模式)이 탄생했습니 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기존의 구조가 점차 소멸되어 심지어 위치 관계가 역전되 는 상황도 발생하죠. 오늘 이루어진 토론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도 많 았습니다. 조광 선생님은 축사에서 특별히 민족주의 민족국가의 문제를 언급하 셨고. 오카와 마코토 선생님은 여성 천황제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꾸어 웨이똥 선 생님의 중국 양무운동 관련 발표는 특히 양계초의 3분법을 인용하여 중국의 헌정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민 선생님은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조약 에 대해 다루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 새로운 문 제들이었죠.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히라야마 선생님이 한자 문화권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근현대 세계에서 한자 문화권은 이미 완전히 해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부각시키며 한자 문화권에서 이탈하여 국어 구축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한국어의 언문은 날로 중요성을 더 해가며 최종적으로 한자를 대체했고, 한반도의 공식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일본도 자체 언어 문자 구축 운동을 전개했고 베트남도 완전히 한자 체계를 벗어나 알파벳 문자 체계를 형성합니다. 중국조차 한자의 간체화를 실현해 기존의 한자 문화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 히라야마 선생님도 언급하셨지만, 고대 사신들은 필담으로 상호 교류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통역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죠. 오늘 회의도 그렇지만 통역이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런의미에서 한자 문화권의 와해는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즉 예수회 선교사들의 동양 도래입니다. 천주교 기독교가 무

에서 유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아시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적으로 유교와 길항 관계를 형성했고, 생활 속에 서도 불교와 어깨를 겨누기 시작했죠. 서양 종교의 매우 돌출된 체현이 바로 이러 한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삼았던 동아시아권 전통 과학기술에 관환 문제입니다. 대만 학자 가오 밍쓰(高明士) 선생님이 제기한 다섯 번째 특징, 즉 서양 과학기술을 주체로 한 현대 세계, 대학의 설립과 발전, 학과 전공화 추진, 학술 공동체의 형성은 완전히 새로운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형성시켜 왔습니다. 쑨 칭 선생님이 발표하신 18. 19세기 중국 초기의 랜턴 슬라이드에 관한 논의도 현대 과학기술의 중요한 체현(体現)을 다룬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류 지에 선생님이 특별히 제기하신 동아시아 국제 질서 전환 의 시간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류 선생님은 하나의 '점'(点)을 언급하셨는데, 제 생각엔 오히려 하나의 '기간' (时间段)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의 지속성을 띤 장기 과정이었으며, 시간의 변천으로 봤 을 때 2.3백 년 가까이 진행된 운동이었죠.

근현대 동아시아 세계는 16세기 말에 시작되어, 예수회의 도래, 명청 교체, 동 아시아 중화 세계의 붕괴, 근대 아편전쟁, 양무운동, 메이지 유신 등 중국과 일본 에서 전후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일 갑오 전쟁 이후, 일본 은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과 중국 사이의 전통적인 종주관계도 해체됩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동아시아 공영권' 구축 시도로 인해 중국과 조선의 민중은 참혹한 피 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현대 동아시아 세계의 최종적인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볼 수 있지요. 한국이 독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며 현대 동아시 아 세계의 최종적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귀착의 배경을 보면, 서양의 충격 을 받으며 자립 자강을 모색하는 노선을 선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세계 내부에 서 진행된 각축과 충돌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은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에 대응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동양의 각각의 민 족국가가 각성하고 초석을 다져가는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근현대 동아시아 세계의 출현은 바로 전 통적인 동아시아 세계가 와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비록 중국이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도 다시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아까 아오야마 하루토시 선생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시대를 초월 한 책봉 체제의 재현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문화 적인 분위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언민 쑨 선생님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이미 발표한 내용들 을 넘어서 공통점과 상이점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은 총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새로운 문제도 많네요. 사실 아직 한 분의 코멘테이터의 발언이 더 남아있습니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표 순서에 대해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어제 제2 세션 발표자셨던 쑨칭 선생님이 급하게 떠나셔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먼저 쑨 선생님께 어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쑨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신가요? 만약 질문이 없으시다면 바로 쑨 선생님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쑨 칭

복단대학의 쑨 칭(孫 青)입니다. 사회자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후 7시 비행기로 도쿄에 가서 회의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 이라 앞당겨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연구자로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소감과 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세계에 몸을 담고 있으 며, 나날이 표준화되고 균질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 류의 지리 공간, 시간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행동 규범 윤리, 법 률 원칙. 국가간 교류의 합법성 원칙, 인간과 사물 사이의 이용 및 공존 관계 등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다양성이 존재했다면, 현재는 날이 갈수록 비슷해지는 추세이지요. 이러한 비슷함은 종교, 지식의 전파, 전쟁, 자본의 흐름 에 기인한 물적 인적 유동 등의 요인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서로 비슷해진다 는 것은 사실상 균질화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민족국가, 젠더 동원 문제를 하나의 문화 구조로 환원시킬 수 있을 까요. 사실 이 문제는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서 구현되는 문화 구조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이런 환원에 대해 아마 해당 분야 연구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이고, 제 자신의 연구에서도 회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 했던 문장도 사실은 이러한 학술적 사고에 기반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주로 지식의 전파 방식, 지식의 구체 형식, 매개체가 어떻게 현대 세계의 일종의 기본 구조로 변화되어갔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아날학파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Fernad Braudel)은 일상 생활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구조는 어떻게 현대의 세계 구조를 만들어 갔을까요. 이런 구조는 사실 전근대 세계에 존재했던 문화, 민족, 국가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령 오늘날 공간을 파악할 때, 우리는 동아시아, 서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지리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시간상으로는 24시간이라는 미터법과 양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전 근대 시기에는 각자 서로 다른 민족국가에서 주권의 개념, 국경, 영토 등을 포함하여 균질화 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이런 개념들이 나날이 일치하게 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고 현대화되는 과정에는 과연 어떤 힘들이 개입되었을까요. 공업일까요? 혹은 자본, 제국주의의 식민 추진,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있을까요? 저의 연구주제에 입각해서 본다면, 영국에서 시작된 현대 교육 산업과 자본, 그리고 그에 대한 투자가 아주 중요한 추진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논의의 출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을 여기에 계시는 여러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미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령 미타니 선생님이 언급하신 공간 및 구역 인식에 대한 일치도 그렇고요. 그것은 계약이 파괴되는 혹은 현실적인 압력 하에 체현된 일치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천황 문제라든지

친 팡 선생님이 발표하신 여성의 모빌리티 문제, 부녀가 어떻게 해방의 대상이 되 었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한 시오데 선생님이 발표하신 아시아 공공권의 탄 생도 사실 다 서로 연관성을 지닌 문제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기 계신 동료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네요.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리 언민 쑨 선생님 자신의 가장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코멘트 에 대해 더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히라야마

쑤 칭 선생님의 매직래턴 발표에 대해서 연구 방법이나 시점에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 자신은 '하쓰모데' (初詣) 라는 신사 참배 행사가 원래 서 민 오락으로 탄생하여 오락이니까 확산되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천황을 공 경하는 행사로 성격이 바뀐다는 역사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 자본주의가 만 들어낸 것이 점점 내셔널리즘으로 되어 간다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이 일반 민중에게 확산될 때에는 거기에 즐거움이 없으면 역시 확산되 지 않습니다. 일본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규범이나 올바름. 해보 면 기분이 좋고 즐겁다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확산되어 갈 때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진지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일본 연구라면 교과서 분 석은 열심히 많이 해서 연구가 축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교육이라는 것 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 나갔을 때 펼쳐지는 여러 오락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쑨 선 생님 연구는 구체적으로 실증하고 계셔서 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환등은 중국만큼 유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환등 이외에 연극이나 영화 와 같은 것들이 역시 국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또는 중국에서 일본과 같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이 있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즉 근대화 과정에서의 서민 교육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나 제도적 교육이 주목받고 일상 생활 속의 오락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 볍게 여겨지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는다는 경향이 일본에는 있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리 언민 히라야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쑨 칭

우선 히라야마 선생님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상 황이고 다음 세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 저의 생각을 나누고 자 합니다. 교실에서의 교육에 관련해서는 저의 연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사 실 전근대의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존재했지만 교실 도 칠판도 45분 수업 시간도 교과서도 없었죠. 예전의 교과서는 수업용 각본도 표현자의 각본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책들을 읽어왔고, textbook에 대 한 이해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쳐서 형성됩니다. 제가 중국 농촌지역에서 필드 워크를 진행할 당시 발견한 바로는 20세기 초반 장강 하류의 일부 농촌에서 진행 된 수업은 여전히 교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업 시간을 알리

는 시계도 없었고 다들 제각각 수업에 참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면 몰려가서 수업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전근대적인 방식은 그 후에도 지속됩니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대 세계 표준화를 통해 추진된 결과입니다. 저의 연구적 관심은 이러한 표준화, 균질화의 전지구적 형성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어떻게 우리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간의 대화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을 때, 또 한가지 돌이켜봐야 할 점은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지식 세계 구조와 방법 속에 위치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언민 쑨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 조금 타이트하지만 3시 반까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복단대학 쉬 정보 선생님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 정보 복단대학의 쉬 정보(徐靜波)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고 조금 감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타니 선생님의 기조 강연에서는 주로 동아시 아, 동양이라는 개념과 그 개념에 따라 리젼, 지역이 점점 형성되어 왔다는 역사 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알려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것과 관련 해서 중국의 경우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하고자 합니다.

제 이해로는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아니면 동양이라는 개념은 일본이 처음 받 아들여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이 아니었나. 예를 들면 어제 강연에서 도 나왔습니다만, 마테오 리치는 1602년에 북경에서 '곤여만국전도(坤輿万国全 図)'라는 세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북경에서 인쇄되어 그 후에 일본에도 전해 졌습니다. 원문은 일본에 아직 몇 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우 유감 스럽게도 중국 본토에는 지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17세기 초반에 마테오 리 치가 이미 세계라는 이미지를 중국인에게 알렸으나, 당시 중국인은 아직 중화사 상, 즉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라는 사상이 강해 그 세계지도, 그 이미지를 거의 받 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 유럽과 같은 개념은 거의 중국에 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대해서는 존왕양이의 '이(夷)' 를 사용했고, 아펀전쟁 이후에도 변함없이 역시 외국에 대해 '이'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 를 들면 어제 강연에서 나온 위원(魏源)이 만든 『해국도지』라는 책에도 외국에 대한 기술에서 '이' 를 사용했습니다. "師夷長技以制夷 (외국의 기술을 배워서 외 국을 제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럽, 서양 국가들을 의미하는 서양이라는 말 도 거의 이 시대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이라 는 말 자체는 중국에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남쪽, 지금은 대강 ASEAN 근처 지역, 태평양 남부와 인도양 일부를 지칭해서 이 서양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명나라 시대에 "鄭和下西洋 (정화 서양에 가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 니다. 정화(鄭和)라는 사람이 7번에 걸쳐 남해 방면에 대원정을 한 이야기입니 다만, 이 지역이 대게 지금의 동남아시아 부근과 인도양, 가장 먼 곳으로 아프리 카, 지금의 케냐 부근에도 도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양 세계, 유 럽 세계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어땠는가 하면근대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에도

시대 사상가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가 『서양기문(西洋紀聞)』이라는 책 을 썼는데, 거기서도 서양은 보통 외국의 의미, 주로 유럽을 지칭하고 있었습니 다. 그후 19세기 중반에 서양 열강 세력이 점차 동아시아로 진출해 왔고 일본인 은 아시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중국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 다. 일본은 서양, 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아' 라는 말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아 시아입니다. 초기에는 '동아동문회' 등으로 대표되는 동아라는 말입니다. 또한 거 의 동시대입니다만, 동양이라는 말도 나타났습니다. 서양에 대한 동양이라는 말 입니다. 예를 들면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이 처음 영어로 쓴 책『The Ideals of the East』입니다. 나중에 '동양의 이상' 이라고 일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The Awakening of East』후에 '동양의 각성'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렇게 '동 양' 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어땠는가 하면 19세기 말 무렵에 일 본인이 만든 '동아' 혹은 '아시아' 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어제 강연 중 에 나왔던 쑨원(孫文)의 『대아시아주의』. 지금 저에게 자료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1907년 4월에 일본에 왔던 장병린(章炳麟), 최초의 중국동맹회 멤버이고 육 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계(張継), 또 훗날 중국공산당 창립자 중 한 사람인 진독 수(陳独秀)라는 멤버가 일본인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나 오스기 사카에(大杉 栄), 인도,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亜洲和親会(아시아화친회)' 라는 조직 을 결성하여 아시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에서는 동 양이라는 말을 조금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해는 일본인과 매우 달랐습니다. 일본인은 주로 서양에 대한 지역을 동양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인의 이해는 동 양이라는 것은 주로 일본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청일전쟁 직후에 일본 인에 의해 중국에 세워진 일본어학교는 '동문학당(東文学堂)' 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일본어라는 말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가 아니라 동쪽의 문, '동문' 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동양인이라고 하면 일본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 본에서 발명된 인력거는 나중에 중국에 전해져서 '동양차(東洋車)' . 그리고 후에 간단하게 '양차(洋車)' 라고 불려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동양, 혹은 동아, 동아시아라는 말의 중국에 서의 이해, 수용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와서 겨우 이해되기 시작했고, 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리 언민

쉬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에서 언급된 개념들에 대해 아주 좋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세션은 잠시 후 3시 반이면 끝나게 됩니다. 우리한테 남은 시 간은 이제 몇 분 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요 임무는 어제 발표자들이 제출 한 비교적 복잡한 문제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다음 세션으로 넘 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은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마지막 남은 몇 분을 이용하여 이번 세션에서 우리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정리 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발표가 아닌 코멘테이터가 어제 진행된 기조 연 설에 대해 종합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로 웠고 공통점도 발견하였습니다. 가령 선교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모든 발표자께 서 다 언급하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서양 유래의 제도라든지 문화적 반응에 대 해 여러 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혹은 공통된 대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모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루 발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이 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이번 "국사들의 대화"의 목적은 단지 어떤 같은 사건에 대해 3국이 (혹은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떻게 서로 다른 역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점을 우리 공동의 지식과 재산으로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공통된 대답, 인식을 찾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이번 국사들의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린 어떠한 정치 단체나 국가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하게 학술적인 시각에서 논의하는 것이지요. 어제 저녁 연회에서 아카시 야스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대화의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리고 여기 모인 한사람 한사람의 평범한 역사 연구자를 통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간다면 우리의 성과와 연구는 여전히 동아시아 공동의 지식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해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은 제가 직접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녹음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션부터는 발표자 분들은 꼭 먼저 자신의 성함과 소속 단체, 그리고 무슨 언어를 사용하실지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션과 다음 세션은 모두 녹음을 하고 또 스텝들이 문자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름과 소속 단체를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발언을 했는지 알기힘드니까 모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션에서도 활발한 토론이이어지길 바라며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제 6 세션: 자유 토론

사회: 남 기정 (南基正, 서울대학교)

총괄: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남 기정

서울대학교의 남 기정입니다. 어제부터 「동아시아의 탄생: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네 개의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조금 전까지 제 1부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시간 1시간 반 주어져 있는데요. 효율적으 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 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 련해서, 예고집 제일 첫 페이지를 다시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럼의 취지 와 경위가 쓰여져 있습니다. 포럼의 경위부터 먼저 보면, 오늘의 모임이 있기까지 의 기원은 2015년 7월에 열린 49회 세그라연구회포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 아시아 공공재,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이 오늘 이 시간의 기원 입니다. 그로부터 세 번의 대화가 있었고요. 오늘이 네 번째 회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13세기, 17세기의 동아시아를 확인했습니다. 전란이 하나의 키워 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전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의식시키는 하나의 통 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2015년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만들었 던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동아시아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렇 기 때문에 역사를 전공하는 지식인들이 무언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겠다는 의 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은 19세기의 동아시아 를 확인했습니다. 19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대전환의 전체상을, 인식과

전통, 이동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꿈꾸는 존재이기 때 문에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라 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목적론과 존재론과 인식론과 실천론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로 가기 위 한 현재의 조건을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각각 구별되는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러한 조건 속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을 알기위해 노 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 니다. 순한국어로 말하자면. 한국의 국제정치학자 하영선 교수에 어법에 따라. 꿈. 삶, 앎, 함, 이러한 네 가지의 행동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의 꿈, 세 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고, 앎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세 개 의 영역에서 세 개 국가의 경험을 어제 우리는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방 법이나 인식이 전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실천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실천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 다면 더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확인했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는 가의 문제입니다.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세 개의 세션이 있었습니다만, 그 세 개의 세션을 진행했던 사회자 분들이 각각의 세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지에 선생님 은 가셨는데 류지에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라 선생님과 평 선생님이 3세션과 4세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플로어에 오픈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우 열 심히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감상과 문제제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발표자 분들께 1라운드의 시간을 드리겠 습니다. 어제 나왔던 질문들, 오늘 자유토론 시간에 나왔던 문제제기들, 그 중에 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리고 난 다음 반응과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분을 지정을 해주시고 문제 를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라운드를 갖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제출된 문제를 가지고 각각의 발표자가 한번 더 발언하도록 하겠습 니다. 발표자 분들은 두 번 라운드를 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요령을 발 휘하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까 미타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친구를 발견 하고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목표에 충실한 발언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발언자께서 3분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인스턴트 라면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울트라맨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 다. 3분 원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실 때 자신의 모국어로 해 주시 기 바라고, 발언 모두에 본인을 한번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타니 선생님께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총괄을 해 주 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카시 선생님게 총괄 감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마니시 선생님께서 다음 회 의에 관한 잠정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 회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류 선생님께서 어제 남기고 가신 문 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19세기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19세기는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났는가, 언제 시작했는 가라는 문제는 사실은 오늘도 잠깐 나왔는데, 책봉체제가 언제 끝났는가의 문제 와도 관련된다는 것이 류지에 선생님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공통의 인식이 가능한가? 그것을 기초 로 새로운 역사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제기였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류 선생님의 문 제제기였습니다. 이것이 제2세션의 류 선생님의 사회자로서의 발언이라고 생각 이 듭니다. 그러면 제3세션의 사회자이셨던 무라 선생님께서 제3세션을 총괄해 주시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라

제 3세션 사회를 담당한 도쿄대학교의 무라 가즈아키(村 和明)입니다. 제3세 션의 테마는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였습니다. 전통에 도전한다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얼핏 보면 두 가지 문제로 보입니다만, 어제의 세션에서 이 두 가지는 간단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할 때, 즉 19세기 사회가 전환할 때에는 유럽의 영향, 구미에 대한 시선, 서양에 대한 동경, 서양에 대한 반발과 동시에 스스로가 과거에 대해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재해석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에 포함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의 전통' 이라고 여겨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떠 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세션 마지막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담당한 세션에만 한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 중국, 한국의 세 나라 역사를 같이 정리하기만 하 면 동아시아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사, 한국사, 중국사로 정리되기 쉬 운 각각의 역사들 속에도 다른 입장들이 많이 있으며, 또 일본의 어떤 존재와 한 국의 어떤 존재가 같은 것을 생각해서 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 다만,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토론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서양에 대한 시선 뿐만 아니라. 방 금 말씀드린 전환 속에 나타나는 과거에 대한 시선의 문제, 각 국에서 혹은 각 지 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여러 존재들. 결과는 좋지 않았을지 모르지 만 어떤 계획을 갖고 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주목하 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프로시딩에서 어떤 분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일본과 중국,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할 때의 단계차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에서는 군 사적 충격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군사가 변화를 유도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어떤지요. 아까 일본, 중국, 한국 삼자를 삼자로 이해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세 지역의 역사로 정 리해서 비교해 본다면, 단계차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각각 시간차가 있

고 같은 스텝을 밟은 것은 아니라, 요소는 비슷하지만 다른 단계를 거쳤다고 파악해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문제제기는 이상입니다.

남기정 갑자기 부탁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더힘든 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단계차의 문제, 즉 도전과 창조라는 키워드로 고민을 하게되면 단계차라는 문제가 삼국 사이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하오 어제 제4세션의 사회를 맡았던 오사카시립대학의 평 하오(彭浩)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된 언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 제목에 나오는 '사람의 이동' 입니다. 또한, '사람의 이동'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언론(盲论)의 공공권', 그리고 '언론의 공공권', '사람의 이동'을 보조하는 교통수단, 랜턴 슬라이드 등의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신선한 관점, 가령 젠더사, 여성사의 관점도 이번 세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 외, 친 팡 선생님의 발표에서 사용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배운 연구방법 같네요.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하셨는데, 이런 연구 방법이 동아시아 연구에서는 비교적 적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점은,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들이 사료(史料)에서 언급된 용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연구 결론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분석 용어, 사료(史料)용어, 고찰 용어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령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역사적 언론 이 점도 매우 흥미로웠고, 제 자신 또한 이를 통해 국사들의 대화의 출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3국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역사문제를 함께 토론해 보면, 역사 자료에 근거한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공감대를 어떻게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 지식으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만약우리가 이러한 연구 결론을 갑자기 대중에게 설명하면 대중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고, 정치에 질 수도 있습니다. 대중은 아직 역사 지식의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관념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토론한 이러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 중, 고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에 반영할 때, 우리의 연구 결론을 어떻게 추상화 시켜서 비교적 정확하게 대중에게 전달할 것인지, 마지막 결과는 아마도 우리 세 나라의 역사문제에 대한 비교적 냉정한 관찰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 예 감사합니다. 이동이라는 키워드, 즉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의 공통적인 과제로, 방법이 다를 때 결론이 다를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

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경을 넘는 것을 연구하는 연구 자들은 스스로를 상대화할 수 있는데, 여전히 국경 속에 남아있는 대중들에게 국 경을 넘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2세션, 3세션 4세션, 모두 굉장히 근복적인 문제 를 우리들한테 제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군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시면서 각각의 발표자께서 1차적인 반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 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쿠보 선생님.

오쿠보 게이오의숙대학의 오쿠보 다케하루(大久保 健晴)입니다. 저는 19세기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발표가 기본적으로 19세기 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고, 19세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793년에 영국 사절 매카트니가 청 조 중국의 건륭제(乾隆帝)에 대한 알현이 허락되었을 때, 청조는 그를 종속국의 조공 사절로 취급해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의를 요구했습니다. 매카트니 는 이를 거부하고 이것은 한쪽 무릎만 꿇고 친서를 봉정(奉星)하는 것으로 일단 락났습니다. 그런데 영국 측이 요구한 통상조약 체결을 청조는 거절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약 40년 후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청조는 영국에게 패배합니다. 도대 체 19세기 전반에 무엇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을 저희들은 글로벌 히스토리의 문 맥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각 국의 서양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는 기독교 선교사의 역할이 근대로의 도움닫기로써 큰 의미를 가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난학(蘭学)을 통해 서양 학술 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쑨 칭 선생님이 발표 하신 매직 랜터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 난학자가 이미 상세하게 소개하 고 있고, 이것은 기리에(切り絵) 형태의 대중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양 문물에 대한 애착을 낳게 됩니다. 또한 난학자들은 19세기 전반에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는 동시대 유럽 동향을 주목하여 최신 병 학서(兵学書)와 군사 기술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브레다 왕위군 사 아카데미(Koninklijke Nederlandse Akademie van Wetenschappen)에서 출 판한 서적은 '개국' 이전부터 그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고 또 번역되었습 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불평등조약' 과 같이 '개국' 이라는 말도 신중하게 음 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전반 소위 근대로의 도움닫기의 기간을 재파악하 고, 그것이 중국, 조선, 일본 간에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하는 일은 뜻깊은 의의 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19세기가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청일전쟁이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한문을 통한 공공권이 생겼지만 청일전쟁 발발로 인해 맥없이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20세기의 출발 점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즉 청일전쟁을 계기로 중국이나 조선의 많은 학생들 이 일본에 유학하고 새로운 연결과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

터 새로운 시대, 즉 20세기가 막을 열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의 남기현 선생님께 나중에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남 기현 선생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이얼로 그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반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진행에 대해서 착각을 했었습니다. 발표자 분들 1라운드 끝난 다음에 플로워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 2라운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2션에서는 오쿠보 선생님의 발언으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3세션의 오카와 선생님.

오카와 주오대학의 오카와 마코토(大川 真)입니다. 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진지한 역사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대화가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루고 역사수정주의 문제를 그린 『나는 부정한다 (Denial)』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실제 미국의 홀로코스트 연구자 데보라 립슈타트가 모델입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도 역사수정주의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단지 역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처럼 가공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있는 가공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가공도 있습니다.

작년 2019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천황의 교체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부터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 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대전이 종료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삼일운동, 오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룬 일본 학회가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날은 오사카에서 G20가 개최됐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이날에 맞춘 걸까 했는데 우연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 다음은 남 기현 선생님.

남기현 성균관대학교의 남기현(南 基玄)입니다. 어제와 오늘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겠다, 진지하게 더 많은 것을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쿠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양과의 접촉, 그리고 당시 한국에 있었던 학생들이 일본에 많이 유학을 갔었고, 법학이나 정치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좀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서양과 관련해서 이야기 할 때, 제가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체제가 법적으로 19세기에 만들어 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는 자본주의 체제인데, 자본주의의 가장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소유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한 법이 일본의 민법이고 그것은 1898년에 완성되었는데, 서양의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민법이고

이 다시 식민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던 기 점이 19세기 후반이다. 현재 저는 중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 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저의 과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히라야 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보여주셨 던 새해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병합 이후에 신문에서 계속 보도가 됩 니다. 총독부에서는 새해를 1월1일로 기념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많은 조 선인들은 음력을 계속 쇠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총독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돼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 개도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리고 많은 지 식인들이 음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개한 것이다. 새로운 양력을 써야 한다는 보도 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을 바탕으로 좀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히라야마 선생님의 문제제기를 가지고 숙제를 안고 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 늘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극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 경대학의 꾸어 웨이똥(郭衛東)선생님.

무어 웨이똥 이틀간 여러 교수님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히라야마 교수님 은 저의 주요 토론자셨는데, 교수님은 양무운동이 중국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전 면적이라고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의 논점에 힘을 실어 주신 것인데, 저 는 양무운동이 발생한 시기는 물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제도적인 측면

전체의 변화를 촉진한 관건적인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히라야마 교수님은 이 조계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도 관찰 범위에 있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계지는 주로 1840년대. 양무운동 이전에 이 미 상하이에 나타났지요. 양무운동 시기에 기존의 개별적인 조계지가 여러 도시 로 확대된 것도 중국과 서양 사이에 발생한 문화교류 충돌의 중요한 지점이 되었 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라야마 교수님께서 음력과 양력이 양무운동시기에 이미 중국인 들이 받아들였다고 제기하셨습니다만, 명청(明清) 시대, 예수회 선교사의 도래("耶 稣会士东来") 시기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타니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법과 권리의 관계, 의회와 정부의 관 계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청조 시기 양무운동 때에는 국회 문제만 거론하는 수 준이었지만, 청조 말기에는 준의회를 갖게 됩니다. 중앙의 자정원(资政院)이라는 성의 자의국(资议局)이었지요. 민국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국회가 생겼고. 양무운동 시기에는 그냥 말 뿐인, 실행으로까지 옮겨지지는 않았지요. 이런 내용 들은 모두 좋은 문제제기였습니다.

남 기정 특별히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나요? 이름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또 제기 하고 싶은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꾸어 웨이똥 미타니 선생님께서 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동양, 서양 문제가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은 중국이 방위를 나타내는 명사이고, 양(洋)의 최초의 의미는 바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외부영역이라는 뜻도 있지요. 동서남북 양(洋)은 중국에서 역사적 변천을 겪어왔는데, 최초의 동서양은 실제로 현재의 동남아, 즉 나중에 중국인들이 남양(南洋)으로 이해한 곳이었고, 예를 들어 정화(郑和)가 서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었습니다. 명나라 장섭(张燮)이 쓴 "동서양고(东西洋考)"도 주로 동남아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청나라 말기에 와서 동양은 점차 일본을 가리켰고, 서양은 주로 서구를 의미했으며, 북양이라는 말은 지리적 개념 에서 점차 정치적 개념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양은 처음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부 연해를 가리키다가 1870년 이홍장(李鸿章)이 북양대신으로 부임하면서 지역적 개념에서 점차 정치적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국 초기 북양 군벌의 17년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북양도 정치적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남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시기별 의미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 나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반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세션 발표자들의 1라운드 발언을 마차겠고요. 제4세션의 시오데 선생님.

시오데 교토대학의 시오데 히로유키(塩出 浩之)입니다. 우선 이런 국경을 넘는 역사들을 어떻게 하면 민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 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가지 드는 생각은 국사라는 것의 특권성을 교육 레벨에서 조금씩 없애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오야마 선생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에서는 '역사종합'이라는 새로운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제5세션에서 히라야마 선생님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저는 19세기 글로벌화부터 현재의 글로벌화의 연속성을 중요시합니다만, 히라야마 선생님은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커다란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세기 글로벌화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은 동시에 서양화였으며,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의 동아시아의 통합이면서 동시에 주권국가 체제의 도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20세기에 보다 중요한 문제는 대중화와 내셔널리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덧붙일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대중화와 내셔널리즘을 생각해 보면, 19세기와 20세기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한 19세기와 20세기, 혹은 지금까지를 포함해서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연속성을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19세기와 20세기 사이의 단절을 중요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은 세션의 두 선생님, 한성민 선생님과 친 팡

선생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사의 특권 성' 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김경태 선생님이 대독해 주신 조광 선생님의 개회 인사말 중에 '국사의 민주화' 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문제제기와 연관시켜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가 20세기가 될텐데. 19세기 20세기로의 연속과 단절이 라는 또다른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화의 조합도 제기를 해 주셨고 요. 그 다음은 한성민 선생님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성민

대전대학교의 한성민(韓成敏)입니다. 오늘 문제제기가 구체적이기 보다는 상 당히 담론화되어 있는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갖고 있는 부분 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축되어 가는가라는 점에 관심이 많습니 다. 저는 망명자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의 이동, 국가간의 이동이라는 측 면에서 본다면, 이 시기에 동아시아 삼국에는 망명자들이 근대 사회에 존재했습 니다. 다만 일본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과 한국은 다른 국가로 넘어간 정 치적 망명자들이 많았다면, 일본같은 경우에는 국내 망명자들이 많았습니다. 메 이지유신 전에 메이지유신에 노력했던 탈번무사들의 문제가 가장 첨예한 정치적 망명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일국의 통일은 일본같은 경우 에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서남부와 동북부 간의 역사인식의 문제는 아 마도 작년, 제작년에 상당히 첨예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메이지유신 150주년 을 기념하는 서남부와 중앙권력, 반면에 무진전쟁 150주년을 더 기억하는 동북부 의 기억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사보다도 역사라는 과목으로 가 르치는 것이 역사공부에 대한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 사라는 과목체계는 근대국가 형성기의 국민 만들기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망명자가 아니라 너무도 많은 망명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존재합니다. 종교적 망명자, 그것보다도 일상적인 것은 직업에 대한 망명자이겠 지요. 자국 내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낯선 다 른 나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갈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직업을 구하 러 간 사람들이 해당 국가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근대 이 후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법으로서의 신분제는 폐지되었지만 현재 생활 속에서 는 너무도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신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 할 때 제가 발표했던 망명자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차별문제도 결국은 국사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먼저 자 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바운더리를 강조하는 국사, 더 나아가면 아마도 민족주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형성시키는 그런 것들 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망명자 문제를 한번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 떨까 싶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개의 나라들은 모두 19세기 노동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도 그렇고, 미국의 대 륙횡단철도는 아마도 중국인 노동자 쿨리(苦力)가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만들어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즉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직업적 망명을 해서 겪었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력이 강해진 이세 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 내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다 더 강한 어려움을 주거나 탄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망명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 분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오데 선생님과 친 팡 선생님 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지금 논의가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큰 담론 중심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 존재로서의 망명자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라고 하는 문제도 한중일의 삼국 간의 경계만이 아니라 내부 경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해 주셨고, 망명에도 정치망명뿐 아니라 노동 망명, 또는 직업 망명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국가와 국가의 경계와 국가 안의 경계가 중복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라운드의 마지막인 친 팡 선생님.

친팡 수도사범대학의 친 팡(秦方)입니다. 앞의 몇 차례의 토론과 오늘 오후의 다섯 번째 세션을 포함하여, 저는 주로 세가지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여성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법률사, 정치사 등 여러 연구 분야에 종사하시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여성사, 법률사라는 구체적인 경계를 뛰어넘는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문제는 현대 구조와 현대 질서의 형성에 관한 내용 입니다.

가령 다섯 번째 세션의 토론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관념과 의제가 현대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제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대의 간행물과 근대 여성의 의제를 토론 할 때, 하나의 출발점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선교사나 서양에서 동아시아로 넘어온 이들을 그 출발점으로 간주 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집단, 혹은 그들이 전하는 지식이나 이야기를 현대 구조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결국 어떤 범주나 언어 발언권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지식의 출발점에 대한초조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포럼은 줄곧 국사를 토론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사실은 국경에 대한 일종의 걱정과 초조함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경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른 국가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호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면, 예를 들어 여성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여성들은 국경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소위 국경을 넘나드는 자매의 우정, 즉 sisterhood라 부르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지요. 이런 트랜스내셔널한 자매 우정은 마침 근대의 생리를 베이스로 현대관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

을 바꿀 수 있다면, 각자가 다루는 국사의 내용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룹에서 주로 논의했던 모빌리티 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두 분 선생님, 시오데 선생님과 한 선생님은 주로 신문 과 정보의 모빌리티, 혹은 중요 인물의 신체적 모빌리티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이 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우리의 연구를 넘는, 또 다른 모빌리티의 가능성에 대 해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령 언어 문제에서, 이 부분은 특히 사회자의 지적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 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라는 역사적 시기에 존재했던 또 하나의 거대한 이동 그 룹, 즉 유학생이 생생한 사례이지요. 그렇다면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언어 에는 일종의 자연 언어적인 성분이 존재했는데, 즉 모국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술 언어, 학술적 표현 및 개념은 전부 당시 외국의 학교 교육 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어를 일종의 사상 구조의 표현이라 고 한다면, 이 유학생들이 학술 사상을 표현할 때, 일종의 모빌리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라는 이 주제에 대해 여전히 더 깊은 차원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네,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식의 기점이라는 문제 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기점을 외부에서만 찾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경계 문제와 관련해서 국경을 넘는 감정, '자매', '우 정'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식, 이성 뿐만 아니라 감정같은 것도 국경을 넘어 서 통할 수 있다는 문제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언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라운드를 마치고 앞으로는 플로어에 넘기겠습니다. 가토리 평의원님께 감상과 토론거리의 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토리 아쓰미재단 평의원 가토리 요시노리(鹿取 克章)입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여러 분들처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라는 단어에서 우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역시 이 세 나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나라의 협력 또는 아시아 전체의 협력이나 대화를 위한 환경 그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제 미타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전후의 흐름을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지역간의 협력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유 럽에서 1957년에 로마 조약이 성립되고, 유럽경제공동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점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방금 전 오카와 선생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역시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회의가 그 이후 아시아의 전개 방향 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저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건너뛰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야기를 하겠습 니다. 유럽에서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생겼고 아시아에서는 1968년에 ASEAN 이 생겨서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30년 전 냉전 구조의 붕괴와 함께 굉장히 큰 다이너미즘을 만들게 됩니다.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되고,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만, 이 냉전 구조의 붕괴라는 것이 아시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20년간 관계가 좋지 않았던 중국과 당시의 소련의 관계도 정상화되었고, 또한국과 중국은 외교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폴과의관계도 정상화시켰고, ASEAN은 당시 6개국이었습니다만 냉전 붕괴 후에 10개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ASEAN이 이렇게 확대된 결과, 중국과 인도와 대륙의 국경을 직접 접하게 됨으로써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SEAN + 3, 또 2005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년이후에는 일중한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새로운 전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국제적인 틀은 일중한 협력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특히 2010년 혹은 2011년 이후,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다시 상당히 안 좋아지고 좀처럼 협력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조성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고 하면, 뿌리에 있는 역사인식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에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합니다만, 아까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중한 뿐만 아니라 이 대화를 어떻게 각각 국내에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98년 일한공동선언, 일중공동선언 등을 통해 꽤나 확실한 역사인식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점에 가보면 실제로 이런 저런 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것저것 말해도 좀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침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친 팡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역시 이 역사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3개국간의 대화를 계속해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 국내에서 이러한 대화를 어떻게 발신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세계사적인 배경을 20세기의 역사, 즉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탈냉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시점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적 대화라는 것이 우리끼리도 중요하지만 역시 확산시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러한 모임의 지속과 확산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다라는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플로워에서 혹시 첫날에 기조강연 코멘트를 해 주신 쏭 쯔융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 * 설 쯔용 남개대학의 쑹 쯔용(宋志勇)입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얻은 수확이 매우 많습니다. 방금 총괄 말씀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의 몇가지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의 이번 국사 대화 회의가 예전에 진행됐던 일중 공동역사연구. 일한 공동역사연구의 경험과 교훈을 섭취해서 민간 대화와 공동 연

구의 여러 특징을 발휘하여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연구성과를 대중적인 혹 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전달하여 간다면. 우리 연구의 효과를 더욱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금 시간의 경계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는 19세기를 1800년에서 1899년까지 확정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시아라는 주 제를 이야기할 때, 실제로는 19세기라는 이 기간 동안, 메이지 유신이 아시아 개 념의 보급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였지요.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고조가 있다면 바로 러일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는 아시아라는 개념의 보급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는 간결하게 끊으면 안되고. 전후를 연결하여 전체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최근에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 시대로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의 역사를 평가할 때, 헤이세이와 레 이와를 갈라놓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현재의 아베 수상은 헤이세 이의 수상이면서 동시에 레이와의 수상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교체되는 이 역사를 단절해서 분석한다면 객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 기정 단절에도 불구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경시를 경계하자는 말씀으로 이 해했습니다. 아시아의 발명 또는 리젼의 생성이라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면면 히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면 다음은 혹시 조광 선생님의 기조강연을 대독해 주신 김경태 선생님께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겠습니다.
 - 김 경태 전남대학교의 김 경태(金 囹黍)입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요. 열심 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국사들의 대화에 1회부터 4회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발표자가 아니고 항상 듣는 입장, 공부하는 입장에서 항상 들어 왔는데요. 이번 이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대화가 되는구 나." 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제가 비교적 짧은 시기를 다루고 있 고, 실제로 각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즉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시 기였기 때문에, 또 연구자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 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연구에서 사용한 사료를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점을 양해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 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나왔던 문제지만 책봉과 조공 문제라든지, 19세기 초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다들 아시고 계시니까 넘어가셨 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시대에서도 반 복되는 문제지만 한국, 일본, 중국 중에 조선이 19세기에서도 약간은 종속 변수, 아니면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양상들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혹은 다른 대안적인 설명 방식이 없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선생님들께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서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김 경태 선생님과 친 팡선생님이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식의 기점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수동적인 이미지로만 봐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하나의 조합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제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중에서 꼭 이것만큼은 내가 반응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있으신 경우에 반응을 해 주십시오. 강제는 아닙니다. 우선 발표자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쿠보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 볼까요? 마지막에 2분 정도 각각드리겠습니다.

오쿠보 이번에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1880년대부터 1894년에 걸쳐 아시아에서 상호 연결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성민 선생님의 김옥균에 대한 발표, 그리고 미타니 선생님, 시오데 선생님의 발표를 비롯해,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옥균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관계로 상징되듯이, 19세기 후반은 일본, 조선, 중국 간에 아시아 연대의 가능성이 여러 형태로 모색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성민 선생님의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후쿠자와 유키치는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에 조선독립당의 가족과 관계자가 처참한 형태로 처형당한 것을 알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후쿠자와 유키치 가 '탈아론'을 집필하게 된 하나의 복선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의 정치문화의 차이를 깨닫고 큰 위화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u>남기정</u>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카와 선생님.

오카와 실은 이번 미타니 선생님 발표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라는 개념은 실은 리젼의 발명이라거나 할까 히에라르키에서 리젼으로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중화사상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히에라르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젼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지역을 특정해서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양화의 압력으로 아시아가 리젼으로 발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음 회의와 연관지어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상당히 나쁜 형태의 아시아주의가 생깁니다. 서양이 가지고 있던 근대 합리주의가 먼저 교착상태에 다다르게 되고, '대동아'라는 형태로 서양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아시아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므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u>남기정</u> 네, 감사합니다. 남 기현 선생님 혹시…

남 기현

예, 저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문화, 그리고 지식, 특히 사람들의 이동이 한중일 간에 많이 나타난 것이 19세기고, 그래서 서로 간의 공통성, 공유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쿠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학생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당시 한국에 있었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했던 것이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과 중국에 가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 일본과 중국에서 배웠던 문화가 무엇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지식을 전파를 하면서 1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꾸어 선생님

무라 가즈아키 선생님께서 매우 의미 있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중국 양무운동이라는 개혁, 혹은 근대적 개혁은 첫째로 군사 개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군사 개혁은 다른 분야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분야의 개혁은 보통 군사 개혁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무라 카즈아키 선생님께서는 일본은 군사 개혁이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

배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박한민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1895년 일본과 조선에서 발생한 페스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페스트는 중국 광저우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는데, 그후 홍콩으로 빠르게 번졌으며 홍콩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대재앙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 의료팀이 홍콩에 갔고 스웨덴 의료진도 있었지요. 나중에아데노 바이러스를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에 대해 쌍방의 논쟁이 있었는데, 국제적으로는 스웨덴의 알렉산드르 예르생(Alexandre Yersin)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과 한국의 페스트가 홍콩의 페스트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907년 중국 동북지역의 페스트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895년의 페스트가 이두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제4세션의 시오데 선생님.

지오데 지금까지의 논의 중에서 특히 아까 친 선생님이 문제제기하셨던 것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스타트 지점을 서양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에서 19세기를 설명할 때 웨스턴 임펙트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대화 전체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서양인이 동아시아에 오지 않았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계기가 서양인의 도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응 방식은 각 나라와 지역에서 굉장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언급한 '주권' 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아편전쟁 후에 도 주권 국가가 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약을 맺고 나서 15년 뒤에 정부가 바뀌었고 또 그 주권의 룰을 주변 국가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도 처음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지만 개국하고 나서는 서양과의 조약을 자신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냐 하면 역시 초기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의 각각의 사회, 정치 상황이 역시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관해서도, 중국과 일본에 서양인이 신문을 들여오기 전의 출판 문화라든지 언론 통제 방식이 그 이후와 상당히 다릅니다. 조선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있지 못합니다만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초기의 조건의 차이라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한성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한 성민

네. 한성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마저 말씀드리지 못한 부 분입니다. 역사의 대중화 문제에 대해서 처음 문제제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역사 의 대중화라는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야 기가 나올 때, 대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전달 내지는 좋은 책을 쓰 는 문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고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의 전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매체에 대한 주도성이 중요한데,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끊 임없이 들었던 이야기는 학자는 논문으로 이야기한다. 좋은 글을 써라라는 것입 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설득함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매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학 자들은 그다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훌륭한 연구를 하고 좋은 글을 쓰 면 내 역할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 그 다음은 고민하지 않는데, 왜 대중은 몰라줄 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것은 학자의 비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00년 전 과 지금의 학자들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 스스로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변신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고 저도 여전히 고민 중이지만, 기존의 틀에서 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교육 체계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것만을 고민해서는 더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또한 어 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학자가 이제는 지금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해 야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친 팡 선생님.

친팡 저는 한성민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저는 사실 이 역할에 대해 낙관적

인 태도를 갖고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령 중국에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 는 한편,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관념이나 관점을 전달하고 있습 니다.

저는 '교육'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분명 위에서 군림한다는 명확한 암시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이 국경 에 주는 충격.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관점과 정보의 흐름은 마치 100 년전 시오데 선생님의 연구주제이기도 한 신문의 보급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도 상당히 낙관적인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남 기정 예,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수렴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마지 막에 그 안에서 다시 발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첩되는 것 같으면서 도 새로운 균열이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적론, 존재론, 인식 론, 실천론을 말씀드렸는데, 실천론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모두 다 공 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셔서 오늘 제일 많이 이 름이 나왔던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히라야마 규슈산업대학의 히라야마 노보루(平山 昇)입니다. 지금 요청이 있었던 점에 대 해서, 한 성민 선생님께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씀해 주셨 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했고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역사 연구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저희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 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희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 겠습니다.

> 여러분 거의 모두가 연구자이시고, 또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입니다. 방금 친 선생님께서는 교육이라는 말이 상하 관계를 포함한다고 말씀하 셨습니다만, 어쨌든 성적을 매긴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이 아니라 '대화와 공유'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대학 수업은 90분입니다. 눈앞의 학생들에게 90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권적인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대학이라는 곳에서 눈앞의 젊은이들과 무엇을 공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화하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중국, 한국, 일본의 대학 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매우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요청받은 부분은 이상입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제자신이 진행하고 싶은 연구 테마의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연구자로서 정말 자극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아까 옆에 계셨 던 박한민 선생님과 교섭하기 싫어도 교섭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각나라에서 연구 해보면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 감염병이 문제가 되는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국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나라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해난구조같은 것이 있습니다. 실은 제 선

183

조는 쓰시마 출신입니다만, 쓰시마라든지 고토열도(五島列島) 등의 나가사키의 섬들은 한반도나 중국으로부터 표류해 온 사람들을 해난구조하는 일들이 옛부터 많았습니다. 이는 물론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도 배는 들어오고 사람들도 그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다 보면 구체적인 레벨에서 우리의 국사들을 상대화하는 시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유 토론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총괄 시간입니다. 미타니 선생님께서 토론의 총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카시 선생님께서 전체 총괄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타니 상당히 많은 논점들이 나왔고, 또 각각 재미있는 논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개인적 관점에서 어느 부분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아직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시아라는 개념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특히 아오야 마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에서는 중화세계질서를 재건하려는 담론이 있다는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오야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시아라든가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일본인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 징보 선생님께서는 중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오야마 선생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 학회에서 이른바 동아시아를 연구하는 분들이 동유라시아라는 좀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화세계질서라는 발상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 선생님들께서는 다른아이디어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쑨 웨이거 선생님이과 쑨 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세계는 이미 균질화되었고 공통성이 보다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아시아나동유라시아처럼 선으로 다른 공간과 경계짓고 그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지, 중국과 그 외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이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그리고 19세기를 다룬 이번 회의가 서양을 받아들일지 말지가 출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친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메이지유신은 미국 사절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양의 수용 여부에 대한 각국의 논의가문제가됩니다. 환영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절대로 받아들이지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또 그 태도도 시기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는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의 수용 여부라는 결론이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이해(利害)의 계산, 그리고 불안과 극복 방법, 그리고 서양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9세기 동아시아 삼국이 경험했던 것은 꽤 심각하

고 어려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개별적인 논점을 말 씀드리자면, 첫째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영국을 비롯한 서양에 의해 국제공공재가 구축되었고 또 제공되어 그것을 각국이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좋 고 싫고를 떠나서 이용했습니다. 국제공공재, 즉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사회기반 시설, 예를 들어 항만의 설비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 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국제법이라는 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인프라와 룰, 이런 것들을 국제공공재라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 의 모든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 선 서양 국제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수용할지 안할지에 대한 문제입 니다. 각국 내부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도 확실히 대응의 차 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국내를 서양화시켰습니다. 불평등조약의 개정이라는 것 이 과제였습니다만, 일본은 조약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를 전면적으로 서양화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비해, 청나라는 조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 기에 서양을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경제적인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 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외교 의례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주변국에서 온 사자(使者)는 '삼궤구고두의 예'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중국의 경우 바꿨는지 어떤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도 근세 때는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결국 메이지 정권 이 생기고 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처 럼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 다. 이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논점입니다. 특히 여기 필리핀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합니다. 처음 마키토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언 급되었습니다만,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고 기독교 신자와 무슬림과의 사이의 분단도 지금 현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논의 대상 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특히 강조되었던 것이 감염병 문 제였습니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팬데믹이 되는 문 제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을 연구하면 어떨지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을 제공한 것도 영국을 비 롯한 서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쿠보 선생님이 처음에 '만국 공법'의 수용과 관련해서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셨습 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근래 수십 년 동안 각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다 고 생각하여 글로벌화를 추장(推獎)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의 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은 이제는 싫다고 말하기 시작했 습니다. 이는 사실 19세기 동아시아 각국이 경험한 것과 주체는 반대가 되었지만 문제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해답 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경험에서 이야기하자면, 초기 경공업 시대에는 일본이 낮

은 관세를 설정해서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목면을 싸게 사서 그것을 실로 만들고 또 그것을 중국에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낮은 관세는 일본 경제를 위해서는 대단히 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지시대 말에 중화학 공업화를 시작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양과 일본의 기술격차가 심해서 일본 내부의 힘만으로는 중화학의 공업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분명했기 때문에 보호 관세를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제품은 계속 저품질인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인도에 체재했을 때 보호 관세를 심하게 책정한 인도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이 함정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냐면제1차 세계대전의 득을 봤습니다. 서양이 자기들끼리 대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밖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기술력이지만 일본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판매해 돈을 벌었고, 그러는 동안 기술력이 높아져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의 논의는 강한 나라가 유리하고 약한 입장의 나라는 불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보호무역을 계속하면 약한 나라는 영원히 경제 발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학의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친 선생님이 의식적으로 방법을 중요시하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미국산 젠더론이라든지, 탈구축론을 사용해서 선명한 해석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 자신은 그런 방법은 잘 알지 못하고 더구나 서양의 방법론을 추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추종하지 않고 서양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델을 만들어서 해석하는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흑백을 가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언어 장벽의 문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경을 만들고 동시에 국경을 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저희들은 지금 동시통역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년 뒤엔 어떨까. 지금은 AI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또 별로 돈을 들이지 않고 통역해 줄 가능성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룰세터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19세기는 분명히 서양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영국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이해(利害)를 위해서 참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외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허 관련 권리 설정이라든지, 특히 새로운 물을 만들려고 할 때 이미 서양인이 먼저 그것을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일본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본인이 툴세터가 되는 것은 이른바 '전후'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존심때문에 이것에 반발하고 새로운 물을 자신이 만들겠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저는 중국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10년 전에 이미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룰세터가 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본위로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룰을 만든다면 아무도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논점입니다만, 저희 학자들이 여론이 부응할 수 있게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보 급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각국 내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 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학교 교원이므로 대학교 안에서, 그리고 교실에서의 교 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중등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쓰는 일. 또 중등교육 선생님들과 대학교 교원들이 함께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법 등을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고교대학연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유행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설정한 역사 커리 큘럼 작성에 관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일본학술 회의라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에서 6년간 위원으로 있으면서 일본사와 세계 사를 통합한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해 제안을 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가 구 체적인 안을 썼습니다.

그런데 쓰긴 썼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그 일부만 채용하고 중요한 부분을 뺐습 니다. 제 제안은 대상을 근세 이후로 제한하고 시간 경과를 따라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축을 세로축으로 하고 여기에 가로축을 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를 들면 글로벌화와 젠더화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금까지의 일본 교과서가 서양사 중심으로 쓰여졌던 것을 역전시켜 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20세기 전 반에 일어난 일본의 이웃 나라에 대한 침략, 가해의 사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이 마지막 부분을 완전히 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도 뺐습니다. 지금 '역사종합' 이라고 해서 실행되려고 하는 커리큘럼은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일본의 젊은 선생님들께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10년 이내에 또다른 새로운 커리큘럼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 를 해서 문부과학성을 설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여론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저는 블로그나 SNS를 아직 쓰고 있 지 않지만 텔레비전에는 가끔 나옵니다. 일본사라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거기에 편승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중요한 것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텔레 비전 측은 미리 확실한 테마를 정해 놓습니다. 일본인에게 인기가 있고 시청률이 높은 전국시대나 유신, 특히 인물 중심의 테마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전 반의 역사인식문제나 일본인에게 어려운 문제는 이런 일반인 대상의 방송에서는 다루어 주지 않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은 보다 좁은 청중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 리는 만듭니다. 전쟁이나 공해 등,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처럼 일본의 공중방송은 상당히 좋은 방송을 많이 만들고 외국의 좋은 방송들도 방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사학자들이 그런 장면에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일본 중등교육에서는 엑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자주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90분 혹은 60분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는 것인데, 저는 어떤 고 등학교의 실험 수업을 견학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 발표하 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것은 일본인 중 지적 능 력이 상위 20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

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우리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민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은 정말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국가간의 가교(架橋) 문제입니다. 국가 간에도 가교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번 회의의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 중요한 지적은 각국의 내부에서도 인 식의 다양성이 역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테마, 예를 들면 감염병이라든지 무역 문제와 같은 것은 국경을 넘어 공동으로 연구할 테마로 걸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간의 공동 연구, 일한, 일중의 공동 연구를 언급하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만, 정부간의 공동 연구는 일본측에서 보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인 분들 중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은 시작하자마자 금방 싫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한 안을 모두 그렇습니다. 결과도 일본측에서 보기에 불충분했습니다. 저는 별로 정부를 신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덕분에 중국과 한국을 싫어하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각국의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세 가지 논점이 다 나왔다고 생각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 대화는 쭉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류 지 에선생님이 첫 날에 총괄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또 충분 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시 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의 조직 멤버들이 다음 회의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한 잠정 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20세기 동아시아를 다루고자 합니다. 테마는 전쟁의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입니다. 내용은,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지식인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왜전쟁을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민들은 정부에 의해 동원당했는데, 동원당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기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국사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국이 어떤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테마가 너무 넓어서 그 다음 회의에서 다루자는 잠정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 네, 아무래도 이틀 동안의 회의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카시 야스시(明石 康) 선생님께 총괄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카시 총괄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굉장히 복잡한 임무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시간

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독하신 조 광 선생님의 개회 인사에 적혀 있던 말이 굉장히 적절하고 또 앞으로 이런 공동 연구에 있어서 지침이라고 할만한 점들을 잘 제시해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논의에서도 명백해졌다고 생각됩니다만 국사들의 대화라는 것이 조 금은 구식이고 또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풍부한 이야기들은 국경을 넘는 개인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사들의 대화' 를 '역사들 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막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 광 선생님이 쓰셨던 부분입니다만, 역사는 민주화로 인해 좋은 방향 으로 향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표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 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유고슬라비아의 유엔 PKO활동 책임자로서 상 당히 무책임한 민주주에 대해 크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유고슬라비 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 라 국민의 44%가 이슬람계, 31%가 세르비아계, 그리고 17%가 크로아티아계 기 독교 교도입니다. 세르비아계라는 것은 세르비아 정교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수결원리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파 의견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민주주의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아의 현실 앞에 유 럽연합에 속하는 나라들은 실제로 다수의 의견만을 듣고 즉 새로운 헌법측에 입 각해서 일들을 결정해갔습니다. 여기에 유고슬라비아 분쟁의 깊은 뿌리가 있고 또 여러 민족과 종족, 종교간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이 오래 지속되었던 원인이 있 는 것입니다. 6만명의 NATO군을 파견해도 대응할 수 없었던 근본 원인이 여기 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굉장히 유감스러운 미국의 정치 현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이 수백 년간 지속해 온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으면서도 트럼 프와 같은 포퓰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불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 주주의는 최악의 제도이다. 다만, 다른 모든 제도를 제외한다면" 이라는 처칠의 유명한 역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중우(衆愚)가 되기 쉽지만 다른 제도보다 는 낫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실로 풍부하고 복잡함을 겸비한 것들이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의견의 일치도 있었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독자들은 많은 시사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의 이마니시 씨를 비롯해 이 회의에 관련된 여러분 들께서 앞으로 녹초가 돼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때까지 계속해 주셨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회의를 확실한 형태로 하면서 또 최소한 3개국어로 계 속한다는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가 유고슬라비아 분쟁에서 스레브레니차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 꼭 25주년에 해당하는 해이므로 12일에 귀국해서 13일 오후에 릿쿄대학교 심 포지움에서 「스레브레니차 유엔 PKO」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론으로 법, 정치, 민족적 측면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

기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잘못하면 일면화(一面化)되기 쉬운 구미적인 비극의취급 방식이 아닌 이러한 다면적인 어프로치가, 즉 동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말로 간단하게 낙인을 찍거나 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연구에 종사한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너무나도 훌륭한 이틀 동안의 논의를 들으면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깊이 공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국경을 무시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재자와의 교섭술(独裁者との交渉術)』이라는 조금은 센세이셔널한 제목의 책, 이것은 출판사가 붙인 것입니다만 이런 책을 냈습니다. 교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일대일의 대화,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소수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눈을 보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부기(付記)해 두겠습니다.

이마니시

이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5회 프로젝트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마지막 회가 됩니다만, 조금 더 하자는 압력같은 것을 느끼고 있어서 조금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든 프로젝트여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아쓰미재단은 장학재단이므로 여기 오셨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들의 일에 반영되는 것을 제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 회의는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알려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참가해 주시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메일 매거진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겨우 갖추어졌습니다. 이 회의는 3개국어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에세이도 3개국어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하나씩 보내는 것이 최대한입니다만 앞으로 좀더 자주 발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세이 내용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 미디어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매우 기대됩니다. 이런 이유로 원고를 저희 쪽에서 부탁드리는 일도 있겠지만, 부탁드리지 않아도 이런 것을 발신하고 싶다, 혹은 일중한에 보내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발신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남 기정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의 강연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스스로에게 해 주시 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3개 국어 통역해 주신 통역자 분들에게 박수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코멘트

쑨 웨이궈 선생님의 코멘트(p.60)에 대한 회답

한 승훈

(고려대학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회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쑨 웨이궈 선생님께서는 제게 너무나 유익한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코멘트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쑨 웨이궈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쑨 웨이궈 선생님께서는 "(동아시아) 3국은 불평등조약체계에서 처해 있던 위계가 완전히 달랐고 결코 운명 공동체로도 볼 수 없는 상황" 이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쑨 웨이궈 선생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주목했 던 바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불평등조 약체제"를 통해서 동아시아를 자유무역이 관 철되는 지역으로 재편하였으며, 그 재편 속에서 조선, 청국, 일본이 "동일한 조건" 에 처해졌다 는 사실입니다. 저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 아시아 3국이 "운명 공동체" 로 인식하였던 사 실을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리와 청조 관리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쑨 웨이궈 선생님의 지적처럼 "위계" 에 의해서 조선, 청조, 일본이 서로를 "운명 공 동체"로 인식한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코멘트를 기초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관세"에 집중해서 발표문을 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관료들이 국가 재정 확충과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관세"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쑨 웨이궈 선생님 의 말씀처럼, 저는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포 괄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 발표문은 단편적인 구조를 보이는 것 또한 사 실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1880년대 동아시아 3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대"를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근대사 연구가 주로 "개항 이후 외세의 침략"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평화로운 시대"를 찾는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미래를 위한 역사적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 중국, 일본 역사학자들이 모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종료 후에 보내주셨습니다.)

동아시아에 부는 새로운 바람

이 귀시 이 사 시 (明石康, UN 사무차장 역임)

[번역: 홍성민]

'아시아 미래회의' 가 이번 달(2020년 1월) 중순에 닷새 간에 걸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대회 회장으로서 참석하였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한 국, 중국, 일본 3개국에서도 새로운 긍정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피 부로 느낄 수 있었다.

회의는 글로벌화에 따른 아시아의 여러 문제를 과학기술의 개발과 경영 분석 만이 아니라 환경, 정치, 교육, 예술,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여러 외국에서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 한 외국인 학생에게 박사학위 취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 는 아쓰미(渥美)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여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 씨가 상무 이사로서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 미래회의는 지금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에서 격년으로 개최 되었고 이번이 다섯 번 째이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적 공유형 성장 - 모두의 고 향, 모두의 행복'으로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부의 격차에 대해 고찰하였다.

회의는 과거에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20대 후반에서 30대를 중심으로 하여 약 300명이 참가하였다. 불교신자가 많은 태국과 미얀마, 이슬람신자가 다 수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기독교도가 많은 필리핀 등 매우 다양했는데, 동 남아시아의 이슬람교도는 일반적으로 온건한 이슬람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압 도적으로 많아 보였다. 이슬람 여성들은 얼굴을 부르카로 감싼 사람이 많았고 화 려한 색채가 많았다.

회의에서는 과거 네 차례에 비견될만한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솔직하고도 생 기넘치는 젊은이다운 의견이 오고갔다. 특히 각각의 직업과 전문영역을 반영한 의견이 광범위하게 오고갔다.

태국에서 참가한 젊은 불교 스님은 "내재적인 평화야말로 외적인 평화의 기초 가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참가자는 온라인 기술 이용에 따 른 평화교육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언하였다. 기타큐슈(北九州) 시 립대학 박사과정의 일본인 여성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법에 의한 화 해를 추진해야할지, 아니면 공동체의 전통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 등 평화를 구축 해 나가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고 많은 참가 자들이 복잡화된 현대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는 모습이 엿보였다.

의견교환과는 별개로 한중일 3개국의 소장역사학자로 구성된 연구회도 개최되

아카시 야스시 (明石 康)

었다. 3개 국어 동시통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의 국수주의적 내지는 지정 학적인 관점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역사관이 저류를 이루고 있음을 느 꼈다. 논의에도 참가한 도쿄대학의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씨와 와세다대학의 류지에(劉傑) 씨 등이 이러한 새로운 역사관의 중핵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

특히 19세기 한중일 3개국의 상호접촉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기초하여 솔직한 토론이 이루어져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유럽에서 독일과 프 랑스 등이 국가를 넘어선 공통의 역사관에 도 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공통된 역사관이 탄생함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반응 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물론 역 사 문제는 어느 시대에도 복잡하게 뒤얽혀있 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완성되리라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이번 '아시아 미래회의'는 동아시아 지역 공통의 글로벌화 시대가 도래해 왔음을 알려 주는 내용이었지만, 이것이 민족주의나 국수 주의를 결정적으로 넘어섰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21세기 초두에 있었던 혼란과 대립이 앞 으로도 빈발할 위험성이 사라질지도 불투명 하다.

그렇지만 많은 소장학자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앞 세대의 사람들 과는 달리 편견이 많지 않고, 국적과 국경을 넘어선 견해가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견교환은 그 한 예에 불과하겠지만, 현대 아시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밝은 희망의 불빛을 감지할 수 있게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키타 사키가케 신보(秋田魁新報) 2020년 1월 24일자 조간에서 전재함.)

제4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레포트

김 경태 (金 颐泰, 전남대학교)

제4회「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원탁회의는 2020년 1월 9 일과 10일 필리핀 알라방시 벨레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제5회 아시 아미래회의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동아시아' 의 탄생 : 19세 기 국제질서의 전환]이었다. 세 나라에서 각각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연 구자들이 3명씩 참여하였다. 세부 주제는 「서양의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이었다.

참가자들이 필리핀에 입국한 1월 8일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있었다. 아카시 야 스시(明石康) 선생은 환영 인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자들이 모임을 가지 는 것의 의미가 크며,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였다. 과연 발표자들이 느꼈던 부담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1월 9일, 워탁회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개회 인사와 환영 인사, 기조 강연이 서 두를 장식했다. 와세다 대학의 류지에(劉傑) 선생은 본 원탁회의의 취지, 3회까 지의 회고. 그리고 이번 회의의 주제와 목표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특히 역사와 역사학에 대한 국면에 큰 변화가 찾아온 현재, 대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역사 대중화' 의 시대에 역사연구자가 처한 전에 없던 상황에 대 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조광(趙珖)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개회 인사가 있었다. 아쉽 게도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국사의 민주화]를 통해 역사를 동아시아의 공유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은 의미가 깊은 내용이 었다.

제5회 아시아미래회의의 개최장소인 필리핀대학 로스바뇨스 캠퍼스의 마키토 선생의 환영 인사는 '동아시아' 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도 그 시야를 세계 전 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미타니 히로시 선생의 기조 강연은 ['아시아' 의 발명—19세기 리전(region) 의 생성—」이라는 주제였다. 이번 회의의 대주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아시아' 가 동아시아에 도입되는 과정, 19세기 후반 서양에 대항하기 위한 지정학적 개념 으로 전환된 '아시아', 그리고 20세기의 전쟁 시기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 위치

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과정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전망하면서, 과연 '동아시아' 삼국 간에 대등질서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 역사기억이라는 것의 존재감 등을 공통적인 질문으로 제시해주었다. 참가들에게는 원탁회의가 국가 간의 대립 완화의 자원이 될 것이며, 그 자체가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가능하면 서로의 말을 잘 듣고 잘 대화해주기를 부탁했다.

기조 강연에 대해서는 쏭쯔융(宋志勇) 선생의 코멘트가 있었다. '아시아' 개념 도입 이전 동아시아의 발전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우리'의 관점에서의 연 구, 즉 '아시아' 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 여한 박한민(朴漢珉) 선생은 '아시아'가 한국사에서 도입되고 사용된 사례에 대 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본격적인 발표 세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표 세션(제2세션)의 주제는 '서양의 인식'이었다. 일본의 오쿠보 다케하루(大久保健晴) 선생의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법'의 수용—일본의 경우—」, 한국의 한승훈(韓承勳) 선생의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 조약 극복 가능성과 한계—1880년대 초, 조선의 문호개방정책을 중심으로—」(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여 박한민 선생이 대독), 중국의 쑨칭(孫靑) 선생의 「마등경영(魔灯鏡影) —18~20세기 중국의 매직랜턴 상영과 제작, 그리고 전파— 발표가 있었다. 모두 전파와 영향, 변용이라는 양상을 다룬 흥미로운 주제였다.

각 세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짧은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오쿠보 선생에게는 두종류의 『만국공법』이 미친 영향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마틴이 번역한 『만국공법』이 주류였으나, 피세링의 『만국공법』이 대안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코멘트 중에서는 조선이 조약 개정을 시도하며 『만국공법』을 활용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서양에서 전파된 새로운 '사상'이 각 국에서 수용되는 모습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일은 이와 같이 각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국제관계에 비추어, 상대국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19세기의 경험을 살려 현대 국제관계에서 활용할 지혜를 얻자는 제언이었다.

한승훈 선생에게는 조선이 시도한 불평등조약의 개정 노력의 실효성, 조선과 청 사이의 조약 불평등성에 대한 조선의 생각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불평등 조 약'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용어인지에 대한 고민(예를 들면 관세 문제, 형식 적 평등과 결과적 불평등 문제 등)은 본 세션에서 제기된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쑨칭 선생에게는 서양에서 유입된 '매직랜턴'은 중국의 전통적 그림자 놀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면에서 충격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쑨칭 선생은 이에 대해 선교사의 역할, 그들이 이전까지 중국인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보게 해준 것,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었던 겨울에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흥밋거리를 제공한 것이 포교효과를 높였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1월 9일의 오후에는 나머지 두 세션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발표 세션의 주제는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였다. 일본의 오카와 마코토(大川真) 선생의 「18・19세기 女性天皇・女系天皇論」, 한국의 남기현(南基玄) 선생의 「일본민법의 형

성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적용—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중심으로—」, 중국 의 꾸어 웨이똥(郭衛東) 선생의 「전통과 제도 개혁―19세기 후반기 중국의 양무 운동—」이 발표되었다. 세션 주제와 같이 도전적인 문제제기가 눈에 띄었다.

오카와 선생에게는 서구에서 수입된 여성론이 일본에 수용된 방식, 당시의 여 성 천황론이 현 시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답변에서 는 당시와 현재의 공통적인 점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지 적했다. 여성 천황 문제를 두고 최근 일본에서 남녀간의 의견차가 불거졌으며, 젊 은이들이 큰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남기현 선생에게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법 적용 방식의 특수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총독 데라우치는 독자적 법역을 구 상했으나 일본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의용' 이라는 편리한 방식을 사용한 것 이라고 하였다. 꾸어 웨이똥 선생에게는 양무운동의 역사적 평가의 변천사 등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이 있었다.

세 번째 발표 세션의 주제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이었다. 일본의 시오 데 히로유키(塩出浩之) 선생의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19세기 후반 동아시 아의 영어신문・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 한국의 한성민(韓成敏) 선생의「金 玉均의 일본 亡命에 대한 日本社會의 인식과 대응], 중국의 친팡(秦方) 선생의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 프레임에 관한 재고」가 발표되었 다. 사람, 사람들, 그리고 사람에 의해 전송되는 정보에 주목한 연구였다. 이동을 다루면서도 각각 그 전송의 매개체를 달리 설정한 것이 흥미로웠다.

한성민 선생에게는 1890년대 일본은 민관을 불문하고 조선이 청이나 러시아에 게 지배되는 상황을 두려워했고, 그 끝에 조선을 지배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김옥균이 일본에서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중국으 로 갈 때의 여권 발급 주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옥균 암살을 일본 정부가 알 면서도 협력적으로 움직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친팡 선생에게는 당시 일본 역시 문명국으로 보이기 위한 '여성 교육' 을 시행 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리고 '여성해방' 이 반드시 여성을 자유롭게 하지는 않았 다는 지적에 동의하는 견해가 있었다. 물론 이 의견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친팡 선생은 여성 지위를 근대 화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한다고 하였다.

시오데 선생에게는 당시 신문에 들어갈 정보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일본의 정보가 언론이 아닌 청 정부를 통해 조선에 전달되 는 사례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1월 9일의 대화는 류지에 선생의 마무리 발언과 함께 종료되었다. 류지에 선생 은 이날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국제질서의 전환을 각 국이 받아들인 시 기에 주목한다면 각 국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이어서 책봉-조 공 개념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공-책봉체제의 종결과 조 약체제의 시작은 과연 등호로 연결되는 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1월 10일의 두 세션은 토론으로만 구성되었다. 발표와 간단한 토론만으로 첫 째 날의 세션을 구성하고. 다음 날은 첫째 날 제기된 논제를 기반으로 한 토론과 답변으로만 구성하는 방식은 이전의 회의에서도 시도되었던 바이나. 이번에는 이

전의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참가자 모두의 호평이 있었다.

지정토론자로는 아오야마 하루토시(青山治世), 히라야마 노보루(平山昇), 박한민(朴漢珉), 쑨 웨이궈(孫衛国) 선생이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자리에 함께한 여러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틀에 걸친 일정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미타니 선생은 토론에 앞서, 전날 제시된 여러 논점들을 토대로 이날 더 진전된 토론이 기대된다고 하였으며, 연구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앞으로 서로를 연구 파트너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남겼다.

1월 10일의 첫 세션은 지정 토론자들이 준비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아오야 마 선생은 먼저 '동아시아'의 상대화를 제안했다. 일본 내에서 '동아시아'라는 틀은 일본이 중심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동아시아' 개념의 무비판적 사용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소개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개정 교육기본법을 소개하며 '국사'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도 공유하였다.

히라야마 선생은 각국 연구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을 함께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통점으로는 전근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과도기가 공유되고 있다는 점, 기독교와 선교사가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국사 전공자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 다는 발견을 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대화가 가능한 연구자들이 자국으로 돌 아가서 얼마나 자국 국민과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역사 대중화' 와 정치의 역사 개입을 어느 나라나 경계해야할 바이며, 연 구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한민 선생은 서구로부터 유입된 근대의 여러 요소들의 조선에서의 양상을 상세히 소개해주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조선이 다양한 지식들을 서구를 통 해 직접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습도 주목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새로 이 '유입' 된 것으로서 질병에도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쑨 웨이궈 선생은 '동아시아' 탄생의 의미에 대해 제언했다. 민족국가 출현과함께 조공-책봉 체제와 한자문화권이 붕괴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통역을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것, 그리고 이전의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쉬징보(徐靜波) 선생은 중국에서의 '아시아', '동아시아'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마지막 세션은 남기정(南基正) 선생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 사회자의 질문과 문제제기와 플로어 참가자의 질문에 이어, 이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듣 는 방식이었다.

류지에 선생은 19세기는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났는지, 즉 책봉체제의 종말이 언제인지, 그리고 한중일이 공통된 역사인식이 가능하며, 새로운 역사관을 만들 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무라 가즈아키(村和明) 선생은 전통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은 간단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생각, 전통 역시 새로이 만들어 진 것이라는 문제 의식 을 제시했다. 또한 세 나라의 역사를 합한다고 '동아시아사' 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나라의 어떤 존재들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변화 속에 있는 과거의 잔영 및 큰 흐름 아래에 있는 작은 존재들에 착목해주

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평하오(彭浩) 선생은 이번 발표에서 보여준 새로운 연구 방법에 인상 깊었다고 하였다. 한편 역사 연구와 대중, 정치 사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구자는 스스 로를 상대화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끼리는 공통의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교과서 와 대중대상의 매체에서 반영될 때, 이를 냉정히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된다고 하였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동의하였다. 19세기 전반에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도 함께 다루었어야 한다는 것. '불평등 조약' 과 같이 '개국' 의 시점과 형 태에 대해서도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역사 수정주의' 대한 경계, 서력의 도 입이 가지는 '동아시아' 에서의 의미, 19세기에서 현재까지의 연속성과 20세기의 단절성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지. 19세기 노동이민 문제의 경험을 가진 세 나 라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 에 대한 고민 등이 공유되었다. 한편 이때까지의 대화를 통해 분야사를 넘어 현대질서의 형성에 대한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었고, 국경선과 역사적 감정도 넘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논평도 있었다. 이날의 토론 세션에서는 2010년 이후 한중일 관계에서 역사인식 문제가 매우 중 요해졌고 따라서 이 대화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이 대화를 자국에 서 어떻게 발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지적도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평가를 남겼다. 19세기 후반은 '아시아 연대' 가 모색되면서도 서로의 차이에 위화감을 느끼던 시기이다. 21세기에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과제 중 하나이다. 19세기 중화질서의 이 념과 지리적 공간의 전환은 중요한 변화였다. 다만 이를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형 대로 가지고 갔던 움직임은 좋지 않은 결과였다. 19세기에 다양한 요소들의 교류 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인적 교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조약에 대한 대응의 차이는 초기 조건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 대중화는 좋 은 글보다 매체가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다. 연구자가 변신을 꾀할 때이다. 21 세기의 지식인으로서 대중과 평등한 시선으로 지식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연구 자이자 교육자로서 이러한 고민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 등이었다.

미타니 선생은 다음과 같은 평가로 본 대화를 총괄하였다. 먼저 이번 대화에서 는 '아시아' 라는 관점의 타당성 여부가 논의되었다는 것, 19세기는 서양을 받아 들일 지에 대해 고민을 한 시기로서 각국의 대응 방식에 차이를 확인했다는 것,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토론자가 언급하였으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전염병 문제는 이 시기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로 중요할 것이라는 점 을 지적했다. 이어서 현 시점에서의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 역사 대중화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21세기의 국제관계에서 자국에만 유리한 룰을 만든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점, 연구자들이 성과를 전달하고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가 계속되어야 하며. 충분히 가능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아카시 선생은 '국사들의 대화' 가 궁극적으로 '역사들의 대화' 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는 한편으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논의가 일 치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많은 교훈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대화 를 끝까지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제4회 '국사들의 대화'에서는 지난 3회까지의 회의에 비해 훨씬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참가자들이 이전에 비해 매우 밀접한 교류가 전개되기 시작한 시대인 19세기 후반을 전공하고 있었던 것, 따라서 사건과 인물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제3의 지역에 와 있었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한국사'가 대체로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국제정세의 변화상과도 연계하여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국을 보는시각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동시통역사들의 노고와 활약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상대국의 언어구사가 가능한 연구자들이 있어(대개 일본어였지만)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회의라는 형식을 넘어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다면, 국사들의 대화는 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역시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실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월 12일 스터디 투어를 마친 후에도 국사들의 대화 멤버들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따알(Taal) 화산이 분화했던 것이다. 덕분에 귀국 일이 며칠 연장되고, 국사들의 대화 멤버들도 호텔에서 마주칠 때마다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있었다. 약간의 불편은 있었으나 화산 근처에 있던 주민들의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

(국사 메일 매거진 「Kokushi Email Newsletter #14」」에서 전재함.)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틈새에

―제4회 '국사(國史)들의 대화' 원탁회의를 마치고―

오카와 마코토 (大川真,주오대학)

[번역: 조 수일]

"나는 영구혁명이라는 건, 결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체제의 내용에 대해 논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주의(主義)에 대해 영구혁명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만이 영구혁명이란 이름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즉 인민의 지배라고 하는 건 영원한 패러독스이기 때문이지요. 루소의 입버릇은 아니지만, 어떤 시대가 돼도 '지배'는 소수의 다수에 대한 관계로, '인 민의 지배'라는 건 그것 자체가 역설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프로세스 로서, 운동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옛 그리스에서도 그랬고, 자본주의가 돼도 사회 주의가 돼도, 요구로서의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자발적 선택에 따를 지, '객관적' 선을 위에서 강압할 것인지는 부단히 등장하는 딜레마입니다." (마루 야마 마사오(丸山眞男) 인터뷰 [마루야마 마사오 씨의 사상과 행동-5·19와 지식 인의 '궤적' -」『주간독서인(週刊読書人)』1960년 9월 19일호)

2020년 1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필리핀 알라방 시 벨뷰 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국사들의 대화' 원탁회의 〈'동아시아' 의 탄생 - 19세기의 국제질서 전환-〉 에 참가하였다. 필리핀 방문과 '국사들의 대화' 참가 자체가 처음이었지만, 행사 종료 후의 화산 폭발로 인한 예기치 못한 체재를 포함하여 매우 인상 깊고 뜻 깊 은 국제심포지엄이었다.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신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의 이마니 시 준코 상무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올린다.

이틀에 걸친 개별발표, 전체토론을 전부 다루는 것은 지면에 제한이 있다(※ SGRA 뉴스레터 806호에 김경태 선생님의 리포트가 게재되어 있으니 개요를 파 악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리포트도 참고 바람). 개인적으로는 1월 12일에 따알 (Taal) 화산이 분화한 후의 예기치 못한 수일간의 체재가 지금도 눈에 선하고, 동 행한 분들과의 기억을 쓰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회의 중에 나온 미타니 히로시(三 谷博) 선생님과 아카시 야스시(明石康) 선생님의 발언이 아직도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소개하고 사견을 조금 덧붙 이고자 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두 분 선생님의 발언취지는 필자에 의한 정리라는 점을 밝혀 둔다. 당일의 발언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되 는데, 이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우선, '미타니 선생님의 발언' 이란 첫 날 기조강연에서 말씀하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다.

"한중일 세 나라는 각기 정치체제 또한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은 민주 주의국가지만, 중국은 공산주의국가다. 이 세 나라가 정치체제의 차이를 뛰어넘 어, 어떻게 공존공영해 나갈지는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미타니 선생님은 저서『애국·혁명·민주(愛国·革命·民主)』(지쿠마쇼보(筑摩書房), 2013년) 등에서, 근대화와 공론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계시는데, 일련의 연구에서 '공론'과 '폭력'의 친화성을 지적하신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공론'의이름을 빌려 권력자는 자기의 정치주장을 정당화하고, 이론을 제기하는 자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만들어 내는 일이 때로 있기 때문이다. '공론'이 the consensus (of opinion)라는 면에 치우치지 않고, 또 처참한 폭력에 기대는 일 없이, 다양성을 수반한 public opinion으로 승화하는 것이 1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공통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떨까. 과제해결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가. 오히려 최근에는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 아카시 야스시 선생님은 원탁회의 총괄 인사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

"'민주주의'는 무조건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과 더불어 소수자에 대한 존중도 원리로서 성립한다.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전자만이 존중되고 후자가 경시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독일 정치학자 얀 베르너 뮐러는 포퓰리즘 정치가의 발언에서 "진정한' (authentic) 인민, 민족"대 "배제해야 할 인민, 민족"이라는 우적(友敵)론적 구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포퓰리즘은 무엇인가』).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에서의 폴리아키적인 요소의 고조가 요구되지만, 희망적인 관측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폴리아키적인 요소가 고조되면, 현행 정치질서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이실현된 현대의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권력자의 정권유지에 대한 고집뿐만 아니라, '자유'가 아닌 '안정'을 요구하기 십상인 민중의 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공론'이 폴리아키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포퓰리즘 정치에 대항해 가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9세기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조금 더 밝은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제적, 독재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신문·잡지가 탄생하였고, public opinion으로서의 '공론'이 갖는 힘은 그 나라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최대의 위협이었다. 또 전대(前代)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진 국경을 초월한 이동과 교류는 레이시즘이 얼마나 천박하고 어리석은지를 백일하에 드러내어, 국제적인 공동체 구상을 동아시아 세계에서 처음 의식하게끔 하는 데 이르렀다.

일본사상사 연구자인 나는 18세기를 산 위대한 선인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넓은 견문과 사실에 기반한 것이 학문이다. 고로 학문의 당연한 귀결은 역사를 배우는 것에 있다."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소라이 선생 답문서(徂徠先生答問書)』상)

(국사 메일 매거진 「Kokushi Email Newsletter #15」」에서 전재함.)

19세기 '동아시아' 역사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

남 기혀 (南基玄, 성균관대학교)

2020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알라방시 벨레뷰 호텔에서 열렸던 제4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이하 '국사들의 대화') 원탁회 의에 참석했다. 회의의 주제는 < '동아시아' 의 탄생 -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 이었다. 19세기는 서양 국가들이 한국, 중국, 일본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 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상 상력이 만들어졌다. '동아시아' 가 탄생하던 19세기, 한국, 중국, 일본은 서양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은 각국의 전통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 하고 생각해보자는 것이 회의의 취지였다.

'국사들의 대화'는 '제5회 아시아미래회의'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는 것 이었다. 일정은 1월 8일 입국 및 저녁 만찬. 1월 9일 세션 발표. 1월 10일 전체 토론, 1월 11일 필리핀 대학 로스 바뇨스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미래회의 분과발표 참관, 1월 12일 마닐라 역사 투어, 1월 13일 귀국 이었다. 개인적으로 는 일주일정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학술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 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느끼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 글에서는 '국사들의 대화' 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전체적인 소감을 가볍게 적으려고 한다.

1월 8일 벨레뷰 호텔에 도착한 후 회의 참가를 위한 등록이 시작되었다. 이 때 솔직히 놀랐던 것은 등록과정이 매우 체계적이었다는 것이다. 방 배정, 여비계산 등의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속했고, 많은 분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아시아미래회의' 로고가 찍혀있는 자주빛 가방, 물통, 수첩, 한국어·중국어·일본어로 각각 준비된 자료집, 아시아미래회의 분과발표 자료집들도 제공되었다. 일주일동안 열심히 생각하고,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8일 '국사들의 대화' 발표자. 토론자들이 모두 참여했던 저녁만찬도 기억에 남는다. 발표 세션별로 자리를 배치하고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가 속 해있던 테이블은 제3세션 발표자, 토론자들이 식사하던 곳이었다. 처음에는 어 색하고 낯선 느낌이 많이 들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느낌이 사라지 게 되었다. 특히 첫 식사자리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날까지 필자에게 호의를 베풀 어주신 히라야마 노보루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1월 9일 9시부터 '국사들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총 4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조광 선생님의 개회인사, F.마끼또 선생님의 환영인사,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제2세션부터 제4세션까지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의 연구자들이 발표를 한 후 질의와 응답이 진행되었다. 1월 10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전날 발표 및 토론에 대한 강평이 있었고, 발표자 토론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에 걸쳐 기조강연 포함 총 10개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오쿠보 다케하루 선생님의 발표에서 다루어진 '만국공법'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유럽 국제법이 아시아 근대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나아가 당시 아시아 세계에서 국제법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은 매우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중국, 일본나아가 아시아에서 국제법 수용의 방식의 공통점,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쑨칭 선생님의 발표에서는 서양의 기술, 전파, 전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서양의 근대적 기술 등과 같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식으로 소화한 층이 있었다. 그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위치와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오카와 마코토 선생님은 $18 \cdot 19$ 세기 여계(女系)천황론 논의를 분석하고, 이 것을 기반으로 한, 중, 일의 역사에서 여성 왕들의 즉위와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떠 했는지, 그리고 천황제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한, 중, 일에서 여성의 사회, 정치 사회 진출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해 질문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는 한국사회 내에서 중요하게 논쟁이 되고 있다. 오카와 선생님의 발표는 18, 19세기, 그리고 그 이전의 사례들을 근거로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를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성의 '해방'에 관해 재사고(再思考) 할 것을 주장한 친팡 선생님의 발표도 인상적이었다. 여성의 모빌리티(이동)가 당시 사람들에게 미화되어 여성해방의 상징이 되었으며, 여성의 '해방'은 식민주의에 지탱되었던 언론패권의 역사적 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여성이 공공공간에 진출할 때 어떤 찬스와 도전을 만나는지를 질문했다. 한국에서 여성 '해방'이라는 용어 의식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19세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되었다.

꾸어 웨이똥 선생님의 발표는 양무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양무운동은 한국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재이다. 양무운동에서 변법자강운동으로 이어지는 근대 중국의 개혁 흐름은 당시 한국의 정치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한국에서도 여러 개혁이 시도되었다.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등이 그것인데, 양무운동이 중국사회에 미친 영향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님은 영어신문, 중국어신문, 일본어신문의 보도와 언론의 유통을 통해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공공권이 탄생했음을 논증했다. 이러한 내용

을 바탕으로 19세기 중국, 조선에서 국경관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19세기 중국, 조선, 일본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경험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 해 질문했다. 한국에서는 1898년 『황성신문』이, 1904년에는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되었다. 두 신문은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기 전까지 한국사회에 가장 영향력 이 있던 신문이었다. 이 신문들에는 해외의 상황, 중국, 일본의 상황에 대한 기사 들이 적지 않게 실렸다. 두 신문을 통해 이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당시 국내외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오데 선생님의 발표는 언론의 보도, 유통, 그리고 그 것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19세기 한국, 중국, 일본은 서양의 출현과 이에 대응이라는 공통적인 과제가 있었다.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체제와 마찰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상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일본, 중국 선생님들의 발표와 문제제기는 한국사를 공부하 는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국사들의 대화' 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2일 동안 끊임없이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2일 동안 '국사들의 대화' 는 필자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19세기 한국, 중국, 일본 사회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월 10일 전체토론 시간에서 크게 느꼈던 것이 있다. 한성민 선생님이 '역사의 대중화' ,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 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중국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이 크게 동의했다. '역사의 대중화', '역사의 효율적 전달'은 역 사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연구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공통의 고민을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 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국사들의 대화'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다. 2일이라는 시간이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국사들의 대 화'가 중요한 논점이 많이 제기된 회의였기 때문일 것이다. 회의 기간에 제기되 었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킬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사들의 대화' 를 준비해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신 아쓰미 국제교 류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동시통역에 신경을 써 주셨기 때문에 '국사들의 대화' 가 언어의 장벽을 최소화하고 진행될 수 있었다. 어려운 역사적 용어를 통역하시느라 고생하신 통역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마닐라 역사 투어를 마칠 때 즈음 필리핀에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따알화산이 터진 것 이다. 필리핀 공항이 폐쇄되면서 다음 날 귀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에 더 머물러야 했다. 자연재해가 주최 측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텔 예약과 안전한 귀국에 신경을 써주신 점도 감사드린다.

(국사 메일 매거진 「Kokushi Email Newsletter #16」에서 전재함.)

맹으며 5

중국에 있어서의 "북양" 개념의 변천

꾸어 웨이똥 (郭衛東,북경대학)

[번역: 김 단실]

필자는 연초에 아쓰미 국제교류재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분들과 만남을 가지고 심도있는 담론과 논문들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타니 히로시 교수의 발제 《'아시아'의 발명: 19세기 리전(region)의 생성》을 인상 깊게 경청했다. "동양" "서양" 등 번역어의 일본에서의 쓰임새와 그 변화를 고찰하는 안목과 거침없는 논술은 흥미로웠고 필자의 사색을 자아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동양" "서양" 이란 워딩이 나왔으면 "남양" "북양" 이란 용어도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으로 오늘은 기타 "양" 에 대한언급은 할애하고 중국에 있어서의 "북양" 개념의 생성과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근세 이전의 중국에서 "북양"은 단지 지역적 개념이었다. 오랫동안 중국인들의 지리 방위(方位)에 관한 인식은 동이(东夷), 서융(西戎), 남만(南蛮), 북적(北秋)이라는 식으로 대륙 범위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당시 바다는 천연의 방벽이었고 주목받는 일은 없었다. "북양"이라는 워딩이 초기에 등장한 것은 필자가 알기로는 대략 송 시기였는데 "북양에서는 산동으로 들어가고 남양에서는 강남으로 들어간다"(文天祥《文山先生全集》권13"별집", 4부시리즈 경명본 305쪽)"라고 기술된 것을 보면 강과 접한 중국 근해를 지칭했던 것 같다. 그런데 명나라때 중국에 건너온 예수교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경우 "북양"이라는 통념을 답습하지 않았고 그가 비교적 많이 인용한 컨셉은 "서양"이였다. 문헌들을 살펴보면 명조에 이르러 "서양"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눈에 띄는 반면에" 북양"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남북의 지리적 개념도 모호했으며 청 이후도 여전히 뒤범벅이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건륭(乾隆) 시기의 기록물에 "춘계 하천 범람기 해양 회동 순시 상주문에 이르기를 남양과 북양으로 가서 합류하여 공동순시할 예정으로 접경지대에 다달았는데 온주진(镇), 정해진(현재 주산군도.역자주)의 병선(兵船)은 그때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春汛巡洋会哨一折, 內称前往南洋, 北洋会哨, 至交界地方, 缘温州镇,定海镇兵船尚未到汛. (《大清高宗纯皇帝实录》권1327, 건륭 54년4월 신해)"라는 대목이 있다. 이 문맥에서 "북양"은 여전히 절강(浙江) 등 남부 지역을 가리켰다. 그런데 가경(嘉庆) 시기에 들어서면서 "상해, 숭명, 해문, 통주에는 북

양을 익히 아는 자들이 있어 손님이나 화물을 배에 싣고 관동, 천진, 등래, 교주 사이를 빈번히 오갔다" (陈文述《颐道堂集》문초권1, 가경12년 각본908쪽) 라 는 기술이 나온다. 도광(道光)시기에도 "상선들이 화물을 싣고 항행하여 북양까 지 갔고 산동, 직예(直隶), 봉천(奉天) 여러 도시에 가져다가 판매했다" (《大清宣 宗成皇帝实录》권79, 도광5년2月癸亥) 라는 기록이 있다.가경 도광 연간에는 "북 양"은 이미 전적으로 중국 북방 근해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43년에 간행된《해국도지海国图志》에서는 "북양"의 범위가 극단 적으로 확장되어 북극해와 그 남쪽에 펼쳐진 유럽과 아시아의 부분 지역으로 연 결된 여러 해양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발트해의 일부분과 그린란드 주변 해역까 지 망라하고 있다. 이 책에서 "북양" 의 범위는 굉장히 모호하여 상술한 지역을 가리킨 경우들도 있지만 주로 러시아를 지칭한 것으로 여러 권에 나누어 전문적 으로 기술했다.

제2차 아편전쟁 시기에 접어들어 "북양" 개념에는 또 한번 변화가 발생한다. 청정부는 전후하여 "남양대신" 과 "북양대신" 을 두는데 1859년1월29일 원래 양 광(两广)총독이 겸직했던 각국과의 통상사무를 양강(两江)총독이 인수받아 전담 하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남양대신" 이라는 직책이였다.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은 더 많은 항구도시를 개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때 만약 종전대로 "남양대신" 이 중국 전체의 통상도시 사무를 겸직하여 관장한다면 그 범 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1861년1월20일 조정의 명령으로 북방의 우장(牛庄--현재 영구시. 역자주), 천진, 등주(登州-현재 연대.역자주)를 분리시켜 천진에 신설한 삼구통상대신의 관할하에 두었는데 이것이 "북양대신"의 원형이었다. 비 교적 초기에 "북양통상대신" 이란 직함이 언급된 것은 1867년 10월 12일자 조서이 다. "남북양 통상 대신에 명한다 양무에 능숙한 요원들 중에서 각 2명씩 선발하여 10월에 명단을 보내도록 하라" (《大清穆宗毅皇帝实录》권 211, 同治六年九月乙丑)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남북양"을 병기했고 "북양"을 단독거론하는 경우는 없 었으며 그 마저도 조정의 일부 문서에 간혹 등장할 따름이였다.

1870년11월20일, 천진교안(教案) 발생시 "삼구통상대신" 이 관할구역 관리 권을 가지지 못했기에 외국과의 충돌을 빚었던 교훈을 살려 "삼구대신" 을 폐지 하고 정식으로 직예(直隶)총독이 겸직하며 황제로부터 "신인(信印)"을 발부 받 은 "북양대신"을 두었다. 이홍장(李鸿章)이 초대 대신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부 터 직예총독과 북양대신은 상호 연결된 관직으로 고정된다. 이 직무에 관하여 《흠정대청회전(钦定大清会典)》의《총리각국사무아문편(总理各国事务衙门篇)》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북양대신은 일 인이며 북양의 양무, 해양 방어 정 령을 관장함과 동시에 진해(津海), 동해, 山海 각 관(関)의 관정(関政) 전반을 통치한다". 북양대신은 삼구 사무이외에 중앙 외교를 관장하게 되어 있고 "북양" 의 함의도 일층 확대되어 예컨대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1888년에 제정된 《북양해 군장정(章程)》을 통해 "북양" 사무를 외교에 그치지 않고 군사영역으로 확장시 켰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북양기계제조국", "북양관(官)철도국", "북양병기 총국" 등이 설립되었다. 그 후 "북양" 이라는 용어는 날이 갈수록 간략해지고 널 리 보급되어 사용되었다. 그 결과 북양대학, 북양병원, 북양상점, 북양 관보(官 报), 북양대약방과 같은 명칭들이 쏟아져 왔다.

1894년 갑오전쟁이 발발한 후 이홍장의 "북양" 외교는 절정에 도달했다.그러나 전쟁이 실패로 치닫으면서 이홍장은 직예총독의 좌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북양" 외교는 급기야 종지부를 찍었다. 주로 외교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던 북양대신의 최초 역할 설정은 무색해졌다.

갑오전쟁 이후 원세개는 새롭게 편성된 신군 훈련에 박차를 가하여 "북양군벌"의 기틀을 다졌고 이 시점에서 "북양"이 뜻하는 바가 재차 변질하여 외교적 의미는 완전 퇴색되고 오로지 군벌 일파의 명칭이 된 것이다. 민국 이후 북양군벌통치시기는 "직예"라는 지역적 함의마저 사라져 "북양"은 오로지 하나의 통치집단의 명칭으로 전락했다.

간추리면 "북양" 은 남과 북을 아우르는 모호한 쓰임새로 출발하여 지칭 범위가 북방으로 정해졌고 후일 러시아까지 확장되었다가 중국 근해로 좁혀졌다. 또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가 관직과 군벌 계파의 명칭으로 되고 그 외연이 외교에서 정치 경제 군사 상업 분야로 차츰 확장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처럼 "북양" 워딩의 변화에는 근세 이전부터 근대에 이르는 중국 역사의 변천 궤적들이 투영되어 있어 풍부한 시대정신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편집자로부터 "나와 역사연구"라는 제목으로 참가소감 집필 의뢰를 받았는데 연구사례를 하나 공유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상기 고찰을 공유하기로 했다,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역사연구의 접근법은 다양하지만 다음 두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역사의 흔적들은 흔히 정태적 형식으로 소리없이 존재하므로 문헌의 발굴과 독해에 심혈을 기울여 사료에 숨결을 부어넣어 살아 숨쉬게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야만 진실된 역사를 기술해 낼수 있다.

둘째, 역사는 생물이며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기 마련이다.따라서 기나긴 역사속에서 시간 공간의 전환이 일어난 관건 포인트를 유심히 포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사 메일 매거진 「Kokushi Email Newsletter #17」에서 전재함.)

19세기 이후의 감염병 유행과 동아시아

박 하민 (朴 漢珉, 동국대학교)

2020년 1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4회 '국사들의 대화'에 참석하면서 19세기 동아시아 한, 중, 일 삼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각국을 대표하는 여러 연 구자들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이때 세 나라를 공동으로 묶어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감염병 유행을 다룰 수 있다면 좋겠다고 토론 자리에서 발언한 적이 있다. 이때는 19세기 들어 각국에서 주기적으로 유행하면서 치사율이 높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콜레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귀국하는 도중 현지에서 따알 화 산(TAAL Mountain)이 폭발하여 마닐라에서 체류하는 일정이 조금 길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신 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모 든 이슈는 코로나가 집어삼키게 되었던 것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 러스 자료센터(Coronavirus Resource Center)에서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통 계자료에 따르면, 1월 22일에는 감염자 수가 555명이었다. 3월 11일 세계보건 기구(WHO)에서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 을 인정하면서 판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이때 감염자수는 12만 명을 넘 어서고 있었다. 현 시점(6월30일 현재)에는 감염자가 10,302,867명에 사망자가 505,518명에 이르렀다(http://coronavirus.jhu.edu). 판데믹 선언으로부터 세 달 반이 지나는 동안 감염자가 약 8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국으로 신종 감염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2020년 상반기 전인류의 일상생 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수시로 손 소 독 등을 통해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일상이 된 것이다. 사회적 거 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시하면서 다중(多衆)과 접촉할 기회를 최소한으 로 줄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류의 역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 시대와 유행 이후의 새로운 시대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감염병 의 출현과 대유행이 각국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면서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인류 역사에서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 19~20세기의 콜레라와 페스트, 인플루엔자(스페인 독감)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이후로는 사스(SARS, 2003), 신종플루(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2009), 메르스(MERS, 2015)가 등장

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이 등장하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한 감염병으로 콜레라에 대응한 양상을 조선의 개항장 사례를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 감염병 유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향후의 연구방향이나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세기 들어 동아시아 3국은 서구열강과 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때 개항장을 정기적으로 오고 가는 항로가 개설되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해금(海禁)을 실시하던 전근대 시기보다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콜레라 같은 질병이 정기 항로와 연계되어 각 지역으로 쉽게 전파되고, 내지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인도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콜레라가 당시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의 선박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것이다(윌리엄 맥닐 지음, 김우영 옮김,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2005).

콜레라는 1820년대 초부터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생하였는데, 20세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조선의 경우 1821년에 청국을 통해 유입되 었으며, 괴질(怪疾)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인명피해가 컸다. 1879년에도 콜레라 가 대규모로 창궐하였다. 일본 에히메 현(愛媛県)에서 3월부터 콜레라가 발생하 였는데, 전국적으로 162,63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105,786명이 사망했다고 한 다(内海孝『感染症の近代史』山川出版社, 2016, 92 쪽), 황현(黄玹)의『梅泉野錄』 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6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 이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당시 콜레라는 부산과 나가사키(長崎)를 왕복 하는 선박을 통해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로 유입되었다. 조선과 일본의 관리들은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독 실시, 피병원(避病院) 설치와 환자격리 등 대응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콜레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침을 담은 「虎列刺 豫防竝取扱方規則 | 이 조선정부로 전달되었다. 이 규칙은 일본에서 고시되었던 「虎列刺病豫防心得」(1877)과「虎列刺病豫防假規則」(1879)의 내용을 조합하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대리공사(代理公使)가 예조판서(禮曹判書) 홍우 창(洪祐昌)에게 전달한 것이다. 최신의 예방 정보에 기초하여 양국 관리가 공조 하면서 콜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와중에 문명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상대국의 '불결(不潔)' 함을 강조하는 인식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 해관에서 개항장으로 들어오는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규칙을 제정하고 소독을 실시하려는 모습은 1886년부터 나타났다. 다만 이때 아직 조선의 세 개항장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역규칙이 제정되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개항장에 주재하던 조선 관리를 비롯하여 각국 영사, 해관 세무사 등은 검역시행 문제를 두고 원만하게 협조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소독을 실시하는 주체와 대상의 설정,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두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랐으며, 누가 주도하는가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소독 문제, 피병원 입원환자의 비용부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청국 상하이(上海) 조계나 이탈리아의 운영사례까지 참고하려 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국 주재 영사들을 통해 개항장 검역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고, 이것을 타국 내 논의에서

도 활용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유리하게 논의 국면을 이끌어 나가려 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개항장과 조계 내 검역 문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운영 사례까지 동시에 아우르면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1887년 조선정부는「朝鮮通商口防備瘟疫暫設章程」을 제정하였다. 검역규칙 을 정부 차원에서 작성하고, 초안을 각국 외교관에게 회람하여 동의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임시 검역규칙이었으므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동안 여러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개항장에 근무하는 일본영사들 가운데는 거류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완규칙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측 검역규칙의 실효성 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 출하기도 했다. 자국 거류민들의 상업활동을 조선 내에서 확장하려는 입장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검역문제가 단순히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 는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으며,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문 제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영국이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집트의 수에즈 운하, 일본의 개항장에서 검역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려는 요구사 항을 관철시킨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영미권에서 출간된 마크 해리슨(Mark Harrison)의 저서도 감염병과 상업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다루고 있 는 데 (Contagion: How commerce has spread disease, Yale University Press, 2012),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연구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청일전 쟁 시기부터는 콜레라와 더불어 페스트의 유행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각국이 어떻게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자들이 다루었다. 조선정부의 경우 갑오개혁을 진행하는 동안 위생국(衛生局)을 설치하였으며, 각종 감염병 예방규칙을 제정, 반포하면서 위생과 방역문제에 적 극적으로 대응해 나간 과정을 검토해 왔다.

콜레라. 페스트를 비롯하여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 으로 유행하면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감염병이 출현했을 때 각국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었는가는 앞으로 주요 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개별적인 사례연구는 적 지 않으나,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감염병 유행과 그에 따른 대 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폭넓게 조망하는 작업은 학제적으로 공동연구가 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1894년부터 1910년대 초까지 동아시아 각지에서 유행 한 페스트를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내어놓은 성과물은 주목해 볼 만한 공동 연구이다(永島剛・市川智生・飯島渉編『衛生と近代:ペスト流行にみる東アジ アの統治・医療・社会』法政大学出版局、2017)、 위생을 둘러싼 전통과 근대적 인 식의 충돌, 문명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 거류지/조계 내 방역 실시를 둘러싼 협조와 갈등, 검역 주권과 불평등조약의 충돌, 식민지의 방역활동과 제국 주의 통치 등은 감염병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일 것이다. 새로운 감 염병의 출현과 세계적 유행은 인류에게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동대응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코로나 바 이러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백신을 개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는 하겠지만, 각국의 연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치열하게 연구에 매진하고 있

SGRA 28 REPORT

는 만큼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찾아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 기를 기원한다.

(국사 메일 매거진 「Kokushi Email Newsletter #18」에서 전재함.)

저자약력

■ 미타니 히로시 / MITANI Hiroshi

1978 년 도쿄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국사학전문과정 박사과정 단위취득 후 퇴학. 도쿄대학 문학부 조수, 가쿠슈 인여자단기대학 전임강사 · 조교수를 거쳐, 1988년부터 도 쿄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이후 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 구과 교수 등을 역임. 현재 아토미학원여자대학 교수, 도쿄 대학 명예교수. 문학 박사 (도쿄대학). 전공분야는 19 세기 일본의 정치외교사, 동아시아지역사, 내셔널리즘 · 민주화 · 혁명의 비교사, 역사학 방법론.

治変動』(山川出版社, 1997)、『明治維新を考える』(岩波 書店, 2012),『愛国・革命・民主』(筑摩書房, 2013) 등. 공저는『国境を越える歴史認識-日中対話の試み』(劉傑・ 楊大慶과 공저, 東京大学出版会, 2006) 등 다수.

■ 오쿠보 다케하루 / OKUBO Takeharu

게이오의숙대학 법학부 교수. 박사(정치학). 전공은 동양정 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 특히, 18~19세기 네덜란드와 일 본의 교류에 주목하여 초기근대에서 근대로 도달하는 서양 과 동아시아의 외교, 경제, 학술, 법을 둘러싼 교섭사를 문화 횡단적 시점에서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 도쿄도립대학대학 원 사회과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전임 준교수, 네덜란드 라이덴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객원연구원, 게이오의숙대학 법학부 준교수 등을 역임한 후 2019 년부터 현직.

주요 저작으로는『近代日本の政治構想とオランダ』(東 京大学出版会, 2010 년), The Quest for Civilization — Encounters with Dutch Jurisprudence, Political Economy and Statistics at the Dawn of Modern Japan—(translated by David Noble, Brill, 2014) 등이 있다.

■ 한 승훈 / HAN Seunghoon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 교 한국사학과에서 「19 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연구 (1874~1895): 조선의 균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 계 정립과 균열」로 박사 학위 취득. 주로 근대 시기 한국과 서양 열강의 관계 정립 및 전개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에는 세계적인 글로벌화의 역사 속에서의 한국인의 삶과 궤 적에 관심이 많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 이 갖는 함의」,「변경의 접촉지대, 그리고 거문도(巨文島) 의 탄생」,「1920 년 동아일보의 아일랜드 독립전쟁 보도 태도와 그 의미」, 등의 논문과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공저). 『3.1 운동 100 년』 (1 · 4) (공저) 등을 집필했다.

■ 쑨 칭 / SUN Qing

복단대학 역사학과 준교수. 전문 분야는 중국근현대사, 문 화사, 교육사, 사학사, 중외문화교류, 지식과 근대사회, 제 도개혁 등이다. 최근에는 강소(江蘇) · 절강(浙江) · 상해 주변 지방사료 및 근대 신문 잡지 수집과 연구에 힘쓰고 있 다. 또한 당시 사회, 교육, 사법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중국의 지식과 근대화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는 『晚清之"西政"东渐与本土回应』(世纪出 版集团上海书店出版社, 2009 년 10 월). (「2007년도 상해 마르크스주의 및 철학사회과학학술저작물 출판지원금 을 받았고 성부(省部) 레벨의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 오카와 마코토 / OKAWA Makoto

1974 년 군마현에서 태어남. 도호쿠대학 문학부 졸업. 동대학원 문학연구과 문화과학전공 일본사상사전공분야 박사후기과정 수료. 박사(문학). 도호쿠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조교, 요시노 사쿠조오(吉野作造) 기념관 관장을 역임했고,현재 주오대학 문학부 인문사회학과 철학전공 준교수. 전공은 일본사상사, 문화사, 정신사, 일본정치사상사.

주요 저서『근세왕권론과 '정명(正名)'의 전회사(転回史)』 (御茶ノ水書房, 2012 년). 주요 논문은「사무라이의 나라에 들여온 '미국': 일본의 데모크라시에 대해 생각한다」 (『淡江日本論叢』32호, 淡江大学日本語文学系, 2015 년』, 「요시노 사쿠조오의 중국론: 대화 20 개조로부터 워싱턴회의까지」(『吉野作造研究』제 14 호, 2018 년) 등.

■남 기현 / NAM KiHyun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 박사 졸업. 캐나다 브리티시컬 럼비아대학교 한국학센터 방문학자. 가천대학교, 경운대학 교, 금오공과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 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주요 논문으로는.

- · 「일제하 조선토지조사사업 계획안의 변경 과정」, 『사림』 32, 2009.
- · 「조선토지조사사업 진행방식의 다양성, 창원군과 마산부의 비교」, 『대동문화연구』 82, 2013.
- ·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선인, 2014.
- · 「'경무대 앞 발포사건' 책임자 처벌 재판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22, 2016.
- · [1909 년 국민대연설회 전후 대한협회의 행보], [인문과학연구] 24, 2017.

■ 꾸어 웨이똥 / GUO Weidong

중국 북경대학 역사학부 교수. 1986 년 북경대학대학원 중국근현대사 전공 수료 후 북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중국중외관계사연구회 이사, 북경시 역사학회 이사. 연구 분야는 중외관계사, 중국근현대사.

주요 저서로는 『불평등조약과 근대중국』, 『중토기독(中土基督)』, 『전환-중기중영관계와 남경조약을 중심으로-』, 『중국근대특수교육사연구』, 『중외구약장 보편(清朝)』 등.

■시오데 히로유키/ SHIODE Hiroyuki

1997 년, 도쿄대학 교양학부 졸업. 2004 년 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박사(학술). 현재교토대학교 문학연구과 준교수. 연구분야는 일본근대사,일본정치사.

そ요저서:『岡倉天心と大川周明-「アジア」を考えた知識人たち』(山川出版社, 2011 년),『越境者の政治史-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년),『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編著,東京大学出版会, 2016 년)

■한 성민 / HAN Sungmin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 동국대학교 강사,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고, 현 재 대전대학교 강사, 강의전담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 사로 재직 중.

주요 연구 논저로는 「개항 후 (1882-1894) 청국의 치외법권 행사와 조선의 대응」『한국근현대사연구』(2007. 12), 「을사조약 이후 한, 청 간 치외법권 연구 (1906~1910)」『한국근현대사연구』(2008. 9), 「일본정부의 안중근 재판 개입과 그 불법성」『사학연구』(2009. 12), 「구라치 데츠키치(倉知鐵吉)의 '韓國併合'계획 입안과 활동」『한국근현대사연구』(2010. 9), 「황실특파유학생의 동맹퇴교운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역사와 현실』(2014. 9), 「제 2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特使에 대한 일본의 대응」『한일관계사연구』(2015. 8), 「乙巳條約 이후 일본의 '韓國併合'과정 연구」박사학위논문(2016. 8), 「일본정부의 '韓國併合'과정 연구」박사학위논문(2016. 8), 「일본정부의 '韓國併合'실행계획 수립 과정:「구라치 案」과「아키야마案」의 비교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2018. 6), 「망명자 김옥균(金玉均)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처우와 조선정책(1884~1890)」『역사와 현실』(2018. 9) 등이 있다.

■친 팡/Qin Fang

수도사범대학역사학원준교수. 2005~2011, 미네소타대학, 박사 학위. 2002~2005, 남개대학 역사학원, 석사 학위. 1998~2002, 남개대학 역사학원, 학사 학위.

주요논문: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 근대의〈七出〉〈三不去〉언론의 변천」『婦女研究論叢』, 2018 년 12 월 제 6 호. (이논문은『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2019 년 제 2 호에 전재함.)

「만들어 진 呂碧城: 청말 여성의 공중 이미지의 형성과 전파」『南開学報』(哲学社会科学版), 2018 년 3 월제 2 호.(이 논문은『歷史와 社会(文摘)』2018 년 6 월 제 2 호, 『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2018 년 8 월 제 4 호, 『新華文摘』(인터넷版) 2018 년 제 14 호 등에 전재함.)

「유폐에서 가출로: 청말민초 여성의 궁경: 해방에 관한 언론의 형성과 실천」『婦女研究論叢』, 2017 년 7 월 제 4 호. (이 논문은『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2017 년 10 월 제 5 호,『新華文摘』(인터넷版) 2018 년 제 5 호, 남개부녀·성별사 학술포럼 (인터넷版) 에 전재함.)

Co-authored with Emily Bruce, "Our Girls Have Grown Up in the Family": Educating German and Chinese Girl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 1, 2016; Later the revised version was collected in A History of the Girl: Formation, Education, and Identity, edited by Mary O' Dowd and June Purvis, Palgrave Macmillan, 2018, pp. 103-122.

「근대 반전족 언론하의 시각과 차이: 19 세기 말 天津 天足会를 중심으로」『婦女研究論叢』, 2016 년 5 월 제 3 호. (이 논문은『歷史記述에 있어서의 여성의 말 건축: 중국부녀/성별사연구발취』(中国書籍出版社, 2017 년) 에 전재함.)

제4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탄생 :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원탁회의 참가자 리스트

_					
	이름 (영어)	이름 (일본어)	이름 (한국어)	이름 (중국어)	소속 (한국어)
발표지		I to the total		I to the tab units	N . 1 & 41 & N = 3
1	Okubo Takeharu	大久保健晴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健晴	게이오의숙대학
2	Han Seunghoon	韓承勳	한 승훈	韩承勋	고려대학교
3	Sun Qing	孫青	쑨 칭	孙青	복단대학
4	Okawa Makoto	大川真	오카와 마코토	大川真	주오대학
5	Nam Kihyun	南基玄	남기현	南基玄	성균관대학교
6	Guo Weidong	郭衛東	꾸어 웨이똥	郭卫东	북경대학
7	Shiode Hiroyuki	塩出浩之	시오데 히로유키	盐出浩之	교토대학
8	Han Sungmin	韓成敏	한 성민	韩成敏	대전대학교
9	Qin Fang	秦方	친 팡	秦方	수도사범대학
	자 / 실행위원	halls mode	_ ~	lictoria	
10	Cho Kwang	趙珖	조 광	赵珖	국사편찬위원회
11	Mitani Hiroshi	三谷 博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여자대학
12	Song Zhiyong	宋 志勇	쏭 쯔융	宋志勇	남개대학
실행		I			
13	Liu Jie	劉傑	류지에	刘杰	와세다대학
14	Mura Kazuaki	村 和明	무라 가즈아키	村和明	도쿄대학
15	Li Enmin	李 恩民	리 언민	李恩民	오비린대학
16	Xu Jingbo	徐 静波	쉬 징보	徐静波	복단대학
17	Peng Hao	彭浩	평 하오	彭浩	오사카시립대학
18	Kim Kyongtae	金 キョンテ	김 경태	金四泰	전남대학교
19	Kim Bumsu	金 範洙	김 범수	金范洙	도쿄학예대학
20	Nam Kijeong	南 基正	남 기정	南基正	서울대학교
21	Sun Junyue	孫 軍悦	쑨 쭌위에	孙军悦	도쿄대학
22	Min Dongyup	閔 東曄	민 동엽	闵东晔	도쿄대학
23	Liang Yihua	梁 奕華	량 이후아	梁奕华	도쿄외국어대학
동시통역					
24	Ding Li	丁莉	정 리	丁莉	북경대학
25	Song Gang	宋 剛	송 강	宋刚	북경외국어대학
26	Jin Danshi	金 丹実	김 단실	金丹实	프리랜서
27	Lee Hyeri	李 恵利	이 혜리	李恵利	한국외국어대학
28	Ahn Younghee	安 ヨンヒ	안 영희	安暎姫	서울외국어대학대학원
29	Cai Lianchun	蔡 連春	차이 리엔춘	蔡连春	북경대학
초대	토론자				
30	Aoyama Harutoshi	青山治世	아오야마 하루토시	青山治世	아세아대학
31	Hirayama Noboru	平山 昇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升	규슈산업대 학
32	Park Hanmin	朴 漢珉	박 한민	朴汉珉	동국대학교
33	Sun Weiguo	孫 衛国	쑨 웨이궈	孙卫国	남개다학
번역					
34	Piao Xian	朴賢	박 현	朴贤	교토대학
35	Cho Guk	趙国	조 국	赵国	서울대학교
36	Hong Yongil	洪 龍日	홍 용일	洪龙日	도쿄대학
37	Luo Feng	駱 豊	뤄 평	骆丰	와세다대학
38	Hong Sungmin	洪 性珉	홍 성민	洪性珉	와세다대학
39	Cho Suil	趙 秀一	조 수일	赵秀一	동국대학교
40	Xie Fang	解放	씨에 팡	解放	도쿄외국어대학
41	Li Kotetsu	李 鋼哲	리 코테츠	李刚哲	호쿠리쿠대학
42	Han Kyoungja	韓 京子	한 경자	韩京子	아오야마학원대학
레포!	트 편집자	<u> </u>			
43	Nagai Ayumi	長井亜弓	나가이 아유미	长井亚弓	아쓰미재단
실행	위원 / 스탭	<u></u>			
44	Imanishi Junko	今西淳子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재단
45	Tsunoda Eiichi	角田英一	쓰노다 에이이치	角田英一	아쓰미재단
46	Honda Yasuko	本多康子	혼다 야스코	本多康子	아쓰미재단
	i	1	<u> </u>		I The state of the

SGRA レポート バックナンバーのご案内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 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煕、李 來賛 2001. 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歩」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 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 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バート、高 偉俊 2001. 10. 10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 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 IT 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臼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蒋 恵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 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7.8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ブレンサイン 2002.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プートゥラ、孟 健軍、B.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 2003. 1. 31 発行、 韓国語版 2003. 3. 31 発行、中国語版 2003. 5. 30 発行、英語版 2003. 3. 6 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 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発行
- SGRA レポート17 第10 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 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 発行、英語版2003. 6. 6 発行
- SGRA レポート18 第11 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 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栄濬 2003. 12. 4 発行
- SGRA レポート20 第1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 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 発行
- SGRA レポート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2004. 6.30発行
- SGRA レポート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23 第13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5 第14 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 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鎔、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ポート26 第1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 1. 24発行
- SGRA レポート27 第1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ヂ、朴 栄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8 第1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煕、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9 第18 回フォーラム・第4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 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0 第19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 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発行
- SGRA レポート31 第20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マキト 2006. 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2 第21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留学生-」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パーブ・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3 第2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4 第23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薗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ーヤ、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5 第24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6 第2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冨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37 第1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38 第6 回日韓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39 第2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0 第2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ヤー・ムシカシントー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1 第28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薗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ーヤ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42 第2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 年―無理解と失敗から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1発行
- SGRA レポート44 第29 回フォーラム講演録「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45 第30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発行
- SGRA レポート46 第31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発行
- SGRA レポート47 第3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8発行
- SGRA レポート48 第3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一 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 年」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 SGRA レポート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発行
- SGRA レポート50 第8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発行
- SGRA レポート51 第3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52 第3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 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ィ、 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 SGRA レポート53 第4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 TABLE FOR TWO ~」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 SGRA レポート54 第3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 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玄田有史 シム チュン 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55 第38 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木村建一、高 偉俊、
 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
 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栄珠、王 剣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56 第5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 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57 第39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 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薗 進、陳 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 均 2011. 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59 第10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 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 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 1. 10発行
- SGRA レポート60 第40 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 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 チャン 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発行
- SGRA レポート61 第41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惠市、黒柳米司、朴 榮濬、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62第6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郭 偉2012.6.15発行
- SGRA レポート64 第43 回 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発行
- SGRA レポート65 第44 回 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曺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発行
- SGRA レポート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 年)」(日本語・英語・中国語)沼田貞昭 2013. 10. 20発行
- SGRA レポート67 第12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煕、木宮正史、李 元徳、金 敬黙 2014. 2. 25発行
- SGRA レポート68 第7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 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69 第45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 村瀬信也、南 基正、李 成日、林 泉忠、福原裕二、朴 栄濬 2014. 10. 20発行
- SGRA レポート70 第46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 智、上原芳枝、ヴィラーグ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 佳英 2015. 4. 20発行
- SGRA レポート71 第47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 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 と倫理 - 」崔 勝媛、島薗 進、平川秀幸 2015. 5. 25発行
- SGRA レポート72 第8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発行

- SGRAレボート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ー物流を中心に」李 鎮奎、金 雄煕、榊原英資、安 秉民、ド マン ホーン、李 鋼哲 2015. 11. 10発行
- SGRA レボート74 第49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 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名 2016. 6. 20発行
- SGRA レボート75 第50回 SGRA 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神﨑智子、斉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発行
- SGRAレボート76 第9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二百年—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 建輝 2020. 6. 18発行
- SGRA レポート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共進化アーキテキチャの模索」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発行
- SGRA レボート78 第51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える―」南基正、木宮正史、朴栄濬、宋均営、林泉忠、都築勉 2017. 3. 27発行
- SGRA レポート79 第52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 劉傑、趙珖、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発行
- SGRA レポート80 第16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 金雄煕、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発行
- SGRA レポート81 第56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 2回―」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発行
- SGRA レポート82 第57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2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蒙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桄、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83 第58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一帯一路』の地政学」朱建栄、李彦銘、朴栄 濬、古賀慶、朴准儀 2018.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84 第11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塚本麿充、呉孟晋 2019. 5. 17発行
- SGRA レポート85 第17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 孫赫相、朱建栄、文炅錬 2019.11.22発行
- SGRA レポート86 第59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7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戦乱から安定へ―」三谷博、劉傑、趙珖、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許泰玖、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妵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87 第 61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 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ンチョル、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SGRA レポート88第12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映画交流の可能性」刈間文俊、王衆一 2020.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89 第62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世界を変える時…?——不都合な真実を超えて」 ルウェリン・ヒューズ、ハンス = ヨゼフ・フェル、朴准儀、高偉俊、葉文昌、佐藤健太、近藤恵 2019. 11. 1発行
- レポートご希望の方は、SGRA 事務局 (Tel: 03-3943-7612 Email: sgra@aisf.or.jp) へご連絡ください。

SGRA 레포트 No.90

제 63회 SGRA 포럼

제 4 회「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원탁회의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편집·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전자 메일: sgra@aisf.or.jp

발행일 2021년 2월 11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今西 淳子)

한국어판 감수 민 동엽 (閔 東曄) 인쇄 (株) 平河工業社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본지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락주세요.

©Sekiguchi Grobal Research Association Copying is Prohibited.For inquiries or quotes, please contact us.

^{NO.}90

제 4 회 제63 회 SGRA 포럼

4 ই ^{*} গ্

·동아시아, 의 탄생: 19세기 각제질서의 전화 가능성

SERA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